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양상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오기노 신사쿠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양상 연구

지도교수 구 본 관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오기노 신사쿠

오기노 신사쿠의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김 호 정 (인)

부위원장 남 가 영 (인)

위 원 박 민 신 (인)

위 원 최 형 용 (인)

위 원 구 본 관 (인)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양상을 사용과 오류의 두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 일본의 한국어교육에서 조사 교수·학습 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내용을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먼저 이 연구의 연구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그간 조사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과 관련된 연구의 부재와 일본의 한국어교육에서의 구어에 대한 수요에 따른 교수·학습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였다. 그다음에 선행연구를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관련 연구,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관련 연구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 사용과 관련하여 ① 격조사 외의 다양한 조사의 사용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 ② 학습 수준에 따른 조사 사용에 대한 유사통사적인 교수·학습 자료, ③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에 대한 실용적인 교수·학습 자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연구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초급 수준의 조사 26개를 의미·기능에 따라 다시 분류한 총 35개의 조사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여 총 80명(초급 35명, 중급 25명, 고급 20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 56,664어절(초급 18,819어절, 중급 18,684어절, 고급 19,161어절)의 구어 자료를 마련하였다.

Ⅱ장에서는 한국어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적인 논의를 마련하였다. 먼저 1절에서 구어에서의 한국어 조사 사용의 특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국어 구어의 특성과 유형, 한국어 조사의 분류 체계와 구어에서 사용되는 조사 항목과 형태를 각각 살펴보았다. 그다음으로 2절에서는 한국어 조사 오류의 특성을 분명히 하였다. 구어에서의 오류 특성에 따라 통제적 처리 단계를 넘어 자동적 처리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를 오류 범위로 설정하고 목표어와 모어의 영향에 따라 예측이 가능한 조사 오류의 유형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일본에서의 한국어 조사 교육 현황을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통해 분석하여 조사 교수·학습 내용의 실제를 밝히고 교재에서 제시 빈도의 영향에 따른 오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재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는 교재마다 조사 항목의 제시나 설명에 차이가 큰 가운데 전체적으로 조사 오류와 관련된 설명은 풍부하게 기술되는 반면,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랑'이나 생략 및 축약형의 제시는 충분하지 않음을 밝힐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1절에서는 조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Ⅰ장 3절에 기술한 연구 대상 및 방법 중 구어 자료의 수집 방법과 수집된 구어 자료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특히 구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인터뷰를 선택한 이유,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의 주제와 선정 이유, 인터뷰의 구어 유형적 특성과 이에 따른 구어 자료의 특성(양방향 격식체 일반: 사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2절에서는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양상을 조사 유형과 조사 항목에 따라 사용 수 및 사용 비율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조사 유형에 따른 사용 수는 격조사와 보조사는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고 접속조사는 학습 수준과 상관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사용 비율은 학습 수준과 상관없이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65:30:5의 비율로 사용됨을 밝혔다. 조사 항목에 따른 사용 수는 격조사 중 주격조사 '이', 보조사 중 '은', 접속조사 중 '이나'가 가장 많았다. 또한, 격조사는 주격조사 '이'의 사용 내 비율은 35%에 불과하였으나 목적격조사 '을'과 부사격조사 '에'를 포함하면 70%를 넘었다. 보조사도 '은'에 '도'를 포함하면 사용 내 비율이 약 90%를 넘어섰으며 격조사와 보조사는 일부의 조사 항목이 조사 사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기능을 지닌 조사를 중심으로 각 조사 항목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과 사용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모든 조사 항목에서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해당 조사가 지닌 다양한 의미·기능을 사용하는 양상이 보인 반면, 목적격조사 '을', 서술격조사 '이다', 부사격조사 '에서', 보조사 '만'은 90% 이상이 학습 수준과 상관없이 해당 조사가 지닌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만으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사용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교재에서 조사 제시 빈도에 따른 사용이다. 특히 초급 학습자가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접속조사로서 '이랑'이 아니라 '하고'를 사용하고 목적격조사 '을'의 축약형인 'ㄹ'이나 보조사 '은'의 축약형인 'ㄴ'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는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해당 조사가 제시된 빈도가 크게 관련이 있었다. 또한, 서술격조사 '이다'나 보조사 '이나'의 사용 수가 매우 적은 것도 '이다'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제시나 보조사 '이나' 자체에 대한 제시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밝혔다. 둘째, 유사한 의미·기능을 지닌 조사 사이의 편중된 사용이다. 특히 중급과 고급 학습자가 부사격조사 '으로'와 '에'에 존재하는 유사한 의미·기능 간에서 잘 보였다. '으로'는 수단과 자격의 의미·기능으로 잘 사용되는 반면, '에'는 진행 방향과 원인의 의미·기능으로 잘 사용됨을 밝혔다. 셋째, 모어에서 습득된 언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사 사용이다. 보조사 '이', '을', '만', '이나'의 전체 혹은 일부 의미·기능의 사용에 있어 모어인 일본어의 조사 사용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일본어에 존재하지 않는 고유의 의미·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였다.

Ⅳ장에서는 구어에서의 조사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1절에서는 조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조사 사용이 포함된 9,838어절의 구어 자료에서 오류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구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생략에 대한 오류 판정 여부를 한국어교육 전문가에 요청하여 오류 판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마련된 오류 자료의 규모는 총 528어절(초급 238어절, 중급 150어절, 고급 140어절)이다. 2절에서는 구어에서의 조사 오류 양상을 조사 유형과 조사 항목에 따라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오류 내 비율, 오류율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조사 유형별 오류 내 비율은 모든 조사 유형에서 일부 조사가 전체 조사

오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특성이 보였다. 격조사는 주격조사 ‘이’의 오류 내 비율이 50.14%이며 부사격조사 ‘에’, 목적격조사 ‘을’, 부사격조사 ‘에서’의 오류 내 비율을 합하면 4개의 격조사 오류가 전체 격조사 오류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보조사는 ‘은’이 오류 비율이 76.27%이며 ‘도’와 함께 2개의 보조사 오류가 전체 보조사 오류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접속조사는 ‘이나’의 오류 비율이 91.11%이며 ‘이랑’과 함께 2개의 접속조사로 전체 접속조사 오류의 100%를 차지하였다. 조사 항목별 오류율은 격조사 중 주격조사 ‘이’, 보조사 중 ‘은’, 접속조사 중 ‘이나’의 오류율이 각각 8.25%, 4.57%, 18.14%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사와 관련하여 주격조사 ‘이’와 결합형 ‘게’, 목적격조사 ‘을’과 축약형 ‘ㄹ’, 보조사 ‘은’과 축약형 ‘ㄴ’과의 오류율을 비교하면 ‘게’와 ‘ㄴ’은 ‘이’와 ‘은’보다 오류율이 낮았다. 반면, ‘ㄹ’은 대개 ‘걸’의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을’에 비해 오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3절에서는 각 조사의 의미·기능과 비문법적인 요소, 즉 형태, 대치, 생략, 첨가에 따라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 오류상의 특성을 밝혔다. 형태 오류는 초급 수준에서 주로 잘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형태 오류는 이형태 오류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형태 간에서 양방향으로 오류가 보인 반면, 주격조사 ‘이’처럼 이형태 ‘가’가 일본어 조사와 음운적 유사성을 지닌 경우 ‘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가’를 잘못 사용하는 오류가 일방향으로 보였다. 대치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많이 나타난 오류이다. 주로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는 초급 수준에서 많이 나타났고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는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나타났다. 특히 주격조사 ‘이’, 목적격조사 ‘을’, 부사격조사 ‘에’ 등은 후행 용언과의 공기관계를 고려하지 못하여 잘못 사용한 오류가 많이 보였다. 생략 오류는 구어에서 조사 오류 양상을 분석한 만큼 모든 학습 수준에서 잘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구어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생략으로 간주되었으나 지금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는 바람에 특히 대조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은’이나 똑같이 아우름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도’와 관련하여 두 번 연달아 사용해야 할 때 뒷부분에서 생략하는 경우가 자주 보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가장 높은 격식체인 합쇼체로 말하는데 격식성과 상반되게 지나치게 조사를 생략하여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보였다. 4절에서는 3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인 학습자의 조사 오류상의 특성을 분명히 하였다. 첫째, 문법 규칙의 단순화에 따른 오류이다. 해당 오류는 접속조사 '이나'의 형태 오류, 처소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와 '에서'의 대치 오류, 시간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의 대치 오류에 잘 나타났다. 둘째, 모어 습관의 부정적인 전이에 따른 오류이다. 해당 오류는 보조사 '은'의 대치 오류와 접속조사 '이나'의 대치 오류에 잘 나타났다. 접속조사 '이나'의 대치 오류는 이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진 오류이다. 셋째, 구어의 특성에 따른 오류이다. 해당 오류는 구어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즉각성과 관련된 오류이다. 해당 오류는 대조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은'과 똑같이 아우름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도'의 생략 오류에서 잘 보였다. 또 다른 하나는 상황 의존성과 관련된 오류이다. 해당 오류는 주격조사 '이'와 목적격조사 '을'의 생략 오류에서 잘 보였다.

Ⅴ장에서는 1절에서 먼저 지금까지 내용을 장별로 요약 제시하고 2절에서는 한국어교육적 시사점과 의의를 밝힌 다음에 마지막으로 3절에서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주요어 :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구어에서 사용되는 조사, 조사 오류 분석, 조사 사용의 특성, 조사 오류의 특성

학 번 : 2013-30800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2. 선행연구 검토 ····· 7
2.1.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 7
2.2.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관련 연구 ····· 10
1)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사 대조 관련 연구 ····· 11
2) 조사 오류 관련 연구 ····· 14
2.3.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관련 연구 ····· 18
3. 연구 대상 및 방법 ····· 21
3.1. 연구 범위 ····· 21
3.2. 연구 대상 및 방법 ····· 24
3.3. 연구 절차 ····· 29

Ⅱ.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논의를 위한 전제 ····· 31
1. 한국어 구어에서의 조사의 특성 ····· 31
1.1. 구어의 개념과 정의 ····· 31
1) 구어의 특성 ····· 32
2) 구어의 유형 ····· 34
1.2. 한국어 조사의 특성 ····· 37
1) 한국어 조사의 유형 ····· 37
2)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분류되는 조사 ····· 42
3)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의 특성 ····· 44
2. 한국어 구어에서의 조사 오류의 특성 ····· 46
2.1. 구어에서의 오류의 개념과 정의 ····· 46
1) 오류의 특성 ····· 46

2) 구어에서의 오류의 범위 ····· 47
2.2. 조사 오류의 유형과 특성 ····· 50
1)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 51
2)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 55
3. 일본에서의 한국어 조사의 사용에 대한 교육 현황 ·· 91
3.1. 분석 대상 교재 선정 ····· 91
3.2. 제시 방법 ····· 93
1) 조사 항목 수, 생략 및 축약형 ····· 93
2) 두 가지 이상의 의미·기능 ····· 97
3.3. 설명 방법 ····· 101
1) 품사 및 부가 설명 ····· 101
2) 오류 설명 ····· 104

Ⅲ. 구어에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양상 ··· 108
1. 자료의 수집 방법과 성격 ····· 108
1.1. 연구 참여자 선정 ····· 108
1.2.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 ····· 109
1.3. 자료의 규모와 성격 ····· 112
2. 조사 항목별 사용 수 및 사용 내 비율 ····· 112
2.1. 유형별 사용 수 ····· 112
2.2. 항목별 사용 수와 사용 내 비율 ····· 117
1) 격조사 ····· 117
2) 보조사 ····· 122
3) 접속조사 ····· 126
3. 조사 항목별 사용상의 특성 ····· 129
3.1. 격조사 ····· 129
1) 주격조사 및 보격조사 ‘이’ ····· 129
2) 목적격조사 ‘을’ ····· 131
3) 관형격조사 ‘의’ ····· 133

4) 서술격조사 ‘이다’ ····· 136
5) 부사격조사 ‘으로’ ····· 137
6) 부사격조사 ‘에’ ····· 138
7)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 ····· 140
8) 부사격조사 ‘에서’ ····· 141
9) 부사격조사 ‘과’, ‘이랑’, ‘하고’ ····· 143
3.2. 보조사 ····· 145
1) ‘까지’ ····· 145
2) ‘은’ ····· 146
3) ‘도’ ····· 147
4) ‘만’ ····· 148
5) ‘마다’ ····· 149
6) ‘이나’ ····· 150
3.3. 접속조사 ····· 152
1) ‘과’, ‘이랑’, ‘하고’ ····· 152
2) ‘이나’ ····· 152
4. 일본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의 특성 ····· 154
4.1. 교재에서 조사 제시 빈도에 따른 사용 ····· 154
4.2. 유사한 의미·기능을 지닌 조사 간의 편중된 사용 ····· 156
4.3. 모어에서 습득된 언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용 · 161

Ⅳ. 구어에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양상 ··· 163
1. 자료 추출 방법과 규모 ····· 163
1.1. 구어에서 오류 판정 방법과 기준 ····· 163
1.2. 오류 자료의 규모 ····· 165
2. 조사 항목별 오류 수와 오류 내 비율 및 오류율 ·· 166
2.1. 유형별 오류 수와 오류율 ····· 166
2.2. 항목별 오류 수와 오류 내 비율 및 오류율 ····· 169
1) 격조사 ····· 169

2) 보조사 ····· 174
3) 접속조사 ····· 177
3. 조사 항목별 오류상의 특성 ····· 180
3.1. 격조사 ····· 180
1) 주격조사 ‘이’ ····· 180
2) 목적격조사 ‘을’ ····· 188
3) 관형격조사 ‘의’ ····· 195
4) 서술격조사 ‘이다’ ····· 198
5) 부사격조사 ‘으로’ ····· 201
6) 부사격조사 ‘에’ ····· 205
7)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 ····· 214
8) 부사격조사 ‘한테서’ ····· 217
9) 부사격조사 ‘에서’ ····· 218
10) 부사격조사 ‘과’와 ‘이랑’ ····· 223
3.2. 보조사 ····· 226
1) ‘은’ ····· 226
2) ‘도’ ····· 236
3) ‘만’ ····· 240
4) ‘마다’ ····· 242
5) ‘이나’ ····· 244
3.3. 접속조사 ····· 245
1) ‘이랑’ ····· 245
2) ‘이나’ ····· 247
4. 일본인 학습자의 조사 오류의 특성 ····· 252
4.1. 오류 유형 ····· 252
4.2. 오류 원인 ····· 255
1) 문법 규칙의 단순화에 따른 오류 ····· 256
2) 모어 습관의 부정적인 전이에 따른 오류 ····· 258
3) 구어 특성에 따른 오류 ····· 259

4.3. 일본인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오류 ····· 260

Ⅴ. 결론 ····· 264
1. 요약 ····· 264
2. 한국어교육적 시사점 ····· 268
3. 의의와 한계 ····· 270

참고문헌 ····· 272
[부록] ····· 280
Abstract ····· 286

표 목 차

[표 Ⅰ-1] 김중섭 외(2017)의 <부록 2> 학습 수준별 조사 항목 ·· 22
[표 Ⅰ-2] 연구 범위 ····· 24
[표 Ⅰ-3] 연구 참여자 정보 ····· 25
[표 Ⅰ-4] 자료의 성격과 규모 정보 ····· 28
[표 Ⅰ-5] 연구 절차 ····· 30
[표 Ⅱ-1] 구어와 문어의 유형 ····· 34
[표 Ⅱ-2] 구어의 유형 ····· 35
[표 Ⅱ-3] 오류와 실수의 구분 ····· 46
[표 Ⅱ-4] 구어에서 오류와 실수의 구분 ····· 49
[표 Ⅱ-5] 한국어 조사의 복잡도 ····· 53
[표 Ⅱ-6] 한국어 조사와 일본어의 대응표 ····· 90
[표 Ⅱ-7] 분석 대상 교재 목록 ····· 92
[표 Ⅱ-8] 교재별 조사 항목 수, 생략 및 축약형의 제시 현황 ·· 94
[표 Ⅱ-9] 교재별 '으로'의 의미·기능에 따른 제시 현황 ····· 97
[표 Ⅱ-10] 교재별 '에'의 의미·기능에 따른 제시 현황 ····· 98
[표 Ⅱ-11] 교재별 '에서'의 의미·기능에 따른 제시 현황 ····· 99
[표 Ⅱ-12] 교재별 '은'의 의미·기능에 따른 제시 현황 ····· 99
[표 Ⅱ-13] 교재별 '이나'의 의미·기능에 따른 제시 현황 ····· 100
[표 Ⅱ-14] 교재별 품사 및 상세 설명 여부 ····· 101
[표 Ⅱ-15] 교재별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설명 여부 ····· 104
[표 Ⅱ-16] 교재별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설명 여부 ····· 105
[표 Ⅲ-1] 조사 유형별 사용 수 ····· 112
[표 Ⅲ-2] 조사 유형별 사용 내 비율 ····· 113
[표 Ⅲ-3] 학습 수준별 격조사 평균 사용 수의 다중비교 ····· 115
[표 Ⅲ-4] 학습 수준별 보조사 평균 사용 수의 다중비교 ····· 116
[표 Ⅲ-5] 격조사 항목별 사용 수 ····· 118
[표 Ⅲ-6] 격조사 항목별 사용 수(축약형) ····· 118

[표 Ⅲ-7] 격조사 항목별 사용 내 비율 ····· 119
[표 Ⅲ-8] 보조사 항목별 사용 수 ····· 122
[표 Ⅲ-9] 보조사 항목별 사용 수(축약형) ····· 123
[표 Ⅲ-10] 보조사 항목별 사용 내 비율 ····· 123
[표 Ⅲ-11] 접속조사 항목별 사용 수 ····· 126
[표 Ⅲ-12] 접속조사 항목별 사용 내 비율 ····· 127
[표 Ⅲ-13] 주격조사 및 보격조사 '이'의 사용 양상 ····· 130
[표 Ⅲ-14] 목적격조사 '을'의 사용 양상 ····· 131
[표 Ⅲ-15] 관형격조사 '의'의 사용 양상 ····· 133
[표 Ⅲ-16] 서술격조사 '이다'의 사용 양상 ····· 136
[표 Ⅲ-17] 부사격조사 '으로'의 사용 양상 ····· 137
[표 Ⅲ-18] 부사격조사 '에'의 사용 양상 ····· 139
[표 Ⅲ-19]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의 사용 양상 ····· 141
[표 Ⅲ-20] 부사격조사 '에서'의 사용 양상 ····· 142
[표 Ⅲ-21] 부사격조사 '과'의 사용 양상 ····· 143
[표 Ⅲ-22] 부사격조사 '이랑'의 사용 양상 ····· 144
[표 Ⅲ-23] 부사격조사 '하고'의 사용 양상 ····· 144
[표 Ⅲ-24] 보조사 '까지'의 사용 양상 ····· 145
[표 Ⅲ-25] 보조사 '은'의 사용 양상 ····· 146
[표 Ⅲ-26] 보조사 '도'의 사용 양상 ····· 147
[표 Ⅲ-27] 보조사 '만'의 사용 양상 ····· 148
[표 Ⅲ-28] 보조사 '마다'의 사용 양상 ····· 149
[표 Ⅲ-29] 보조사 '이나'의 사용 양상 ····· 150
[표 Ⅲ-30] 접속조사 '과', '이랑', '하고'의 사용 양상 ····· 152
[표 Ⅲ-31] 접속조사 '이나'의 사용 양상 ····· 153
[표 Ⅲ-32] 유사한 의미·기능 간에서 '으로'와 '에'의 사용 수 비교 ·· 157
[표 Ⅳ-1] 격조사 오류 수 및 오류율 ····· 166
[표 Ⅳ-2] 보조사 오류 수 및 오류율 ····· 166
[표 Ⅳ-3] 접속조사 오류 수 및 오류율 ····· 166

[표 Ⅳ-4] 격조사 항목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169
[표 Ⅳ-5] 격조사 항목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축약형) ····· 169
[표 Ⅳ-6] 격조사 항목별 오류 내 비율 ····· 170
[표 Ⅳ-7] 격조사 항목별 오류율 ····· 171
[표 Ⅳ-8] 보조사 항목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174
[표 Ⅳ-9] 보조사 항목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축약형) ····· 174
[표 Ⅳ-10] 보조사 항목별 오류 내 비율 ····· 174
[표 Ⅳ-11] 보조사 항목별 오류율 ····· 175
[표 Ⅳ-12] 접속조사 항목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178
[표 Ⅳ-13] 접속조사 항목별 오류 내 비율 ····· 178
[표 Ⅳ-14] 접속조사 항목별 오류율 ····· 179
[표 Ⅳ-15] 주격조사 '이'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181
[표 Ⅳ-16] 주격조사 '이'의 오류율 ····· 181
[표 Ⅳ-17] 주격조사 '이'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 181
[표 Ⅳ-18] 목적격조사 '을'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188
[표 Ⅳ-19] 목적격조사 '을'의 오류 내 비율 ····· 188
[표 Ⅳ-20] 목적격조사 '을'의 오류율 ····· 188
[표 Ⅳ-21] 목적격조사 '을'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 188
[표 Ⅳ-22] 관형격조사 '의'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195
[표 Ⅳ-23] 관형격조사 '의'의 오류 내 비율 ····· 195
[표 Ⅳ-24] 관형격조사 '의'의 오류율 ····· 195
[표 Ⅳ-25] 관형격조사 '의'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 196
[표 Ⅳ-26] 서술격조사 '이다'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198
[표 Ⅳ-27] 서술격조사 '이다'의 오류 내 비율 ····· 198
[표 Ⅳ-28] 서술격조사 '이다'의 오류율 ····· 198
[표 Ⅳ-29] 서술격조사 '이다'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 199
[표 Ⅳ-30] 부사격조사 '으로'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201
[표 Ⅳ-31] 부사격조사 '으로'의 오류 내 비율 ····· 201
[표 Ⅳ-32] 부사격조사 '으로'의 오류율 ····· 202

[표 Ⅳ-33] 부사격조사 '으로'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 202
[표 Ⅳ-34] 부사격조사 '에'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206
[표 Ⅳ-35] 부사격조사 '에'의 오류 내 비율 ····· 206
[표 Ⅳ-36] 부사격조사 '에'의 오류율 ····· 206
[표 Ⅳ-37] 부사격조사 '에'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 206
[표 Ⅳ-38]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214
[표 Ⅳ-39]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의 오류 내 비율 ····· 214
[표 Ⅳ-40]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의 오류율 ····· 215
[표 Ⅳ-41]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 215
[표 Ⅳ-42] 부사격조사 '한테서'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217
[표 Ⅳ-43] 부사격조사 '한테서'의 오류율 ····· 217
[표 Ⅳ-44] 부사격조사 '한테서'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 218
[표 Ⅳ-45] 부사격조사 '에서'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219
[표 Ⅳ-46] 부사격조사 '에서'의 오류 내 비율 ····· 219
[표 Ⅳ-47] 부사격조사 '에서'의 오류율 ····· 219
[표 Ⅳ-48] 부사격조사 '에서'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 219
[표 Ⅳ-49] 부사격조사 '과'와 '이랑'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223
[표 Ⅳ-50] 부사격조사 '과'와 '이랑'의 오류 내 비율 ····· 224
[표 Ⅳ-51] 부사격조사 '과'와 '이랑'의 오류율 ····· 224
[표 Ⅳ-52] 부사격조사 '과'와 '이랑'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 224
[표 Ⅳ-53] 보조사 '은'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226
[표 Ⅳ-54] 보조사 '은'의 오류 내 비율 ····· 226
[표 Ⅳ-55] 보조사 '은'의 오류율 ····· 227
[표 Ⅳ-56] 보조사 '은'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 227
[표 Ⅳ-57] 보조사 '도'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236
[표 Ⅳ-58] 보조사 '도'의 오류 내 비율 ····· 236
[표 Ⅳ-59] 보조사 '도'의 오류율 ····· 237
[표 Ⅳ-60] 보조사 '도'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 237

[표 Ⅳ-61] 보조사 '만'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241
[표 Ⅳ-62] 보조사 '만'의 오류 내 비율 ····· 241
[표 Ⅳ-63] 보조사 '만'의 오류율 ····· 241
[표 Ⅳ-64] 보조사 '만'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 241
[표 Ⅳ-65] 보조사 '마다'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242
[표 Ⅳ-66] 보조사 '마다'의 오류 내 비율 ····· 242
[표 Ⅳ-67] 보조사 '마다'의 오류율 ····· 242
[표 Ⅳ-68] 보조사 '마다'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 242
[표 Ⅳ-69] 보조사 '이나'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244
[표 Ⅳ-70] 보조사 '이나'의 오류 내 비율 ····· 244
[표 Ⅳ-71] 보조사 '이나'의 오류율 ····· 244
[표 Ⅳ-72] 보조사 '이나'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 244
[표 Ⅳ-73] 접속조사 '이랑'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246
[표 Ⅳ-74] 접속조사 '이랑'의 오류율 ····· 246
[표 Ⅳ-75] 접속조사 '이랑'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 246
[표 Ⅳ-76] 접속조사 '이나'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 248
[표 Ⅳ-77] 접속조사 '이나'의 오류율 ····· 248
[표 Ⅳ-78] 접속조사 '이나'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 248
[표 Ⅳ-79]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유형(전체) ····· 252
[표 Ⅳ-80]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유형(격조사) ····· 252
[표 Ⅳ-81]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유형(보조사) ····· 253
[표 Ⅳ-82]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유형(접속조사) ····· 253

그 림 목 차

[그림 Ⅱ-1] 한국어의 조사 분류 체계 ····· 56
[그림 Ⅱ-2] 일본어의 조사 분류 체계 ····· 58
[그림 Ⅱ-3] 한국어 주격조사의 일본어의 대응 양상 ····· 60
[그림 Ⅱ-4] 한국어 보격조사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 61
[그림 Ⅱ-5] 한국어 목적격조사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 63
[그림 Ⅱ-6] 한국어 관형격조사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 65
[그림 Ⅱ-7] 한국어 서술격조사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 66
[그림 Ⅱ-8] 한국어 '으로'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 68
[그림 Ⅱ-9] 한국어 '에'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 71
[그림 Ⅱ-10] 한국어 '에서'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 72
[그림 Ⅱ-11] 한국어 '에게', '한테', '께'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 73
[그림 Ⅱ-12] 한국어 '에게서', '한테서'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 75
[그림 Ⅱ-13] 한국어 '과', '이랑', '하고'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 76
[그림 Ⅱ-14] 한국어 보조사 '이'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 77
[그림 Ⅱ-15] 한국어 보조사 '을'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 78
[그림 Ⅱ-16] 한국어 '까지'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 79
[그림 Ⅱ-17] 한국어 '도'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 81
[그림 Ⅱ-18] 한국어 '만'과 일본어의 대응 양상 ····· 83
[그림 Ⅱ-19] 한국어 보조사 '이나'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 86
[그림 Ⅱ-20] 한국어 접속조사 '과', '이랑', '하고', '에'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 89
[그림 Ⅲ-1] 인터뷰 질문 내용 ····· 111
[그림 Ⅲ-2] 조사 유형별 사용 내 비율 ····· 113
[그림 Ⅲ-3] 격조사 항목별 사용 내 비율 ····· 119
[그림 Ⅲ-4] 보조사 항목별 사용 내 비율 ····· 123
[그림 Ⅲ-5] 접속조사 항목별 사용 내 비율 ····· 127
[그림 Ⅳ-1] 격조사 항목별 오류 내 비율 ····· 170
[그림 Ⅳ-2] 보조사 항목별 오류 내 비율 ····· 175

[그림 Ⅳ-3] 접속조사 항목별 오류 내 비율 ····· 177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1]의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양상을 '사용'과 '오류'의 두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 일본의 한국어교육에서 조사 교수·학습 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확하고 유창한 한국어 구사 능력의 습득'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어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법 범주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중 조사(助詞)는 한국어에서 가장 발달한 문법 범주로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히 조사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사는 가장 발달한 문법 범주인 만큼 다른 문법 범주에 비해 그 수가 방대하고 그중에는 형태나 의미·기능이 유사한 것이 다수 존재하므로 수많은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 범주이다. 이에 한국어 학습자는 자신이 가진 다양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능한 한 활용하여 정확하고 유창한 조사 구사 능력의 습득을 촉진하려고 한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본어에는 한국어와 유사한 문법 범주인 조사가 존재하므로 이들은 한국어 조사를 습득하는 데에 일본어 조사의 다양한 지식이나 조사 사용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다른 언어권의 한국어 학습자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조사 습득이 비교적 용이하고 빠른 편이다. 그렇다고 하여 실제로는 일본어 조사의 지식이나 사용 경험이 한국어 조사 습득에 늘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그것이 한국어 조사를 습득하는 데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1) 이 연구에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란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일컫는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 습득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조사 오류 유형에서 차지하는 대치 오류의 비율이 높거나 오류 연구에 차지하는 조사 오류 연구의 비중이 유별나게 높은 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2)]

이처럼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조사를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데에 필요한 오류 관련 자료는 거의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에 제시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첫째, 연구 대상으로 삼은 조사 항목이 한정적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사는 그 수가 매우 방대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선행연구는 거의 모두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자주 오류를 범할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일부 격조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학습 수준에 따른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조사 오류는 학습 수준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존재하는 반면, 특정 학습 수준에만 유난히 나타나는 것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 연구는 거의 모두가 세 가지 학습 수준, 즉 초급·중급·고급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학습 수준을 대상으로 오류를 살펴보는 데에 그쳤다.

셋째, 구어에서의 조사 오류에 대한 논의를 거의 찾을 수 없다.[3)] 지금까지 관련 선행연구는 거의 모두가 학습자의 쓰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

2) 고석주 외(2004:230)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수나 오류율은 다른 언어권의 학습자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전체 조사 오류에 차지하는 대치 오류의 비율은 다른 언어권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 결과는 일본어의 조사 지식이나 사용 경험이 한국어 조사 습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또한, 이정희·미키(2015:249-252)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전체 오류 연구 중 조사 오류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밝혔다. 이 결과는 많은 연구자들이 조사 오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와 동시에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조사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3) 2015년 이후에 안용준·이화진(2016), 오기노(2017) 등 구어에서의 조사 오류를 다룬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연구 대상으로 삼은 조사 항목이나 학습 수준에 따른 논의가 매우 한정적이다.

오류를 살펴본 것이며 문어에서의 조사 오류의 특성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한국어 조사 중에는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사나 생략 및 축약형이 존재하며 구어에서의 사용의 특성은 문어에서의 사용의 특성과 뚜렷이 구분된다. 이에,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의 특성을 세밀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거의 모두가 특정 조사 유형이나 조사 항목을 연구 범위로 삼고 특정 학습 수준을 대상으로 문어에서의 조사 사용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의 특성을 완전한 형태로 밝히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간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주체가 교양으로서의 한국어 학습자, 즉 한국어를 취미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배우는 학습자임을 고려한다면 조사 사용의 대략적인 특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한국어교육 환경이나 학습자의 학습 목적이 변화함에 따라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먼저 교육 환경과 관련하여 실용적인 외국어교육에 대한 수요에 따라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에 대한 교수·학습의 필요성의 높아지고 있다. 오고시(2016:310)는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법 항목을 분석하여 최근 교재가 실용성을 중요시하며 구어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문법 항목 위주로 구성하는 변화가 보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오기노(2023:271)는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중 최근 가장 사용 수가 많은 교재에 수록된 조사 항목을 실제로 살펴보며 구어에서 사용되는 조사나 조사의 생략 및 축약형에 대한 제시가 이전에 비해 많아진 것을 확인하였으나 여전히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학습 목적과 관련하여 전공 수준으로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학습자가 늘고 있다. 노마·나카지마(野間·中島, 2007:78-79)에 따르면 2006년 시점에서 일본 대학 중 한국어학과 혹은 전공 설치 대학 수는 14개 대학, 선택식 필수 한국어 과정[4] 설치 대학

4) '선택식 필수 한국어 과정'이란 원래 전공과는 별도로 대학 혹은 학과에서 지정된 몇 가지 제2외국어 중 한국어를 선택하여 원래 전공과 함께 전공 수준으로 한국어 학습이 가능한 과정을 일컫는다. 하세가와 외(長谷川他, 2021:7)에서는 선택식 필수 한국어

수는 5개 대학, 총 19개[5] 대학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2022년 시점에서 다시 조사한 결과, 한국어학과 혹은 전공과 선택식 필수 한국어 과정의 설치 현황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2006년 때와 비교하여 2022년에는 한국어학과 혹은 전공 설치 대학 수는 10개 대학이 증가하여 24개 대학, 선택식 필수 한국어 과정 설치 대학 수는 30개 증가하여 35 대학, 모두 합하여 40개 대학이 증가하여 총 59개[6] 대학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한국

를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칭하여 전공과정과의 주당 한국어 수업 시수 등을 비교할 때 전공과정과 맞물릴 정도로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5) 다음 표는 노마·나카지마(野間·中島, 2006:78-79)가 2006년에 조사한 한국어학과 혹은 전공과 선택식 필수 한국어 과정의 설치 현황이다.

과정명	대학명	대학 수
한국어학과 혹은 전공	국공립: 현립니가타여자단기대학(현 니가타현립대학) 도야마대학, 도쿄외국어대학, 오사카외국어대학(현 오사카대학 외국어학부) 사립: 간다가이고대학, 구마모토가쿠엔대학, 니마쓰가쿠샤대학, 데이쿄대학, 덴리대학, 도쿄세토쿠대학, 메지로대학, 바이코가쿠인대학, 후쿠오카대학, 히메지돗쿄대학	14
선택식 필수 한국어 과정	사립: 돗쿄대학, 류코쿠대학, 시코쿠가쿠인대학, 주쿄여자대학(현 시가쿠칸대학), 후쿠오카국제대학(현 폐교)	5

6) 다음 표는 필자가 2022년에 독자적으로 조사한 한국어학과 혹은 전공과 선택식 필수 한국어 과정의 설치 현황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본의 대형 대학 검색 포털사이트인 마이내비 진학(マイナビ進學: https://shingaku.mynavi.jp/)과 마이내비전(マナビジョン: https://manabi.benesse.jp/)을 활용하였으며, '한국어', '조선어', '코리아어', '한글' 등 일본 대학에서 학과명 혹은 전공명으로서 사용될 만한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아울러, 상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 홈페이지까지 참조하였다.

과정명	대학명	대학 수
한국어학과 혹은 전공	국공립: 니가타현립대학, 도야마대학, 도쿄외국어대학, 오사카대학 사립: 간다가이고대학, 교토산업대학, 구마모토가쿠엔대학, 규슈국제대학, 긴키대학, 나가사키외국어대학, 니쇼가쿠샤대학, 데즈카야마가쿠인대학, 데쿄대학, 덴리대학,	24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7]과 한류(韓流)의 거듭된 유행[8]에 따른 국가 위상의 상승에 따라 한국어를 전공 수준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의 신설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9]

이처럼 최근 일본의 한국어교육은 실용성과 체계성의 필요성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조사 교육도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을 포함한

	도쿄세토쿠대학, 메지로대학, 바이코가쿠인대학, 사가여자단기대학, 사이타마여자단기대학, 아이치슈쿠토쿠대학, 조사이국제대학, 호쿠세가쿠엔대학, 후쿠오카대학, 히메지돗쿄대학	
선택식 필수 한국어 과정	국공립: 국제교양대학, 기타규슈시립대학, 니가타대학, 시가현립대학, 야마구치현립대학 오이타현립예술문화단기대학 사립: 간사이가쿠인대학, 간사이대학, 간토가쿠인대학, 고난여자대학, 나가사키단기대학, 니가타국제정보대학, 니혼대학, 도시샤대학, 도쿄하대학, 도쿄세이토쿠대학, 릿쿄대학, 모모야마가쿠인대학, 무사시노가쿠인대학, 분교대학, 세이난가쿠인대학, 센슈대학, 쇼와여자대학, 쇼케이대학, 쓰다주쿠대학, 아시아대학, 오사카가쿠인대학, 오사카산업대학, 오사카조가쿠인대학, 오쓰마여자대학, 와세다대학, 와코대학, 주부대학, 펠리스조가쿠인대학, 홋카이가쿠엔대학	35

7)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33,393달러, 35,385달러이며 거의 근접해 있다.

8) 조규헌(2021:301~305)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4번의 한류 열풍이 일어났으며 회차별 한류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회차	시기	매체	대상
1차	2004년	TV	드라마(겨울연가)
2차	2010년	TV	K-팝(동방신기, 카라, 소녀시대, 빅뱅, 2ne1 등)
3차	2017년	SNS	K-푸드(치즈닭갈비, 치즈핫도그), K-팝(트와이스, BTS), K-패션, K-뷰티 등
4차	2020년	SNS, OTT	다양한 한류 콘텐츠

9) 하세가와 외(長谷川他, 2021:2)는 한일 외교 마찰이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위해서도 최근 일본에서 한국어교육학이나 한국어학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체계적인 교수·학습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양상을 사용과 오류의 두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 일본의 한국어교육에서 조사 교수·학습 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연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통해 일본의 한국어교육에서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과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의 실제를 밝힌다.

[연구문제 2]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서 조사 사용 양상 분석을 통해 조사 유형별 및 조사 항목별 사용 수와 사용 내 비율을 밝힌다. 아울러 각 조사 항목에 나타난 오류의 특성을 의미·기능과 학습 수준의 측면에서 밝힌다.

[연구문제 3]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서 조사 오류 양상 분석을 통해 조사 유형별 및 조사 항목별 오류 수, 오류 내 비율, 오류율을 밝힌다. 아울러 각 조사 항목에 나타난 오류의 특성을 의미·기능, 학습 수준, 오류 유형, 오류 원인의 측면에서 밝힌다.

[연구문제 4]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와 그 외의 한국어 학습자 간의 조사 오류의 유형을 비교하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오류의 특성을 밝힌다.

2. 선행연구 검토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관련 연구,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관련 연구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1.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첫째,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이다. 오기노(2018:100)는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한국어교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중 이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세 가지 연구 주제인 교육 현황, 문법 교육, 교재 분석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 현황 관련 연구는 나카무라(中村, 2006), 김형준(金亨俊, 2008), 양정선(梁正善, 2010), 스즈키(鈴木, 2014), 김하수 외(金河守他, 2016), 박진희(朴珍希, 2017) 등이 있다. 관련 연구는 해당 논문의 집필자가 소속하는 대학 혹은 해당 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한국어교육 현황을 중소 규모의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중 나카무라(中村, 2006), 김형준(金亨俊, 2008), 양정선(梁正善, 2010), 박진희(朴珍希, 2017)는 대학에서의 교양 한국어교육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교양 학습자 특유의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다. 박진희(朴珍希, 2017)는 일본의 오카야마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사례를 통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교양 학습자는 학습 내용에 한국문화를 포함하여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스즈키(鈴木, 2014)와 김하수 외(金河守他, 2016)는 대학에서의 전공 한국어교육 현황을 살펴보았다. 스즈키(鈴木, 2014)는 일본의 경우 전공 학습자도 교양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의 유지가 중요한 과제임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도한 학습 부담

을 줄이고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실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문법 교육 관련 연구는 오선주(吳先珠, 2011), 양정선(梁正善, 2013), 공혜영(孔惠英, 2015), 김세랑(金世朗, 2015), 오선주(吳先珠, 2015), 진수미(秦秀美, 2015), 김세랑(金世朗, 2016), 나가하라(永原, 2017), 권영수(權英秀, 2018), 김지영(金智英, 2018) 등이 있다. 그중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조사가 아닌 문법 범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결어미를 주제로 삼은 것이 가장 많았다. 오선주(吳先珠, 2011)는 '-더니', 공혜영(孔惠英, 2015)과 나가하라(永原, 2017)는 '-아/어서'와 '-고'의 쓰임 차이에 대한 것이다. 그 외에 김세랑(金世朗, 2015)과 김세랑(金世朗, 2016)은 '잘' 등의 성분 부사의 문장에서의 위치, 양정선(梁正善, 2013)은 시제와 상, 오선주(吳先珠, 2015)는 인용 표현, 진수미(秦秀美, 2015)는 종결어미 '-ㄹ(을)게'를 주제로 삼았다. 그중 조사와 관련된 논의는 김지영(金智英, 2018)이 유일하다. 김지영(金智英, 2018)은 지금까지의 대조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주격조사 '이'와 보조사 '은'의 학습 수준에 따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급 학습자는 의문사를 동반한 의문문의 경우를 중심으로, 중·고급 학습자는 그 외에 기지(旣知)의 개념에 대한 재확인 혹은 미지(未知)의 사물에 대한 정의 경우를 중심으로 '은'이 아니라 '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제안하였다.[10)]

마지막으로 교재 관련 연구는 하세가와·이수경(2002), 오대환(2007), 나가하라·윤정인(永原·尹, 2011), 요시모토(2012), 오고시(2015), 오고시(2016), 나가하라(永原, 2018), 李秀炅(이수경, 2019), 오기노(2023) 등이 있다. 관련 연구는 교재에서 제시된 문법 항목 전체에 대한 논의 중 조사와 관련된 논의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이다. 하세가와·이수경(2002)은 교재에서 조사를 제시할 때 이형태가 존재하는 조사의 경우 일본인 학습자의 모어인 일본어가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 즉 개음절이

10) 김지영(金智英, 2018:87-88)은 의문사를 동반한 의문문의 예시로 '취미는(√취미가) 무엇입니까?', 기지(旣知)의 개념에 대한 재확인 혹은 미지(未知)의 사물에 대한 정의의 예시로 '그렇죠. 인생은(√인생이) 참 짧아요.'와 'MT는(√MT가) 뭐예요?'를 제시한 바 있다.

압도적으로 많은 언어임을 고려하여 조사 발생의 역사적인 경위에 따라 폐음절을 앞에 표기하는 방식보다는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음절을 앞에 표기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에서는 주격조사 '이'를 '이/가'의 순서로 제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에서는 '가/이'의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셈이다.[11] 또한,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에서는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보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적 특성에 맞게 문법 항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조사와 관련하여 목적격조사 '을', 관형격조사 '의', 부사격조사 '에'와 '으로'를 들었다.[12] 반면, 오대환(2007)은 하세가와·이수경(2002)과 다르게 해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가 문법 항목의 제시 순서나 방법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지적하여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는 지금보다 더욱 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특화된 문법 항목의 제시 순서나 방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나가하라·윤정인(永原·尹, 2011)은 일본에서 출판된 초급 교재 중에는 초급 수준의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초급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할 문법 항목으로 간주되는 접속조사 '과'가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나가하라(永原, 2018)는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가 근본

11) 이 연구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형태가 존재하는 조사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4단계)'의 <부록 2> 문법 평정 목록에 대표형으로 제시된 형태로 표기한다.

12) 하세가와·이수경(2002:261-264)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 대한 목적격조사 '을', 관형격조사 '의', 부사격조사 '에'와 '으로'의 적절한 제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을'은 일본 교재에서 기본적인 쓰임을 넘어 일본인 학습자에게 '을'의 예외적인 쓰임(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사 용법 차이)까지 설명해야 한다. 둘째, '의'는 구어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어 교재에서 '의'의 생략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볼 때 '의'의 교육적 중요도가 낮은 반면, 일본 교재에서는 '의'를 빠른 시기에 도입해야 한다. 셋째, '에'는 한국 교재에서 시간, 처소 등 의미·기능에 따라 몇 번에 걸쳐서 제시하는 반면, 일본 교재에서는 '에'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 'に(ni)'가 거의 동일한 의미·기능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한 번에 제시해야 한다. 넷째, '로'는 한국 교재에서 거의 대부분이 방향의 의미·기능으로 먼저 도입하는 반면, 일본 교재에서는 방향의 의미가 '에'로 대체 가능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수단· 방법의 의미·기능으로 먼저 도입해야 한다.

적으로 문법 항목 제시에 대한 체계성이 없음을 지적하여 쉬운 문법 항목부터 어려운 문법 항목의 순서로 제시하는 등 체계적인 문법 제시를 통한 체계적인 문법 학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요시모토(2012)는 한국에서 출판된 교재에서 지나치게 규범성에 맞게 교육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관형격조사 '의'를 예시로 들으면서 한국어교육에서는 언어 현실을 잘 관찰하여 실제 사용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13)]

한편, 오고시(2015)는 제시나 설명 방법보다 문법 항목 수에 초점을 맞추어 교재를 분석하였다.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에 수록된 문법 항목 수가 학습 능력과 학습 시간에 비해 많음을 지적하여 교재에서 제시하는 문법 항목 수를 대폭 줄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오고시(2016)는 200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 중 몇 가지 교재를 선정하여 수록된 문법 항목 수를 조사하였는데 최근에 출판된 교재일수록 문법 항목 수가 줄어들었음을 밝혔다. 오기노(2023)는 2000년대 초반과 2020년대에 각각 가장 많이 사용된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항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 항목 수는 평균 20개에서 18개로 줄어든 반면,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접속조사 '이랑'과 함께 주격조사 '이'와 의존명사 '것'의 결합형 '게', 목적격조사 '을'의 축약형 'ㄹ', 부사격조사 '에서'의 축약형 '서' 등 격조사를 중심으로 생략 및 축약형의 제시가 많아졌음을 밝혔다. 그러나 교재에 따라 제시 항목이 각양각색이며 특히 관형격조사 '의'의 실현과 비실현(생략)과 관련된 제시 부재를 지적하였다.

2.2.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관련 연구

둘째,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관련 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다시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사 대조 관련 연구와 조사 오류 관련 연구의 두

13) 나카지마(2012:408)는 '의'가 규범상 주격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조사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고 겹쳐 사용할 수 없는데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국어학자나 작가도 '의'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삼았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사 대조 관련 연구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사 대조 관련 연구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인 일본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로서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연구는 홍사만(1982), 김인현(1993), 김인현(1996), 조선경(1997), 박봉상(1998), 권정애(2001), 권정애(2002), 고지마(2008), 한규안(2009), 한규안(2010), 구라시마(2011), 남윤진(2012), 무라카미(2014), 아마노(天野, 2015) 등이 있다. 해당 연구는 주제에 따라 생략 관련 연구와 조사의 용법 차이 관련 연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생략 관련 연구는 조선경(1997), 김인현(1993), 김인현(1996), 권정애(2001), 권정애(2002), 구라시마(2011), 무라카미(2014)이다. 조선경(1997), 김인현(1993), 김인현(1996), 구라시마(2011)는 한국어 관형격조사 '의'와 일본어 'の(no)'의 생략 빈도의 차이를 주로 다루고 있다. 조선경(1997)은 설문조사를 통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의'의 실현보다 생략에서 낮은 정답률을 보였음을 밝혔다. 그중 특히 소산(所産)의 구성, 소위 처소와 사물의 관계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14] 즉, 한국어 '의'는 처소와 사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생략이 일어나는데 일본어 'の(no)'는 꼭 실현된다.[15] 또한, 구라시마(2011)는 드라마 대본 등의 준구어 유형의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어 '의'가 제작자와 작품, 전체와 부분, 수량과 값의 의미로 나타날 때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소유주와 피소유주, 처소와 사물의 의미로 나타날 때는 실현과 생략이 수의적으로 일어남을 밝혔다. 즉, 이는 구어에서 한국어가 '의'의 실현 및 생략

14) 고영근·구본관(2008:186)은 '소산의 관계'를 '처소와 사물의 관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관계를 생략이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소유주와 피소유주'나 '전제와 부분'의 관계를 다양하게 해석한 하위 분류로 보고 있다.

15) 조선경(1997:55)은 한국어가 '이천의 쌀'보다 '이천 쌀'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면, 일본어는 '이천의 쌀'로 표현하는 차이를 예로 들은 바 있다.

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없음을 의미한다. 일본어 ‘の(no)’가 원칙적으로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의’의 생략을 어려워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오류가 많을 것을 시사하였다.

한편, 권정애(2001)는 부사격조사 ‘에’와 일본어 ‘に(ni)’, 권정애(2002)는 목적격조사 ‘을’과 일본어 ‘を(o)’, 무라카미(2014)는 보조사 ‘은’과 일본어 ‘は(wa)’의 생략을 각각 주로 다루고 있다. 권정애(2002)와 무라카미(2014)는 각 조사의 생략 경향이나 허용 범위를 간략하게 언급하였다.[16] 반면, 권정애(2001:122)는 ‘에’가 상태의 의미·기능으로 사용될 때 일본어는 실현과 생략 모두 허용되지만 한국어는 생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17] 즉, 일본인 학습자가 상태의 의미·기능으로 ‘에’를 사용할 때 생략과 관련된 오류가 나타난 것이다.

다음으로 조사의 용법 차이 관련 연구는 홍사만(1982), 박봉상(1998), 고지마(2008), 한규안(2009), 한규안(2010), 남윤진(2012), 아마노(天野, 2015)이다. 그중 홍사만(1982), 고지마(2008), 아마노(天野, 2015)는 한국어 보조사 ‘까지’와 일본어 ‘まで(made)’의 용법 차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고지마(2008)는 ‘까지’와 ‘まで(made)’가 다른 조사와 결합하는 결합형에 주목하여 ‘까지’가 ‘まで(made)’보다 결합과 관련된 제약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어는 기한의 의미·기능을 나타낼 때와 결정의 의미·기능을 나타낼 때 각각 ‘までに(madeni; 까지에)’와 ‘まで と(madeto; 까지와)’와 같이 다른 조사와의 결합 형태로 실현되는 반면, 한국어는 일본어처럼 각각 ‘까지에’, ‘까지와’와 같은 결합이 불가능하며 ‘까지’, ‘까지로’처럼 단일 형태 혹은 일본어와 다른 조사와의 결합으로 실현되는 대응 관계임을 밝혔다. 아마노(天野, 2015)는 의미·기능에 따른

---

16) 권정애(2002:83-84)는 목적격조사 ‘을’의 생략 가능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동작 작용의 대상을 의미할 경우
② 선행명사구가 ‘것과’ 같은 의존명사로 끝나는 구나 절, 무생명사인 경우
③ 주다, 받다 등의 동사와 함께 사용될 경우
④ 구정보와 함께 사용될 경우

17) 권정애(2001:118)가 제시한 상태의 의미·기능으로 ‘に(ni)’가 사용된 예문이다.
この町(X)、慣れましたか？(이 거리에 익숙해졌습니까?)

‘까지’와 ‘まで’의 용법 차이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까지’에 없고 ‘まで’만 가진 의미·기능으로 정도[18]가 있으며 한정과 첨가의 의미·기능으로 사용될 때도 ‘까지’가 ‘まで(made)’와 완전한 대응 관계를 보이지 않고 경우에 따라 ‘까지’가 각각 일본어 ‘だけ(dake; 뿐)’나 ‘も(mo; 도)’와 같이 다른 조사에 대응함을 밝혔다. 한편, 한규안(2009)과 한규안(2010)은 ‘도’ 및 ‘라도’와 ‘も’ 및 ‘でも’, 남윤진(2012)은 ‘은’ 및 ‘이’와 ‘は’ 및 ‘が’의 용법 차이를 살펴보았다. 거의 모든 경우에 쓰임이 일치함을 밝혔는데 ‘은’ 및 ‘이’와 ‘は’ 및 ‘が’는 화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19]

한편, 박봉상(1998)은 다양한 의미·기능을 가진 일본어 부사격조사 ‘に(ni)’ 및 ‘で(de)’에 대응하는 한국어 조사를, 한규안(2009)과 한규안(2010)은 한국어 보조사 ‘도’ 및 ‘라도’와 일본어 ‘も(mo)’ 및 ‘でも(demo)’를, 남윤진(2012)은 한국어 보조사 ‘은’ 및 주격조사 ‘이’와 일본어 ‘は(wa)’ 및 ‘が(ga)’의 용법 차이를 살펴보았다. 박봉상(1998)은 일본어를 기준으로 일본어 ‘に(ni)’가 한국어 ‘이’, ‘을’, ‘으로’, ‘에’, ‘에게’, ‘과’, 일본어 ‘で(de)’가 ‘이’, ‘으로’, ‘에’, ‘에게’에 각각 대응함을 의미·기능에 따라 세밀하게 밝혔다. 예를 들어, 일본어 ‘に’에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한국어 조사를 ‘에’로 간주할 때 원인·이유 및 변화의 의미·기능은 ‘으로’, 동작의 대상의 의미·기능 중 유정명사에는 ‘에게’가 대응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で’와 대응하는 한국어 조사를 기본적으로 ‘에서’로 간주할 때 의미·기능에 따라 수단·방법, 재료, 원인·이유, 상태의 의미· 기능은 ‘으로’, 범위의 의미·기능은 ‘에’에 대응되는 차이가 있다.

---

18) 아마노(天野, 2015:141)가 제시한 정도의 의미·기능으로 ‘まで(made)’가 사용된 예문이다. 한국어로 해석하면 ‘까지’가 아니라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小林紀晴というひとの文章は稚拙なまでにストレートで、それがじかに氣持ちに触れる。(고바야시 노리하루라는 사람의 문장은 치졸할 정도로 직설적이고, 그것이 직접 마음에 와닿는다.)’

19) 남윤진(2012:326)은 예를 들어, ‘이것이 무엇입니까?(これは何ですか。)’와 같은 문맥에서 한국어에서는 ‘이것’을 신정보로 취급하여 ‘이’가 사용되는 반면, 일본어에서는 ‘これ’를 구정보로 취급하여 ‘は’가 사용된다고 지적하였다.

2)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관련 연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관련 연구는 대부분이 문어에서의 조사 오류에 대한 논의이다. 이 연구는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으나 우선 문어에서의 조사 오류의 특성을 살피고 일부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의 특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오류 관련 연구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연구는 이수경(1996), 이은경(1999), 안경화(2004), 양명희(2004), 정보영(2004), 안경화·양명희(2005), 김선효(2007), 김중섭·이정희(2008), 이지연(2012), 최경화(2014), 최선숙(2014), 정시원(2015), 김영선·최선숙(2016), 베키(2016), 안용준·이화진(2016), 이수미(2016), 인성희(印省熙, 2016), 한송화(2016), 김원미(2017), 오기노(2017), 김민재·오기노(2018), 조영보(2021) 등이 있다. 해당 연구는 주제에 따라 '조사 오류 전반에 대한 연구'와 '특정 조사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조사 오류 전반에 대한 연구는 이수경(1996), 이은경(1999), 안경화(2004), 양명희(2004), 이지연(2012), 최경화(2014), 최선숙(2014), 안용준·이화진(2016), 인성희(印省熙, 2016), 김원미(2017), 오기노(2017)이다. 이들은 다시 오류를 범한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이수경(1996), 이지연(2012), 최선숙(2014)은 초급 학습자의 오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수경(1996)은 생략을 적절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한 관형격조사 '의'의 첨가 오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부사격조사 '에'를 사용하지 못하는 생략 오류에 주목하였다. 또한, '에'와 '으로', '에'와 '에서', '에'와 '에게(한테)' 등의 부사격조사 간의 대치 오류나 '도'와 '이나', '만'과 '뿐' 등의 보조사 간의 대치 오류 등 다양한 오류를 소개하였다. 최선숙(2014)은 이수경(1996)과 달리 목적격조사 '을'과 주격조사 '이' 혹은 부사격조사 '에' 간의 대치 오류를 비롯한 '을' 관련 대치 오류가 두드러지게 많았음을 지적하였다. 이지연(2012)은 앞의 두 연구와 달리 오류의 유형보다 원인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그동안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는 모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가 압도적

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한국어의 문법 지식이나 한국어에 대한 노출 부족으로 인한 목표어 영향으로 인한 오류도 모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만큼 많았음을 밝혔다.

한편, 이은경(1999), 안경화(2004), 양명희(2004), 인성희(印省熙, 2016), 김원미(2017)는 중·고급 학습자의 오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중 이은경(1999), 안경화(2004), 양명희(2004)는 중·고급 학습자에게 잘 보이는 오류가 초급 학습자에게 잘 보이는 오류와 거의 유사함을 각각 밝혔다. 반면, 인성희(印省熙, 2016)는 앞서 제시된 오류 외에도 주격조사 '이', 목적격조사 '을', 보조사 '은'을 중심으로 문어에서의 생략 오류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고급 학습자는 말하기에도 능숙하므로 문어에서도 말하기 때의 버릇, 즉 조사의 생략 습관이 문어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원미(2017)는 앞의 연구와 달리 오류를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고급 학습자는 부사격조사 '에' 관련 오류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주격조사 '이', 부사격조사 '에서', 관형격조사 '의', 보조사 '도', 목적격조사 '을', 부사격조사 '으로', 보조사 '부터', 서술격조사 '이다'의 순이었음을 밝혔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가 학습자의 작문 등의 문어 자료를 통해 오류를 살펴본 것과 달리 안용준·이화진(2016), 오기노(2017)는 인터뷰로 얻은 구어 자료를 통해 구어에서의 조사 오류를 살펴보았다. 안용준·이화진(2016)는 초급 학습자의 오류를 문어와 구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문어와 구어 간의 오류 양상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도로 구어에서 조사를 대부분 적절하게 생략하는 반면, 이형태 오류가 문어에 비해 유난히 많았음을 밝혔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서의 조사 생략은 회피가 아닌 모어 화자의 자연스러운 생략과 같은 것이며 이형태 오류는 대부분 실수에 가까운 오류임을 밝혔다. 오기노(2017)는 중·고급 학습자의 오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구어에 나타난 대부분의 오류가 기존 연구를 통해 확인 가능한 문어에 나타난 오류와 동일함을 지적하며서도 구어에 잘 나타난 오류가 별도로 있음을 밝혔다. 이는 주격

조사 ‘이’, 목적격조사 ‘을’, 보조사 ‘은’의 세 가지 조사를 과도하게 생략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기인하는 오류이다. 중·고급 학습자 모두에게 주격조사 ‘이’나 보조사 ‘은’의 과도한 생략에 따른 오류가 잘 나타났고 중급 학습자에게는 이와 함께 ‘을’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오류가 많았음을 강조하였다.[20] 조영보(2021)는 앞의 두 연구와 달리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하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와 그 외의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일본인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난 오류가 주격조사 ‘이’의 형태 오류, 주격조사 ‘이’와 목적격조사 ‘을’ 간의 대치 오류, 보격조사 ‘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부사격조사 ‘에’를 사용한 대치 오류, 관형격조사 ‘의’의 첨가 오류임을 밝혔다. 또한, 일본인 학습자에게만 나타난 오류로서 서술격조사 ‘이다’의 관형형인 ‘인’을 사용해야 하는데 관형격조사 ‘의’를 사용하는 대치 오류와 주격조사 ‘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부사격조사 ‘으로’를 사용하는 대치 오류임을 밝혔다.

특정 조사 관련 연구는 정보영(2004), 안경화·양명희(2005), 김선효(2007), 김중섭·이정희(2008), 김영선·최선숙(2016), 베키(2016), 이수미(2016), 한송화(2016), 김민재·오기노(2018)이다. 안경화·양명희(2005), 김선효(2007), 베키(2016)는 관형격조사 ‘의’ 관련 오류를 살펴보았다. 안경화·양명희(2005)는 관련 오류가 고급 학습자에게 가장 많이 보였음을 밝혔고 베키(2016)도 관련 오류가 조건에 따라 고급 학습자이어도 높은 빈도로 오류가 나타났음을 지적하면서도 ‘의’와 관련된 오류가 학습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학습 수준에서 자주 일어나는 오류임을 밝혔다. 이에 안경화·양명희(2005)와 김선효(2007)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의’를 꼭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를 생략하는 오류가 많은 사실에 주목하여

20) 오기노(2017:138)에 따르면 구어에서 조사의 과잉 사용이나 과잉 생략은 특정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주격조사 ‘이’의 과잉 생략은 ‘사람’ 등의 유정명사와 ‘있다’ 혹은 ‘없다’ 등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사용될 때 보조사 ‘은’의 과잉 생략은 부사나 연결어미 ‘-면’과 함께 사용될 때 목적격조사 ‘을’의 과잉 사용은 모어의 영향으로 인한 오류, 즉 ‘이’와 ‘을’의 대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를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때 자주 일어난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의'의 필수적인 쓰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정보영(2004)과 한송화(2016)는 보조사 '은' 관련 오류를 살펴보았다. 정보영(2004)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모어 화자보다 주격조사 '이'와 보조사 '은'을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한송화(2016)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특히 문장 앞부분, 즉 주어를 나타내야 하는 상황에서 '은'을 자주 사용하여 과도하게 주제화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김중섭·이정희(2008)는 보조사 '은'과 상관없는 주격조사 '이' 관련 오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이' 관련 오류는 후행 동사와의 결합, 즉 공기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오류임을 밝혔다. 김영선·최선숙(2016)과 이수미(2016)는 부사격조사 관련 오류를 살펴보았다. 이수미(2016)는 '으로', '에', '에서', '에게(한테)', '에게서(한테서)' 관련 오류를 살펴보았다. 관련 오류는 학습 수준이 올라갈수록 오류 빈도가 높아졌음을 밝혔다. 또한, 관련 오류는 학습자의 모어인 일본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가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며 시간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와 관련된 오류가 가장 많았음을 밝혔다. 김영선·최선숙(2016)은 부사격조사 중 '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수미(2016)와 마찬가지로 일본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가 많았음을 밝혔다. 특히 시간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의 생략 오류를 강조하였다. 김민재·오기노(2018)는 간접의 인용격조사 '고'를 대상으로 특정 조사 오류 관련 연구 중 유일하게 구어에서의 오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간접의 인용격조사 '고'와 관련된 오류를 자주 범하는데 이는 모어인 일본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임을 밝혔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모어인 일본어로 '-と思う(-to omou)', 즉 '-고 생각하다'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영향으로 '-는 생각이 들다'를 '-고 생각이 들다'처럼 표현함에 따라 오류가 자주 나타났음을 밝혔다.

2.3.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관련 연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그 외의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를 살펴보는 것이 종요하다.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관련 연구는 지혜영·김영주(2013), 벌러러(2017), 탄다(Thandar, 2017), 신찬양(2020), 첸진(CHEN JIN, 2021), 응웬 티(NGUYEN THI, 2022) 등이 있다. 이들은 다시 해당 언어에서의 조사 존재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조사가 존재하는 언어에서의 조사 오류 관련 연구는 지혜영·김영주(2013), 벌러러(2017), 탄다(Thandar, 2017), 신찬양(2020)이다. 지혜영·김영주(2013)와 탄다(Thandar, 2017)는 미얀마인 학습자의 조사 오류를 살펴보았다. 지혜영·김영주(2013)는 인터뷰를 통해 미얀마인 학습자의 구어에서의 조사 오류를 살펴보았는데 미얀마어에 조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사격조사 '과', '이랑'의 생략 오류가 많았음을 밝혔다. 또한, 목적격조사 '을'을 사용해야 하는데 '한테'를 사용하는 대치 오류나 주격조사 '이'의 형태 오류도 많았음을 밝혔다. 다만, 오류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21] 탄다(Thandar, 2017)는 문어에서의 오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미얀마어와 한국어의 조사 용법 차이에 주목하여 오류 원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목적격조사 '을'에 해당하는 미얀마어의 조사가 '을' 외에도 부사격조사 '에', '에게', '으로' 등의 조사와 대응되므로 관련 대치 오류가 많았음을 밝혔다. 또한, 미얀마어에는 보격조사 '이'와 보조사 '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격조사 '이'는 생략 오류, '은'은 주격조사 '이'와의 대치 오류가 많았음을 밝혔다.

한편, 벌러러(2017)와 신찬양(2020)은 몽골인 학습자의 조사 오류를 살펴보았다. 벌러러(2017)는 몽공인 학습자가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이', '을', '은'에 주목하여 통사적으로는 특정 서술어와의 결합에 있어 '을' 관련 대치 오류가 많이 나타났음을 밝혔다. 또한, 의미·기능적으로는 대조와 주제의 '은'과 강조의 '을'에 오류가 많이 나타났음을 밝혔다.

---

21) 탄다(Thandar, 2017:237)는 '과'의 생략 오류가 많은 이유로서 '과'와 '와' 간의 형태 오류 회피를 들고 있다.

신찬양(2020)은 기존의 몽골인 학습자의 조사 오류 연구가 격조사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보조사와 접속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몽골인 학습자는 접속조사를 비교적 잘 사용하는 반면, 보조사를 잘 사용하지 못함을 밝혔다. 특히 '은'과 함께 '도'의 오류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오류 유형별로는 '과'를 사용해야 하는데 '와'를 사용하는 형태 오류, '이나'를 사용해야 하는데 '거나'를 사용하거나 '은'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사용하는 대치 오류, '은'과 '도'의 생략 오류가 보였다.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에서의 조사 오류 관련 연구는 첸진(CHEN JIN, 2021), 응웬 티(NGUYEN THI, 2022)이다. 첸진(CHEN JIN, 2021)은 중국인 학습자, 응웬 티(NGUYEN THI, 2022)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하여 문어와 구어에서의 조사 오류를 살펴보았다. 두 연구를 비교 분석하면 중국어와 베트남어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중국인 학습자가 베트남인 학습자에 비해 오류율이 높다. 중국인 학습자는 그 외의 한국어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주격조사 '이', 목적격조사 '을', 부사격조사 '으로', '에', '에게', '에서' 간의 대치 오류가 보였는데 문어에서 '과'와 '하고'의 대치 오류가 많이 나타난 특정이다. 또한, 앞서 제시한 조사들과 함께 관형격조사 '의'의 생략 오류도 많이 보였다. 반면, 베트남인 학습자는 중국인 학습자에 비해 오류가 일부 유형에 집중되어 있다. 주격조사 '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목적격조사 '을', 부사격조사 '에', 보조사 '은'을 사용하는 대치 오류와 부사격조사 '에'와 '에서' 간의 대치 오류가 많이 보였다. 또한, 모어인 베트남어에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주격조사 '이', 목적격조사 '을', 부사격조사 '으로', '에'의 생략 오류도 많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관련 연구,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관련 연구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과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이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중요한 세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격조사 외의 다양한 조사의 사용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가 충분

하지 않다. 앞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사 대조 연구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연구를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격조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조사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이는 기존 논의를 통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오류가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를 선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격조사 외에 보조사와 접속조사에 대해서도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보조사와 접속조사에 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격조사와 함께 보조사와 접속조사 사용의 특성을 밝힐 수 있다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체계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학습 수준에 따른 조사 사용에 대한 유사 통사(通時)적인 교수·학습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앞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연구를 살펴보았듯이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조사 오류를 살펴볼 때 학습 수준을 초급 혹은 중·고급으로 나누어 일부 학습 수준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에서는 학습 의욕을 유지하기 위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교수·학습 내용을 제공하되 학습자의 학력 저하에 따라 교수·학습 내용 줄이고자 하는 추세에도 대응해야 한다. 즉, 이는 필요한 최소한의 교수·학습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 학습 수준에 따른 조사 사용에 대한 특성을 분명히 하고 해당 학습 수준의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교수·학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만큼 제공해야 한다. 학습 수준에 따라 각 조사 사용에 대한 특성을 세밀하게 밝힐 수 있다면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에 대한 실용적인 교수·학습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앞서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연구를 살펴보았듯이 일본에서는 전공과 비전공을 불문하고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유지하기 위해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은 모어인 일본어의 특성을 고려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만의 맞춤형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주력해 온 반면, 한국어를 배우고 실제로 한국에서 사용할 때 쓸모가 있는지, 즉 실용성이 있는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최근의 학습자는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한국에서 실제로 듣고 말하는 데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생략이나 축약형 등의 조사의 구어적인 쓰임이나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사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의 특성을 지금보다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학습자에게 실용성 있는 조사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3. 연구 대상 및 방법

3.1. 연구 범위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및 오류 양상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조사 교수·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교수·학습 내용으로서 적합한 조사를 선정하여 이를 연구 범위로 삼을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한국어에는 조사가 무려 178개나 존재한다. 따라서 조사를 연구하려고 하면 178개의 모든 조사를 연구 범위로 삼을 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는 주로 예스러운 표현에 사용하는 ‘곧’이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그래’, ‘그려’ 등의 조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이와 유사한 조사는 사용 범위가 매우 국한되어 있어 학습자가 어렵게 배워도 사용할 기회가 좀처럼 없는, 즉 학습 부담 대비 학습 효과가 낮은 비효율적인 교수·학습 내용으로 간주된다.

이에 수많은 조사 중 한국어 학습자가 배워야 할 조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소규모에서 대규모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22)]

22) 오기노(2021)는 설문조사를 통해 총 69개 조사의 인지도에 준하는 사용 빈도와 이해

그중 김중섭 외(2017)는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의 <부록 2>를 통해 전 세계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수준별로 학습 항목으로서 조사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조사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총 178개 중 60개가 선정되어 있으며, 이를 학습 수준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Ⅰ-1]과 같다.

[표 Ⅰ-1] 김중섭 외(2017) <부록 2> 학습 수준별 조사 항목

조사	초급	1급 (19개)	이, 과, 까지, 께서, 은1, 도, 을1, 이랑, 으로, 부터, 에, 에게, 에서, 의, 하고, 만, 이다, 한테, 보다
		2급 (10개)	께, 마다, 밖에, 처럼, 에서부터(서부터), 에다가, 에게로, 에게서, 한테서, 이나
	중급	3급 (10개)	같이, 이고, 대로, 으로부터, 만큼, 보고, 뿐, 아1, 요1, 이라고1
		4급 (13개)	커녕, 이나마, 이며, 이든, 이란, 이면, 이야, 치고, 까지2, 이라도, 으로서, 으로써, 마저
	고급	5급 (3개)	이라든가, 따라, 조차
		6급 (5개)	마는, 깨나, 이라고2, 을랑, 이라면

위의 표에 수록된 모든 조사를 연구 범위로 삼아 연구를 진행할 수만 있다면 매우 바람직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수반됨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기노(2017)는 일본인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 총 10명의 인터뷰를 통해 13,206어절의 구어 전사 자료를 수집하여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및 양상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학습자의 사용이 확인된 조사는 초급 수준의 조사가 대부분이며 중·고급 수준의 조사는 일부에 한정되어 있거나 학습자가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사용 수가 충분

도에 준하는 난이도를 밝히고 이 결과를 통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필요한 조사를 선정하여 학습 수준별 조사 목록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 수준별로 학습 항목으로서 조사 항목을 제시한 연구는 오기노(2021) 뿐이다.

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에 어려움이 이었다. 또한, 초급 수준의 조사라고 하여도 조사끼리가 결합된 합성조사의 사용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즉, 이 결과에서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에서는 모든 학습 수준의 학습자가 초급 수준의 단일 조사를 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초급 수준의 합성조사나 중·고급 수준의 조사를 학습자에게 의도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하므로 구어에서의 조사의 자연스러운 사용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오류를 살펴보기 쉽지 않다. 물론 학습자에게 살펴보고자 하는 조사가 자주 사용될 만한 주제나 질문을 제공하여 해당 조사의 사용을 유도할 수 있겠으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보다 연구 범위를 확대하되 조사의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충분한 조사의 사용 수를 확보할 수 있는 조사를 연구 범위로 삼고자 한다. 총 60개의 조사 중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초급 수준의 조사 총 29개 중 합성조사인 '에서부터', '에다가', '에게로'의 3개를 제외한 총 26개의 조사를 우선 선정하였다.[23] 또한, 형태는 동일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 유형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조사로 나누어 총 35개의 조사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다. 총 35개의 조사를 조사 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Ⅰ-2]와 같다.

23) 국립국어원 '한국어 학습자 원시 말뭉치'를 통해 '에서부터', '에다가', '에게로'에 대한 구어에서의 사용 빈도를 확인한 결과, '에서부터'와 '에게로'는 0회이고 '에다가'는 8회에 불과하였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 오류 주석 말뭉치'를 통해 오류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류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따라 합성조사는 연구 범위에 포함하여도 사용 빈도나 오류 빈도가 극도로 적거나 아예 없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제외하기로 하였다.

[표 Ⅰ-2] 연구 범위

격조사	주격	이, 께서, 에서
	보격	이
	목적격	을
	관형격	의
	서술격	이다
	부사격	으로, 에, 에게, 에서, 한테, 께, 에게서, 한테서, 과, 이랑, 하고
보조사		이, 을, 까지, 은, 도, 부터, 만, 보다, 마다, 밖에, 처럼, 이나
접속조사		과, 이랑, 하고, 에, 이나

3.2.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광의의 뜻으로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구어 자료 수집에 참여하는 연구 참여자를 의미하고, 협의의 뜻으로 해당 연구 참여자의 언어 자료를 의미한다. 먼저 광의의 뜻으로의 연구 대상인 연구 참여자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총 80명이며 초급 학습자 35명, 중급 학습자 25명, 고급 학습자 20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총 80명의 일본인 학습자는 학습자 간의 변인 통제와 자료 수집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첫째, 한국 유학에서의 유학 경험이 있는 학습자이다. 이 연구에서는 충분한 구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학습자가 한국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말하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조사에 앞서 사전 조사를 한 결과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이 없는 학습자 중 특히 초급 학습자는 문법 지식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에 익숙하지 않는 관계로 말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발음이 정확하지 못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이는 초급 학습자부터 고급 학습자까지 모든 학습 수준의 학습자의 구어 자료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수월하게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토픽(TOPIK) 자격증 소유자이다. 토픽 자격증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가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 있으며 학습 수준에 따른 조사의 정확한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꼭

필요하다. 셋째, 20, 30대의 대학(원)생이다. 이 연구의 최종 결과물, 즉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및 오류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 수준별 조사 교수·학습 내용의 기초 자료는 향후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인 학습자에게 적용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에 가능한 한 일본 대학의 학습자와 동일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학습자의 구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의 상세 정보를 제시하면 다음 [표 Ⅰ-3]과 같다.

[표 Ⅰ-3] 연구 참여자 정보

학습 수준	토픽(TOPIK)	평균 학습 기간	평균 체류 기간	인원수
초급[24]	2급	221시간	5개월	35
중급	3, 4급	617시간	20개월	25
고급	5, 6급	847시간	61개월	20

다음으로 협의의 의미로의 연구 대상인 언어 자료는 총 80명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로부터 구어 자료로서 총 56,664어절을 수집하였으며, 학습 수준별로 초급 학습자 18,819어절, 중급 학습자 18,684어절, 고급 학습자 19,161어절로 구성되었다.[25]

이 연구에서는 구어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인터뷰를 선택하였다. 구어 자료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학습자의 일상대화이다. 그런데 일상대화는 그 성격상 이 연구에서의 구어 자료로서 부적절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대화는 대부분 반말체, 즉 요-결락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24) 초급 학습자는 일반적으로 토픽 1급 혹은 2급 소지자를 뜻한다. 이 연구에서도 토픽 1급과 2급 소지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으나 연구 범위로 설정한 초급 조사 중에는 2급 수준의 조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초급 수준의 조사 중 1급과 2급의 조사를 모두 배운 적이 있는 2급 소지자에 한하여 초급 학습자로 선정하였다.

25) 이정희·미키(2015:245)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일본인 학습자 대상의 오류 관련 연구에 활용된 언어 자료의 평균 규모는 37,778어절이며, 이 연구의 언어 자료는 평균 규모는 웃도는 규모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 문어 자료임을 고려하면 이 연구의 구어 자료 규모는 개인 연구로는 최대 규모이다.

일상대화는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즉 비문이 허용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으며 조사의 쓰임이 잘못되어 있어도 별다른 문제 없이 용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을 넘어 오류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데 조사 오류가 자주 허용되는 일상대화는 특히 이 연구에서의 구어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평상 시에 일본의 대학에서 주로 한국어를 합쇼체나 요-통합형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요-결락형이 사용된 구어 자료를 통해 밝힌 조사 사용이나 오류의 특성을 제시하는 것은 역시 부적절하다. 즉, 합쇼체나 요-통합형으로 된 구어 자료가 적절하다.

둘째, 일상대화는 조사의 생략 현상, 즉 조사의 비실현이 매우 빈번히 일어난다. 앞서 일상대화의 특성 중 하나로 반말체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일상대화는 반말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어 자료 중에서도 조사의 생략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구어에서는 문어와 달리 조사의 생략 현상을 오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상대화는 조사의 쓰임이 잘못되어도 별문제 없이 용인되는 것처럼 조사의 생략 현상도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의 사용과 생략을 아울러 조사의 사용으로 보고 조사의 적절한 생략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일상대화보다 조사 생략의 적절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어 자료가 적절하다.

인터뷰는 오재혁 외(2014)이 밝혔듯이 연구자가 질문하고 연구 참여자가 답하는 듯이 화자와 청자 간의 양방향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고 사적인 이야기 등의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일상대화와 공통점이 많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터뷰와 일상대화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격식성 여부에 있으며 일상대화가 반말체로 이루어지는 반면, 인터뷰는 합쇼체나 해요체처럼 격식체로 이루어진다.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터뷰와 같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의 경우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IRB)'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에 우선 서울대학교 윤리위원회에서 실험 승인(승인 번호:

2203/001-012)을 받은 후, 2022년 3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참여자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호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화상통화 등의 방식을 통해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질문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참여자가 한국 유학 생활에서 한두 번 정도는 대답해 본 적이 있을 만한 친숙한 주제의 총 15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주제는 자기소개, 한국어 학습 및 한국 생활, 한일 비교 및 한일관계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각 주제에 대해 5개의 질문을 마련하였다.[26] 총 15개의 질문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인터뷰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학습 수준이나 질문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일부 질문을 건너뛰거나 원 질문과 관련된 부가적인 질문을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자 1명 당의 인터뷰 시간은 연구 참여자가 인터뷰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10분 내외로 설정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내용을 전용 녹음기로 녹음한 다음에 녹음 내용을 구어에서의 생략 오류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추임새나 휴지 등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세종 전사 지침'에 따라 녹음 전사 기록지에 전사하여 이를 조사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활용하였다.[27] 이 연구의 구어 자료의 성격과 규모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26) 질문의 주제를 선정하는 데 토픽 등급별 평가 기준을 참고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제공하기는 하나 해당 학습 수준에 절절한 질문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의 주제는 학습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주제를 마련하였다. 자기소개는 1급의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주제에 관련된 내용, 한국어 학습 및 한국 생활은 3급의 자신에게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 한일 비교 및 한일관계는 5급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소재와 같은 각 기술을 근거로 선정하였다.

27) '세종 전사 지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사 지침 및 기호	전사 예시
원칙	철자법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 발음이 아닌 경우는 소리 나는 대로 전사하고 괄호 안에 표준형을	NJA-5: 일호선 아래쪽 끝에도 가고 이동 범위를 좀 넓은 범위인 것 같습니다.

[표 Ⅰ-4]와 같다.

[표 Ⅰ-4] 자료의 성격과 규모

상호 작용	격식성	내용	규모
양방향	격식체	일반: 인터뷰(사적인 내용)	총 56,664어절 (조사가 포함된 어절 수는 총 9,838어절)

	밝힘	
띄어쓰기	맞춤법 규정대로 전사	
숫자, 영문	한글로 표기	
끊어진 단어	=	NJI-3: 카푸루(커플)?가 너무 싸워서:: 그 바=밤에 그런 얘기가 듣고 있어서
담화 표지	~	NJA-8: 제가 한국어를 왜 시작을 했냐면은~
하강 억양	.	NJI-17: 한국 친구 많이 생겨서 좋았습니다.
상승 억양	?	NJI-9: 한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석을 해석이라 해야 되나? 해독? 응?
기운찬 어조 또는 감탄의 어조	!	NJA-12: '이게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안 떠올리긴 한데 네.
휴지	{}	NJA-1: 아:: 얼굴 아닌데 그런 아:: {2.0} 말할 때
장음	::	NJE-4: 한국은 어:: 이번 한국에 오는 것은 처음이라서
웃으면서 말하는 부분	<@ @>	NJA-11: 어렸을 때 그:: 엄마 얼굴 봤는데~ 얼굴 되게 <@ 닮더라고요.@>

3.3. 연구 절차

이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Ⅱ장에서는 한국어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논의를 위한 전제로 먼저 한국어 구어에서의 조사의 특성을 밝힌다. 이를 위해 문어와의 차이를 통해 한국어 구어의 특성과 유형을 분명히 하고 조사의 분류 체계와 함께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사나 구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조사 생략 및 축약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구어에서의 오류의 특성을 밝힌다. 이를 위해 문어와는 별도로 구어에서의 오류의 개념을 규정하고 조사 오류의 원인을 목표어의 영향과 모어의 영향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의 한국어 조사 사용에 대한 교육 현황을 밝힌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중 사용 수가 많은 교재를 선정하여 해당 교재에 수록된 조사 항목 수, 조사의 제시 및 설명 방법, 조사 오류에 대한 설명 기술을 살펴본다. 둘째, Ⅲ장에서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서 조사 사용의 특성을 밝힌다. 이를 위해 우선 조사 유형별 및 항목별 사용 수나 사용 내 비율을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조사 항목별 의미·기능에 따른 사용 양상을 통해 사용상의 특성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의 특성을 학습 수준과 의미·기능의 관점에서 기술한다. Ⅳ장에서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서의 조사 오류의 특성을 밝힌다. 이를 위해 우선 수 오류 수와 오류 내 비율 및 오류율을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조사 항목별 의미·기능에 따른 오류 양상을 통해 오류상의 특성을 살펴보고 조사 항목별로 오류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의 특성을 더욱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와 그 외의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의 유형을 비교하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조사 오류를 밝힌다. 이 연구의 연구 절차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Ⅰ-5]와 같다.

[표 Ⅰ-5] 연구 절차

연구 단계	연구 대상	연구 방법
Ⅰ장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선행연구 검토 ▪ 연구 대상 및 방법	문헌 연구
Ⅱ장	▪ 한국어 구어에서의 조사의 특성 ▪ 한국어 구어에서의 조사 오류의 특성 ▪ 일본에서의 한국어 조사 사용에 대한 현황	문헌 연구 교재 분석
Ⅲ장	▪ 조사 항목별 사용 수 및 사용 내 비율 ▪ 조사 항목별 사용상의 특성 ▪ 일본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의 특성	조사 연구
Ⅳ장	▪ 조사 항목별 오류 수와 오류 내 비율 및 오류율 ▪ 조사 항목별 오류상의 특성 ▪ 조사 항목별 오류 유형 및 원인 ▪ 일본인 학습자의 조사 오류의 특성	조사 연구
Ⅴ장	▪ 요약 및 이 연구의 의의 ▪ 한국어교육적 시사점 ▪ 이 연구의 한계 및 제언	

Ⅱ.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논의를 위한 전제

Ⅱ장에서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논의를 위한 전제를 마련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구어에서의 한국어 조사의 특성을 밝힌다. 이를 위해 우선 문어와의 차이를 통해 구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구어의 특성과 유형을 살펴본다. 그리고 국어학에서의 한국어 조사의 분류 체계를 통해 조사의 유형과 항목을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사나 생략 혹은 축약이 자주 일어나는 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절에서는 구어에서의 조사 오류의 특성과 원인을 밝힌다. 이를 위해 우선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실수와 오류의 구분에 따른 오류의 범위를 확장한 구어에서의 오류의 범위를 설정한다. 그리고 조사 오류의 원인을 목표어의 영향과 모어의 영향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오류가 자주 나타나는 조사 항목과 의미·기능을 예측한다. 3절에서는 일본에서의 한국어 조사 사용에 대한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일본 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의 항목 수, 제시 및 설명 방법, 오류 설명과 함께 구어에서의 조사의 사용 및 특성에 대한 설명 여부를 분석한다.

1. 한국어 구어에서의 조사의 특성

1.1. 구어의 개념과 정의

한국어에서 구어(口語)라는 용어는 사전에 따르면 놀랍게도 일반 용어가 아닌 언어학 전문 용어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 구어라는 용어가 아직 일반 대중들에게 익숙한 말이 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주지한 바와 같이 언어학과 한국어교육 등의 언어학과 연관된 주변 학문 분야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구어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글에서만 쓰는 특별한 말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에서 쓰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말은 글로 나타내는 말, 즉 구어의 반대 개념인 문어(文語)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인 격식성을 띠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문체(style) 측면에서 볼 때 문어 특유의 격식성을 띠지 않는 일상 대화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로 간주된다.

둘째, '음성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이는 표현 방법에 차이에 따라 문어가 글로 나타내는 말이라면 구어는 음성으로 나타내는 말임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전에 따른 구어의 첫째 정의와 달리 말의 표현 방법에 따라 문어와 구어를 구분한다. 구어의 한자인 '口語(구어)'의 '口(입구)'가 나타내듯이 구어는 입에서 내는 소리, 즉 음성이라는 형태로 표현되어야만 구어라고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어의 둘째 정의에 따르면 첫째 정의에 따라 문어로 정의되는 격식성을 띠는 말이어도 음성이라는 형태로 표현된다면 구어로 간주된다.

이처럼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구어는 '음성으로 나타내는 말이자 주로 일상대화에서 쓰이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구어의 정의를 말의 문체와 표현 방법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일부러 나누어 정의한 것은 구어를 정의하는 데 두 가지 정의가 모두 필수 조건이 아닌 충분조건임을 의미한다. 즉, 구어는 넓게는 '음성으로 나타내는 말' 혹은 '주로 일상대화에서 쓰는 말'로 해석되고 좁게는 '음성으로 나타내는 말이자 주로 일상대화에서 쓰이는 말'로 해석될 것이다.

1) 구어의 특성

'음성으로 나타내는 말이자 주로 일상대화에서 쓰이는 말', 즉 구어의 특성은 문어의 특성과의 비교를 통해 도출할 수 있다. 이소영(1996)은 문어와 구어의 차이를 표현 방법, 발화 상대, 문맥 수정, 운율적 요소,

장면 의존성, 청자와의 공동 작업, 행동 언어 병행의 일곱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앞서 구어의 정의에서 언급한 소리로 나타내는 특성 외에 구어는 ① 특정한 청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② 이미 발화된 내용을 소급해서 수정하기 어려움, ③ 친근함·발화 내용의 난도, ④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말의 억양, 속도, 길이, 강세 등이 달라짐, ⑤ 청자 대우법에 민감함, ⑥ 청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함, ⑦ 표정이나 손짓 등 행동 언어가 있음의 특성을 지닌다. ②과 ⑦를 제외하고 나머지 특성은 청자와 관련된 것이며 구어가 청자의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말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대규(1996)는 문어와 구어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문어는 단순성, 계획성, 제보성, 서술성, 분리성, 추상성, 영구성, 정태성, 명시성, 논리성, 격식성, 문맥 의존성을 지니는 반면, 구어는 다양성, 즉각성, 친교성, 표현성, 포함성, 구체성, 상황 의존성의 특성을 지닌다. ②는 즉각성, ④와 ⑤는 친교성, ⑥은 상황 의존성과 일치하는 등 노대규(1996)가 제시한 구어의 특성과 이소영(1996)이 제시한 구어의 특성은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두 연구자가 제시한 구어의 특성은 상당한 부분이 상통한다.

한편, 지현숙(2006)은 한국어교육 측면에서 다양한 구어의 특성 중에서도 상황 의존성과 즉각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상황 의존성에 따른 문장 성분의 잦은 생략과 즉각성에 따른 잦은 반복이나 과감한 도치와 함께 간투사의 사용을 들고 있다. 또한, 그 외에 이소영(1996)에서 앞서 밝힌 것처럼 구어가 대체로 회자와 청자가 서로 보면서 말을 주고받는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언어임에 주목하여 표정, 몸짓, 청자의 반응 등과 같은 언어 외적 요인에 따른 보조 수단, 그리고 말하는 속도, 고저, 강약, 어조 등을 함께 들고 있다. 요컨대, 한국어교육 측면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구어가 지닌 다양한 특성 중 상황 의존성과 즉각성에 따라 구어에서의 한국어 사용을 어렵게 만듦을 시사하고 있다.

2) 구어의 유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구어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문어와의 차이를 통해 밝힐 수 있다. 그런데 문어와 구어의 각각 특성은 서로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문어 중에는 구어적인 문어가 있고 반대로 구어 중에는 문어적인 구어가 존재한다. 즉, 문어와 구어에는 각각 하위분류가 존재하며 문어와 구어가 서로 얼마나 가까운 유형인지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다. 민현식(2014)은 다음 [표 Ⅱ-1]과 같이 문어와 구어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에 속하는 글이나 발화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지현숙(2006:53) 재인용].

[표 Ⅱ-1] 구어와 문어의 유형

구어체 구어	일상대화
문어체 구어	강단어, 연설어, 보도어처럼 글이 전제된 구어
구어체 문어	소설, 시나리오, 희곡, 광고어처럼 구어 중심의 문어
문어체 문어	논설문, 기사문과 같은 읽거나 쓰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문어

민현식(2014)에 따르면 구어는 다시 구어체 구어와 문어체 구어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중 구어체 구어는 흔히 한국어교육에서 '구어'라고 불리는 것이며 일상대화가 이에 해당한다. 즉, 일상대화는 가장 구어적인 구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전에서 제시된 구어의 두 가지 정의를 모두 갖춘 온전한 구어이다. 한편, 문어체 구어는 구어체 구어와 달리 먼저 글을 나타낸 다음에 음성으로 나타낸 말이며 강단어, 연설어, 보도어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음성으로 나타내기 전까지는 분명히 문어이었으나 음성으로 나타낸 순간 구어의 정의 중 하나인 '음성으로 나타내는 말'을 충족시킴으로써 구어로 간주된다.

반면, 문어는 다시 구어체 문어와 문어체 문어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그중 구어체 문어는 한국어교육에서 흔히 '준구어'라고 불리며 소설, 시나리오, 희곡, 광고어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구어체 문어, 즉

문어에 분류되나 한국어교육에서는 준구어로서 구어의 일부로 간주되어 있으며 구어를 대상으로 한 각종 연구에서 구어 자료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구어체 문어는 문어체 구어의 반대로 글로 나타내기 전까지는 분명히 구어였으나 최종적으로 글로 나타냈으므로 문어로 간주된다. 문어체 문어는 흔히 문어라고 불리는 것이며 논설문, 기사문이 이에 해당한다.

요컨대 구어와 문어의 네 가지 유형은 말의 문체, 표현 방법의 순서로 분류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구어와 문어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의 근저에는 말의 표현 방법이 크게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말의 내용이 어떻게든 음성으로 나타내는 말이면 구어, 글로 나타내는 말이면 문어로 분류된다는 셈이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소설, 시나리오, 희곡, 광고어 등을 준구어로 간주하는 한국어교육에서는 말의 표현 방법보다 말의 문체에 따라 구어와 문어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오재혁 외(2014)는 민현식(2014)보다 구어의 유형을 세밀하게 분류한 바 있다. 오재혁 외(2014)는 구어체 구어와 구어체 문어를 상호 작용성, 격식성, 말하고 있는 내용의 전문성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다시 분류하였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Ⅱ-2]와 같다.[28]

[표 Ⅱ-2] 구어의 유형

상호 작용성 및 격식성		말하고 있는 내용	
		전문	일반
일방향	격식체	강연, 연설, 강의, 설교	개회사/폐회사, 주례사, 축사
	비격식체	전문적인 경험담 들려주기	일상적인 경험담 들려주기

28) 오재혁 외(2014:237)의 표는 에긴스(Eggins, 2004)가 제시한 언어의 실현역(register)과 관련된 세 가지 개념, 즉 영역(field), 방법(mode), 역할(tenor)을 사용하여 구어의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에긴스(Eggins, 2004)의 논의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역할(tenor)과 영역(field)의 실질적인 의미로 사용된 상호 작용성 및 격식성과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였다.

양방향	격식체	전문가 상담, 회의	인터뷰(사적인 내용)
	비격식체	면담	일상대화

오재혁 외(2014)에 따르면 구어의 유형은 상호 작용성의 측면에서 먼저 일방향과 양방향으로 나뉘고 이들은 다시 격식성에 따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또한, 말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크게 전문적인 내용과 일반적인 내용으로 나뉜다. 즉, 구어의 유형은 ① 일방향 격식체 전문 구어, ② 일방향 비격식체 전문 구어, ③ 일방향 격식체 일반 구어, ④ 일방향 비격식체 일반 구어, ⑤ 양방향 격식체 전문 구어, ⑥ 양방향 비격식체 전문 구어, ⑦ 양방향 격식체 일반 구어, ⑧ 양방향 비격식체 구어의 총 8개로 나뉜다. ①는 강연·연설·강의·설교, ②는 전문적인 경험담 들려주기, ③은 개회사/폐회사·주례사·축사, ④는 일상적인 경험담 들려주기, ⑤는 전문가 상담·회의, ⑥은 면담, ⑦은 인터뷰(사적인 내용), ⑧은 일상대화가 각각 해당한다. 앞서 민현식(2014)에서 구어체 구어, 즉 일상대화가 가장 구어적인 구어의 특성을 가진 것임을 확인하였는데 오재혁 외(2014)에 따르면 일상대화는 ⑧ 양방향 비격식체 구어로 규정할 수 있다. 즉, 구어체 구어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성과 비격식을 지니며 일반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중 격식성은 구어체 구어를 규정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인지 의문이 든다. 여기서 말하는 격식성의 정도가 불명확하지만 일상대화에서도 화자와 청자의 지위·신분에 따라 격식체로 말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일상대화는 격식체가 될 수도 있고 비격식체가 될 수도 있으므로 격식성은 구어체 구어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오재혁 외(2014)에 따른 구어 유형 중 구어체 구어에는 일상대화와 함께 ⑦ 양방향 격식체 일반 구어의 속성을 가진 인터뷰(사적인 내용)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결국 흔히 구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구어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유형은 구어체 구어 혹은 양방향 일반 구어이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학습자의 구어에서의 한국어를 연구하려면 학습자 간의 일상대화나 연구자와 학습자 간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자료

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일상대화보다 인터뷰를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대화는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즉 비문이 허용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으며 조사의 쓰임이 잘못되어 있어도 별다른 문제 없이 용인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에서는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을 넘어 오류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조사 오류가 자주 허용되는 일상대화는 이 연구에서의 구어 자료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둘째, 일상대화는 조사의 생략 현상, 즉 조사의 비실현이 매우 빈번히 일어난다. 일상대화의 특성 중 하나인 반말체의 사용으로 조사의 생략 현상이 빈번히 일어남을 예상할 수 있다. 구어에서는 문어와 달리 조사의 생략 현상을 오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용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상대화는 조사의 쓰임이 잘못되어도 별문제 없이 용인되는 것처럼 조사의 생략 현상도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의 사용과 생략을 아울러 조사의 사용으로 보고 학습자가 조사를 적절하게 생략할 수 있는지 해당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1.2. 한국어 조사의 특성

1) 한국어 조사의 유형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조사는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서는 조사 유형 중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격조사와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보조사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고영근·구본관(2008:147)에서는 격조사와 유사하지만 기능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조사, 즉 접속조사에 대한 언급을 별도로 찾을 수

있으며 한국어에서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격조사는 다시 형태, 의미·기능, 문장 성분과의 관계에 따라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고영근·구본관(2008)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사를 형태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에게 조사를 제시할 때 국어 학교문법의 영향을 크게 받아 형태별로 분류하여 제시한 역사적 경위를 고려하면 형태별로 분류하는 것이 적당하다.

① 격조사

고영근·구본관(2008)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 앞서 연구 범위로 설정한 격조사는 주격, 보격, 목적격, 관형격, 서술격, 부사격의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29] 이를 순서대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주격조사는 '이', '가', '께서', '에서' 등이 존재한다. 그중 '이'와 '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며 결합되는 단어의 받침 유무에 따라 받침이 있으면 '이', 받침이 없으면 '가'의 형태로 각각 실현된다. 주격조사는 다른 격조사와 달리 기본적인 형태 외에도 특수한 형태로 '께서'와 '에서'가 존재한다. 그중 '께서'는 공대명사, '에서'는 단체 명사와 결합된다.[30]

보격조사는 '이'와 '가'가 존재한다. 주격조사와 마찬가지로 결합되는 단어의 받침 유무에 따라 '이' 혹은 '가'의 형태로 실현된다. 보격조사는 주격조사와 동일한 형태로 실현되는데 주격조사와의 차이는 후행 용언과의 결합에 있다. '이' 혹은 '가'가 후행 용언으로 '되다' 혹은 '아니다'와 결합되면 보격조사가 된다.

목적격조사는 '을'과 '를' 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결합되는 단어의 받침 유무에 따라 '을' 혹은 '를'의 형태로 각각 실현된다.

관형격조사는 '의'만 존재하며 '의'의 형태로만 실현된다.

서술격조사는 '이다'의 형태로 실현된다. 국어 학교 문법에서 '이다'는

29) 고영근·구본관(2008)은 이들과 함께 호격조사를 제시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별도 언급하지 않는다.

30)그 외에 수사와 결합되어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서'도 존재한다.

조사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주지한 바와 같이 '이다'는 활용 양상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용언의 성격을 지닌다. 그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서술격조사를 지정사나 의존형용사로 보는 경우도 있다.[31]

부사격조사는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 형태가 다양하다. 해당 조사가 지닌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언급하자면 먼저 '처소'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에', '에서', '에게' 등이 있다. 그중 '에'는 '처소' 외에도 '진행 방향', '시간', '단위', '원인' 등 기본적인 의미·기능인 '처소'를 확대한 다양한 의미·기능이 보인다. 또한, 형태나 의미적으로 '에'와 가장 가까운 특성을 지닌 조사가 '에서'이다. '에서'는 '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의미·기능이 '처소'인데 후행 용언에 따라 처소 중에서도 '출발점'의 의미·기능이 보일 때가 있고 어떤 전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비교의 의미·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에게'도 형태나 의미적으로 '에'와 가까운 특성을 지닌다. 다만, '에게'는 유정명사에 사용되는 반면, '에'는 무정명사에 사용된다. 게다가 유정명사 중 공대명사의 경우 '께'가 사용된다. 그 외에 '에게'와 반대로 어떤 행위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춘 '에게서'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재료·원료, 수단·도구와 관련하여 '으로'가 있다. '으로'는 결합되는 단어의 받침 유무에 따라 '으로' 혹은 '로'의 형태로 실현된다. '으로'는 기본적인 의미·기능이 재료·원료, 수단·도구인데 '움직임의 방향', '원인', '지위·신분·자격'의 의미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으로'는 앞서 언급한 '에'와 '원인', '방향'의 의미·기능을 공유하는 관계로 경우에 따라 서로 교체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고영근·구본관

31) '이다'의 분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먼저 성낙수(2013)나 일본의 한국어 교육처럼 '이다'를 '지정사'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김슬교(2017)처럼 '이다'와 함께 '답다', '같다', '아니다'를 새 범주인 의존형용사로 설정하고자 하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조사가 활용하지 못하는 품사이며 활용 양상을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국어 학교 문법의 분류에서는 '이다'가 무리하게 조사로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관형격조사 '의'와 '이다'의 활용형인 '인'의 관계에서 오류가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의'와 함께 '이다'를 조사의 범주에 포함하여 사용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구어 학교문법과 마찬가지로 '이다'를 조사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2008:154)이 지적하였듯이 의미·기능의 중복은 기본적인 의미·기능에서 의미·기능의 확장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현상의 결과이며 항상 교체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으로'는 '변화의 방향'의 의미·기능도 지니기도 하는데 결국 이는 '으로'의 기본적인 의미·기능인 재료·원료, 수단·도구에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반'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과/와'가 있다. '과/와'는 결합되는 단어의 받침 유무에 따라 '과' 혹은 '와'의 형태로 실현된다.

② 보조사

고영근·구본관(2008)에 따르면 보조사는 통용보조사와 종결보조사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보조사가 통용보조사에 속한다.[32] 통용보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른데 이 연구에서는 고영근·구본관(2008)의 논의에 따라 통용보조사로 분류되고 보조사 중 이 연구의 연구범위로 설정한 보조사에 한하여 언급한다.

통용보조사에는 '까지', '은', '도', '부터', '만', '보다', '마다', '밖에', '처럼', '이나' 등이 있다. 보조사는 그 자체가 고유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 보조사가 지닌 개별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보조사 간 혹은 격조사와 보조사 간에서 유사한 의미·기능을 가진 조사들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은'은 결합되는 단어의 받침 유무에 따라 '은' 혹은 '는'의 형태로 실현된다. '은'은 대조, 주제, 강조의 의미·기능을 가진다. 먼저 '대조'는 '나는 한국어는 잘하지만 영어는 잘 못한다.'처럼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장 안에 대조되는 항목이 존재할 때 해당 의미·기능이 뚜렷이 나타난다. 반면, '나는 한국어는 잘한다.'처럼 하나의 문장 안에 대조되는 항목이 없어 대조의 의미·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 고영근·구본관(2008:161)은 이를 '소극적인 배제'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대조보다 강조의 의미·기능에 가깝게 보고 있다. 즉, '나는 한국어는 잘한다.'의 의미를

32) 종결보조사는 '요', '마는', '그려', '그래' 등 주로 종결형 뒤에 사용되는 보조사이다.

‘나는 한국어는 잘하는데 다른 외국어는 못한다’보다는 ‘다른 외국어는 모르겠지만 한국어는 잘한다.’로 해석하여 문장 중 ‘한국어를 잘한다’의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은’은 주어에 자리에서 사용됨으로써 주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만, 주격조사 ‘이’와의 차이는 ‘은’이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즉 구정보(old information)를 나타내는 반면, ‘이’는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정보, 즉 신정보(new information)를 나타내는 데에 있다.

‘도’는 기본적으로 ‘포함’의 의미·기능을 가진다. ‘도’는 다른 것과 함께 어떤 것이 포함됨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 한편, ‘까지’는 기본적으로는 ‘범위의 끝’의 의미·기능을 지니는데 ‘도’와 마찬가지로 ‘포함’의 의미·기능을 지닌다. 그런데 고영근·구본관(2008:162)에 따르면 ‘까지’는 ‘포함’의 의미·기능을 지니지만 ‘도’보다 극단적인 일에 대해 사용되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만’은 ‘한정’의 의미·기능을 지닌다. 고영근·구본관(2008:162)에 따르면 ‘만’은 여러 가지 것 중에 유독 그것이 선택됨을 가리키는 적극적인 배제의 의미·기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소극적인 배제의 의미·기능을 지닌 ‘은’과 대비된다. 그리고 ‘만’은 특히 수량과 관련된 표현에 사용되면 그 수가 적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또한, ‘만’과 유사한 의미·기능을 지닌 보조사에 ‘밖에’가 있다. 그런데 ‘밖에’가 ‘만’의 차이는 ‘밖에’가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되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한국어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격조사는 동일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실현된다. 둘째, 격조사 중 특히 부사격조사는 의미·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현된다. 셋째, 격조사 간 혹은 격조사와 보조사 간에 유사한 의미·기능을 지닌 조사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한국어 조사가 형태나 의미·기능이 다양하면서도 유사한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어 학습자가 해당 조사 사용과 관련된 문법적인 정보를 정확히 모르면 해당 조사 사용에 있어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③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과’, ‘이나’ 등이 있다. ‘과’와 ‘이나’는 앞서 각각 부사격조사, 보조사로 분류되었으나 ‘과’와 ‘이나’ 뒤에 용언이 아니라 체언이 붙어 둘 이상의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단순히 이어주는 경우 특별히 격조사에서 분리하여 접속조사로 분류한다. 고영근·구본관(2008:158)에 따르면 ‘과’나 ‘이나’는 뒤에 붙은 문장 성분의 생략 여부에 따라 격조사 혹은 보조사와 접속조사를 구분할 수 있다. ‘과’나 ‘이나’ 뒤에 붙은 문장 성분을 생략하면 완전한 문장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는 부사격조사, 생략하여도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있는 경우는 접속조사에 분류할 수 있다.

2)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분류되는 조사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 조사는 각 조사가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중 하나에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중 ‘과’처럼 뒤에 결합되는 문장 성분이 용언이냐 체언이냐에 따라 격조사 혹은 접속조사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즉, 한국어 조사 중에는 두 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조사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한국어에는 그 외에도 주격조사 ‘이’, 목적격조사 ‘을’, 부사격조사 ‘에’와 ‘에서’가 이에 해당된다. 우선 주격조사의 ‘이’는 뒤에 결합되는 용언의 종류에 따라 보격조사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또한 보조사에 분류되기도 한다. 보조사에 분류되는 ‘이’의 특성은 격조사처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조사처럼 자신의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때렸다.’와 같은 문장에서 ‘당신이’의 ‘이’는 ‘때리다’라는 행위의 주어를 가리키는 문법적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격조사로 분류된다. 격조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래 문장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다른 조사와의 교체가 불가능하다. 만약 ‘당신을 때렸다.’처럼 ‘이’ 대신 목적격조사 ‘을’이 사용되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반면, 보조사에 분류되는 ‘이’는 다른 조사와 교체되어도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는 김밥이 먹고 싶다’와 같은 문장에서 ‘김밥이’의 ‘이’가 목적격조사 ‘을’로 교체되더라도 의미는 같고 ‘김밥’이 강조되는 느낌을 지니게 될 뿐이다. 또한, ‘이’의 이형태인 ‘가’는 ‘방이 깨끗하지가 않다.’처럼 ‘깨끗하지가’의 ‘가’의 유무가 문장의 의미와 무관하며 ‘깨끗하지 않다’가 강조되는 느낌을 지니게 될 뿐이다. 이처럼 주격조사 ‘이’는 보격조사 외에도 목적격조사 ‘을’과 교체되거나 ‘이’의 유무가 문장의 의미와 무관한 경우 보조사에 분류된다. 즉, ‘이’는 주격조사, 보격조사, 보조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목적격조사 ‘을’은 주격조사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조사에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을 마셔라.’와 같은 문장에서 ‘마음껏을’의 ‘을’은 ‘을’의 유무가 문장의 의미와 무관하며 ‘마음껏’이 강조되는 느낌을 지니게 될 뿐이다.[33] 또한, ‘을’의 이형태인 ‘를’은 ‘너는 어쩌자고 혼자 시장에를 갔니?’와 같은 문장에서 ‘시장에를’처럼 부사격조사 ‘에’ 뒤에 ‘를’이 결합되었는데 ‘를’의 유무가 문장의 의미와 무관하며 ‘시장에’가 강조되는 느낌을 지니게 될 뿐이다. 이처럼 목적격조사 ‘을’는 ‘을’의 유무가 문장의 의미와 무관하거나 부사격조사 ‘에’ 등 다른 조사 뒤에 결합되는 경우 보조사에 분류된다. 즉, ‘을’은 목적격조사와 보조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부사격조사 ‘에’와 ‘에서’ 중 먼저 ‘에’는 격조사 외에 접속조사에 분류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잔칫집에서 밥에 떡에 술에 아주 잘 먹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밥에 떡에 술에’처럼 ‘에’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둘 이상의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경우에 접속조사로 분류된다. 한편, ‘에서’는 앞서 격조사를 살펴볼 때 언급하였듯이 부사격조사 외에 단체명사와 함께 결합되면 주격조사에 분류된다. 즉, ‘에’는 부사격조사와 접속조사, ‘에서’는 주격조사와 부사격조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요컨대, 한국어 조사 중 두 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조사는 ‘이’, ‘을’, ‘에’, ‘에서’, ‘과’가 있으며 ‘이’는 격조사, 보격조사, 보조사, ‘을’

33) 예시 중 적절한 예시를 만들기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예시를 참조하였다.

은 격조사와 보조사, ‘에’와 ‘과’는 격조사와 접속조사, ‘에서’는 격조사 중 주격조사와 부사격조사로 각각 분류된다.

3)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의 특성

한국어 조사 중에는 문어와 구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조사가 존재하는 반면,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사가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어는 앞서 살펴본 구어의 유형 중 ‘구어체 구어’와 ‘구어체 문어’가 해당된다. 표현 방법과 상관없이 일상대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사임을 의미한다.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사는 한국어 조사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면 격조사와 접속조사에 존재한다. 우선 격조사에는 부사격조사 ‘한테’, ‘한테서’, ‘이랑’, ‘하고’가 있다. 먼저 ‘한테’와 ‘한테서’는 부사격조사 ‘에게’와 ‘에게서’와 의미·기능을 공유하되 주로 구어에서 사용되는 조사이다. 다음으로 ‘이랑’과 ‘하고’는 부사격조사 ‘과’와 의미·기능을 공유하되 주로 구어에서 사용되는 조사이다.

접속조사에는 부사격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랑’과 ‘하고’가 있다. 그런데 접속조사의 ‘이랑’과 ‘하고’는 부사격조사의 ‘이랑’과 ‘하고’와 달리 ‘과’의 쓰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희자·이종희(2010:90-91)에 따르면 ‘과’는 여러 개의 체언을 연결할 때 제일 끝에 연결되는 체언 뒤에서 사용되지 않는 반면, ‘이랑’과 ‘하고’에는 이와 같은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랑 너랑’ 혹은 ‘나하고 너하고’처럼 사용되지만 ‘나와 너와’처럼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 조사 중에는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사 외에도 구어에서 생략이나 축약 현상을 일어나는 조사가 별도로 존재한다. 먼저 생략 현상은 의미와 관계없이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지닌 격조사에 자주 일어난다. 고영근·구본관(2008:156-158)에 따르면 생략 현상은 격조사 중 주격조사 ‘이’, 목적격조사 ‘을’, 관형격조사 ‘의’에 비교적 쉽게 일어난다. 다만, 주격조사 ‘이’와 목적격조사 ‘을’은 고유한 의미를 나타낼 때, 즉 보조사로 사용될 때는 생략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관형격조사 ‘의’는 ‘소유주-피소유주’ 혹은 ‘전체-부분’의 의미가 아닌 경우에 생략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그 외에 부사격조사 ‘에’나 서술격조사 ‘이다’와 함께 접속조사 ‘과’, ‘이랑’, ‘하고’에도 생략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너 어디(에) 가?’처럼 부사격조사 중 진행 방향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 ‘이것이 전부(이)다.’처럼 전체가 생략되지 않고 ‘이’만 생략되어 ‘다’의 형태로 실현되는 서술격조사 ‘이다’, ‘과일 가게에는 사과, 포도, 배가 있다.’처럼 접속조사 ‘과’, ‘랑’, ‘하고’가 생략된다.[34] 그 외에도 주격조사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격조사 ‘께서’, 보격조사 ‘이’도 마찬가지로 구어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한편, 축약 현상은 주격조사 ‘이’, 목적격조사 ‘을’, 보조사 ‘은’, 부사격조사 ‘에서’가 사용될 때 일어난다. 주격조사 ‘이’는 의존명사 ‘것’ 뒤에 결합되어 ‘것이’의 형태가 될 때 구어에서는 ‘것이’의 축약형인 ‘게’로 나타낸다.[35] 목적격조사 ‘을’은 ‘ㄹ’로 나타내고 보조사 ‘은’은 ‘ㄴ’으로 나타낸다. 목적격조사 ‘을’과 보조사 ‘은’은 축약형을 ‘ㄹ’, ‘ㄴ’처럼 자음 하나로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부사격조사 ‘에서’는 ‘서’로 나타낸다. 다만, ‘서’는 다른 조사들의 축약형과 달리 ‘여기서’, ‘어디서’ 등 지시대명사와 함께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문어와 구어 상관없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

34) 접속조사는 생략되는 대신 그 자리에 문어에서는 쉼표를 찍고 구어에서는 휴지가 들어가야 한다.

35) ‘게’는 엄밀하게 말하면 주격조사 ‘이’가 단독으로 축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 축약형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 연구에서는 ‘게’를 구어에서만의 ‘이’의 사용 특성으로 보고 ‘이’의 축약 현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한국어 구어에서의 조사 오류의 특성

2.1. 구어에서의 오류의 개념과 정의

1) 오류의 특성

오류 관련 연구에서는 오류가 주된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오류와 오류가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류와 오류가 아닌 것의 구분에 대한 논의는 영어교육에서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코더(Corder, 1967)는 오류의 개념을 오류와 실수와의 차이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실수(mistakes)는 실언(slips on tongue), 즉 잘못 말하는 행위와 유사하다. 또한, 다음과 같이 실수의 특성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실수는 일반적으로 한 번만 일어난다. 둘째, 실수는 실수를 범한 화자가 해당 언어 행위를 실수로 인지하고 필요에 따라 화자가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 반면, 오류는 실수와 다른 특성을 지닌다. 첫째, 오류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오류는 이를 범한 화자(학습자)가 해당 언어 행위를 오류로 인식하지 못한다[가스와 세링커(Gass and Selinker, 1994:87) 재인용]. 즉, 오류는 실수와 달리 반복성을 띠며 화자가 인지할 수 없다. 요컨대 코더(Corder, 1967)에 따르면 오류는 출현 빈도와 화자의 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Ⅱ-3]과 같다.

[표 Ⅱ-3] 오류와 실수의 구분

구분	출현 빈도	화자의 인지 여부
오류(errors)	반복성	불가
실수(mistakes)	일회성	가능

화자의 인지 여부는 달리 말하면 학습자의 해당 언어 행위와 관련된 문법 지식의 유무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결정된다. 학습자가 해당 언어

행위와 관련된 문법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해당 언어 행위와 관련된 문법의 사용에 대한 정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실수로 규정해야 한다. 반대로 학습자가 해당 언어 행위와 관련된 문법 지식을 정확히 모른다면 해당 언어 행위와 관련된 문법의 사용에 대한 정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오류로 규정해야 한다.

2) 구어에서의 오류의 범위

앞서 살펴본 코더(Corder, 1967)의 오류와 실수의 구분은 오류 관련 연구에서 오류와 오류가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기존의 오류와 실수의 구분은 오류 관련 연구가 문어에서의 오류를 중심으로 다루었을 당시에 주로 사용되던 것이다. 이에 구어에서의 오류와 오류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데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앞서 구어의 특성을 살펴보았듯이 구어는 한 번 발화되면 발화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구어에서는 동일한 실수가 여러 번 나타날 수도 있으며 만약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오류와 실수의 구분으로는 반복성의 특성을 가진 실수를 실수로 규정할 수 없다. 구어에서는 구어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언어 처리가 빠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인해 일어나는 실수가 많이 보인다. 이는 모어 화자에도 보이는 현상이지만 외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습자에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현상이다. 즉, 구어에서는 아무리 문법 지식이 풍부하다고 하여도 구어, 즉 음성으로 나타내는 말에 익숙하지 않으면 실제 사용에서 자주 실수하게 된다. 이는 구어를 대표하는 하나의 특성인 즉각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학습자가 짧은 시간에 문법 지식을 음성으로 변환하지 못함에 기인한다.

시라하타 외(白畑他, 1999)에 따르면 언어교육과 관련하여 정보 처리 분야에서는 학습자가 해당 문법에 충분히 익숙해져 해당 문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해당 문법을 정확히 사용하며 말할 수 있는 언어 처리를 자동적 처리(automatic processing)라고 한다. 반면, 학습자가 해당 문법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언어 지식을 연결해 가는 언어 처리

를 통제적 처리(controlled processing)라고 한다[노다 외(野田他, 2001:65) 재인용]. 이처럼 구어에서는 해당 문법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처리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통제적 처리 단계에 있는 학습자가 언어 처리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여 실수하게 된다. 즉, 문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언어 처리를 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해당 문법과 관련하여 통제적 처리 단계까지 이르기만 하면 해당 문법을 습득하였다고 간주된다. 그런데 구어에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 자동적 처리 단계까지 일러야 해당 문법을 습득하였다고 간주된다.

따라서 구어에서 오류와 오류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데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자동화 처리 단계에서 나타난 부정확한 문법 사용을 오류로 볼 것인지, 혹은 실수로 볼 것인지이다. 지금까지의 오류와 실수의 구분에 따르면 불완전한 자동화 처리 단계에서 나타난 실수는 반복성이라는 이례적인 특성을 지니기는 하나 화자가 스스로 부정확한 문법 사용을 인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류보다 실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법 지식의 습득을 시작으로 통제적 처리에 따른 문법 지식의 정확한 사용을 거쳐 자동적 처리에 따른 문법 지식의 사용까지를 하나의 문법 습득의 과정으로 간주한다면 자동적 처리 단계에서 나타난 실수는 오류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문법 습득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오류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자동적 처리 단계에서 나타난 실수가 오류임을 학습자에게 지적함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해당 문법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연습을 통해 자동적 처리 단계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여 구어에서의 오류와 실수의 구분을 출현 빈도, 인지 여부와 함께 원인에 따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Ⅱ-4]와 같다.

[표 Ⅱ-4] 구어에서 오류와 실수의 구분

구분	출현 빈도	인지 여부	원인
오류(errors)	반복성	불가	문법 지식 부족
		가능	불완전한 자동적 처리
실수(mistakes)	일회성	가능	잘못 말함

또한, 구어에서는 오류와 실수의 구분과 관련하여 생략 허용 범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서 구어의 특성을 살펴보았듯이 구어는 문법 성분의 생략이 자주 일어난다. 특히 이 연구가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조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격조사를 중심으로 생략이 자주 일어난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다소 차이는 있어도 격조사의 생략이 실현되는 통사 조건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36] 그런데 문제는 모어 화자 간에서도 조사의 생략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문어에서는 조사의 생략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사의 생략은 조사의 누락으로서 대부분 오류로 간주하면 된다. 그러나 구어에서는 모어 화자 간에서도 구어의 유형이나 화자의 개인적인 발화 습관에 따라 생략의 정도에 크게 차이가 난다. 앞서 구어 유형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장 구어적인 구어인 구어체 구어에 가까워질수록 조사의 생략은 자주 일어난다. 또한, 구어체 구어 중에서도 비격식체인 경우에 더욱 더 조사의 생략이 자주 일어난다고 볼 있다. 반면, 화자의 개인적인 발화 습관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36) 고영근·구본관(2008:156-158)은 한국어 격조사의 생략이 주격조사 '이'가 '신정보(new information)'를 나타내거나 목적격조사 '을'이 '초점'을 나타낼 때 등의 고유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 때나 구어체나 짧은 문장이어서 어순이나 문맥 등에 따라 생략된 격조사가 쉽게 회복될 수 있을 때 일어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노다 외(野田他, 2001:57)는 일본어 격조사의 생략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1) 문체(style) 조건: 격식체 문어에서는 조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2) 조사 유형 조건: 조사 중 'は(wa)', 'が(ga)', 'を(o)', 'へ(e)'는 생략이 자주 일어나고, 'に(ni)', 'で(de)', 'と(to)', 'から(kara)'는 생략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3) 조사 용법 조건: 대비(대조)의 'は'나 배타적인(신정보인) 'が'는 생략할 수 없다.
4) 문장 유형 조건: 의문문이나 명령문, 권유문에서는 생략이 자주 일어난다.
5) 명사 유형 조건: 지시대명사나 지시대명사와 결합한 명사는 생략이 자주 일어난다.

생략의 정도를 헤아릴 수 없다.

이와 같이 조사의 생략 허용 범위는 구어의 유형과 화자의 발화 습관의 상대적인 조건의 조합에 따라 결정된다. 구어에서 학습자가 조사를 생략할 경우 모어 화자가 이를 자연스러운 생략으로 볼 것인지 혹은 부자연스러운 생략, 즉 생략 오류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구어에서의 조사의 생략 오류는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따를 필요가 있다.

2.2. 조사 오류의 유형과 특성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코더(Corder, 1974)의 학습자의 오류 유형에 따라 한국어 조사 오류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코더(Corder, 1974)는 오류의 원인에 따라 오류를 언어 내 전이(intralingual transfer), 언어 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 학습 환경 요소에 따른 오류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언어 내 전이'는 학습자가 목표어의 문법 규칙을 내재화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적용 범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즉,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목표어의 문법을 과잉 일반화하거나 단순화하는 형태로 오류가 나타난다. '언어 간 전이'는 학습자가 가진 목표어의 문법 지식이 부족할 때 자신의 모어의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부족한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때 학습자의 모어의 문법 사용에 대한 습관이 목표어의 문법 사용에 영향을 끼쳐 나타난다. '학습 환경 요소'는 교사의 잘못된 설명, 수업 지도 방법의 문제, 부적절한 교재 선택에 따라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언어 내 전이를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언어 간 전이를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로 하여 우선 두 가지 오류 유형의 특성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37]

37) 학습 환경 요소로 인한 오류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는 목표어의 문법 규칙에 대한 적용 범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어의 문법 규칙에 대한 적용 범위는 학습자가 해당 문법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이다. 해당 정보의 양은 각 문법 항목에 따라 다른데 많을수록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장채린·강현화(2013:109)는 이를 '학습자가 해당 문법 항목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의 복잡한 정도'라고 하여 각 문법 항목의 내재된 복잡함에 따라 학습자의 오류를 예측한 바 있다. 각 문법 항목의 복잡도는 형태, 통사, 의미·기능의 세 가지 영역에 따라 측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문법 항목의 목표어에 따른 오류를 예측할 수 있다.

한국어 조사의 복잡도를 형태, 통사, 의미·기능의 세 가지 영역에 따라 측정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태 측면에서 본 복잡도의 척도에는 첫째, 이형태 유무가 있다. 음운적, 형태적 교체에 따른 이형태는 해당 조사가 특정 조건에 따라 그 형태가 음운론적, 형태론적으로 바뀐다면 어떤 조건에서도 형태에 변화가 없는 조사에 비해 그 복잡도가 높다. 예를 들어, 주격조사 '이'는 이형태인 '가'가 존재하므로 보조사 '도'를 비롯한 단일 형태인 조사에 비해 인지적 부담이 크다. 즉, 이형태가 존재하는 조사는 단일 형태인 조사에 비해 복잡도가 높다. 둘째, 생략 가능 여부이다. 앞서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의 특성에서 살펴보았듯이 격조사를 중심으로 생략이 잘 일어나지만 모든 격조사가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생략이 가능한 조사 중에서도 관형격조사 '의'처럼 일부의 의미·기능으로 사용될 때는 생략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즉, 생략이 가능한 조사는 생략할 수 없는 조사에 비해 복잡도가 높다. 셋째, 축약형 혹은 결합형 유무이다. 앞서 살펴본 이형태는 특정 조건에서 형태에 변화가 꼭 일어나는 반면, 축약형 및 결합형 유무는 특정 조건과 상관없이 구어체에서 수의적으로 형태 교체가 일어난다. 해당 조사가 특정 조건과 상관없이 형태가 수시로 바뀐다면 어떤 조건에서도 형태에 변화

가 없는 조사에 비해 복잡도가 높다. 예를 들어, 목적격조사 '을'과 보조사 '은'은 구어에서 각각 축약형인 'ㄹ'과 'ㄴ'으로 나타나고 주격조사 '이'는 구어에서 의존명사 '것'과 함께 사용될 때 결합형 '것이'의 축약형인 '게'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통사 측면에서 본 복잡도의 척도에는 통사적 제약의 유무이 있다. 한국어 조사의 통사적 제약으로 첫째, 선행 명사와의 결합 제약이 있다. 해당 조사가 특정한 통사적 조건에 따라 선행하는 특정 명사와만 결합한다면 선행하는 명사와의 결합에 있어 어떠한 조건도 없는 조사에 비해 복잡도가 높다. 예를 들어, 주격조사 '께서'나 부사격조사 '께'는 선행 명사가 공대명사일 때만 사용할 수 있으므으로 동일한 의미·기능을 지닌 주격조사 '이'나 부사격조사 '에'에 비해 복잡도가 높다. 한편, 부사격조사 '에게'는 선행 명사가 유정명사일 때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의미·기능을 지닌 '에'보다 복잡도가 높다. 둘째, 관용적인 사용 제약이다. 해당 조사가 특정 통사적 조건에 따라 정해진 위치나 문형에서만 관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위치나 문형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없는 조사에 비해 복잡도가 높다. 예를 들어, 보조사 '밖에'는 부정문이나 '모르다'와 같이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의미·기능을 지닌 보조사 '만'에 비해 복잡도가 높다. 셋째, 문체에 따른 사용 제약이다. 여기서는 문어에서의 사용 제약을 의미하는데 해당 조사가 구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면 문어와 구어에서의 사용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없는 조사에 비해 복잡도가 높다. 예를 들어, 부사격조사 '한테'는 일반적으로 구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문어와 구어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에게'보다 복잡도가 높다. 넷째, 활용 가능 여부이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활용 불가능한 품사이지만 서술격조사 '이다'는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활용 불가능한 다른 조사에 비해 복잡도가 높다.

마지막으로 의미·기능 측면에서 본 복잡도의 척도에는 의미·기능의 유사성 유무와 그 수가 있다. 해당 조사에 그 외의 다른 조사와 유사한 의미·기능이 존재한다면 다른 조사와 의미·기능에 어떠한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 조사에 비해 그 복잡도가 높다. 예를 들어, 목적격조사 '을'은

부사격조사 ‘으로’, ‘에’, ‘에게’, ‘에서’ 4개와 각각 일부 유사한 의미·기능을 공유하며 상대적으로 복잡도가 매우 높은 조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주격조사 ‘이’와 보조사 ‘은’은 유형이 다르고 의미·기능이 ‘주어’와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학습자가 습득하기 어려운 조사로 유명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형태, 통사, 의미·기능의 세 가지 영역에 따른 한국어 조사의 복잡도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Ⅱ-5]와 같다. 각 항목에 대한 최종적인 해당 여부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이희자·이종희(2010)의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 어미·조사 사전”의 복잡도의 척도인 형태, 통사, 의미·기능에 대한 각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다. 형태의 생략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고영근·구본관(2008)도 함께 참고하였다. 해당하는 경우 ○로 표시하였으며 그 수가 많을수록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표 Ⅱ-5] 한국어 조사의 복잡도

조사 항목		형태			통사				의미·기능
					제약			활용	
		이형태	생략	축약	선행 명사	관용	문어		유사성
격조사	이(주)	○	○	○					○
	께서		○		○○				
	에서								
	이(보)	○	○						
	을	○	○	○					○○○○
	의		○	○					
	이다		○	○				○	
	으로	○							○○
	에		○						○○○
	에게			○	○				○
	에서			○					○○
	한테				○		○		
	께				○○				
	에게서				○				
	한테서				○		○		
	과	○	○			○			○
	이랑	○	○				○		○
	하고		○				○		○

보조사	가	○							
	를	○							
	까지								
	은	○		○					○
	도								
	부터								
	만								
	보다								
	마다								
	밖에					○			
	처럼								
	이나	○							
접속조사	과	○	○			○			○
	이랑	○	○				○		○
	하고		○				○		○
	에								
	이나	○							

형태와 관련된 복잡도의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형태 유무는 주격조사 '이'와 '가'와 같이 고유의 이형태를 지닌 조사와 함께 '으' 혹은 '이'의 모음 첨가에 따른 이형태를 지닌 조사가 해당한다. 다음으로 생략 가능 여부는 이희자·이종희(2010)를 통해 주격조사 '이', 접속조사 '과', 목적격조사 '을', 관형격조사 '의'의 네 가지 격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앞서 부사격조사 '에'나 서술격조사 '이다'도 생략이 일어난다는 고영근·구본관(2008)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에'나 '이다'에 대해서도 생략이 가능한 조사에 포함하였다.[38] 또한, 접속조사 '이랑'과 '하고'에 대해서는 접속조사 '과'와 같은 맥락에서 생략이 가능한 조사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약형 및 결합형 유무는 먼저 축약형의 경우 격조사를 중심으로 보조사 '은'은 'ㄴ', 목적격조사 '을'은 'ㄹ', 부사격조사 '에게'는 '게', 서술격조사 '이다'는 '다'로 각각 실현된다. 한편, 결합형의 경우 주격조사 '이'와 의존명사 '것'이 결합한 '게', 관형격

38) 고영근·구본관(2008:157)은 다음과 같이 부사격조사 '에', 접속조사 '과', 서술격조사 '이다'의 생략 예시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었다.

가. 어디 가니? 고향 간다.(어디에 가니? 고향에 간다.)

나. 사과, 밤, 배가 특별히 쌌다.(사과와 밤과 배가 특별히 쌌다.)

다. 형은 대학생, 나는 고등학생이다.(형은 대학생이고, 나는 고등학생이다.)

조사 ‘의’는 인칭대명사 ‘나’나 ‘너’ 등과 결합한 ‘내’나 ‘네’로 실현된다.

통사와 관련된 복잡도의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 명사와의 결합 제약은 유정성과 관련하여 유정명사와 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사격조사 ‘께서’, ‘에게’, ‘한테’, ‘께’, ‘에게서’, ‘한테서’가 해당한다. 그리고 그중 ‘께서’와 ‘께’에 대해서는 공대성과 관련하여 공대명사와의 결합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관용적인 사용 제약으로 먼저 사용 위치 제약이다. 접속조사 ‘과’의 경우 다른 접속조사와 달리 여러 개의 명사를 연결할 때 맨 끝에 연결되는 체언 뒤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긍정과의 사용 제약이다. 보조사 ‘밖에’의 경우 대개 부정적인 상황, 부정의 내용이나 뜻을 나타내는 문장,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하는 제약이 있다. 마지막으로 문어에서의 제약이다. 접속조사 ‘이랑’과 ‘하고’, 부사격조사 ‘한테’, ‘한테서’가 해당한다. 통사와 관련된 복잡도 중 마지막은 활용 여부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 조사 중 유일하게 서술격조사 ‘이다’는 활용할 수 있다.

의미·기능과 관련된 복잡도의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격조사 ‘이’와 보조사 ‘은’은 ‘주어’와 ‘주제’의 의미·기능이 유사하다. 목적격조사 ‘을’과 부사격조사 ‘으로’는 ‘자료·수단’과 ‘재료·원료’나 ‘수단·도구’의 의미·기능, ‘을’과 부사격조사 ‘에’는 ‘이동하고자 하는 장소’와 ‘진행 방향’의 의미·기능, ‘을’과 부사격조사 ‘에게’는 ‘행동의 간접적인 대상’과 ‘행동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기능, ‘을’과 부사격조사 ‘에서’는 ‘동작의 장소’와 ‘처소’의 의미·기능이 각각 유사하다. ‘으로’와 ‘에’는 ‘움직임의 방향’과 ‘진행 방향’의 의미·기능이 유사하다. ‘에’와 부사격조사 ‘과’, ‘이랑’, ‘하고’는 ‘비교의 대상’과 ‘비교·기준의 대상’의 의미·기능, ‘에’와 ‘에서’는 ‘처소’의 의미·기능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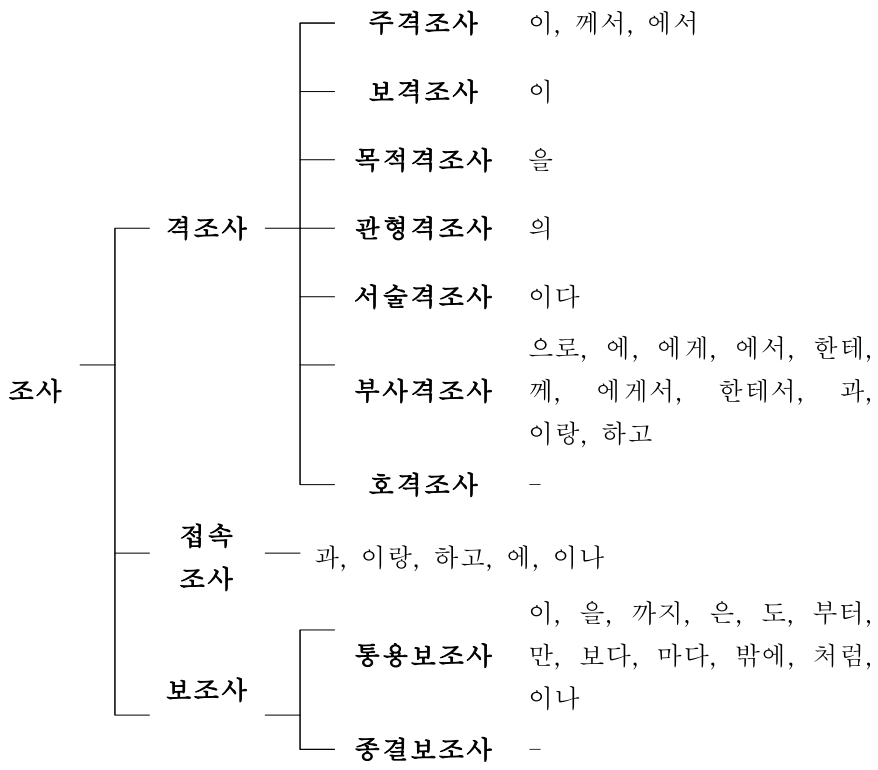
2)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는 학습자의 모어의 문법 사용에 대한 습관이 목표어의 문법 사용에 영향을 끼쳐 나타난다. 스톡웰, 보웬과 마틴

(Stockwell, Bowen & Martin, 1965)이나 프라터(Prator, 1967)가 모어와 목표어 간의 대응 관계에 따라 문법 항목의 난이도의 위계를 제시한 것처럼 한국어와 일본어 조사의 대응 양상을 밝히면 한국어 조사의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를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적인 관점에서 한국어 조사와 해당 조사가 지닌 의미·기능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이 일본어 조사와 형태적으로 어떤 대응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사 분류 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고영근·구본관(2008)의 한국어 조사 분류 체계에 따라 이 연구의 연구 범위로 설정한 조사를 분류하면 다음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한국어의 조사 분류 체계



반면, 일본어의 조사 분류 체계는 격조사를 제외하고 한국어의 조사 분류 체계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 체계가 매우 유사하지만 그중 조사는 다른 문법 범주보다 의외로 차이가 많다.

모리타(森田, 2007)에 따르면 일본어 조사는 격조사(格助詞), 계조사(係助詞), 부조사(副助詞), 준체조사(準体助詞), 병렬조사(並列助詞), 접속조사(接續助詞), 종조사(終助詞)의 일곱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중 격조사는 유일하게 한국어의 격조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존재하는데 그 외의 조사 유형에 대해서는 한국어 조사와의 대응 관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본어 조사 중 계조사와 부조사는 한국어의 보조사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일본어는 부조사 중 격조사 뒤에는 결합할 수 있으나 앞에는 결합하지 못하는 위치 제약이 있고 그 조사의 의미가 문장 전체에 관여하는 기능을 지닌 일부의 부조사를 별도의 계조사로 부른다. 계조사에는 'は(wa)', 'も(mo)', 'しか(shika)' 등이 분류되는데 한국어 조사 중 '은', '도', '밖에' 등이 해당한다.[39] 준체조사는 형식명사 'こと(koto)'와 'もの(mono)'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の(no)'이며 한국어의 의존명사 '것'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일본어의 관형격조사로 잘 알려진 'の(no)'와는 다른 조사이다. 병렬조사는 한국어의 접속조사에 해당하는 개념이지만 일본어에는 병렬조사와 함께 한국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 접속조사도 별도로 존재한다. 다만, 일본어에서의 접속조사는 한국어의 어미 중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종조사는 한국어의 어미 중 종결어미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즉, 일본어의 조사 체계에는 한국어의 조사와 함께 어미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어의 조사 분류 체계와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다른 문법 범주나 조사 유형

39) 모리타(森田, 2007:160)는 'は(wa)'와 'も(mo)'는 그 의미가 문장의 서술에 이르기까지 관여하는지에 따라 계조사로 분류할 수도 있고 부조사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りんご**は**果物だ。(사과는 과일이다)'의 'は(wa)'는 계조사로 분류되는데 주제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한국어 보조사 '은'과 같다. 반면, '一応行くことにはしたが(일단 가기로는 했지만)'의 'は(wa)'는 부조사로 분류되는데 강조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한국어 보조사 '은'과 같다.

과의 대응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2]와 같다.

[그림 Ⅱ-2] 일본어의 조사 분류 체계

조사	격조사	한국어의 격조사에 해당 (다만, 호격조사는 종조사에 포함)
	계조사	한국어의 보조사 중 '은', '도', '밖에' 등이 해당
	부조사	한국어의 보조사에 해당
	준체조사	해당 없음 (의존명사 '것'과 유사함)
	병렬조사	한국어의 접속조사에 해당
	접속조사	한국어의 연결어미에 해당
	종조사	한국어의 종결어미에 해당
조동사[40]	だ(da)	한국어의 서술격조사에 해당

요컨대,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사 대응 양상을 살펴보려고 하면 한국어의 조사를 기준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격조사 간의 대응 양상, 한국어의 보조사 중 통용보조사와 일본어의 계조사 및 부조사 간의 대응 양상, 한국어의 접속조사와 일본의 병렬조사 간의 대응 양상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한국어와 일본어의 격조사

격조사는 주격, 보격, 목적격, 관형격, 서술격, 부사격의 순으로 대응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주격조사이다. 한국어 주격조사는 '이', '께서', '에서'의 세 가지가 있는데 주어의 의미·기능 하나만 존재한다.[41]

40) 일본어 문법에서 조동사는 시제·상, 양태 등의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품사로서 조사와 달리 부속어(付屬語)에 속하지만 활용할 수 있다. 즉, 일본어 조사 중에는 활용이 가능한 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41) '이'는 주격조사, 보격조사, 보조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의미·기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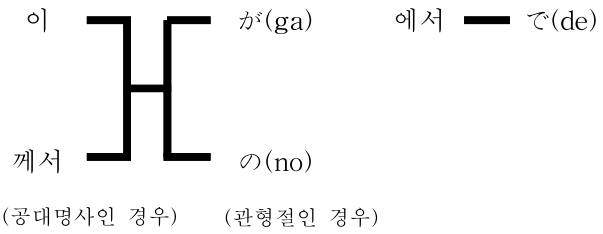
일본어의 주격조사는 ‘이’와 ‘께서’에 해당되는 ‘が(ga)’와 ‘の(no)’, 그리고 ‘에서’에 해당하는 ‘で(de)’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어로서의 의미·기능이 하나만 존재한다.[42] 따라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주격조사는 의미·기능이 완전히 일치한다. 즉, 의미·기능의 차이에 따른 오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미·기능은 하나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주격조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어와 일본어의 주격조사의 각 형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어 주격조사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이’가 있고 선행 명사가 공대명사일 때만 사용 가능한 ‘께서’가 별도로 존재한다. 또한, 한국어에는 학교나 기업 등의 단체를 가리키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형태로 ‘에서’가 존재하는데 이는 처소의 의미·기능 등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에서’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반면, 일본어는 ‘이’에 해당하는 ‘が(ga)’가 존재하고 한국어 ‘께서’와 같이 공대명사와만 결합하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が’를 주어로 삼는 서술어까지의 문장 전체가 관형절이 되어 체언을 수식할 때 ‘の(no)’, 즉 주격조사이지만 일본어 관형격조사 ‘の’와 같은 형태로 형태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본어에도 학교나 기업 등의 단체를 가리키는 명사와 함께 사용되는 형태로 ‘에서’에 대응하는 ‘で(de)’가 있는데 처소의 의미·기능 등을 나타내는 일본어 조사 ‘で’와 같은 형태를 취한다. 한국어 주격조사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3]과 같다.

존재한다. 여기서는 주격조사로서의 ‘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주어의 의미·기능 하나만 존재한다고 기술하였다.

42) 일본어 조사 ‘が(ga)’에는 한국어 목적격조사 ‘을’이 가진 의미·기능 중 하나인 대상의 의미·기능이 존재하는데 한국어를 기준으로 한국어와 일본어 조사의 의미·기능을 비교할 때 한국어 주격조사 ‘이’가 사용된 예시에는 대상의 의미·기능으로 일본어 ‘が’가 사용된 경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어 ‘が’의 대상의 의미·기능에 대해서는 한국어 목적격조사 ‘을’의 의미·기능과 일본어를 비교할 때 언급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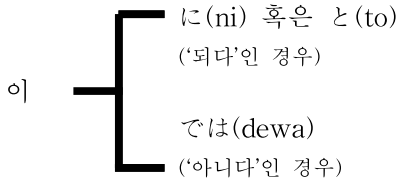
[그림 Ⅱ-3] 한국어 주격조사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이 대응 양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 명사가 공대명사일 경우 '께서'를 '이'로 실현함으로써 일어나는 오류인데 한국어 모어 화자의 대화에서도 공대명사일 경우 꼭 '께서'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이와 관련된 오류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오류가 있다면 선행 명사가 공대명사가 아닌데도 '께서'를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관형절일 때 주어를 나타내는 '이'를 '의'로 실현함으로써 일어나는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보격조사이다. 한국어 보격조사는 주격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로 나타내며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하는 대상의 의미·기능이 하나만 존재한다. 반면, 일본어는 보격조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표현이나 다른 격조사의 의미·기능으로 나타낸다. 또한, 일본어는 후행 용언에 따라 실현형태가 다르다. 후행 용언이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되다'의 경우 동작·작용 변화 결과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に(ni)'나 동작·상태 결과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と(to)'와 대응한다. 한편, 부정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아니다'인 경우 조사가 아니라, 서술격조사 '이다'에 해당하는 조동사 'だ(da)'의 활용형 'で(de)'와 보조사 '은'에 해당하는 'は(wa)'가 결합한 표현인 'では(dewa)'와 대응한다. 요컨대 보격조사의 경우도 주격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미·기능적으로는 완전히 일치하지만 형태적으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어 보격조사'이'와 일본어의 형태적 대응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4]와 같다.

[그림 Ⅱ-4] 한국어 보격조사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이 대응 양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되다'와 함께 '이'가 사용될 때 '이'를 'に(ni)' 혹은 'と(to)'로 실현함으로써 일어나는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니다'와 함께 '이'가 사용될 경우 '이'를 'では(dewa)'로 실현함으로써 일어나는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목적격조사이다. 목격조사는 '을'로 나타내며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을'은 ①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 ② 동작의 간접적인 대상, ③ 자료·수단, ④ 동작이 이루어지는 처소, ⑤ 이동하고자 하는 처소, ⑥ 행동의 목적, ⑦ 행동의 출발점, ⑧ 행동이 비롯되는 처소나 일, ⑨ 수량이나 동작의 순서의 총 9개의 의미·기능이 존재한다. ①~⑨의 각 의미·기능에 대한 예시와 한국어 목격적조사 '을'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여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① 나무<u>를</u>[を(o)] 심다.
①' 그녀는 장미<u>를</u>[が(ga)] 좋아한다.
② 이 시계는 친구<u>를</u>[に(ni)] 주려고 산 것이다.
③ 남은 재료<u>를</u>[を(o)] 이용해 찌개를 만들었다.
④ 가게<u>를</u>[を(o)] 돌아다니며 선물을 샀다.
⑤ 러시아 정상이 우리나라<u>를</u>[を(o)] 방문할 예정이다.
⑤' 회사<u>를</u>[に(ni)] 다닌다.
⑥ 낚시<u>를</u>[に(ni)] 간다.
⑦ 이 버스는 대구<u>를</u>[を(o)] 출발해서 서울로 간다.
⑧ 열두 시<u>를</u>[を(o)] 기준으로 승패를 결정한다.

⑨ 시계가 하루에 오 초를[무조사(Φ)] 빨리 간다.

①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①'의 예시와 같이 대상 중 좋고 싫음이나 희망, 능력 등을 나타낼 경우에 한하여 일본어는 'を(o)'가 아니라 'が(ga)'가 사용된다. 이는 일본어 'が'가 주격조사로서의 주어를 나타내는 의미·기능 외에 일부 용언과의 결합으로 대상의 의미·기능이 실현되기 때문이다. 한국어 역시 희망을 나타낼 때는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이'가 사용되는데 이는 보조사로서 강조의 의미·기능으로 사용한 것이다.[43] ②와 ⑥의 경우 일본어는 'を(o)'가 아니라 'に(ni)'로 실현된다. 그런데 ②의 경우 한국어도 'に'에 해당하는 '에게'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②와 같은 상황에서 'に'를 사용하는 것처럼 '에게'를 우선 사용하고 반대로 '을'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즉, ②와 관련된 오류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을'과의 결합이 가능함에 대한 지식을 일부러 습득하지 않으면 '을'을 사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다. ⑤의 경우 ①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⑤'의 예시처럼 일본어는 '가다', '다니다' 등의 이동 동사와 함께 사용할 때 '을'에 해당하는 'を'가 아니라 'に'로 실현된다.[44] 이는 ②와 유사한 경우인데 한국어도 'に'에 해당하는 '에'로 대체 가능하며 ⑤'와 관련된 오류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을'과의 결합이 가능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을'을 사용하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을 것이다. ⑨의 경우 일본어는 단위 등의 뒤에 목적격조사를 사용하지 않으며 무조사(無助詞; Φ)[45]가 원칙이다. 그런데 ⑨의 경우 한국어도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목적격조사의 생략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일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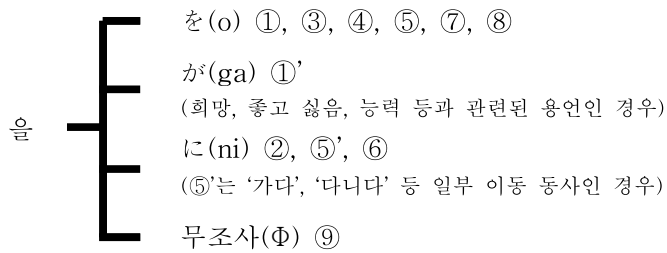
43)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강조의 의미·기능, 이희자·이종희(2010)는 한국어 주격조사 '이'의 이러한 용법을 '화용적 의미의 첨가'로 표현한 바 있다.

44) 일본어도 '산길을 가다'와 같이 '을'에 해당하는 'を'를 '가다'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を'는 '경로'의 의미·기능이다.

45) 구로사키(黒崎, 2003)는 조사의 복원이 가능하고 조사가 있어도 부자연스럽지 않은 경우를 '생략', 조사의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나 조사가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를 '무조사'로 구분하였다.[가리야도(苅宿, 2014:152) 재인용]

학습자가 ⑨와 같은 경우에 '을'을 사용하지 못해도 특별히 조사 생략이 자주 일어나는 구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목적격조사 '을'과 일본어 조사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5]와 같다.

[그림 Ⅱ-5] 한국어 목적격조사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이 대응 양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①'의 경우인데 대상의 의미·기능으로 좋고 싫음이나 능력 등을 나타낼 때 '을'을 '이'로 실현함으로써 일어나는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⑥의 경우인데 '을'을 '에'로 실현함으로써 일어나는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관형격조사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의'는 무려 21개[46]나 되는 의미·기능이 존재한다. 그런데 21개의 의미·기능에 대해 일본어

46) ① 소유 및 소속: 나의 옷, ② 행동·작용의 주체: 우리의 각오, ③ 대상을 제작하거나 이룬 형성자: 다윈의 진화론, ④ 과정·목표의 대상: 승리의 길, ⑤ 행동의 대상: 절서의 확립, ⑥ 앞의 체언에 관한 것: 한국의 지도, ⑦ 인물의 행동·행위에 의한 사건·사물의 대상: 책의 저자, ⑧ 속성: 물의 온도, ⑨ 속성의 보유자: 꽃의 향기, ⑩ 목적이나 기능: 축하의 잔치, ⑪ 동격: 조국 통일의 위업, ⑫ 사회·친족 관계: 선생님의 아들, ⑬ 사물이 일어나거나 위치한 곳: 제주의 말, ⑭ 사물이 일어나거나 위치한 때: 여름의 바다, ⑮ 정도·수량의 한정: 10년의 세월, ⑯ 전체와 부분: 국민의 대다수, ⑰ 사물의 특성: 불굴의 투쟁, ⑱ 비유의 대상: 철의 여인, ⑲ 재료: 순금의 보석, ⑳ 결과를 낳는 행동: 투쟁의 열매, ㉑ 다른 조사와의 결합: 저자와의 대화

와 비교하면 완전히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관형격조사 '의'에 해당하는 일본어 'の(no)'를 사용하듯이 한국어에서 '의'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의'와 관련해서는 안경화·양명희(2005), 김선효(2007), 베키(2016) 등의 선행연구에서 거듭 언급되었듯이 한국어는 '의'를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생략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는 '의'의 생략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간주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그런데 한국어 문법서나 사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의'의 생략에 대해 기술된 바 있다.

'관형격조사가 '소유주-피소유주'[47], '전체-부분'의 의미가 아닌 경우에는 생략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고영근·구본관(2008:157)]

'의'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잘 생략되지 않는다. 첫째, '소유주-피소유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둘째, '전체-부분'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셋째,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이희자·이종희(2010:938)]

한국어 문법서나 문법 사전에서는 '의'의 생략의 빈도나 가능 여부와 함께 생략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의'의 생략이 실현보다 자연스럽다는 언급은 찾을 수 없다. 또한, 고영근·구본관(2008:186)이 언급하였듯이 '미로의 비너스'처럼 두 가지 체언의 관계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한국어 문법서나 사전에서는 생략을 '선택'의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언어의 실제 사용 측면, 즉 한국인 모어 화자가 어떤 조건에서 '의'의 실현보다 생략을 자연스럽게 여기는지를 중요시한다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의'의 생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①~㉑ 중 실현보다 생략이 자연스러운 경우는 '소유주-피소유물' 혹은 그 하위범주에 속하는 관계로 간주될 때이다. 즉, ① 소유 및 소속, ③ 대상을 제작하거나 이룬

47) '소유주-피소유주'에는 '처소-사물', '제작자-작품' 등이 포함된다.

형성자, ⑦ 인물의 행동·행위에 의한 사건·사물의 대상, ⑧ 속성, ⑨ 속성의 보유자, ⑬ 사물이 일어나거나 위치한 곳, ⑭ 사물이 일어나거나 위치한 때의 7개이며 ⑫ 친족 관계와 ⑯ 전체-부분의 관계를 모두 합하면 9개에 달한다. 즉, '의'의 의미·기능 전체의 절반 정도가 실형보다 생략이 자연스러운 경우이며 '의'의 생략을 필수로 본다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앞서 언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의'를 적절하게 생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관형격조사 '의'와 일본어와의 의미· 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6]과 같다.

[그림 Ⅱ-6] 한국어 관형격조사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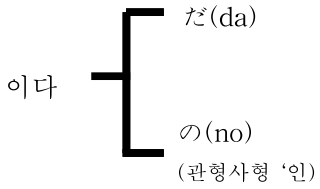
의
- 'の(no)'
  ②, ④, ⑤, ⑥, ⑩, ⑪, ⑮, ⑰, ⑱, ⑲, ⑳, ㉑
- 무조사(Φ)
  ①, ③, ⑦, ⑧, ⑨, ⑫, ⑬, ⑭, ⑯

다섯째, 서술격조사이다. '이다'는 한국어에서 활용 가능한 유일한 조사이다. 그런데 일본어는 서술격조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어는 품사 분류 상으로 조사는 활용 불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조사, 즉 조동사에 속하는 'だ(da)'로 나타낸다. 서술격조사는 선행 문장 성분이나 문법 요소에 따라 ① 지정(체언과의 결합), ② 속성(접미사 '-적'과의 결합, ③ 행동·상태(서술성이 있는 명사와의 결합), ④ 행동·상태의 양상(부사와의 결합), ⑤ 행동에 관여하는 상황(연결어미 '-어서'와의 결합)의 다섯 가지 의미·기능이 존재하는데 각 의미·기능에 대해 일본어와 비교하면 일본어와 완전히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① 중 '이다'의 관형사형인 '인'인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1) 훌륭한 학자인[の(no)] 그녀는 이번에 학술상을 받았다.

(1)의 문장은 체언, 즉 '학자'와 '이다'가 결합하여 명사문이 되고 그 뒤에 후행하는 체언, 즉 '그녀'을 수식하기 위해 '이다'가 관형사형인 '인'으로 바뀐다. 이때 '인'에 해당하는 일본어는 'だ'의 활용형이 아니라 한국어 관형격조사 '의'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 'の(no)'이다. 이에 대해 모리타(森田, 2007:148-149)는 일본어 조동사 'だ(da)'가 체언과의 결합은 가능하나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은 없으므로'だ(da)'가 체언을 수식하기 위해서는 'の'로 대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48]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서술격조사 '이다'와 일본어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7]과 같다.

[그림 Ⅱ-7] 한국어 서술격조사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이 대응 양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는 단 하나이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체언과 '이다'가 결합한 명사문을 '이다'의 관형사형 '인'으로 바꾸지 못하여 일본어와 같이 관형격조사 '의'를 대신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섯째, 부사격조사이다. 부사격조사는 격조사 중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하나의 행태가 다양한 의미·기능을 지니고 있는데다가 형태 간에서 일부 의미·기능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오류가 자주 나타나는 조사이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어의 부사격조사는

48) 다만, 'だ(da)'를 부사형으로 활용한 'で(de)'에 보조용언 'ある(aru)'가 결합한 'である(dearu)'의 형태가 되면 체언을 수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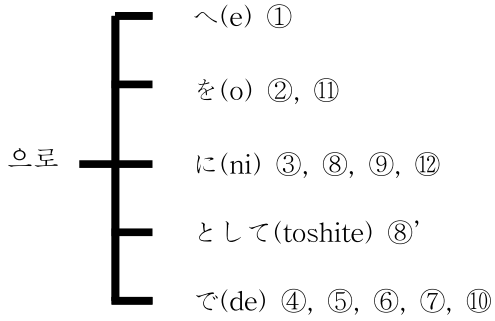
일본인 학습자가 오류를 자주 범하는 조사로 유명하다. 부사격조사에는 '으로', '에', '에게', '에서', '한테', '께', '에게서', '한테서', '과', '이랑', '하고'가 있다. 여기서는 '이'와 '께서'의 관계처럼 공대명사 혹은 구어체 여부에 따른 차이만 존재하고 의미·기능이 완전히 일치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으로', '에', '에서'는 하나씩 살펴보고 '에게', '한테', '께'와 '에게서', '한테서'와 '과', '이랑', '하고'를 각각 하나로 묶어 살펴본다. 먼저 '으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① 움직임의 방향, ② 움직임의 경로, ③ 변화의 방향, ④ 재료·원료, ⑤ 수단·도구, ⑥ 일의 방법·방식, ⑦ 원인, ⑧ 지위·신분·자격, ⑨ 시간 ⑩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 ⑪ '으로 하여금'·'으로 더불어'의 '으로' ⑫ 생각하는 바임의 총 13개의 의미·기능이 존재한다. ①~⑫의 각 의미·기능에 대한 예시와 함께 한국어 부사격조사 '으로'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여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으로.[へ(e)] 여행을 떠난다.
② 밤에는 외진 곳으로[を(o)] 다니는 것을 피해라.
③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に(ni)] 키운다.
④ 얼음으로[で(de)] 빙수를 만든다.
⑤ 붓으로[で(de)] 글씨를 쓴다.
⑥ 그는 큰 소리로[で(de)] 떠들었다.
⑦ 병으로[で(de)] 죽는다.
⑧ 회장으로[に(ni)] 뽑힌다.
⑧' 회원으로[として(toshite)] 가입한다.
⑨ 시험 시간을 한 시간으로[に(ni)] 제한한다.
⑩ 자동차 시험을 보는 것이 이번으로[で(de)] 일곱 번째가 됩니다.
⑪ 동생으로[を(o)] 하여금 집안일을 보게 하였다.
⑫ 그것을 유일한 낙으로[に(ni)] 삼는다.

①의 경우 유일하게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일본어 조사 'へ(e)'가 방향의 의미·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와 일본어는 후행 동사에 따라 대체 가능한 여부가 달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부사

격조사 중 ①과 유사한 의미·기능을 가진 '에', 일본어는 '에'에 해당하는 'に(ni)'로 동일하게 대체할 수 있다. ②와 ⑪의 경우 일본어는 'へ(e)'가 아니라 'を(o)'로 실현된다. 그런데 ②와 ⑪은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②의 경우 한국어는 목적격조사 '을'로 대체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②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어로 'を'를 사용하는 것처럼 '을'를 우선 사용할 것이며 '으로'와의 결합이 가능함에 대한 지식을 일부러 습득하지 않으면 '으로'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⑪의 경우 '으로'와 '하여금'을 각각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으로 하여금'과 같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 배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본어 조사의 사용 습관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③, ⑧, ⑨, ⑫의 경우 일본어는 'へ(e)'가 아니라 'に(ni)'로 실현된다. 그런데 ⑧의 경우 한국어도 '으로'를 '에'로 대체할 수 있고 ⑧과 유사한 의미·기능을 가진 '으로서', 일본어는 '으로서'에 해당하는 'として(toshite)'로 동일하게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일본어는 후행 동사에 따라 ⑧'처럼 'として(toshite)'와의 결합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 ⑧과 관련된 오류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④, ⑤, ⑥, ⑦, ⑩의 경우 일본어는 'へ(e)'가 아니라 한국어의 다른 부사격조사인 '에서'에 해당하는 'で(de)'로 실현된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으로'와 일본어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8]과 같다.

[그림 Ⅱ-8] 한국어 '으로'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이 대응 양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③, ⑧, ⑨, ⑫의 경우 '으로'를 '에'로 대치하므로 발생하는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④, ⑤, ⑥, ⑦, ⑩의 경우 '으로'를 '에서'로 바꾸어 생기는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① 처소, ② 시간, ③ 진행 방향, ④ 원인, ⑤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 ⑥ 움직임·작용이 미치는 대상, ⑦ 목표·목적의 대상, ⑧ 수단·방법, ⑨ 조건·환경·상태 ⑩ 기준이 되는 대상·단위 ⑪ 비교 대상 ⑫ 맡아보는 자리·노릇 ⑬ 제한된 범위 ⑭ 말하고자 하는 대상 ⑮ 더하여짐의 15개의 의미·기능이 존재한다. ①~⑮의 각 의미·기능에 대한 예시와 한국어 부사격조사 '에'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① 나는 시골에[に(ni)] 산다.
② 진달래는 이른 봄에[に(ni)] 핀다.
②' 나는 아침에[무조사(Φ)] 운동을 한다.
③ 학교에[に(ni)] 간다.
④ 바람에[に(ni)] 꽃이 진다.
⑤ 그의 거짓말에[に(ni)] 속지 마시오.
⑥ 나는 화분에[に(ni)] 물을 주었다.
⑦ 이 약은 감기에[に(ni)] 잘 듣는다.
⑧ 예전에는 등잔불에[で(de)] 글을 읽었다.
⑨ 기쁨에[に(ni)] 넘치는 나날이었다.
⑨' 이 무더위에(표현) 어떻게 지냈니?
⑩ 나는 하루에[に(ni)] 두 번씩 세수를 한다.
⑪ 과자가 이전에[に(ni)] 비해 양이 많이 줄었다.
⑫ 반장에[に(ni)] 그가 뽑혔다.
⑬ 포유류에[に(ni)] 무엇이 있지?
⑭ 이 문제에[に(ni)]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오시오.
⑮ 커피에[に(ni)] 설탕을 탄다.

한국어 부사격조사 '에'와 일본어 조사 'に(ni)'는 ⑧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의미·기능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⑧의 경우 일본어는 'に'가 아니라 'で(de)'로 실현된다. 이는 한국어가 앞서 언급한 '으로' 외에 '에'에도 수단·방법의 의미·기능이 존재하는 반면, 일본어는 'で(de)'가 수단·방법의 의미·기능을 전담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수단·방법의 의미·기능에서 '으로'를 '에서'로 나타내는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어도 ⑧과 같은 상황에서 오류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수단·방법의 의미·기능에서 '에'와의 결합이 가능함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에'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한편, ②와 ⑨의 경우에도 명사 종류나 동일한 의미·기능 중 일부의 의미·기능과 일치하지 않는다. 먼저 ②의 경우 한국어와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각각 '에' 또는 'に(ni)'가 결합되는데 일본어는 해당 명사가 나타내는 시간의 유형에 따라 ②와 같이 'に(ni)'와의 결합 혹은 ②'와 같이 무조사로 나타내야 한다. 노다(野田, 2001:113)는 일본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に(ni)'의 결합은 시간의 성격에 따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12시'와 같이 절대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に(ni)'가 결합되는 반면, '오늘'과 같이 현재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에는 'に(ni)'가 결합되지 않는다. 또한, 모리타(森田, 2007:268)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に(ni)'의 공기관계를 제시하며 '내일', '오후', '다음주', '옛날', '최근', '이전', '지금' 등의 명사에는 'に(ni)'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요컨대, 분명한 것은 ②의 '봄'은 절대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이고 ②'의 '아침'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⑨의 경우 조건·환경·상태 의미·기능을 나타내는데 그중 조건과 상태에서는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⑨'와 같이 '무더위' 등 환경을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될 때 일본어는 '에'에 해당하는 'に(ni)'를 사용하지 못하고 '酷暑の中(무더위 속)'처럼 전혀 다르게 표현을 사용해야만 자연스럽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에'와 일본어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9]와 같다.

[그림 Ⅱ-9] 한국어 '에'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에
- に(ni)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で(de) ⑧
- **무조사(Φ)** ②
- 표현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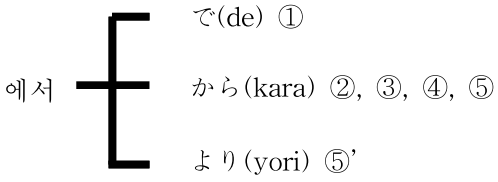
이 대응 양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는 단 하나이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②'의 경우와 같이 일본어 조사 'に(ni)'의 사용 습관을 그대로 적용하여 현재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에 '에'를 시용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① 처소, ② 출발점, ③ 일의 출처, ④ 근거, ⑤ 비교의 기준의 5개의 의미·기능이 존재한다. ①~⑤의 각 의미·기능에 대한 예시와 함께 한국어 부사격조사 '에서'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여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① 이 물건은 시장에서[で(de)] 사 왔다.
② 서울에서[から(kara)] 몇 시에 출발할 예정이냐?
③ 이 부분은 김 선생님의 논문에서[から(kara)] 인용한 것입니다.
④ 고마운 마음에서[から(kara)] 드리는 말씀입니다.
⑤ 지금 성적에서[から(kara)] 더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⑤' 이에서[より(yori)] 더 기쁘지는 않을 것이다.

①의 경우 유일하게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일본어 ‘で(de)’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기능 중 처소를 제외한 나머지 의미·기능이 ‘에서’가 아니라 ‘으로’나 ‘에’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②, ③, ④, ⑤의 경우 일본어는 ‘で’가 아니라 ‘부터’에 해당하는 ‘から(kara)’로 실현된다. 그런데 ⑤의 경우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는 ‘보다’, 일본어는 ‘보다’에 해당하는 ‘より(yori)’로 동일하게 대체 가능하며 ⑤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より(yori)’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일 것이다.[49] 또한, ⑤는 그 외에 ⑤’처럼 ‘이에서’의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일본어는 ‘から(kara)’와 ‘より(yori)’가 서로 교체되지 못하고 ‘より(yori)’로만 실현된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에서’와 일본어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10]과 같다.

[그림 Ⅱ-10] 한국어 ‘에서’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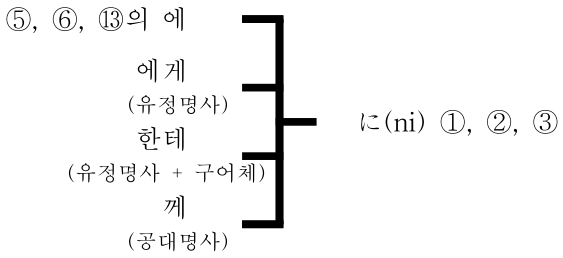
이 대응 양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는 단 하나이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주로 ②, ③, ④의 경우 ‘에서’를 ‘부터’로 실현함으로써 일어나는 오류를 일어나는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에게’, ‘한테’, ‘께’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앞서 살펴본 ‘에’가 가진 의미·기능의 일부인 ① 제한된 범위, ②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 ③ 움직임·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세 가지 의미·기능이 그대로

49) 오류가 일어날 확률과는 직접 상관이 없으나, ⑤ 외에 ②도 ‘より(yori)’로 동일하게 대체 가능하다.

존재한다. ①은 ‘에’의 ⑬, ②는 ‘에’의 ⑤, ③은 ‘에’의 ⑥에 각각 의미·기능이 일치하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의 ⑤, ⑥, ⑬의 의미·기능은 ‘에’에 해당하는 ‘に(ni)’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으므로 ‘에게’, ‘한테’, ‘께’는 ‘に’와 의미·기능적으로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에게’, ‘한테’, ‘께’는 ‘에’가 가진 ⑤, ⑥, ⑬의 의미·기능을 나타낼 경우 형태가 유정성, 구어성, 공대성의 각 여부에 따라 서로 달리 실현된다. 즉, ‘에게’, ‘한테’, ‘께’의 경우 ‘에게’, ‘한테’, ‘께’ 간의 오류보다 ⑤, ⑥, ⑬의 ‘에’와 ‘에게’, ‘한테’, ‘께’ 간의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중 구어성이나 공대성에 따라 형태 변화가 선택적인 ‘한테’나 ‘께’보다 유정성에 따라 형태 변화가 필수적인 ‘에게’와 관련된 오류가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에게’, ‘한테’, ‘께’와 일본어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11]과 같다.

[그림 Ⅱ-11] 한국어 ‘에게’, ‘한테’, ‘께’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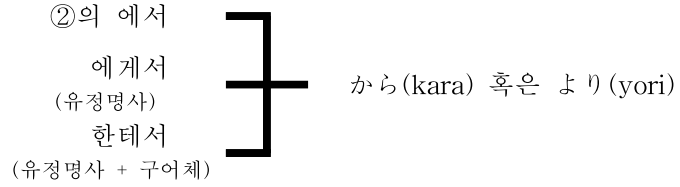


이 대응 양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는 선행 명사가 유정명사인데도 ‘에게’를 ‘에’로 실현함으로써 일어나는 경우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에게서’와 ‘한테서’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에게서’와 ‘한테서’는 ①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의 의미·기능이 하나만 존재한다. ①은 ‘에서’의 ②의 의미·기능과 일치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서’의 ②의 의미·기능은 ‘에서’에 해당하는 ‘で(de)’가 아닌, ‘から(kara)’ 혹은 ‘より(yori)’와 일치하는 양상을 확인하였으므로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에게서’와 ‘한테서’는 ‘에서’가 가진 ②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형태가 유정성이나 구어성 여부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 즉, ‘에’와 ‘에게’, ‘한테’, ‘께’의 관계처럼 ‘에게서’와 ‘한테서’에 오류가 나타난다고 하면 ‘에게서’와 ‘한테서’ 간의 오류보다 ②의 ‘에서’와 ‘에게서’, ‘한테서’ 간의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중 유정성에 따라 형태 변화가 필수적인 ‘에게서’와 관련된 오류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에게서’, ‘한테서’와 일본어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12]와 같다.

[그림 Ⅱ-12] 한국어 ‘에게서’, ‘한테서’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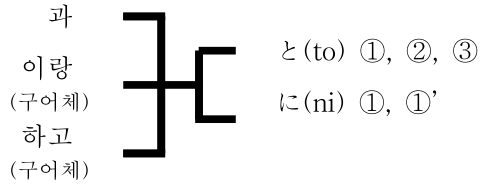
이 대응 양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는 단 하나이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특히 선행 명사가 유정명사인데도 ‘에게서’를 ‘에서’로 실현함으로써 일어나는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사격조사로서의 ‘과’, ‘이랑’, ‘하고’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과’, ‘이랑’, ‘하고’는 ① 비교·기준의 대상, ② 함께 하는 대상, ③ 상대로 하는 대상의 3가지 의미·기능이 존재한다. ①~③의 의미·기능에 대한 예시와 한국어 부사격조사 ‘과’, ‘이랑’, ‘하고’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여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① 자연은 무생물보다 동식물과(이랑 혹은 하고)[と(to)] 비교해야 하다.
①' 철수는 너와(이랑 혹은 하고)[と(to)] 닮았다.
② 나는 친구와(이랑 혹은 하고)[と(to)] 영화를 보러 갔다.
③ 사소한 오해로 그는 애인과(이랑 혹은 하고)[と(to)] 헤어졌다.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①은 ①'와 같이 후행 용언으로 '닮다'와 결합될 때 대응 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한국어는 '에'로 대체할 수 없으나 일본어는 '에'에 해당하는 'に'로 대체할 수 있다.[50] 즉, ①'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일본어 조사의 사용 습관에 따라 '에'에 해당하는 'に(ni)'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과', '이랑', '하고'와 일본어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13]과 같다.

[그림 Ⅱ-13] 한국어 '과', '이랑', '하고'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이 대응 양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는 단 하나이다. ①'처럼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후행 용언이 '닮다'일 때 '과', '이랑', '하고'를 '에'로 실현함으로써 일어나는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50) ①'의 경우 한국어는 '을'로 대체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가 '닮다'와의 결합에서 '과', '이랑', '하고'의 의미·기능을 비교의 대상보다 '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인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희자·이종희(2010)에서는 '닮다'와의 결합에서 '과', '이랑', '하고'의 의미·기능을 상태 동사의 대상이나 어떠한 관계에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② 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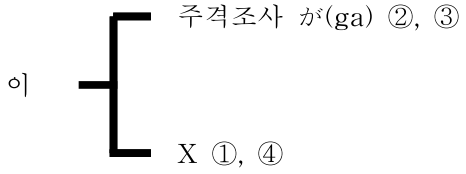
보조사는 ‘이’, ‘을’, ‘까지’, ‘은’, ‘도’, ‘부터’, ‘만’, ‘보다’, ‘마다’, ‘밖에’, ‘처럼’, ‘이나’의 순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이’와 ‘을’이다. ‘이’와 ‘을’은 각각 주격조사 및 보격조사, 목적격조사 외에 보조사로 강조의 의미·기능이 존재한다. 그런데 일본어는 보조사 ‘이’와 ‘을’에 해당하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의 강조의 의미·기능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제시되고 있으며 일본어 조사와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여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① 방이 깨끗하지가[X] 않다.
② 동네에 남은 사람은 거의가[が(ga)] 노인이다.
③ 나는 백두산 천지가[が(ga)] 제일 보고 싶었다.
④ 나는 학교가[X] 가고 싶다.

①은 연결어미 ‘-지’ 뒤에 ‘가’가 붙은 경우인데 일본어는 한국어처럼 부정을 나타내는 어미(일본어는 조사에 해당)에 ‘가’에 해당하는 일본어 ‘が(ga)’를 직접 붙여 쓸 수 없다. ②는 명사 혹은 부사로 사용되는 단어 뒤에 ‘가’가 붙은 경우이다. 일본어는 한국어처럼 ‘が(ga)’가 사용되기도 하나 일본어 사전에서는 이를 강조의 의미·기능으로 간주하지 않고 주격조사로 본다. ③은 원래 목격적조사 ‘을’이 사용되는 위치에 ‘가’가 강한 희망을 나타내는 문형인 ‘-고 싶다’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이다. 일본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が(ga)’에 희망과 관련된 문형과 함께 사용될 경우 대상의 의미·기능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②와 마찬가지로 강조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보지 않는다. ④는 ③과 마찬가지로 ‘가’가 희망을 나타내는 문형인 ‘-고 싶다’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인데 원래 부사격조사 ‘에’가 사용되어야 할 곳에 ‘가’가 사용되어 있다. 한국어는 ④처럼 부사격조사 ‘에’와 ‘가’의 교체도 가능하나 일본어는 ‘에’에 해당하는 ‘に(ni)’를 ‘가’에 해당하는 ‘が(ga)로 대체할 수 없다. 즉, ①~④ 중 ②와 ③은 조사 유형이나 의미·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형태적으로

는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보조사 ‘이’와 일본어 조사의 형태적 대응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14]와 같다.

[그림 Ⅱ-14] 한국어 보조사 ‘이’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앞서 언급했듯이 보조사 ‘이’에 해당하는 조사와 그 의미·기능이 일본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응 양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오류가 없다. 그 대신에 ①과 ④와 같은 사용 양상이 거의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②와 ③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주격조사로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보조사 ‘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①과 ④는 ‘가’와의 결합이 가능함에 대한 지식을 별도 습득하지 않으면 보조사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을’의 강조의 의미·기능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제시되고 있으며 일본어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여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① 너는 어쩌자고 혼자 시장에를[X] 갔니?
② 아무리 해도 흥분이 가라앉지를[X] 않았다.
③ 화만 내지 말고 말도 좀 들어를[X] 보세요.
④ 잊고를[X] 싶어도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⑤ 그 여자는 콩으로 매주를 쑨다고 해도 내 말은 곧이를[X] 듣지 않아요.

①은 부사격조사 뒤에 ‘를’을 붙인 경우, ②는 연결어미 ‘-지’ 뒤에 ‘를’

을 붙인 경우, ③은 연결어미 '-어' 뒤에 '를'을 붙인 경우, ④는 연결어미 '-고' 뒤에 '를'을 붙인 경우, ⑤는 부사 뒤에 '를'이 붙은 경우인데 일본어는 ①~⑤ 중 목적격조사 '을'에 해당하는 일본어 'を(o)'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보조사 '을'과 일본어 조사의 대응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15]와 같다.

[그림 Ⅱ-15] 한국어 보조사 '을'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을 ━━ X ①, ②, ③, ④, ⑤

보조사 '이'와 마찬가지로 보조사 '을'에 해당하는 조사와 그 의미·기능이 일본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응 양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오류가 없다. 그 대신에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①~⑤는 '를'과의 결합이 가능함에 대한 지식을 별도 습득하지 않으면 보조사 '을'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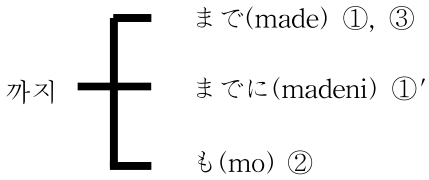
둘째, '까지'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까지'는 ① 범위의 끝, ② 더함, ③ 극단적인 경우의 3가지 의미·기능이 존재한다. ①~③의 의미·기능에 대한 예시와 한국어 '까지'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의 의미· 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여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①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まで(made)]가 청소를 한다.
①' 내일은 8시까지[までに(madeni)] 회사에 도착해야 한다.
② 밤도 늦었고 비까지[も(mo)] 내리니 하루 더 묵고 가거라.
③ 이 작은 시골에서 장관까지[まで(made)] 나오다니.

①은 대체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①'와 같은 경우 일본어는 'まで(made)'가 아니라 'まで(made)'에 부사격조사 '에'에 해당하는 'に(ni)'가 결합된 'までに(madeni)'에 대응한다. 일본어의 경우, 후행 동사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まで’와 ‘までに’를 구분하여 사용된다. ①’는 ‘도착하다’가 계속성이 없는 동사이기 때문에 ‘までに’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51] ②의 경우 일본어는 한국어 ‘도’에 해당하는 ‘も(mo)’로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まで(made)’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본어 ‘まで(made)’에는 한국어 ‘까지’처럼 ‘더함’의 의미·기능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まで’를 사용하면 해당 조사가 가진 의미·기능 때문에 ‘도’보다 ‘마저’의 의미·기능으로 해석된다. ③은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까지’와 일본어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16]과 같다.

[그림 Ⅱ-16] 한국어 ‘까지’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이 대응 양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일본인 학습자의 오류는 단 하나이다. ①’처럼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후행하는 용언이 계속성이 없는 동사일 경우에 ‘까지’가 아니라 ‘までに(madeni)’에 해당하는 ‘까지에’로 대치하는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②의 경우 ‘까지’를 ‘도’로 실현하여도 무방하므로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은’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은’은 ① 대조, ② 주제, ③ 강조의 3가지 의미·기능이 존재한다.[52] ①~③의 의미·기능에 대한 예시

51) 일본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까지’와 관련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범위의 끝’의 의미·기능을 후행 동사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①을 ‘기간’, ①’을 ‘기한’으로 나누어 교육한다.

52)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②의 의미·기능에 대해 ‘주제’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으나

와 한국어 '은'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여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① 사과는[は(wa)] 먹어도 배는[は(wa)] 먹지 마라.
①' 편지는[は(wa)] 자주 쓴다.
② 나는[は(wa)] 학생이다.
③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は(wa)] 해야지.

①~③을 통해 '은'과 'は(wa)'는 완전히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①과 ①은 대조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데 ①의 '사과는~, 배는~.'처럼 문장에 대조 대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반면, ①'의 '편지는~.'처럼 대조 대상이 문장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53] 일본어 역시 ①과 ①'처럼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한다. '은'과 관련해서는 오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은'과 주격조사 '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54]

넷째, '도'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도'는 ① 더함, ② 둘 이상의 대상·사태를 똑같이 아우름, ③ 양보(허용), ④ 극단적인 경우까지 양보(더 말할 필요도 없음), ⑤ 예외성·의외성의 강조, ⑥ 놀라움·감탄, 실망 등 감정의 강조의 6가지 의미·기능이 존재한다. ①~⑥의 의미·기능에 대한 예시와 한국어 '도'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여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통용되어 있는 '주제'를 사용한다.

53) 고영근·구본관(2008:161)에 따르면 ①'처럼 대조의 대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대조'의 의미·기능이 두드러지지 않고 이때 ①' '소극적인 배제'의 의미·기능을 가지게 된다. 즉, ①'은 ③처럼 강조의 의미·기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54) 일본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은'에 해당하는 'は(wa)'는 '은'과 달리 첫째 의미·기능으로 주제가 등재되어 있다. 이는 한국어가 '은'이 '대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일본어는 'は(wa)'가 주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음을 의미한다. 즉, 일본어는 한국어에 비해 문장의 주제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선행연구가 밝혔듯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문장의 과도한 주제화로 인해 '은'과 관련된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다.

① 나도[も(mo)] 이제 늙었나 보다.
② 아기가 눈도[も(mo)] 코도[も(mo)] 다 예쁘다.
③ 오늘까지 어려우시면 내일까지도[でも(mo)] 괜찮습니다.
④ 한순간도[も(mo)] 마음을 놓지 못한다.
⑤ 너는 신문도[も(mo)] 안 읽니?
⑥ 성적이 그렇게도[も(mo)] 중요한가?

①~⑥ 중 ③을 제외하고 일본어와 완전히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③은 양보(허용)의 의미·기능인데 일본어는 '라도'에 해당하는 'でも(demo)'로 실현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도'와 일본어 조사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17]과 같다.

[그림 Ⅱ-17] 한국어 '도'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도 ┬ も(mo) ①, ②, ④, ⑤, ⑥
└ でも(demo) ③

이 대응 양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일본인 학습자의 오류는 ③에서 학습자가 '도'를 'でも(demo)'에 해당하는 '라도'로 대치하는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③의 경우 상황이나 문맥에 따라서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것임'을 나타내는 의미·기능으로 '라도'가 대신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③에서 '도'가 '라도'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꼭 오류가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의 경우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부터'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터'는 '까지'의 의미·기능 중 하나인 범위의 끝의 반대가 되는 의미·기능인 범위의 시작을

나타내는 의미·기능 하나만 존재한다. 범위의 시작의 의미·기능에 대한 예시와 한국어 '부터'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의 의미· 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은 다음과 같다.

① 그는 처음부터[から(kara)] 끝까지 말썽이다.

①의 경우, '부터'와 'から(kara)'는 완전히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며 '부터'와 관련해서는 오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만'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만'은 ① 한정, ② 강조, ③ 기대하는 마지막 선, ④ 정도에 달함, ⑤ 조건의 5가지 의미·기능이 존재한다. ①~⑤의 의미·기능에 대한 예시와 한국어 '만'과 일본어 조사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여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① 모임에 그 사람만[だけ(dake)] 참석했다.
② 그를 만나야만[さえ(sae)]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③ 열 장의 복권 중에서 하나만[だけ(dake)] 당첨되어도 바랄 것이 없다.
④ 청군이 백군만[くらい(kurai) 혹은 より(yori)] 못하다.
⑤ 너무 피곤해서 눈만[だけで(dakede)] 감아도 잠이 올 것 같다.

①과 ③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⑤는 ①과 ③처럼 'だけ(dake)'로 실현되어도 무슨 의미인지 이해된다. 그러나 일본어는 ⑤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자면 ⑤처럼 '눈만 감아도'가 아니라 '눈을 감은 것만으로도', 즉 '만'과 '으로'가 결합된 합성조사 '만으로'에 해당하는 'だけで(dakede)'로 실현되는 것이 적절하다. ②의 경우 일본어에는 연결어미 '-어야'에 '만'을 결합하는 방식의 표현이 없다. 일본어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려면 ②처럼 '만나야만'이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처럼 표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이때 '만나기만 하면'에 사용된 '만'은 일본어 'さえ(sae)'로 실현된다. ④의 경우 '만 하다' 혹은 '만 못하다'와 같이 사용되는데 일본어는 문장 유형에 따라 실현되는 조사가 다르다. 일본어는 평서문인 '~만 하다'의 '만'이 '만큼'에 해당하는 'くらい(kurai)'로 실현되는 반면, 부정문인 '~만 못하다'의 '만'은 '보다'에 해당하는 'より(yori)' 혹은 비교

대상의 의미·기능인 ‘에’에 해당하는 ‘に(ni)’로 실현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만’과 일본어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양상을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18]과 같다.

[그림 Ⅱ-18] 한국어 ‘만’과 일본어의 대응 양상

만
- だけ(dake) ①, ③
- だけで(dakede) ⑤
- さえ(sae) ②
- くらい(kurai), より(yori) 혹은 に(ni) ④

(평서문) (부정문)

이 대응 양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일본인 학습자의 오류는 ②, ④, ⑤의 경우이다. 그런데 오류가 실제로 나타나려면 학습자가 ②, ④, ⑤처럼 한국어의 표현 방식에 따라 그대로 표현할 경우에 한정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라면 ②, ④, ⑤를 각각 일본어의 표현 방식에 맞게 ②는 ‘만나기만 하면’, ④는 ‘눈을 감는 것만으로’, ⑤는 ‘만큼’ 혹은 ‘보다’나 ‘에’를 사용한 ‘에 비해’처럼 표현할 것이다. 따라서 ‘만’과 관련된 오류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의 경우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의 표현 방식을 잘 구사할 수 있는지, 즉 사용 차원에서의 문제는 제기될 수도 있어도 오류 차원에서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보다’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보다’는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는 의미·기능이 하나만 존재한다. 해당 의미·기능에 대한 예시와 한국어 ‘보다’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은 다음과 같다.

① 그는 나<u>보다[より(yori)]</u> 두 살 위이다.

①의 경우, ‘보다’와 ‘より(yori)’는 완전히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며 ‘보다’와 관련해서는 오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마다’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마다’는 ① 낱낱이 모두 와 ② 한 번씩의 2가지 의미·기능이 존재한다. ①과 ②의 의미·기능에 대한 예시와 ‘마다’에 해당하는 일본어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여부는 다음과 같다.

① 사람마다[ごとに(gotoni)] 성격이 다르다.
② 우리 학교는 2년마다[ごとに(gotoni)] 체육 대회를 한다.

이 경우, 일본어는 ‘마다’에 해당하는 ‘ごとに(gotoni)’가 대응되는데 ‘ごとに’는 접미사 ‘ごと(goto)’와 ‘에’에 해당하는 ‘に(ni)’가 결합한 형태이다. 즉, 일본어에는 ‘마다’에 해당하는 조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나 이를 대신하는 다른 표현과 완전히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마다’와 ‘ごとに(gotoni)’의 대응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면 ‘ごとに(gotoni)’와 관련된 오류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밖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밖에’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에 주로 사용되며 ‘그것 이외에는’의 의미·기능 하나만 존재한다. 해당 의미·기능에 대한 예시와 ‘밖에’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여부는 다음과 같다.

① 가지고 있는 돈이 천 원밖에[しか(shika)] 없었다.

①의 경우, ‘밖에’와 ‘しか(shika)’는 조사임은 물론, 부정을 나타내는 말에 주로 사용되는 관용적인 사용 제약까지 완전히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밖에’와 관련된 오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열째, ‘처럼’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처럼’은 서로 비슷함·같음의 의미·기능 하나만 존재한다. 해당 의미·기능에 대한 예시와 ‘처럼’에 해당하는 일본어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은 다음

과 같다.

① 아이처럼[ように(youni)] 순진하다.

①의 경우, 일본어는 '처럼'에 해당하는 'ように(youni)'가 대응되는데 일본어는 'ように(youni)'가 조동사 'ようだ(youda)'의 한 활용형이다. 즉, 일본어는 '처럼'에 해당하는 조사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나 이를 대신하는 조동사 활용형과 완전히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ように(youni)'와 관련된 오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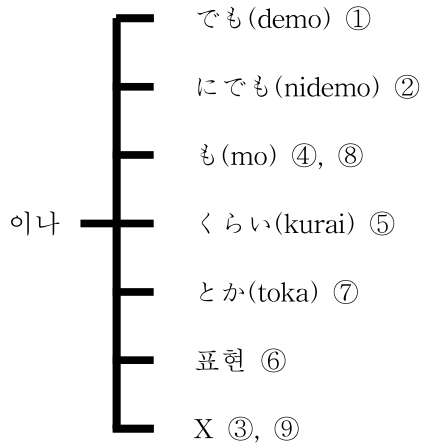
열한째, '이나'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이나'는 ① 최소한의 선택, ② 빈정거림, ③ 최선의 자격·조건, ④ 놀람, ⑤ 수량·정도를 어림잡음, ⑥ 어느 정도는 됨, ⑦ 별로 관심이 없음(인용), ⑧ 상관없음, ⑨ 비교의 총 9개의 의미·기능이 존재한다. ①~⑨의 각 의미·기능에 대한 예시와 '이나'에 해당하는 일본어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여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① 그것이나[でも(demo)] 가져라.
② 자기가 무슨 대장이나[にでも(nidemo)] 되는 것처럼 굴더라.
③ 사월이나[X] 되니까 날씨가 따뜻하다.
④ 벌써 반이나[も(mo)] 끝냈다.
⑤ 열 살이나[くらい(kurai)] 되었겠다.
⑥ 그 사람은 돈푼이나[표현] 있다고 거만하다.
⑦ 그래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나[とか(toka)] 뭐 그러던데.
⑧ 그는 문학이나[も(mo)] 음악이나[も(mo)] 모두 소질이 있다.
⑨ 자식 말만 믿고 아들을 타국으로 보냈으나 이제는 엎지른 물이나[X] 진배없는 일이다.

①의 경우 유일하게 완전히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②의 경우 거의 모든 예시에 '이나'와 함께 후행 동사에 '되다'가 사용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나’ 자체만으로는 ①처럼 완전히 일치하는 양상을 보일 것인데 ‘이나’ 뒤에 후행 동사로 ‘되다’가 결합되므로 일본어는 ‘에’에 해당하는 ‘に(ni)’와 결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に(ni)’와 ‘でも(demo)’의 합성조사인 ‘にでも(nidemo)’로 실현된다. ④, ⑦의 경우 ‘이나’가 ‘도’에 해당하는 ‘も(mo)’로 실현되고 ⑤의 경우 ‘이나’가 ‘만큼’이나 ‘정도’에 해당하는 ‘くらい(kurai)’로 실현된다. ⑥의 경우 일본어는 조사로 표현할 수 없으며 해당 명사 앞에 ‘ちょっとばかり(chottobakari)’, 즉 ‘(남들보다) 조금만 더’의 뜻을 가진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⑦의 경우 ‘든지’에 해당하는 ‘とか(toka)’로 실현된다. 그런데 ③과 ⑨는 다른 것과 경우가 다르다. ③과 ⑨의 경우 일본어는 예외적으로 어떤 조사나 표현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의미·기능으로 봐야 한다. 만약 다른 조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하면 ③은 ‘사월이’의 ‘이’처럼 주격조사 ‘이’에 해당하는 ‘が(ga)’, ⑨의 경우 ‘엎지른 물과’의 ‘과’처럼 부사격조사 ‘과’에 해당하는 ‘と(to)’와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동일한 의미·기능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나’와 일본어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양상을 밝히면 다음 [그림 Ⅱ-19]와 같다.

[그림 Ⅱ-19] 한국어 보조사 ‘이나’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이 대응 양상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일본인 학습자의 오류는 ②, ④ ⑦의 경우이다. ③, ⑤, ⑥, ⑧, ⑨의 경우 대응하지 않거나 대체 불가능한 양상을 보이나 그것이 오류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차원에서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중 ⑤와 ⑥, ⑧의 경우 해당 부분에 굳이 '이나'를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조사나 표현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③과 ⑨의 경우 완전히 사용 차원에서의 문제이다. 따라서 ③, ⑤, ⑥, ⑧, ⑨의 경우 오류 차원에서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나'의 다양한 의미·기능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사용 차원에서의 문제로서 매우 중요하다.

③ 접속조사

접속조사는 '과', '이랑', '하고', '에', '이나'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접속조사는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줌'의 의미·기능 하나만 존재하며 그중 '이나'는 '나열되는 사물 중 하나만 선택됨'의 의미가 추가된 것으로 다른 접속조사와는 의미·기능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접속조사는 '이나'와 그 외의 접속조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과', '이랑', '하고'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여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① 경숙과(이랑 혹은 하고)[と(to)] 민희는 여고 동창이다.
①' 형이랑(하고)[と(to)] 동생이랑(하고)[X] 다 직장에 나갔어요.

①와 같이 '경숙과 민희'처럼 'A와 B'의 관계에서는 '과', '이랑', '하고'와 'と(to)'는 완전히 대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①'와 같이 '형이랑 동생이랑'처럼 'A이랑 B이랑'의 관계에서는 'B이랑'의 부분에 한국어는 '이랑' 혹은 '하고'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본어는 한국어 '과'와 마찬가지로 'と(to)'를 사용할 수 없다. 즉, 일본어 'と(to)'는 '과', '이랑', '하고' 중에'과'와 가장 가까운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즉, '과'와 'と(to)'는 문어체와 구어체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마지막 말에는 사용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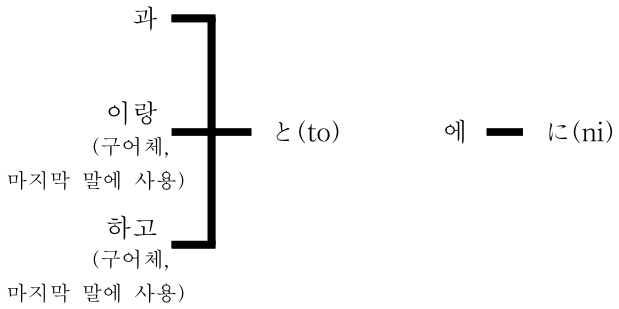
없다는 부분까지 완전히 일치한다. 반면, '이랑'과 '하고'와는 구어체에서 사용되고 마지막 말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문어체와 구어체, 마지막 말에 대한 사용 여부와 관련된 오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구어가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문어체와 구어체와 관련된 오류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と(to)'의 사용에 익숙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마지막 말에 'と(to)'에 해당하는 '과'를 사용하지 않아 마지막 말에 대한 사용 여부와 관련된 오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이를 사용 차원에서의 문제로 볼 때 '이랑'와 '하고'는 마지막 말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별도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에'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은 다음과 같다.

① 잔칫집에서 밥에[に(ni)] 떡에[に(ni)] 술에[に(ni)] 아주 잘 먹었다.

①과 같이 '에'와 'に(ni)'는 '과', '이랑', '하고'와 'と(to)'의 관계와 달리 완전히 대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과', '이랑', '하고'는 마지막 말에 대한 사용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에'와 'に(ni)'는 마지막 말에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점까지 완전히 일치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 '과', '이랑', '하고'와 일본어 조사 'と(to)', '에'와 'に(ni)'의 대응 양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Ⅱ-20]과 같다.

[그림 Ⅱ-20] 한국어 접속조사 '과', '이랑', '하고', '에'와 일본어의 대응 양상



마지막으로 '이나'는 앞서 언급했듯이 두 가지 이상을 나열하여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접속조사이며 해당 의미·기능에 대한 예시와 한국어 '이나'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와의 의미·기능에 따라 실현되는 형태적 대응 여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소설가나[か(ka)] 시인일 것이다.

①과 같이 '이나'와 'か(ka)'는 완전히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나'와 관련된 오류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55]

지금까지 한국어 조사를 유형별로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나누어 일본어와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Ⅱ-6]과 같다.

55) 일본어는 'と(to)'와 함께 유사한 의미·기능을 가진 'や(ya)'가 있는데 와타나베(渡邊, 2003:14)에 따르면 'や(ya)'는 'と(to)'와 달리 모두를 나열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 나열하는 의미·기능이 있고 'と(to)'와 유사하게 모두를 나열할 수 있지만 동일한 속성을 가진 것들끼리 나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일본의 일부 교재에서는 'や(ya)'를 한국어 '이나'에 대응시켜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사용 측면에서는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Ⅱ-6] 한국어 조사와 일본어의 대응표

조사 유형		한국어	일본어
격조사	주격	이	が(ga), の(no)
		께	
		에서	で(de)
	보격	이	に(ni), と(to), では(dewa)
	목적격	을	を(wo), が(ga), に(ni), 무조사
	관형격	의	の(no)
	서술격	이다	だ(da), の(no)
	부사격	으로	へ(e), と(to), に(ni), として(toshite), で(de)
		에	で(de), で(de), 무조사, 표현
		에서	で(de), から(kara), より(yori)
		에게	に(ni)
		한테	
		께서	
		에게서	から(kara), より(yori)
		한테서	
		과	と(to), に(ni)
		이랑	
		하고	
보조사		이	주격의 が(ga), X
		을	X
		까지	まで(made), までに(madeni), も(mo)
		은	は(wa)
		도	も(mo), でも(demo)
		부터	から(kara)
		만	だけ(dake), だけで(dakede), さえ(sae), くらい(kurai), より(yori), に(ni)
		보다	より(yori)
		마다	ごとに(gotoni)
		밖에	しか(shika)
		처럼	ように(youni)
		이나	でも(demo), にでも(nidemo), も(mo), くらい(kurai), とか(toka), 표현, X
접속조사		과	と(to)
		이랑	
		하고	
		에	に(ni)
		이나	か(ka)

3. 일본에서의 한국어 조사의 사용에 대한 교육 현황

앞서 코더(Corder, 1974)의 오류의 원인에 따른 분류에 따라 오류를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에 대해 각 오류의 원인 요소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는 문법 복잡도와 관련하여 한국어 조사가 가진 사용에서의 복잡함,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는 한국어와 일본어 조사 간의 대응 양상에 대한 문법 지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오류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조사 오류와 관련된 문법 지식의 습득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 이에 일본의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한국어 조사 사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학습자에게 어떠한 문법 지식을 제공하는지를 오류 원인의 유형 중 하나인 학습 환경 요소 중 특히 교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1. 분석 대상 교재 선정

여기서는 일본에서의 한국어 조사의 사용에 대한 교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분석 대상 교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각 대학에 따라 채택되는 교재가 각양각색이므로 분석 대상 교재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적 자료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해당 자료를 통해 현재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어 있는 한국어 교재 중 여러 권을 선정하여 일본에서의 한국어 조사의 사용에 대한 평균적인 교육 현황을 도출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하세가와 외(2021)의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 조사(日本における韓國語教育實情調査)'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시점에서 일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한국어 교재 목록을 참고하여 분석 대상 교재를 선정하기로 한다. 하세가와 외(2021:35-42)에 따르면 2020년 시점에서 일본에서는 535개 대학(그중 4년제 453개 대학, 2년제 82개 대학)에서 157종의 다양한 한국어 교재가 사용되어 있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그중 현재 전공과 교양을 불문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어 있는 교재 상위 5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해당 교재에 나타난 조사 항목 수, 제시 및 방법에 대해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어 조사 사용에 대한 교육의 실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 교재 목록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Ⅱ-7]과 같다.

[표 Ⅱ-7] 분석 대상 교재 목록

교재 번호	교재명	출판 연도	사용 순위	대학 수
①-1	최신 도전! 한국어(초급) (最新チャレンジ！韓國語)	2014	1	20
①-2	살짝 도전! 한국어(중급) 개정판 (ちょこっとチャレンジ！韓國語 改訂版)	2017		4
②-1	기초부터 배우는 한국어 강좌 초급 개정판 (基礎から學ぶ韓國語講座 初級 改訂版)	2013	2	16
②-2	기초부터 배우는 한국어 강좌 중급 개정판 (基礎から學ぶ韓國語講座 中級 改訂版)	2020		6
③-1	커뮤니케이션 한국어 듣고 말하자Ⅰ(초급) (コミュニケ―ション韓國語 聞いて話そうⅠ)	2012	3	9
③-2	커뮤니케이션 한국어 듣고 말하자Ⅱ(중급) (コミュニケ―ション韓國語 聞いて話そうⅡ)	2016		7
④-1	한국어의 세계로 입문편 ~차근차근 배우고·케주얼하게 말하자~ (韓國語の世界へ 入門編 ～コツコツ學び·カジュアルに話そう～)	2012	4	8
④-2	한국어의 세계로 초중급편 ~차근차근 배우고·케주얼하게 말하자~ (韓國語の世界へ 初中級編 ～コツコツ學び·カジュアルに話そう～)	2013		4
⑤-1	개정판 파란 새 한국어 초급 (改訂版 パランセ韓國語 初級)	2013	5	6
⑤-2	개정판 파란 새 한국어 중급 (改訂版 パランセ韓國語 中級)	2016		1

분석 대상 교재, 즉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재 상위 5종의 교재로서의 공통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해 만들어진 교재이다. 둘째, 초판이 2010년 이후, 즉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교재이다. 셋째, 내용은 초급 수준이되 이를 초급과 중급의 두 권으로 구성된 교재이다.[56] 넷째, 학습자의 최근 성향을 반영하여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구어 중심적인 내용의 교재이다.

현재 전공과 교양을 불문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재 상위 5종은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535개 대학 중 81개 대학, 즉 전체 대학의 약 15%가 채택한 교재이다. 15%라는 비중은 일본에서의 한국어 조사의 사용에 대한 교육의 실제를 살펴보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교재 외의 교재가 대부분이 1개 또는 2개 대학에서만 채택되고 사용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교재는 다른 교재들에 비하면 몇 배 이상의 대학에서 채택되고 사용되어 있는 교재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 교재로서의 위상이 높고 교재로서의 질 역시 확실한 교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3.2. 제시 방법

1) 조사 항목 수, 생략 및 축약형

먼저 조사 항목 수, 축약형 및 생략과 함께 두 가지 이상의 의미·기능의 제시 현황을 밝히면 다음 [표 Ⅱ-8]과 같다.[57] 표 중에서 ○는 하나

56) 하세가와·이수경(2002:248)은 일본의 한국어교육에서 일본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당연히 많으나 경우에 따라 처음부터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일본에서 개발된 교재가 대부분 초급 교재 한 권에 그쳐, 교재 내용의 체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들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초급과 중급의 두 권으로 구성된 교재가 다수 출판되어 이들 교재를 채택하는 대학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57) 교재에서의 조사 항목의 제시는 학습 항목으로서의 명시적 제시뿐만 아니라 교재 내

의 의미·기능의 제시, ◎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기능의 제시, ●는 생략 및 축약형의 제시를 각각 의미한다.

[표 Ⅱ-8] 교재별 조사 항목 수, 생략 및 축약형의 제시 현황

		①-1	①-2	②-1	②-2	③-1	③-2	④-1	④-2	⑤-1	⑤-2
격조사	이(주)	○	●	○		○		○	●	○●	
	께서				○				○		○
	에서(주)										
	이(보)	○		○		○●		○		○	
	을	○		○●		○		○		○●	
	의	○		○				○		○●	
	이다	○		○	●	○	○	○		○	
	으로	◎	◎	○		◎	○	○	◎	◎	
	에	○		◎		◎	●	◎		◎●	
	에게	○		○			○	○		○	
	에서	◎		◎●		○	●	◎		◎●	
	한테	○		○			○	○		○	
	께	○			○		○		○		○
	에게서	○		○					○		○
	한테서	○		○					○		○
	과							○		○	
	이랑				○				○		
	하고	○		○				○		○	
보조사	가										
	를										
	까지	○		○	○		○	○		○	
	은	○		◎		○		○		○●	
	도	○		○		○		○		○	
	부터	○		○			○	○		○	
	만			○	○				○	○	
	보다	○		○				○	○	○	
	마다				○				○		
	밖에			○			○		○		○
	처럼				○				○		○
	이나				◎						◎
접속	과	○		○			○	○			
	이랑					○			○		
	하고	○					○	○			

의 예문, 본문 내의 박스 설명 삽입, 어휘 색인 등 다양한 형식이 있다. 일본어와 유사성을 가진 조사가 어휘 색인을 통한 간단한 제시 등이 효율적인 것처럼 조사에 따라 효과적인 제시 형식이 서로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제시 형식에 따른 우열은 없다고 보고 모든 제시 형식을 대상으로 삼고 동등하게 다루기로 하였다.

조사	에										
	이나	○							○		○
총		22	2	21	9	10	12	19	14	18	8

①의 경우 ①-1과 ①-2를 합하여 총 24개의 조사 항목이 확인되는데 ①-1에서 대부분의 조사가 제시되어 있다. 이는 필요한 조사는 초급에서 일찍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또한, 서로 의미·기능이 중복되는 격조사나 접속조사와 보조사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범위의 절반 정도가 제외되어 있다. 생략이나 축약형에 대해서도 제외된 것으로부터 조사 항목 수를 대폭 줄여서 필요하고 최소한의 조사만 학습자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이는 교재이다.

②의 경우 ②-1과 ②-2를 합하여 총 30개의 조사 항목이 확인되는데 ②-1에서는 대부분의 조사가 제시되고 ②-2에서는 '께서', '께', '이랑' 등 ②-1에서 이미 제시된 조사와의 대체가 가능한 조사와 함께 ②-1에서 제시되지 않는 보조사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②는 '과', '이랑', '하고' 중 '과'를 제외하고 '이랑', '하고'를 부사격조사로 제시한 것으로부터 '과'와 '이랑', '하고'의 의미·기능을 일부 한정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③의 경우 ③-1과 ③-2를 합하여 ①~⑤의 교재 중 가장 적은 총 23개의 조사 항목이 확인되는데 ③-1에서 제시되어 있는 조사 항목 수가 10개에 불과하다. 격조사는 꼭 필요한 조사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보조사도 노출 빈도가 매우 높은 '은'과 '도'의 두 개에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조사 항목 수에 비해 생략이나 축약형은 제시되어 있는 편이다. 즉, ③은 구어에 필요하고 최소한의 조사를 제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교재이다.

④의 경우 ④-1과 ④-2를 합하여 모든 교재에서 가장 많은 총 33개의 조사 항목이 확인되는데 보조사 '이'와 '을' 외에는 모든 조사가 제시되어 있다. ④는 한국어 문법 중에서도 조사를 중요시하고 최대한 많은 조사를 제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드러난 교재이다. 반면, 이러한 의도와 달리 생략이나 축약형은 거의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①~⑤의 교재 중 가장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 교재이다.

⑤의 경우 ⑤-1과 ⑤-2를 합하여 총 26개의 조사 항목이 확인되는데 ①~⑤의 교재 중 가장 많은 6개의 조사에 대한 생략이나 축약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⑤는 '과'와 '하고'를 부사격조사로만 제시하고 접속조사로는 한 번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조사 항목 수, 생략 및 축약형의 제시와 관련하여 교재마다 차이점이 많으나 유사한 점도 있다. 첫째, 사용 빈도가 높은 조사는 초급 교재에서 우선 제시하고 그 외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중급 교재에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격조사와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은', '도' 등은 초급 교재에서 제시하고 그 외의 보조사는 중급 교재에서 제시한다. 격조사 중 사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 '께서', '께', '에게서', '한테서'는 ④와 ⑤처럼 중급 교재에서 제시하거나 ③처럼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보인다.

둘째, 구어에서 사용되는 조사 중 '이랑'의 중요도가 '하고'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다. '하고'는 격조사와 접속조사를 불문하고 ①~⑤의 모든 교재에서 제시되고 그중 ③을 제외한 4종의 교재는 초급에서 제시하는 반면, '이랑'은 5종 중 ②~④의 3종의 교재에서 제시되고 그중 2종의 교재는 중급에서 제시한다. 즉,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과'의 구어체인 '이랑'보다 '하고'를 우선 교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생략 및 축약형은 초급보다 중급 교재에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초급부터 생략 및 축약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교재는 ⑤뿐이며 ①, ③, ④ 중 ①, ④는 중급 교재에서만 생략 및 축약형을 제시하고 ③은 초급보다 중급 교재에서 제시하는 비중이 높다. 즉,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문법 항목이 구어 중심적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고는 하나 생략 및 축약형에 대한 제시는 조사의 기본적인 형태를 제시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략 및 축약형의 제시 자체가 많지 않고 구어에서 자주 보이는 '은'의 축약형의 제시는 ⑤에서만 보인다. 이 결과로부터 생략 및 축약형에 대한 제시는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두 가지 이상의 의미·기능

다음으로 하나의 조사 항목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기능을 제시하는 경우 어느 의미·기능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두 가지 이상의 의미·기능이 제시되는 조사는 격조사 중에서 '으로', '에', '에서'의 3개의 조사, 보조사 중에서 '은'과 '이나'의 2개의 조사를 합하여 총 5개의 조사이다. 먼저 '으로'의 의미·기능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 [표 Ⅱ-9]와 같다.

[표 Ⅱ-9] 교재별 '으로'의 의미·기능에 따른 제시 현황

의미·기능	①-1	①-2	②-1	②-2	③-1	③-2	④-1	④-2	⑤-1	⑤-2
움직임의 방향						○		○	○	
재료·원료	○	○			○					
수단·도구	○	○	○		○		○	○	○	
원인								○		
지위·신분·자격					○				○	
약속·결정		○								

'으로'의 의미·기능 중 5종의 교재에서 동일하게 제시되는 의미·기능은 수단·도구이며 그 외의 의미·기능은 교재에 따라 차이가 크다. 즉,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는 우선 '으로'를 수단·도구의 의미·기능을 가진 조사로서 교육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초급 교재에서는 수단·도구 외에도 재료·원료나 지위·신분·자격의 의미·기능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중급 교재에서는 움직임의 방향, 원인, 약속·결정의 의미·기능을 제시하는데 그중 움직임의 방향은 '으로'가 가진 의미·기능 중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중급 교재에서 제시하거나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기능을 학습 초기 단계에서 제시하는 편인데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기능을 중급 교재에서 제시

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하세가와·이수경(2002:263)이 언급하였듯이 일본에서는 '으로'를 제시하기 전에 '에'를 통해 '에'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 중 하나인 진행 방향을 제시하므로 '으로'의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기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에'의 진행 방향의 의미·기능과 '으로'의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기능은 대부분의 경우 서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조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의미·기능의 중복 제시를 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으로'의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기능은 중급 교재에서 제시하게 된다.

다음으로 '에'의 의미·기능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 [표 Ⅱ-10]과 같다.

[표 Ⅱ-10] 교재별 '에'의 의미·기능에 따른 제시 현황

의미·기능	①-1	①-2	②-1	②-2	③-1	③-2	④-1	④-2	⑤-1	⑤-2
처소	○		○		○		○		○	
시간	○		○		○		○		○	
진행 방향	○		○		○		○	○	○	
움직임·작용이 미치는 대상			○		○					
기준이 되는 대상·단위						○			○	

'에'의 의미·기능 중 5종의 교재에서 동일하게 제시되는 의미·기능은 처소, 시간, 진행 방향의 세 가지 의미·기능이며 그 외의 의미·기능은 교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는 '에'를 처소, 시간, 진행 방향의 세 가지 의미·기능을 가진 조사로서 교육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 가지 의미·기능은 초급 교재 중에서도 거의 동시에 교육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인 일본어 조사와의 유사성을 최대한 살린 교육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를 살펴보며 '에'와 '에'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 'に(ni)'는 의미·기능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에'의 다양한 의미·기능을 한 번에

제시하여도 다른 언어권의 학습자에 비해 '에'의 학습 부담이 크지 않다. 결국,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조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에서'의 의미·기능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 [표 Ⅱ-11]과 같다.

[표 Ⅱ-11] 교재별 '에서'의 의미·기능에 따른 제시 현황

의미·기능	①-1	①-2	②-1	②-2	③-1	③-2	④-1	④-2	⑤-1	⑤-2
처소	○		○		○		○		○	
출발점	○		○				○		○	

'에서'의 의미·기능 중 5종의 교재에서 동일하게 제시되는 의미·기능은 처소의 의미·기능이다. 또한, 5종 중 4종에 교재에서 출발점의 의미·기능이 제시되는 것으로 '에서'는 두 가지 의미·기능이 제시되는 다른 조사에 비해 교재와 상관없이 의미·기능이 거의 동일하게 제시된다.

다음으로 '은'의 의미·기능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 [표 Ⅱ-12]와 같다.

[표 Ⅱ-12] 교재별 '은'의 의미·기능에 따른 제시 현황

의미·기능	①-1	①-2	②-1	②-2	③-1	③-2	④-1	④-2	⑤-1	⑤-2
대조			○							
주제	○		○		○		○		○	
강조										

'은'의 의미·기능 중 5종의 교재에서 동일하게 제시되는 의미·기능은 주제의 의미·기능이며 그 외의 의미·기능의 제시는 없다. ②에서는 유일하게 대조의 의미·기능을 제시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어는 한국어와 달리 '은'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 'は(wa)'의 첫째 의미·기능이 주제이므로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주제의 의미·기능으로 우선 교육한다. '은'의 의미·기능에는 주제 외에도 대조, 강조가 있는데 'は(wa)'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일본인 학습자는 '은'이 'は(wa)'에 해당하는

조사임을 알면 주제와 함께 대조, 강조의 의미·기능으로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조나 강조의 의미·기능을 주제와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나'의 의미·기능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 [표 Ⅱ-13]과 같다.

[표 Ⅱ-13] 교재별 '이나'의 의미·기능에 따른 제시 현황

의미 · 기능	①-1	①-2	②-1	②-2	③-1	③-2	④-1	④-2	⑤-1	⑤-2
최소한의 선택				○						○
수량을 어림잡음				○						○

'이나'의 의미·기능 중 5종의 교재에서 동일하게 제시되는 의미·기능은 없으며 두 가지 이상의 의미·기능이 제시되는 조사 중에서도 제시 자체가 적은 조사이다. '이나'는 ②와 ⑤의 교재에서만 확인되었는데 두 교재에서는 '이나'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인 최소한의 선택과 함께 수량을 어림잡음이 동일하게 제시된다. 그런데 최소한의 선택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용되는 의미·기능의 용어와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사용되는 의미·기능의 용어가 서로 다르다. ②에서는 '예시', ⑤에서는 '열거'라는 용어를 통해 최소한의 선택의 의미·기능이 제시된다. 즉,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최소한의 선택은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임'을 표현하는 의미·기능인 반면,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는 일본어 조사 'や(ya)'가 가진 '모두를 나열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 나열함'의 '예시'의 의미·기능으로 '이나'가 사용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나'의 의미·기능에 대한 설명의 차이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나'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3.3. 설명 방법

1) 품사 및 부가 설명

다음으로 품사 및 부가 설명 기술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Ⅱ-14]와 같다. 표 중 ○○는 품사를 밝히고 부가 설명[58]이 있는 경우, ○×는 품사를 밝히되 부가 설명이 없는 경우, ×○는 품사를 밝히지 않고 부가 설명만 있는 경우, ××는 품사를 밝히지 않고 부가 설명도 없는 경우를 각각 의미한다.

[표 Ⅱ-14] 교재별 품사 및 상세 설명 여부

		①-1	①-2	②-1	②-2	③-1	③-2	④-1	④-2	⑤-1	⑤-2
격조사	이(주)	○○	○○	○○		○○		○○	××	○○	
	께서				○○				○×		○×
	에서(주)										
	이(보)	×○		×○		×○		×○		×○	
	을	○○		○○		○○		○○		○○	
	의	○×		○○				○×		○×	
	이다	×○		×○	○○	×○	○○	×○		×○	
	으로	○×	○○	○○		○○	○○	○○	○×	○○	
	에	○○		○○		○○	○○	○○		○○	
	에게	○×		○○			○○	○○		○○	
	에서	○×		○○		○○	×○	○○		○○	
	한테	○×		○○			○○	○○		○○	
	께	○×			○○		○○		○×		○×
	에게서	○×		○○					○×		○×
	한테서	○×		○○					○×		○×
	과							○×		○×	
	이랑				○○				○×		
	하고	○○		○○				○×		○×	
보조사	이/가										
	을/를										
	까지	○×		○×	○×		○○	○○		○○	
	은	○○		○○		○○		○○		○○	
	도	○×		○×		○○		○○		○×	
	부터	○×						○○		○○	

58) 부가 설명은 해당 조사에 대응하는 일본어 조사나 뜻 외에 해당 조사가 가진 대표적인 의미·기능, 이형태, 구어체, 격식체 등에 따른 쓰임 차이에 대한 설명을 가리킨다.

	만			××	×○				○×	○×	
	보다	○×		×○				○×	○×	○○	
	마다				×○				○×		
	밖에			×○			○×		○×		○○
	처럼				××				○×		○×
	이나				×○						○○
접속조사	과	○×		○○			○○	○×			
	이랑					○○			○×		
	하고	○○					○○	○×			
	에										
	이나	○×							○×		○○

①의 경우 주격조사 '이', 목적격조사 '을', 부사격조사 '에', 보조사 '은', '하고'를 제외하고 모든 조사에 부가 설명이 없다. ①의 교재에는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 학습 항목으로서 부가 설명이 없고 학습자에게 중요한 조사를 중심으로 교재 중간에 한 쪽에 정리하여 제시한다. 즉, ①의 교재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조사를 스스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②의 경우 ①과 달리 격조사는 거의 대부분이 학습 항목으로서 부가 설명이 있는 반면, 보조사는 품사도 밝히지 않고 부가 성명도 없는 경우가 많다. ②의 교재에서 보조사는 문법적 기능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함을 고려하여 보조사를 처음부터 조사가 아니라 표현으로 제시된다. 또한, 그중 '만'처럼 해당 보조사에 대응하는 일본어 조사와 의미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 품사를 밝히지 않을뿐더러 부가 설명도 생략한다.

③의 경우 앞서 조사 항목 수가 가장 적은 교재임을 밝혔으나 5종의 교재 중 거의 모든 조사의 품사를 밝히고 가장 상세한 설명이 보인다. ③-2에서 유일하게 '에서'의 품사를 밝히지 않는 사례가 보이는데 이는 앞서 조사 항목 수를 살펴볼 때 확인하였듯이 '에서'의 축약형인 '서'를 제시하는데 이미 '에서'를 제시하였으므로 '서'의 품사 표시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④의 경우 ②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보조사에 부가 설명이 없다. 또한, 부사격조사 중에서도 사용 빈도가 낮거나 사용이 수의적인 '께', '에게서', '한테서'와 접속조사 '과', '이랑', '하고' 등에도 부가 설명이 없는 경향을 보인다. ④의 교재는 ①의 교재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학습 항목

으로서 제시하지 않고 학습자에게 중요한 조사를 중심으로 교재 중간에 한 쪽에 정리하여 제시한다.

⑤의 경우 ④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④와 다른 점은 첫째, 보조사 '도'를 부가 설명 없이 제시한다. 이는 '도'가 '도'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 'も(mo)'와 의미·기능적으로 유사하므로 설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 접속조사 '이나'를 주사 설명과 함께 제시한다. 이는 ⑤의 교재가 ④의 교재와 달리 '이나'를 보조사와 접속조사의 의미·기능으로 동시에 제시하므로 이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품사 및 부가 설명에 대해서도 교재마다 차이점이 많으나 유사한 점도 있다. 첫째, 조사의 품사나 설명에 대한 복잡한 정보를 최소화하여 일본어 조사와의 유사성에 따라 학습자가 조사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오고시(2016:310)는 200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의 세 가지 특징으로 첫째, 대화 중심 내용으로의 변화, 둘째, 문법 항목 수의 감소, 셋째, 해요체 중심 내용으로의 변화를 지적한 바 있다. 조사가 구어에서 생략이 잘 일어나고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인 일본어의 조사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법 항목 수를 줄이는 데에 있어 특히 조사 항목에 그 영향이 크게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오기노(2023:254-265)는 2000년 초반에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항목 수를 살펴본 바 있는데 그 당시의 교재는 조사의 품사를 밝히지 않거나 조사의 부가 설명을 생략하는 양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즉,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모어인 일본어 조사와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조사를 학습 항목으로서 하나씩 다루지 않는다. 각 조사의 기본적인 의미·기능과 해당 조사에 대응하는 일본어 조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학습자가 조사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에 그친다.

둘째, 보격조사 '이'와 서술격조사 '이다'를 조사로서 제시하지 않는다. 먼저 보격조사 '이'의 경우 주격조사 '이'와 형태가 동일하지만 그 차이에

대한 부가 설명 없이 '~이/가 되다' 혹은 '~이/가 아니다'와 같이 표현의 일부로 제시된다. 이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가 되다' 혹은 '~이/가 아니다'의 '이'를 보격조사 혹은 조사로서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다. 다음으로 서술격조사 '이다'는 일본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전통적으로 '지정사'로 분류하여 별도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2) 오류 설명

다음으로 오류 설명 기술 여부를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59]와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에 대한 설명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Ⅱ-15]와 같다.

[표 Ⅱ-15] 교재별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설명 여부

		①-1	①-2	②-1	②-2	③-1	③-2	④-1	④-2	⑤-1	⑤-2
격조사	에	○					○	○		○	
	에게						○				
	에서						○	○			
	한테						○				
보조사	부터						○	○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조사의 품사나 설명에 대한 복잡한 정보를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오류 설명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에 대한 설명은 5종의 교재 모두에서 보이지 않고 ③~⑤의 교재에 한정되어 있다. ③은 5종의 교재 중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에 대한 설명이 가장 풍부한 교재이다. ③-1에서 각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끝난 후에 ③-2에서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59) 이형태, 구어체, 격식체에 따른 차이는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와 관련이 있으나 앞서 상세 설명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외한다. 여기서는 유사한 의미·기능을 가진 조사 간에서 나타나는 오류에 한정하여 논의한다.

다룬다. 그 내용은 한국어 조사에 행동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기능으로 '에', '에게', '한테'가 있는데 3개의 조사의 유정성에 따른 쓰임 차이와 범위의 시작의 의미·기능으로 '부터'와 '에서'가 있는데 2개의 조사의 시간과 처소에 따른 쓰임 차이이다. ④는 ③의 교재와 달리 ④-1, 즉 초급 교재에서 각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과 함께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에 대한 설명도 제시한다. 그 내용은 ③의 교재와 마찬가지로 범위의 시작의 의미·기능으로 '부터'와 '에서'의 쓰임 차이와 시간의 의미·기능으로 '에'와 결합 가능한 명사에 대한 설명이다. ⑤는 ④의 교재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의미 ·기능으로 '에'와 결합 가능한 명사에 대한 설명 하나 뿐이다.

다음으로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에 대한 설명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Ⅱ-16]과 같다.

[표 Ⅱ-16] 교재별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설명 여부

		①-1	①-2	②-1	②-2	③-1	③-2	④-1	④-2	⑤-1	⑤-2
격조사	이(보)	○		○	○	○					○
	을	○		○		○		○		○	○
	으로					○					○
	에	○		○		○	○			○	
보조사	은	○		○		○		○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에 대한 설명은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에 대한 설명에 비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먼저 5종의 교재 모두에서는 목적격조사 '을'과 일본어 조사와의 의미·기능에 따른 형태적 대응 양상에 따른 차이를 제시한다. 특히 '을'의 대상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일본어는 후행 용언과의 공기관계에 따라 '타다'나 '만나다'와 결합될 때 '에' 혹은 '에게'에 해당하는 'に(ni)'가 사용된다. 모든 교재에는 '전철에 타다' 혹은 '친구에(혹은 에게) 만나다'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기술이 보인다. 또한, 일본어는 후행 용언과의 공기관계에 따라 '좋아하다'나 '싫어하다'와 결합될 때 '이'에 해당하는 'が(ga)'가 사용된다.

이에 ‘을’의 대상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④를 제외한 4종의 교재에는 ‘사과가 좋아하다’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기술도 보인다.

다음으로 ④를 제외한 4종의 교재에서 보격조사 ‘이’, 부사격조사 ‘에’, 보조사 ‘은’과 일본어 조사와의 의미·기능에 따른 형태적 대응 양상에 따른 차이를 제시한다. 보격조사 ‘이’는 ‘되다’나 ‘아니다’와 결합되는데 일본어는 후행 용언으로 ‘되다’가 결합될 경우 ‘에’에 해당하는 ‘に(ni)’가 사용된다. 4종의 교재에는 ‘학생에 되다’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기술이 보인다. 부사격조사 ‘에’는 진행 방향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진행 방향의 의미·기능을 가진 ‘에’와 ‘가다’가 함께 사용되는데 ‘여행’ 등 목적의 의미·기능일 때는 ‘여행에 가다’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기술이 보인다. 또한, ③과 ⑤의 교재에서는 ‘에’의 기준이 되는 대상·단위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일본어는 ‘에서’에 해당하는 ‘で(de)’가 사용되는데 ‘2개에서 만원’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기술도 보인다. 보조사 ‘은’은 다른 조사와 달리 의미·기능에 따른 형태적 대응 양상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주제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쓰임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4종의 교재에는 복잡한 문법적인 설명 없이 일본어는 ‘이름은 뭐예요?’처럼 ‘은’이 사용되는데 한국어는 ‘이름이 뭐예요?’처럼 ‘이’가 사용된다는 기술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③과 ⑤의 교재에서는 ‘으로’와 일본어 조사와의 의미·기능에 따른 형태적 대응 양상에 따른 차이를 제시한다. ③의 교재는 ‘으로’의 수단·방법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일본어는 ‘으로’에 해당하는 ‘で(de)’가 사용되는데 ‘で(de)’는 ‘에서’로도 사용되므로 ‘볼펜에서’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기술이 보인다. 한편, ⑤의 교재는 약속·결정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일본어는 ‘에’에 해당하는 ‘に(ni)’가 사용된다. 이에 ‘냉면에 한다’처럼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기술이 보인다.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와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에 대한 설명을 비교하면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하는 교재로서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보다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에 대한 설명을 비중 있게 제시하고 있다. 교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학습 초기 단계부터 보이는 조사 오류는 대부분의 교재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김선효(2007)와 안경화·양명희(2005) 등에서 거듭 언급된 생략이 자주 일어나는 관형격조사 '의'의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다. 최근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의'가 생략이 자주 일어나는 조사이므로 자주 생략된다는 설명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즉, 한국어도 항상 '의'가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 이러한 '의'의 설명 기술의 방식이 오히려 '의'의 학습과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관형격조사 '의'의 복잡한 실현과 생략의 조건을 학습자에게 교육하는 것보다 주로 생략되는 조사를 교육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의 효율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한국어 조사의 사용에 대한 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이나 오류는 목표어의 영향이나 모어의 영향이 당연히 존재하나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중 어느 교재를 통해 학습하였는지, 즉 교재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였다. 물론 한국 유학을 통한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에 따라 교재 외의 방법으로 조사 사용이나 오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을 수도 있으나 특히 교재에서 학습한 내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재에서 각 조사의 제시 빈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구어에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양상

Ⅲ장에서는 Ⅱ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선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1절에서는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방법 및 자료의 규모와 성격에 대해 기술한다. 2절에서는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양상을 각 조사 유형별과 각 조사 항목별 사용 수와 전체 조사 사용 대비 해당 조사의 사용 비율, 즉 사용 내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3절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각 조사 항목별 사용 양상을 의미·기능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조사 사용상의 특성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3절의 논의를 토대로 학습 수준에 따른 조사 사용의 특성을 분명히 하고 한국어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 자료 수집 방법

1.1. 연구 참여자

이 연구에서는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을 연구하기 위해 학습자의 구어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구어에서의 조사 오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립국어원에서 구축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자료 수집의 편의성이나 자료의 규모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출처가 다양한 자료를 모은 것이므로 자료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조사의 사용은 앞서 구어의 유형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특히 상황 의존적이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조사 사용 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구어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로 하였다.

먼저 구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 연구에 참여해 준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수는 총 80명이며 학습 수준별로는 초급 학습자 35명, 중급 학습자 25명, 고급 학습자 20명이다.[60] 앞서 Ⅰ장의 연구 대상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한국에서 유학 경험한 경험이 있고 토픽 자격증을 소지한 20, 30대의 일본인 대학(원)생이다.

다음으로 연구 참여자의 학습 수준별 상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초급 학습자는 토픽 2급 소지자에 한정한다. 이 연구에서는 초급 수준의 조사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는데 초급 수준의 조사를 모두 배우지 못한 1급을 제외하고 2급을 소지한 학습자만 연구 참여자로 삼았다.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시간은 독학, 대학 강의, 어학당 등을 모든 경우를 포함하여 평균 221시간, 평균 한국 체류 기간은 5개월이다. 다음으로 중급 학습자는 토픽 3급 또는 4급을 소지한 학습자이며 한국어 학습 시간은 평균 617시간, 체류 기간은 평균 20개월이다. 마지막으로 고급 학습자는 토픽 5급 또는 6급을 소지한 학습자이며 한국어 학습 시간은 평균 847시간, 평균 체류 기간은 61개월이다.

1.2.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

이 연구에서는 구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인터뷰를 선택하였다. 구어 자료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학습자의 일상대화이다. 그런데 일상대화는 그 성격상 이 연구에서의 구어 자료로서 부적절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대화는 대부분 반말체, 즉 요-결락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일상대화는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즉 비문이 허용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으며 조사의 쓰임이 잘못되어 있어도 별다른 문제 없이 용인되는

60) 학습 수준에 따라 참여자 수에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학습 수준에 따라 연구 참여자 1인당의 수집 가능한 자료 규모가 다르므로 자료 규모를 맞추기 위한 조치이다.

경우가 많다. 이 연구에서는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을 넘어 오류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데 조사 오류가 자주 허용되는 일상대화는 특히 이 연구에서의 구어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평상시에 일본의 대학에서 주로 한국어를 합쇼체나 요-통합형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요-결락형이 사용된 구어 자료를 통해 밝힌 조사 사용이나 오류의 특성을 제시하는 것은 역시 부적절하다. 즉, 합쇼체나 요-통합형으로 된 구어 자료가 적절하다.

둘째, 일상대화는 조사의 생략 현상, 즉 조사의 비실현이 매우 빈번히 일어난다. 앞서 일상대화의 특성 중 하나로 반말체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일상대화는 요-결락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어 자료 중에서도 조사의 생략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 구어에서는 문어와 달리 조사의 생략 현상을 오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상대화는 조사의 쓰임이 잘못되어도 별문제 없이 용인되는 것처럼 조사의 생략 현상도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의 사용과 생략을 아울러 하나의 조사 사용으로 보고 조사의 적절한 생략 여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일상대화보다 조사 생략의 적절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어 자료가 적절하다.

인터뷰는 오재혁 외(2014)에서 밝혔듯이 연구자가 질문하고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가 답하는 방식으로 화자와 청자 간의 양방향의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고 사적인 이야기 등의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일상대화와 공통점이 많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터뷰와 일상대화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격식성 여부에 있으며 일상대화가 요-결락형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인터뷰는 합쇼체나 요-통합형처럼 격식체로 주로 이루어진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질문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참여자가 한국 유학 생활에서 한두 번 정도 답해 본 적이 있는 친숙한 주제의 총 15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주제는 토픽의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자기소개, 한국어 학습 및 한국 생

활, 한일 비교 및 한일관계의 세 가지로 하여 각 주제에 대해 5개의 질문을 마련하였다. 총 15개의 질문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인터뷰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학습 수준이나 질문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일부 질문을 건너뛰거나 원 질문과 관련된 부가적인 질문을 제공하였다. 인터뷰에 실제로 사용된 질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인터뷰 질문 내용

<자기소개>
1.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2.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 (현재) 당신은 어느 지역에 거주합니까?
4. 가족 중에서 누구를 닮았습니까?
5. 최근에 어디로 외출했습니까?

<한국어 학습 및 한국 생활>
1. 한국어를 배운 계기가 무엇입니까?
2.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어려웠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3.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된 계기(이유)가 무엇입니까?
4. 한국에 (유학을) 와서 좋았던 점이 무엇입니까?
5. 한국에 (유학을) 와서 힘들었던 점이 무엇입니까?

<한일 문화 비교, 한일관계>
1. 일본(인)과 한국(인)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일본 요리와 한국 요리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한국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일본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5. 한일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 참여자 1명당의 인터뷰 시간은 연구 참여자가 인터뷰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10분

내외로 설정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 내용을 전용 녹음기로 녹음한 다음에 녹음 내용을 구어에서의 생략 오류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추임새나 휴지 등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세종 전사 지침'에 따라 녹음 전사기록지에 전사하여 이를 조사 사용 및 오류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활용하였다.

1.3. 자료의 규모와 성격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총 56,664어절의 구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는 학습 수준별로는 초급 학습자 18,819어절, 중급 학습자 18,684어절, 고급 학습자 19,161어절로 구성되었다. 총 56,664어절 중 실제 분석에 사용된 조사가 포함된 어절 수는 총 9,838어절이다. 이 연구에서의 구어 자료는 오재혁 외(2014)에 따라 양방향 격식체 일반 구어로 규정할 수 있으며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합쇼체나 요-통합형으로 이루어진 사적인 내용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2. 조사 항목별 사용 수와 사용 비율

2.1. 조사 유형별 사용 수 및 사용 비율

조사 유형별 사용 수 및 사용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 [표 Ⅲ-1], [표 Ⅲ-2], [그림 Ⅲ-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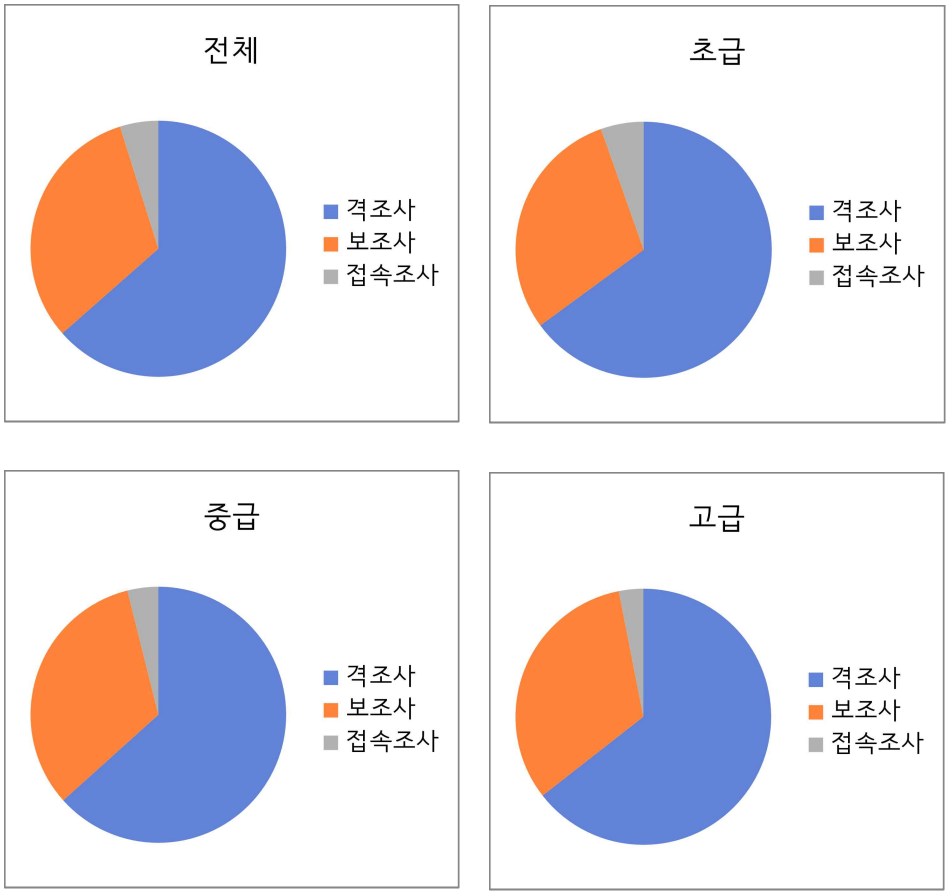
[표 Ⅲ-1] 조사 유형별 사용 수

조사 유형	전체	초급	중급	고급
격조사	6,312	1,441	2,259	2,612
보조사	3,142	658	1,168	1,316
접속조사	384	120	139	125
합계	9,838	2,219	3,566	4,053

[표 Ⅲ-2] 조사 유형별 사용 내 비율

조사 유형	전체	초급	중급	고급
격조사	64.16	64.94	63.35	64.45
보조사	31.94	29.65	32.75	32.47
접속조사	4.90	5.41	3.90	3.08

[그림 Ⅲ-2] 조사 유형별 사용 내 비율



수집된 구어 자료를 통해 총 9,838회의 조사 사용이 확인되었다. 조사 유형별로 사용 수를 살펴보면 격조사 6,312회, 보조사 3,142회, 접속조사 384회로 나타났다. 조사 유형별 사용 비율은 격조사 64.16%, 보조사 31.94%, 보조사 4.90%로 나타났다.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이므로 격조사

의 생략이 자주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격조사의 사용 수가 보조사의 사용 수의 2배가 된다.

학습 수준별로 사용 수를 살펴보면 초급 학습자는 총 2,219회의 조사 사용이 확인되었으며 조사 유형별로 격조사 1,441회, 보조사 658회, 접속조사 120회이다. 중급 학습자는 총 3,566회의 조사 사용이 확인되었으며 조사 유형별로 격조사 2,259회, 보조사 1,168회, 접속조사 139회이다. 고급 학습자는 총 4,053회의 조사 사용이 확인되었으며 조사 유형별로 격조사 6,312회, 보조사 3,142회, 접속조사 384회이다. 학습 수준에 따른 조사 유형별 사용 수는 학습 수준에 따라 차이가 커 보이는 반면, 학습 수준에 따른 조사 유형별 사용 비율은 거의 유사해 보인다.

먼저 격조사의 사용 수를 학습 수준별로 살펴보면 학습 수준에 따라 사용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초급과 중급 수준 간의 사용 수에 큰 차이가 보인다. 초급 수준의 사용 수는 1,441회인 반면, 중급 수준의 사용 수는 2,259회이며 818회의 차이가 있다. 한편, 중급과 고급 수준 간의 사용 수의 차이는 353회이며 초급과 중급 수준 간의 사용 수의 차이가 중급과 고급 수준 간의 사용 수의 차이에 비해 두 배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학습 수준에 따른 격조사 사용 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다름에 Turkey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61] 그 결과는 다음 [표 Ⅲ-3]과 같다.

61) 일원배치분산분석은 한 집단에 속하는 수치가 정규 분포하고 동일한 대상의 수치를 여러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 집단 이상을 비교하여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정하는 통계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으로는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터키(Turkey)의 다중비교를 별도 실시하였다.

[표 Ⅲ-3] 학습 수준별 격조사의 평균 사용 수의 다중비교

	학습수준 (I)	학습수준 (J)	평균값의 차이 (I-J)	표준오차	유의확률
격조사	초급	중급	-36.617	13.011	.019*
		고급	-95.317	13.011	.000*
	중급	초급	36.617	13.011	.019*
		고급	-58.700	12.046	.000*
	고급	초급	95.317	13.011	.000*
		중급	58.700	12.046	.000*

* $p<0.05$

격조사의 사용 수는 초급, 중급, 고급의 세 학습 수준 간에서 $p<0.0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초급과 중급 수준 간, 중급과 고급 수준 간, 초급과 고급 수준 간에서 격조사의 사용 수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학습 수준에 따른 구어 자료 규모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학습 수준에 따라 격조사의 사용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학습 수준이 올라갈수록 격조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 연구의 연구 범위로 설정한 조사가 초급 수준의 조사임을 고려하면 초급 수준에 비해 중급과 고급 수준의 학습자가 해당 조사를 잘 구사할 수 있어 사용 수도 많아졌을 것이다. 둘째, 학습 수준이 올라갈수록 격조사가 가진 다양한 의미·기능에 따라 해당 조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따라 사용 수가 많아졌을 것이다. 즉, 조사의 다양한 의미·기능 중 하나밖에 모르는 학습자보다 여러 가지 의미·기능을 알고 있는 학습자가 하나의 조사를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어 사용 수가 많아진다.

다음으로 보조사의 사용 수를 학습 수준별로 살펴보면 학습 수준에 따라 사용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격조사의 양상과 마찬가지로 초급과 중급 수준 간의 사용 수에 큰 차이가 보인다. 초급 수준의 사용 수는 658회인 반면, 중급 수준의 사용 수는 1,168회이며 두 학습 수준 간에 510회의 차이가 있다. 한편, 중급과 고급 수준 간의 사용

수의 차이는 148회이며 초급과 중급 수준 간의 사용 수의 차이가 중급과 고급 수준 간의 사용 수의 차이에 비해 세 배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학습 수준에 따른 보조사 사용 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다음에 Turkey의 다중비교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Ⅲ-4]와 같다.

[표 Ⅲ-4] 학습 수준별 보조사의 평균 사용 수의 다중비교

	학습수준 (I)	학습수준 (J)	평균값의 차이 (I-J)	표준오차	유의확률
보조사	초급	중급	-18.933	8.021	.056
		고급	-47.733	8.021	.000*
	중급	초급	18.933	8.021	.056
		고급	-28.800	7.426	.001*
	고급	초급	47.733	8.021	.000*
		중급	28.800	7.426	.001*

* $p<0.05$

보조사의 사용 수는 중급과 고급 수준 간 및 초급과 고급 수준 간의 두 구간에서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고급 수준은 초급 및 중급 수준과 보조사의 사용 수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반면, 초급과 중급 수준은 보조사의 사용 수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초급과 중급 수준은 보조사의 총 사용 수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초급과 중급 수준에서의 보조사의 사용이 학습자에 따른 개인차가 큼을 의미한다. 초급과 중급 수준에서는 보조사를 잘 구사할 수 있는 학습자도 있고 보조사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학습자도 있다. 그에 반해 고급 수준에서는 모든 학습자가 보조사를 유사한 수준으로 잘 구사할 수 있다.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격조사에 비해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의 사용은 선택적이며 학습 수준에 따른 보조사 사용에 대한 숙련도의 영향이 격조사에 비해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접속조사의 사용 수를 학습 수준별로 살펴보면 접속조사는 학습 수준에 따라 사용 수가 증가하는 양상이 격조사나 보조사에 비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초급과 중급 수준 사이에서는 사용 수가 증가한 양상이 보이나 격조사나 보조사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며 중급과 고급 수준 사이에서는 사용 수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참고로 학습 수준에 따른 접속조사 사용 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접속조사는 격조사와 보조사처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 이유는 접속조사가 격조사나 보조사에 비해 의미·기능이 단순하며 초급 수준의 학습자도 잘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통계적인 근거에 따르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유형별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격조사는 학습 수준에 올라감에 따라 사용 수가 증가한다. 둘째, 보조사는 고급 수준에서 사용 수가 증가한다. 셋째, 접속조사는 학습 수준에 따른 사용 수에 차이가 없다.

2.2. 항목별 사용 수와 사용 내 비율

1) 격조사

격조사의 항목별 사용 수와 사용 내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 [표 Ⅲ-5], [표 Ⅲ-6], [표 Ⅲ-7], [그림 Ⅲ-3]과 같다.[62] 격조사 항목 중 축약형이 존재하는 경우 별도로 제시하였다.[63]

---

62) 사용 내 비율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사용 비율 = {해당 조사 사용 수 / 9683(전체 조사 사용 수)} * 100

63) 주격조사 '이'와 목적격조사 '을'의 총 사용 수는 각각 2206회, 1232회인데 이 중에는 주격조사 '이'의 결합형인 '게'와 목적격조사 '을'의 축약형인 'ㄹ'의 사용 수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

[표 Ⅲ-5] 격조사 항목별 사용 수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이(주)	2206	이(주)	610	이(주)	817	이(주)	779
2	을	1232	을	266	에	448	을	597
3	에	1122	에	251	을	375	에	423
4	이다	455	에서	103	이다	197	이다	241
5	에서	454	의	51	에서	148	에서	204
6	으로	227	이랑	35	이랑	84	으로	126
7	의	194	하고	27	으로	82	의	94
8	이랑	183	이(보)	25	의	49	이랑	64
9	이(보)	76	으로	19	한테	23	이(보)	29
10	한테	65	이다	16	이(보)	22	한테	29
11	하고	31	한테	13	과	7	에게	12
12	에게	30	에게	12	에게	6	과	7
13	과	21	과	7	께	1	하고	4
14	한테서	6	한테서	6	하고	0	께서	3
15	께서	3	께서	0	께서	0	께	0
16	께	3	께	0	한테서	0	한테서	0
17	에게서	0	에게서	0	에게서	0	에게서	0
18	에서(주)	0	에서(주)	0	에서(주)	0	에서(주)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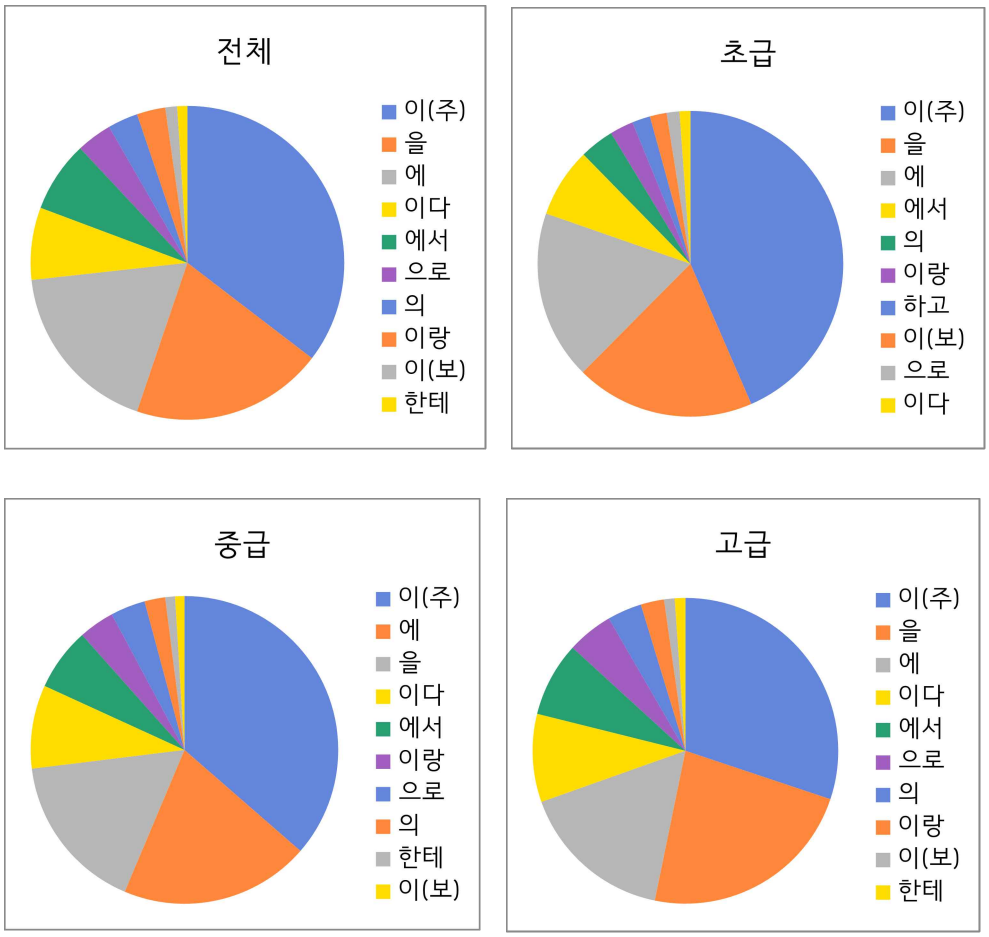
[표 Ⅲ-6] 격조사 항목별 사용 내 비율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이(주)	34.88	이(주)	42.33	이(주)	36.17	이(주)	29.83
2	을	19.52	을	18.46	에	19.83	을	22.86
3	에	17.78	에	17.42	을	16.60	에	16.19
4	이다	7.34	에서	7.15	이다	8.72	이다	9.23
5	에서	7.21	의	3.54	에서	6.55	에서	7.81
6	으로	3.60	이랑	2.43	이랑	3.72	으로	4.82
7	의	3.07	하고	1.87	으로	3.63	의	3.60
8	이랑	2.90	이(보)	1.73	의	2.17	이랑	2.45
9	이(보)	1.20	으로	1.32	한테	1.02	이(보)	1.11
10	한테	1.03	이다	1.11	이(보)	0.97	한테	1.11
11	하고	0.49	한테	0.90	과	0.31	에게	0.46
12	에게	0.48	에게	0.83	에게	0.27	과	0.27
13	과	0.33	과	0.49	께	0.04	하고	0.15
14	한테서	0.10	한테서	0.42	하고	0.00	께서	0.11
15	께서	0.05	께서	0.00	께서	0.00	께	0.00
16	께	0.02	께	0.00	한테서	0.00	한테서	0.00
17	에게서	0.00	에게서	0.00	에게서	0.00	에게서	0.00
18	에서(주)	0.00	에서(주)	0.00	에서(주)	0.00	에서(주)	0.00

[표 Ⅲ-7] 격조사 항목별 사용 수(축약형)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게	293	게	30	게	82	게	181
2	ㄹ	70	ㄹ	0	ㄹ	24	ㄹ	46

[그림 Ⅲ-3] 격조사 항목별 사용 내 비율



격조사의 항목별 사용 수와 사용 내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격조사는 주격조사 '이'이다. 전체 격조사 사용 빈도의 34.88%를 차지하며 전체 격조사 사용의 3분의

1을 주격조사 ‘이’가 차지한 셈이다. 그다음으로 목격적조사 ‘을’ 19.52%, 부사격조사 ‘에’ 17.78%, 서술격조사 ‘이다’ 7.34%, 부사격조사 ‘에서’ 7.21%, ‘으로’ 3.60%, 관형격조사 ‘의’ 3.07%, 부사격조사 ‘이랑’ 2.90%, 보격조사 ‘이’ 1.20%, 부사격조사 ‘한테’ 1.03%, ‘하고’ 0.49%, ‘에게’ 0.48%, ‘과’ 0.33%, ‘한테서’ 0.10%, ‘께서’ 0.05%, ‘께’ 0.02%의 순이다. 즉, 이 연구의 연구 범위로 설정한 격조사 18개 중 주격조사 ‘이’와 함께 목적격조사 ‘을’, 부사격조사 ‘에’의 3개의 조사만으로 전체 격조사 사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이’, ‘을’, ‘에’의 3개의 조사는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에서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학습 수준별로 격조사 항목별 사용 수와 사용 내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 수와 관련하여 서술격조사 ‘이다’, 부사격조사 ‘으로’와 ‘하고’에 학습 수준 간의 차이가 뚜렷이 보인다. ‘이다’와 ‘으로’는 초급 수준에서는 사용 수가 매우 낮았다가 중급 수준에서는 사용 수가 급증한 조사이다. ‘이다’의 사용 수는 ‘이다’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다’는 조사 중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조사로 활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초급 수준에서의 ‘이다’의 사용 형태를 살펴보면 거의 모두가 ‘입니다’나 ‘이에요’의 형태이며 활용이 한정적인 양상이 보인다. 반면, 중급 수준에서는 ‘이다’가 ‘입니다’와 ‘이에요’ 외에 ‘인’, ‘이고’, ‘이어서’ 등의 형태로도 자주 사용되므로 ‘이다’의 사용 수가 비약적으로 많아졌다. 즉, ‘이다’는 초급 수준에서 사용되기는 하나 중급 수준이 되어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며 사용 수가 명백히 많아지는 격조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으로’는 앞서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통해 초급 수준에서 제시되는 ‘으로’의 의미·기능이 매우 한정적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일본의 한국어교육에서는 부사격조사 ‘에’의 진행 방향의 의미·기능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초급 수준에서 ‘으로’를 수단·방법의 의미·기능으로만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으로’의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기능은 ‘으로’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해당 의미·기능으로 ‘으로’를 사용할 수 없다면 초급 수준에서 ‘으로’의 사용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반면, 중급 수준에서는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도 움직임의 방향 외에도 원인, 약속·결정 등 '으로'와 관련된 다양한 의미·기능이 제시된다. 또한,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다양한 의미·기능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으로'의 사용 수는 중급 수준에서 비약적으로 많아진다.

다음으로 부사격조사 '하고'이다. '하고'는 서술격조사 '이다'나 부사격조사 '으로'와 달리 초급 수준에서는 사용 수가 많은데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사용 수가 매우 적다. 중급 수준에서는 '하고'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하고'와 같은 의미·기능을 지닌 '과'나 '이랑'의 사용 수와 관련이 있다.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하고'의 사용 수가 적은 대신 특히 '이랑'의 사용 수가 초급 수준에 비해 많다. 즉,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하고'를 단순히 사용하지 않았다기보다 '하고' 대신 '이랑'을 일부러 사용한 것이다. 앞서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일본에서는 초급 수준에서 '과'의 구어체로 '하고'를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의 또 다른 구어체인 '이랑'은 교재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경우도 다수 보인다. 이에 초급 수준에서 '하고'의 사용 수가 유난히 많은 것은 이러한 학습 환경 요인이 크게 반영된 결과이다.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이랑'의 사용 수가 높아진 것은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어 모어 화자의 조사 사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용 비율과 관련하여 주격조사 '이'에 학습 수준 간의 차이가 뚜렷이 보인다. 주격조사 '이'는 그 외의 다른 격조사와 달리 학습 수준에 따라 사용 수가 서서히 감소하는 유일한 조사이다. 이는 학습 수준이 올라갈수록 주격조사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서술격조사 '이다'나 부사격조사 '으로'를 비롯하여 다른 격조사를 활발하게 사용한 결과 상대적으로 '이'의 사용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격조사 '이'의 결합형인 '게'와 목적격조사 '을'의 축약형인 'ㄹ'의 사용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게'는 학습 수준에 따라 사용 수의 차이가 뚜렷이 보인다. '게'는

초급 수준 30회, 중급 수준 82회, 고급 수준 181회로 학습 수준에 따라 해당 학습 수준의 사용 수가 두 배 이상 급증한다. 즉, ‘게’는 학습 수준이 올라갈수록 자주 사용된다. 반면, ‘ㄹ’은 ‘게’보다 총 사용 수가 적지만 ‘게’와 마찬가지로 학습 수준에 따라 사용 수의 차이가 뚜렷이 보인다. ‘ㄹ’은 초급 수준 0회, 중급 수준 24회, 고급 수준 46회로 학습 수준이 올라갈 때마다 사용 수가 증가한다. 그런데 ‘게’와의 가장 큰 차이는 ‘ㄹ’이 초급 수준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ㄹ’이 중급 수준부터 보이는 형태라는 측면에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ㄹ’이 ‘게’보다 낯선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는 ‘게’는 5종 중 3종의 교재에서 제시되는 반면, ‘ㄹ’은 2종의 교재에서 제시된 바 있으며 일본의 한국어교육에서는 ‘ㄹ’보다 ‘게’가 우선 제시되는 항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보조사

보조사의 항목별 사용 수와 사용 내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 [표 Ⅲ-8], [표 Ⅲ-9], [표 Ⅲ-10], [그림 Ⅲ-4]와 같다.

[표 Ⅲ-8] 보조사 항목별 사용 수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은	1971	은	465	은	769	은	737
2	도	770	도	131	도	241	도	398
3	보다	109	보다	29	보다	41	만	41
4	부터	76	부터	14	부터	31	보다	39
5	만	72	까지	9	만	24	부터	31
6	까지	57	만	7	까지	21	까지	27
7	처럼	25	마다	2	가	14	처럼	15
8	가	20	처럼	1	밖에	9	밖에	9
9	밖에	18	밖에	0	처럼	9	이나	7
10	이나	15	이나	0	이나	8	가	6
11	마다	9	가	0	마다	1	마다	6
12	을	0	을	0	을	0	을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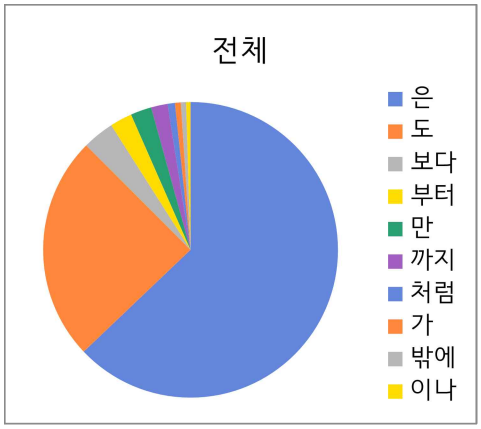
[표 Ⅲ-9] 보조사 항목별 사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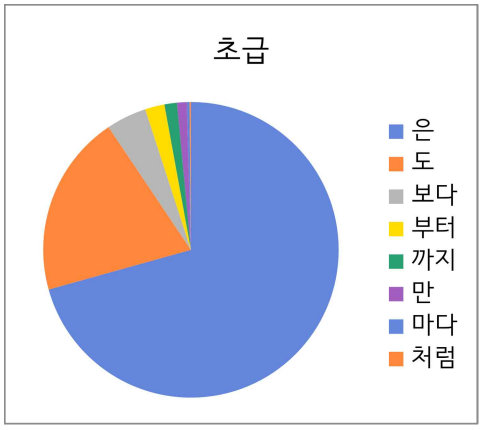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은	62.72	은	70.67	은	65.85	은	56.01
2	도	24.51	도	19.91	도	20.63	도	30.24
3	보다	3.47	보다	4.41	보다	3.51	만	3.12
4	부터	2.42	부터	2.13	부터	2.65	보다	2.96
5	만	2.29	까지	1.37	만	2.05	부터	2.36
6	까지	1.81	만	1.06	까지	1.80	까지	2.05
7	처럼	0.80	마다	0.30	가	1.20	처럼	1.14
8	가	0.64	처럼	0.15	밖에	0.77	밖에	0.68
9	밖에	0.57	밖에	0.00	처럼	0.77	이나	0.53
10	이나	0.48	이나	0.00	이나	0.68	가	0.46
11	마다	0.29	가	0.00	마다	0.09	마다	0.45
12	을	0.00	을	0.00	을	0.00	을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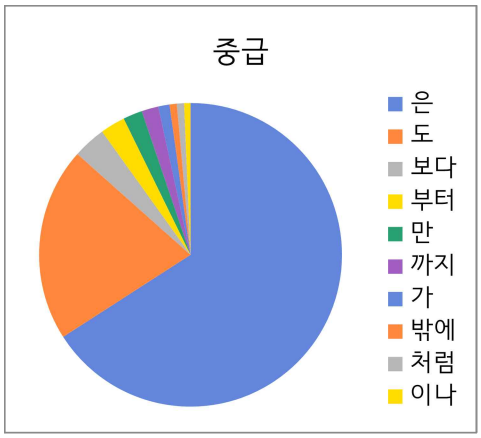
[표 Ⅲ-10] 보조사 항목별 사용 수(축약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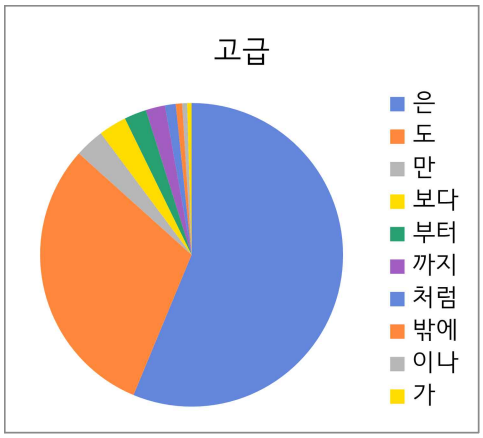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ㄴ	93	ㄴ	2	ㄴ	30	ㄴ	61

[그림 Ⅲ-4] 보조사 항목별 사용 내 비율









보조사의 항목별 사용 수와 사용 내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보조사는 '은'이다. 전체 보조사 사용 비율의 62.72%를 차지하며 전체 보조사 사용의 절반 이상을 '은'이 차지한 셈이다. 그다음으로 '도' 24.51%, '보다' 3.47%, '부터' 2.42%, '만' 2.29%, '까지' 1.81%, '처럼' 0.80%, '이' 0.64%, '밖에' 0.57%, '이나' 0.48%, '마다' 0.29%의 순이다. '을'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이 연구의 연구 범위로 설정한 보조사 11개 중 '은'과 '도'의 2개의 보조사만으로 전체 보조사 사용의 85% 이상, 즉 보조사 사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조사의 사용은 격조사의 사용과 비교하면 일부 조사에 지극히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 수준별로 보조사 항목별 사용 수와 사용 내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용 수와 관련하여 거의 모든 조사가 초급과 중급 수준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학습 수준에 따른 보조사의 사용 수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았듯이 초급과 중급 수준 사이에서 보조사의 사용 수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반면, 중급과 고급 수준 간의 보조사의 사용 수는 거의 유사하다. 이에 초급과 중급 수준 간의 보조사의 사용 수에 한하여 살펴보면 사용 수의 뚜렷한 차이가 특히 '이', '밖에', '이나'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보조사가 모든 학습 수준에서 사용이 확인된 가운데 '이', '밖에', '이나'는 중급 수준에서부터 사용이

확인된다. 먼저 '이'는 '을'과 함께 강조의 의미·기능으로 사용되는 보조사인데 일본에서 출판된 교재에서는 '이'가 주격조사로만 제시되므로 초급 수준에서는 보조사 '이'의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다. 조사 '이'의 사용은 중급 수준에서부터 확인되는데 보조사 '이'가 한정된 상황에서만 사용된 것을 통해 학습자가 보조사 '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급 수준에서 보조사 '이'는 '-ㄹ 수가 있다'의 '가'처럼 주로 사용되는데 중급 수준의 대부분의 학습자가 '-ㄹ 수가 있다'의 '가'를 보조사 '이'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ㄹ 수 있다'는 일본어로 '-는 것이 할 수 있다(-ことができる)'처럼 표현되고 '가'에 해당하는 'が(ga)'가 꼭 함께 사용된다. 따라서 이번에 수집한 구어 자료에서도 한국어로 '-ㄹ 수 있다'를 표현할 때 보조사 '이'의 강조의 의미·기능과 상관없이 '-ㄹ 수가 있다'처럼 표현하는 중급과 고급 수준의 연구 참여자가 많았다. 중급 수준의 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ㄹ 수 있다'를 '-ㄹ 수가 있다'처럼 '가'를 함께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가 보조사인지 몰랐고 '가'를 사용하는 이유로"어감이 좋아서"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밖에'는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되기는 하나 대부분 중급 교재에서 제시된다. 그 이유는 초급 교재에서 '밖에'와 유사한 의미·기능을 가진 '만'을 제시하고 '밖에'가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사용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만 '밖에 없다'는 '만 있다'로 바꿔 말할 수 있으므로 초급 수준에서는 먼저 제시되고 사용 제약이 없는 '만'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또한, '이나'도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되기는 하나 '밖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 중급 교재에서 제시된다. 그 이유는 일본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초급 교재에서 접속조사로만 제시되고 보조사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나'가 보조사로 제시된 교재는 5종 중 2종의 교재밖에 없으며 그중 하나는 '이나'가 접속조사, 보조사의 순서대로 제시된다. 즉, 보조사로서 '이나'의 교육적 우선순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용 비율과 관련하여 특히 '은'에 특이한 양상이 보인다. 앞서 주격조사 '이'에서도 보인 양상인데 학습 수준에 따라 사용 빈도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이유는 학습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 외의 보조사의 사용 수가 전체적으로 많아지고 초급 수준에서 사용하지 않는 보조사가 중급 수준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구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은'의 축약형인 'ㄴ'의 사용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ㄴ'은 격조사의 축약형과 마찬가지로 학습 수준에 따라 사용 수의 차이가 뚜렷이 보인다. 'ㄴ'은 초급 수준 2회, 중급 수준 32회, 고급 수준 61회로 학습 수준이 올라갈 때마다 해당 학습 수준의 사용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다. 특히 초급과 중급 수준 사이에서 사용 수가 급증하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는 'ㄴ'은 5종 중 1종의 교재에서만 제시된다. 즉, 초급 수준에서는 목적격조사 '을'의 축약형인 'ㄹ'과 함께 'ㄴ'은 낯선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구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조사의 축약형은 그 형태의 존재를 알아야 하고 또한, 사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므로 기본적으로 사용 수에 차이가 있어도 중급 수준에서부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3) 접속조사

접속조사의 항목별 사용 수와 사용 내 비율을 제시하면 다음 [표 Ⅲ-11], [표 Ⅲ-12], [그림 Ⅲ-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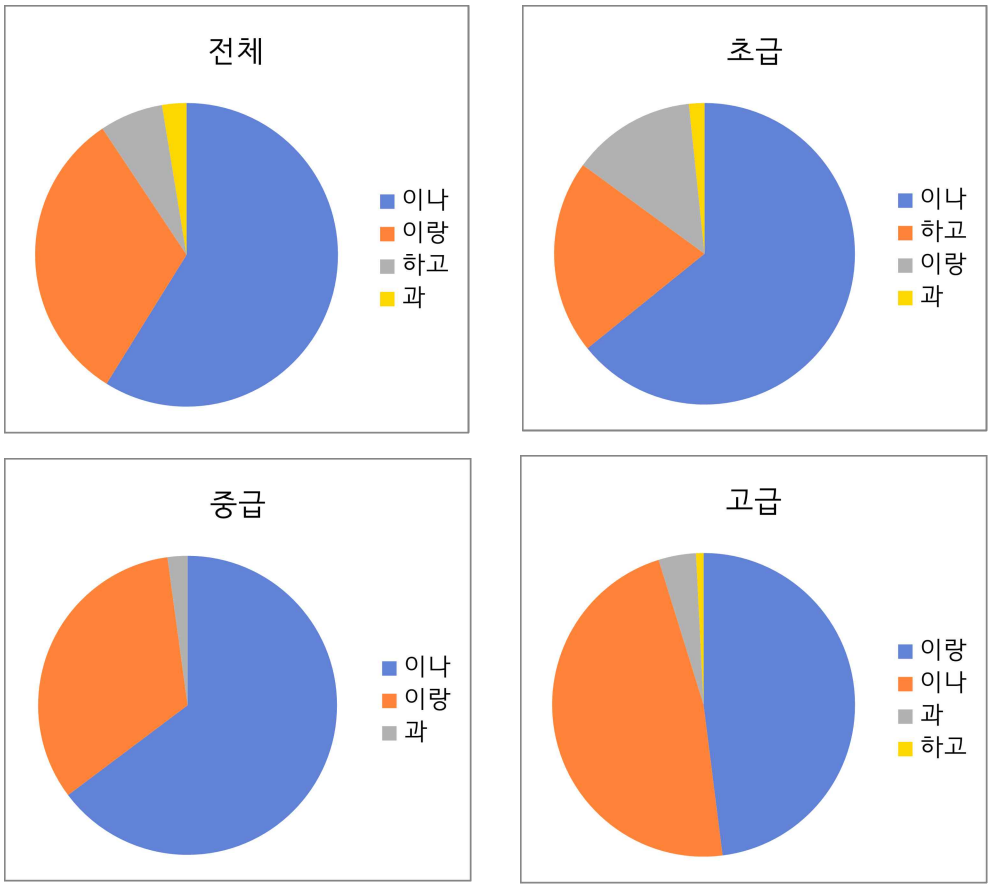
[표 Ⅲ-11] 접속조사 항목별 사용 수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이나	226	이나	77	이나	90	이랑	60
2	이랑	122	하고	25	이랑	46	이나	59
3	하고	26	이랑	16	과	3	과	5
4	과	10	과	2	하고	0	하고	1
5	에	0	에	0	에	0	에	0

[표 Ⅲ-12] 접속조사 항목별 사용 내 비율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이나	58.86	이나	64.17	이나	64.75	이랑	48.00
2	이랑	31.77	하고	20.83	이랑	33.09	이나	47.20
3	하고	6.77	이랑	13.33	과	2.16	과	4.00
4	과	2.60	과	1.67	하고	0.00	하고	0.80
5	에	0.00	에	0.00	에	0.00	에	0.00

[그림 Ⅲ-5] 접속조사 항목별 사용 내 비율



접속조사의 항목별 사용 수와 사용 내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접속조사는 '이나'이다. 전체 접속조사 사용

비율의 58.86%를 차지하며 전체 접속조사 사용의 절반 이상을 '이나'가 차지한 셈이다. 그다음으로 '이랑' 31.77%, '하고' 6.77%, '과' 2.60%의 순이다. '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이나'와 '이랑'의 2개의 접속조사만으로 전체 접속조사 사용의 90% 이상, 즉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접속조사의 경우 격조사나 보조사에 비해 항목 수가 적은데다가 문어 혹은 구어에 따라 사용되는 조사가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문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과'는 사용 수가 매우 적게 나타났다. 또한, '하고'도 사용 수가 적게 나타났는데 '하고'는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의 사용 수가 적은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어 모어 화자의 조사 사용의 영향으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구어에서 '하고'보다 '이랑'을 사용하게 된 까닭이다. 실제로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이랑'을 사용하되 '하고'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학습 수준별로 접속조사 항목별 사용 수와 사용 내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용 수와 관련하여 뚜렷한 차이가 '이랑'과 '하고'에 보인다. 특히 중급 수준에서부터 '이랑'은 사용 수가 급증하는 반면, '하고'는 사용 수가 급감한다.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접속조사에는 '이랑'과 '하고'가 있는데 이처럼 학습 수준에 따라 사용 수가 역전되는 양상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외의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찾을 수 없었으며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만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거듭 언급하였듯이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과의 구어체로서 '이랑'보다 '하고'를 우선 제시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용 비율과 관련하여 뚜렷한 차이가 '이나'에 보인다. '이나'는 초급과 중급 수준에서는 매우 유사한 사용 비율을 보이는 반면, 고급 수준에서는 사용 비율이 급감한다. 이는 '이랑'의 사용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나'의 사용 비율이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나'와 '이랑'의 의미·기능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나'와 '이랑' 간의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그 외의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 연구의 연구 범위에서 제외된 '이나'와 유사한 의미·기능을 가진 조사의 존재이다. 즉, '든지(든)', '라든가', '라든지'이다. '든지(든)', '라든가', '라든지'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느 것이 선택되어도 차이가 없는 둘 이상의 일을 나열함'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구어 자료를 통해 고급 수준에서는 '든지(든)' 6회, '라든가' 19회, '라든지' 17회 총 42회의 사용이 확인되었다.[64] 고급 수준에서의 '이나'의 사용 수인 60회를 합하면 총 102회이며 이는 중급 수준에서의 '이나'의 총 사용 수인 90회와 유사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초급과 중급 수준에서는 '커피나 차를 마셔요.'처럼 '이나'를 사용할 때 고급 수준에서는 '커피라든지 차라든지 마셔요.'처럼 '이나' 외의 보조사도 사용하는 것이다.

3. 조사 항목별 사용상의 특성

3.1. 격조사

1) 주격조사 및 보격조사 '이'

'이'는 주격조사, 보격조사, 보조사의 세 유형으로 분류되어 각각 주어, 바뀌게 되는 대상(혹은 부정하는 대상), 강조의 의미·기능을 나타낸다. 격조사로서의 '이'는 주어와 바뀌게 되는 대상(혹은 부정하는 대상)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므로 학습 수준에 따른 해당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주격조사 '이'는 구어에서 의존명사 '것'과 결합되어 '게'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결합형인 '게'도 살펴보고자 한다. 주격조사 및 보격조사 '이'의 사용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13]과 같다.

64) 참고로 중급 수준에서는 '든지(든)' 1회, '라든가' 3회 총 4회의 사용이 확인되었다. '라든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표 Ⅲ-13] 주격조사 및 보격조사 '이'의 사용 양상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주격	이	2206	610	817	779
	게	293	30	82	181
보격	이	76	25	22	29

주격조사 '이'의 학습 수준별 사용 수를 살펴보면 초급 수준 610회, 중급 수준 817회, 고급 수준 779회이며 중급 수준에서 사용 수가 가장 많았다. 앞서 조사 유형별 사용 수에서 확인하였듯이 격조사는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사용 수도 많아지는 경향이 보인 가운데 주격조사 '이'는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구어에서의 '이'의 사용 특성, 즉 생략 현상과 크게 관련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격조사 '이'는 구어에서 생략이 자주 일어나는 조사로 알려져 있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누구한테나 주격조사 '이'의 생략이 일어나겠으나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학습 수준에 따라 '이'의 생략에 대한 전략이 있다. 노다 외(野田他, 2001:60-61)에서는 학습자가 조사의 생략 여부가 모어 화자와의 의사소통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사 생략과 관련된 복잡한 규칙을 무시하고 이와 관련된 문법 지식을 단순화하여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고급 수준에서는 중급 수준에 비해 특정 상황에서 유난히 생략이 잦은 양상을 찾아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고급 수준에서 '이'의 생략 양상을 살펴보면 주격조사 '이'가 후행 용언으로 '있다', '없다', '많다' 등과 결합될 때 중급 수준보다 생략이 자주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격조사 '이'와 의존명사 '것'의 결합형인 '게'의 학습 수준별 사용 수를 살펴보면 초급 수준 30회, 중급 수준 82회, 고급 수준 181회이며 고급 수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또한, 고급 수준에서는 '이'의 생략과 마찬가지로 '게'의 사용에 대해서도 일본인 학습자 특유의 사용 양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 고급 수준에서 '게'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그런 게'처럼 '게' 앞에 '그렇다'의 관형형인 '그런'이 결합될 때 매우 높은 빈도로 '게'가 사용되었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서

주격조사 ‘이’의 사용 특성은 첫째, 후행 용언으로 ‘있다’, ‘없다’, ‘많다’ 등과 결합될 때 생략이 자주 일어나고 둘째, 주격조사 ‘이’의 결합형인 ‘게’는 앞에 ‘그렇다’의 관형형인 ‘그런’과 결합될 때 자주 일어난다.

보격조사 ‘이’의 학습 수준별 사용 수를 살펴보면 초급 수준 25회, 중급 수준 22회, 고급 수준 29회이며 고급 수준에서 사용 수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보격조사 ‘이’는 주격조사 ‘이’와 달리 학습 수준 간의 사용 수에 거의 차이가 없는 특성이 있다. 보격조사 ‘이’는 학습 수준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사용되는 조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목적격조사 ‘을’

목적격조사 ‘을’의 사용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14]와 같다. 또한, ‘을’은 구어에서 축약되어 ‘ㄹ’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을’의 축약형인 ‘ㄹ’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Ⅲ-14] 목적격조사 ‘을’의 사용 양상

<table>
<tr><th colspan="2" rowspan="2">의미·기능</th><th colspan="2">전체</th><th colspan="2">초급</th><th colspan="2">중급</th><th colspan="2">고급</th></tr>
<tr><th>수</th><th>비율</th><th>수</th><th>비율</th><th>수</th><th>비율</th><th>수</th><th>비율</th></tr>
<tr><td rowspan="2">동작의 직접적인 대상</td><td>을</td><td>1155</td><td rowspan="2">93.31</td><td>250</td><td rowspan="2">93.98</td><td>343</td><td rowspan="2">91.47</td><td>562</td><td rowspan="2">94.14</td></tr>
<tr><td>ㄹ</td><td>70</td><td>0</td><td>24</td><td>46</td></tr>
<tr><td colspan="2">행동의 간접적인 대상</td><td>6</td><td>0.48</td><td>4</td><td>1.50</td><td>1</td><td>0.27</td><td>1</td><td>0.17</td></tr>
<tr><td colspan="2">자료·수단</td><td>16</td><td>1.29</td><td>5</td><td>1.88</td><td>4</td><td>1.07</td><td>7</td><td>1.17</td></tr>
<tr><td colspan="2">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td><td>4</td><td>0.32</td><td>0</td><td>0.00</td><td>3</td><td>0.80</td><td>1</td><td>0.17</td></tr>
<tr><td colspan="2">이동하고자 하는 장소</td><td>18</td><td>1.45</td><td>2</td><td>0.75</td><td>5</td><td>1.33</td><td>11</td><td>1.84</td></tr>
<tr><td colspan="2">행동의 목적</td><td>33</td><td>2.67</td><td>5</td><td>1.88</td><td>15</td><td>4.00</td><td>13</td><td>2.18</td></tr>
<tr><td colspan="2">행동의 출발점</td><td>0</td><td>0.00</td><td>0</td><td>0.00</td><td>0</td><td>0.00</td><td>0</td><td>0.00</td></tr>
<tr><td colspan="2">행동이 비롯되는 장소·일</td><td>0</td><td>0.00</td><td>0</td><td>0.00</td><td>0</td><td>0.00</td><td>0</td><td>0.00</td></tr>
<tr><td colspan="2">수량·동작의 순서</td><td>6</td><td>0.48</td><td>0</td><td>0.00</td><td>4</td><td>1.07</td><td>2</td><td>0.34</td></tr>
</table>

목적격조사 ‘을’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을’이 하나의 의미·기능에 매우 치우친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데에 있다. ‘을’의 다양한 의미

·기능 중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의미·기능은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이다.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은 '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이며 '을'의 전체 사용의 93.31%를 차지한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다양한 의미·기능 중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의 의미·기능으로 '을'을 전적으로 사용한다.

목적격조사 '을'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초급과 중급 수준 간에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수량·동작의 순서의 의미·기능에 대한 사용의 확장이 보인다. 수량·동작의 순서의 의미·기능은 '열 시간을 잤다'의 '을'처럼 나타나는데 일본어는 일반적으로 무조사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다른 학습 수준보다 모어의 영향을 받기 쉬운 초급 수준에서는 해당 의미·기능으로 '을'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수량·동작의 순서의 의미·기능의 사용이 확인된 것은 한국에서의 긴 체류 기간을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해당 의미·기능과 관련된 '을'의 사용을 통해 습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행동의 출발점과 행동이 비롯되는 장소·일의 의미·기능에 대한 사용은 학습 수준과 상관없이 한 번도 확인할 수 없었다. 행동의 출발점의 의미·기능은 부사격조사 '에서'에도 유사한 의미·기능이 존재하는데 해당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행동의 출발점의 의미·기능을 나타낼 때 목적격조사 '을'에 비해 부사격조사 '에서'를 사용하는 경향이 보인다.[65]

다음으로 '을'의 축약형인 'ㄹ'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ㄹ'은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의 의미·기능으로만 사용되었다. 학습 수준별 사용 수를 살펴보면 초급 수준 0회, 중급 수준 24회, 고급 수준 46회이며 고급 수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앞서 주격조사 '이'와 의존명사 '것'의 결합형인 '게'는 초급 수준부터 사용이 확인되는 반면, 'ㄹ'은 중급 수준부터 사용이 확인되었는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에서 출판된

65)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행동의 출발점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에'의 사용도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각각 1회씩만 확인된 것으로 원래 해당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을'이나 '에'를 사용하지 않거나 구어 자료를 도출하는 데에 사용한 인터뷰 질문의 성격상 해당 의미·기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어 교재에서는 ‘ㄹ’보다 ‘게’가 우선 제시된다. ‘ㄹ’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의존명사 ‘것’과 ‘ㄹ’이 함께 결합된 ‘걸’의 형태로 사용된 것이 전부이었으며 앞에 ‘이’, ‘그’ 등의 지시대명사가 올 때 ‘이걸’, ‘그걸’처럼 주로 사용되었다.

3) 관형격조사 ‘의’

관형격조사 ‘의’의 사용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15]와 같다.

[표 Ⅲ-15] 관형격조사 ‘의’의 사용 양상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소유·소속	23	11.86	2	3.92	7	14.29	15	15.96
행동·작용의 주체	25	12.89	2	3.92	3	6.12	20	21.28
대상을 만들거나 이룬 형성자	0	0.00	0	0.00	0	0.00	0	0.00
과정·목표의 대상	0	0.00	0	0.00	0	0.00	0	0.00
행동의 대상	2	1.03	0	0.00	1	2.04	1	1.06
앞의 체언에 관한 것임	46	23.71	23	45.10	14	28.57	9	9.57
인물의 행동·행위에 의한 사건·사물의 대상	0	0.00	0	0.00	0	0.00	0	0.00
속성	23	11.86	4	7.84	7	14.29	12	12.77
속성의 보유자	8	4.12	4	7.84	0	0.00	3	3.19
목적·기능	0	0.00	0	0.00	0	0.00	0	0.00
동격	3	1.55	1	1.96	0	0.00	2	2.13
사회적·친족적 관계	1	0.52	0	0.00	1	2.04	0	0.00
사물이 일어나거나 위치한 곳	25	12.89	13	25.49	8	16.33	4	4.26
사물이 일어나거나 위치한 때	1	0.52	0	0.00	0	0.00	1	1.06
정도·수량의 한정	15	7.73	0	0.00	3	6.12	12	12.77
전체와 부분	11	5.67	1	1.96	3	6.12	7	7.45
사물의 특성	1	0.52	1	1.96	0	0.00	0	0.00
비유의 대상	1	0.52	0	0.00	1	2.04	0	0.00
재료	0	0.00	0	0.00	0	0.00	0	0.00
결과를 낳는 행동	0	0.00	0	0.00	0	0.00	0	0.00
다른 조사와의 결합	9	4.64	0	0.00	1	2.04	8	8.51

관형격조사 ‘의’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사용보다 생략이 자연스러운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고급 수준에서 유난히 ‘의’를 생략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데에 있다. 앞서 선행연구를 통해 관형격조사 ‘의’는 소유 및 소속, 대상을 제작하거나 이룬 형성자, 인물의 행동·행위에 의한 사건·사물의 대상, 속성, 속성의 보유자, 사물이 일어나거나 위치한 곳, 사물이 일어나거나 위치한 때, 친족 관계, 전체-부분의 9개의 의미·기능에 대해서는 사용보다 생략이 자연스러운 경우임을 밝혔다.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의’를 자연스럽게 생략할 수 있다고 보고 사용보다 생략이 자연스러운 의미·기능과 관련해서는 초급과 중급 수준에 비해 고급 수준에서 사용 수가 적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런데 사용보다 생략이 자연스러운 9개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학습 수준별로 실제로 ‘의’의 사용 수를 살펴보면 예상과 반대로 결과가 나타났다. 9개의 의미·기능 중 사물이 일어나거나 위치한 곳의 의미·기능 하나를 제외하고는 초급 수준에 비해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사용 수가 많았다. 이 결과는 중급과 고급 수준에 비해 초급 수준이 ‘의’를 자연스럽게 생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물이 일어나거나 위치한 곳의 의미·기능과 관련해서는 중급과 고급 수준에 비해 초급 수준에서 오히려 ‘의’를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부터 자연스러운 생략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해당 의미·기능은 조선경(1997)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생략할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기능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앞서 주격조사 ‘이’의 생략과 관련하여 언급하였듯이 관형격조사 ‘의’의 생략에 대한 문법 지식도 단순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초급 수준에는 ‘의’의 생략이 자연스러운 의미·기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기보다 구어에서 ‘의’가 자주 생략되므로 어떤 경우에서든 생략하려는 학습자가 많은 결과 ‘의’의 사용 수가 적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중급과 고급 수준에는 ‘의’의 생략이 자연스러운 의미·기능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기보다 구어에서도 ‘의’가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의’를 일부러 사용하는 학습자가 많은

결과 사용 수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의'의 다양한 의미·기능 중 소유·소속의 의미·기능만 제시되고 심지어 기본적으로 생략되는 조사로서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초급 수준에 보이는 '의'의 적은 사용 수는 학습 초기 단계에서의 '의'의 설명 방법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본다. 이러한 설명 방법으로 '의'를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생략할 수 있다면 조사 학습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의'를 처음부터 생략되는 조사로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다만, 사물이 일어나거나 위치한 곳의 의미·기능에 대해서는 초급 수준에서 '의'가 생략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보였다. '제주의 말'를 '제주 말'처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면 소유·소속의 의미·기능 외에도 이와 관련된 지식에 대한 습득이 초급 수준의 조사 교수·학습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형격조사 '의'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학습 수준에 따라 정도·수량의 한정, 다른 조사와의 결합의 의미·기능에 대한 사용의 확장이 보인다. 반면, '의'는 사용의 확장과 다른 문제로 다른 격조사에 비해 모든 학습 수준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의미·기능이 많았다. 이는 이 연구가 구어 자료를 통해 조사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 것에 따른 연구 설계상의 한계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의'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어에 비해 '의'의 실현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문어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4) 서술격조사 '이다'

서술격조사 '이다'의 사용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16]과 같다.

[표 Ⅲ-16] 서술격조사 '이다'의 사용 양상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지정	403	88.77	9	56.25	181	91.88	213	88.38
속성	47	10.35	4	25.00	15	7.61	28	11.62
행동·상태	0	0.00	0	0.00	0	0.00	0	0.00
행동·상태의 양상	3	0.66	2	12.5	1	0.51	0	0.00
행동에 관여하는 상황	1	0.22	1	6.25	0	0.00	0	0.00

서술격조사 '이다'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지정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사용 수에 학습 수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보였다는 데에 있다. 초급 수준에서는 해당 의미·기능과 관련된 사용 수가 16회에 불과하였으나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사용 수가 각각 197회, 241회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초급과 중급 수준 사이에서 사용 수에 매우 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학습 수준 간의 사용 수에 대한 큰 차이는 '이다'의 활용 특성과 관련이 있다. 초급 수준에서는 '이다'의 활용이 제한적인 반면,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 수준에 따른 사용 수의 차이는 속성의 의미·기능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속성의 의미·기능은 지정의 의미·기능만큼 크게 차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나 학습 수준에 따라 사용 수에 차이가 보였다. 속성의 의미·기능은 접미사 '-적'과 함께 '이다'가 사용될 경우를 말하는데 실제로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적극적이다'나 '기본적인'처럼 '적이다'나 '적이다'의 관형형인 '적인'과 같은 표현이 초급 수준에 비해 다수 보였다.

서술격조사 '이다'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학습 수준에 따른 사용의 확장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즉, 서술격조사 '이다'는 학습 수준과 상관없이 주로 지정과 속성의 의미·기능으로 잘 사용되고 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해당 의미·기능에 대한 사용 수에만 차이가 나타났다.

5) 부사격조사 ‘으로’

부사격조사 ‘으로’의 사용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17]과 같다.

[표 Ⅲ-17] 부사격조사 ‘으로’의 사용 양상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움직임의 방향	70	30.84	0	0.00	28	34.15	42	33.33
움직임의 경로	0	0.00	0	0.00	0	0.00	0	0.00
변화의 방향	4	1.76	0	0.00	1	1.22	3	2.38
재료·원료	7	3.80	1	5.26	1	1.22	5	3.97
수단·도구	52	22.91	11	57.89	22	26.83	19	15.08
일의 방법·방식	24	10.57	1	5.26	7	8.54	16	12.70
원인	20	8.81	0	0.00	9	10.98	11	8.73
지위·신분·자격	31	13.66	2	10.53	5	6.10	24	19.05
시간	15	6.61	4	21.05	8	9.76	3	2.38
시간을 셈할 때 셈에 넣는 한계	1	0.44	0	0.00	1	1.22	0	0.00
으로 하여금, 더불어	0	0.00	0	0.00	0	0.00	0	0.00
약속·결정	3	1.32	0	0.00	0	0.00	3	2.38

부사격조사 ‘으로’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움직임의 방향, 일의 방법·방식, 원인, 지위·신분·자격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학습 수준에 따라 사용 수에 뚜렷한 차이가 보였다는 데에 있다. 먼저 초급 수준에서는 ‘으로’의 사용 수 자체가 매우 적은데다 ‘으로’가 수단·도구의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매우 한정적으로 사용되었다.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중 대부분의 초급 교재에서 ‘으로’가 수단·도구의 의미·기능으로만 제시되므로 학습 요인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기능은 ‘으로’가 지닌 의미·기능 중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초급 수준에서 해당 의미·기능과 관련된 사용

을 한 번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는 초급 수준에서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미·기능과 거의 유사한 진행 방향의 의미·기능을 지닌 부사격조사 '에'를 그 대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사격조사 '에'의 전체 사용에 차지하는 진행 방향의 의미·기능으로 사용된 '에'의 비율은 초급 수준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지위·신분·자격의 의미·기능은 모든 학습 수준에서 사용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고급 수준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지위·신분·자격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격조사는 '으로' 외에도 '으로서'가 존재한다. 처음에는 고급 수준에서 '으로서' 대신 '으로'가 사용되므로 해당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사용 수가 많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으로서'의 학습 수준별 사용 수를 살펴보면 중급 수준 2회, 고급 수준 10회로 확인되어 이 결과로부터 고급 수준에서는 중급 수준에 비해 지위·신분·자격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사용이 단순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고급 수준에서 해당 의미·기능과 관련된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일본인으로(서)', '유학생으로(서)' 등과 같은 표현이 중급 수준보다 자주 보였다.

부사격조사 '으로'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움직임의 방향, 변화의 방향, 원인, 약속·결정과 관련하여 학습 수준에 따른 사용의 확장이 보인다. 그중 움직임의 방향과 원인의 의미·기능에 대해서는 초급과 중급 수준 간에서 사용 수의 차이가 뚜렷이 보였다. 반면, 움직임의 경로와 '으로 하여금(더불어)'의 의미·기능은 학습 수준과 상관없이 한 번도 확인할 수 없었다. 움직임의 경로의 의미·기능은 '홍콩으로 해서 미국을 들어갈 예정이다.'처럼 경로, 즉 경유를 나타내는데 학습자가 '으로 해서'의 형태를 모르면 사용하기 어렵다. '으로 하여금(더불어)'는 구어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구어 자료에서는 실제 사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6) 부사격조사 '에'

부사격조사 '에'의 사용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18]과 같다.

[표 Ⅲ-18] 부사격조사 '에'의 사용 양상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처소	351	31.28	86	34.26	165	36.83	100	23.64
시간	257	22.91	56	22.31	92	20.54	109	25.77
진행 방향	222	19.79	61	24.30	84	18.75	77	18.20
원인	82	7.31	4	1.59	34	7.59	44	10.40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	17	1.52	4	1.59	3	0.67	10	2.36
움직임·작용이 미치는 대상	67	5.97	14	5.58	19	4.24	34	8.04
목표·목적의 대상	6	0.53	0	0.00	3	0.67	3	0.71
수단·방법	1	0.09	0	0.00	0	0.00	1	0.24
조건·환경·상태	30	2.67	5	1.99	8	1.79	17	4.02
기준이 되는 대상·단위	8	0.71	4	1.59	1	0.22	3	0.71
비교의 대상	7	0.62	0	0.00	2	0.45	5	1.18
맡아보는 자리·노릇	0	0.00	0	0.00	0	0.00	0	0.00
제한된 범위	2	0.18	1	0.40	0	0.00	1	0.24
말하고자 하는 대상	69	6.15	16	6.37	36	8.04	17	4.02
더하여짐	3	0.27	0	0.00	1	0.22	2	0.47

부사격조사 '에'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처소, 진행 방향,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중급 수준에서 고급 수준에 비해 사용 수가 많았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중급 수준에서 유사한 의미·기능을 가진 조사 간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먼저 처소와 진행 방향의 의미·기능의 경우 각각 부사격조사 '에'와 '에서', '에'와 '으로' 간의 사용 수에 주목해야 한다. '에'와 '에서'의 처소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사용 양상을 학습 수준별로 살펴보면 '에'는 중급 수준이 고급 수준에 비해 사용 수가 많은 반면, '에서'는 고급 수준이 중급 수준에 비해 사용 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에'와 '으로'의 진행(움직임의) 방향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학습 수준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에'는 중급 수준이 고급 수준에 비해 사용 수가 많은 반면, '으로'는 고급 수준이 중급 수준에 비해 사용 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결과는 중급 수준에서 처소와 진행 방향의 의미·기능을 나타낼 때 고급 수준에 비해 '에'가 자주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유사한 의미·기능을 가진 부사격조사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고급 수준에서는 골고루 사용하는 반면, 중급 수준에서는 부사격조사의 형태에 따라 의미·기능을 정하여 사용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한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의미·기능은 이와 유사한 의미·기능을 지닌 조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 양상에 다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에'와 '대하여'가 결합되어야만 해당 의미·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적 특성이 있는데 중급 수준에서 고급 수준에 비해 이와 같은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급 수준에서 해당 의미·기능과 관련된 '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한국(일본)에 대한'과 같은 표현이 자주 보였다.

한편, 부사격조사 '에'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중급 수준에서 목표·목적의 대상, 비교의 대상, 더하여짐과 관련하여 사용의 확장이 잘 보인다. 전체적으로 학습 수준에 따라 사용된 의미·기능의 수가 증가하고 사용 수도 많아졌다. 초급 수준에서는 '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인 처소, 시간, 진행 방향의 세 가지 의미·기능이 주로 사용된 반면, 중급 수준에서부터는 원인의 의미·기능, 고급 수준에서부터는 원인과 함께 조건· 환경·상태의 의미·기능의 사용 수가 많아졌다.

7)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는 의미·기능이 일치하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에게'와 '한테'의 사용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19]와 같다.

[표 Ⅲ-19]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의 사용 양상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제한된 범위	에게	3	10.00	0	0.00	1	16.67	2	16.67
	한테	11	16.92	0	0.00	4	17.39	7	24.14
행동이 미치는 대상	에게	22	73.33	11	91.67	3	50.00	8	66.67
	한테	51	78.46	13	100.00	18	78.26	20	68.97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	에게	7	16.67	1	8.33	2	33.33	2	16.67
	한테	3	4.62	0	0.00	1	4.35	2	6.90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초급 수준에서 구어임에도 불구하고 '에게'와 '한테'의 사용 수가 거의 유사하고 주로 행동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기능으로만 사용되었다는 데에 있다. 반면,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에게'와 '한테'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사용 수에 있어 '에게'보다 '한테'가 두 배 이상 차이가 있고 의미·기능적으로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에게'와 '한테'는 동시에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시 형태를 보면 '에게'가 앞에 제시되거나 '에게(한테)처럼 '에게'를 제시한 다음에 괄호로 '한테'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특히 초급 수준에서는 학습 요인의 영향으로 '에게'가 비교적 많이 사용된다.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중급 수준에서 사용의 확장이 보인다. 초급 수준에서는 '에게'와 '한테'가 거의 행동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기능으로만 사용된 반면,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제한된 범위와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도 사용되었다.

8) 부사격조사 '에서'

부사격조사 '에서'의 사용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20]과 같다.

[표 Ⅲ-20] 부사격조사 '에서'의 사용 양상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처소	426	93.63	92	89.32	140	94.59	194	95.10
출발점	2	0.44	0	0.00	1	0.68	1	0.49
일의 출처	24	5.27	9	8.74	7	4.73	8	3.92
근거	3	0.66	2	1.94	0	0.00	1	0.49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점	0	0.00	0	0.00	0	0.00	0	0.00

부사격조사 '에서'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에서'가 하나의 의미·기능에 매우 치우친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데에 있다. '에서'의 다양한 의미·기능 중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의미·기능은 처소이다. 처소는 '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이며 '에서'의 전체 사용의 93.63%를 차지한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다양한 의미·기능 중 처소의 의미·기능으로 '에서'를 전적으로 사용한다.

부사격조사 '에서'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처소 다음으로 일의 출처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사용 수가 높았다. 이는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예외 없이 '에서'가 처소와 출발점의 의미·기능으로 제시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일의 출처의 의미·기능은 초급 수준에서 고급 수준까지 일정한 사용 수가 확인된 것으로부터 해당 의미·기능은 '에서'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 중 하나인 'から(kara)'를 통해 유추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근거의 의미·기능도 일의 출처의 의미·기능와 같은 이유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출발점과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점의 의미·기능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출발점의 의미·기능은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각 1회씩 사용이 확인되었고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점의 의미·기능은 사용이 한 번도 확인할 수 없었다. 출발점의 의미·기능은 목적격조사 '을'의 행동의 출발점의 의미·기능과 유사한데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두 사용 수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구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한 질문에 대해 출발점의 의미·기능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점의 의미·기능은 ‘이것에 비하여’의 뜻으로 ‘이에서’의 형태로만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해당 형태를 모르면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의미·기능에 대해서는 보조사 ‘보다’를 사용하여 ‘이보다’와 교체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 한국어 학습자는 ‘보다’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보다’는 109회의 사용이 확인되었으며 비교의 기준이 되는 점의 ‘에서’와 대조적이다.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의 특성과 관련하여 ‘에서’에는 축약형인 ‘서’가 존재한다. 그런데 ‘서’는 주격조사 ‘이’와 의존명사 ‘것’의 결합형인 ‘게’나 목적격조사 ‘을’의 축약형인 ‘ㄹ’과 달리 문어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서’가 구어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형태가 아니라 관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서’는 처소의 의미·기능으로만 사용되고 학습 수준별로 초급 수준 3회, 중급 수준 0회, 고급 수준 13회의 사용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어디서’, ‘여기서’, ‘거기서’의 형태로만 사용되었고 그 외의 형태는 확인할 수 없었다.

9) 부사격조사 ‘과’, ‘이랑’, ‘하고’

부사격조사 ‘과’, ‘이랑’, ‘하고’는 모두 의미·기능이 일치하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부사격조사 ‘과’, ‘이랑’, ‘하고’의 사용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21], [표 Ⅲ-22], [표 Ⅲ-23]과 같다.

[표 Ⅲ-21] 부사격조사 ‘과’의 사용 양상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비교·기준의 대상	11	52.38	6	85.71	3	42.86	2	28.57
함께 함	7	33.33	1	14.29	1	14.29	5	71.43
상대로 하는 대상	3	14.29	0	0.00	3	42.86	0	0.00

[표 Ⅲ-22] 부사격조사 '이랑'의 사용 양상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함께 하거나 상대로 하는 대상	90	49.18	22	62.86	38	45.24	30	46.88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	93	50.82	13	37.14	46	54.76	34	53.13

[표 Ⅲ-23] 부사격조사 '하고'의 사용 양상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비교·기준의 대상	17	54.84	13	48.15	0	0.00	4	100.00
함께 함	7	22.58	7	25.93	0	0.00	0	0.00
상대로 하는 대상	7	22.58	7	25.93	0	0.00	0	0.00

부사격조사 '과', '이랑', '하고'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과'의 구어체로서 '이랑'과 '하고'가 있는데 초급 수준에서는 '이랑'과 '하고'가 골고루 사용되는 반면,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이랑'만 사용되었다는 데에 있다.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하고'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고급 수준에서 4회의 사용만 확인되고 중급 수준에서는 한 번도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처럼 초급과 중급 및 고급 수준 사이에서 특히 '하고'의 사용 수에 크게 차이가 보인 배경에는 학습 요인에 따른 영향이 크다.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하고'는 '과'의 구어체로 예외 없이 꼭 제시되는 반면, '이랑'은 일부 교재에서만 제시된다. 또한, 중급 수준의 한 연구 참여자는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통해 '하고'를 배워서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하고'를 사용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고'보다 '이랑'을 잘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에는 '이랑'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어요."라고 응답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중급과 고급에서는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한국어 모어 화자의 영향이 조사 사용에 크게 반영되었다.

부사격조사 '과', '이랑', '하고'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과', '이랑', '하고'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해당 조사들이 지닌 모든 의미·

기능의 사용이 확인되었는데 그중 '과'와 '하고'는 비교·기준 대상의 의미·기능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보인 반면, '이랑'은 비교·기준 대상과 함께 하거나 상대로 하는 대상의 의미·기능으로 골고루 사용되었다. 그리고 초급 수준에서는 '과'와 '하고'는 비교·기준 대상의 의미·기능, '이랑'은 함께 하거나 상대로 하는 대상의 의미·기능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게 보였다.

3.2. 보조사

1) '까지'

보조사 '까지'의 사용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24]와 같다.

[표 Ⅲ-24] 보조사 '까지'의 사용 양상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범위의 끝	42	73.68	9	100.00	15	71.43	18	66.67
더함	4	7.02	0	0.00	3	14.29	1	3.70
극단적인 경우	11	19.30	0	0.00	3	14.29	8	29.63

보조사 '까지'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더함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사용 수가 다른 의미·기능에 비해 극단적으로 적다는 데에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더함의 의미·기능은 '까지'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 'まで(made)'에 없는 의미·기능이므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유추하여 사용하기 어렵다. 일본어의 경우 일반적인 더함의 의미·기능은 '도'에 해당하는 'も(mo)'로 나타낸다. 또한,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도 '까지'는 범위의 끝의 의미·기능으로만 제시되므로 특히 초급 수준에서는 더함의 의미·기능에 대해서는 '까지'보다 더함의 의미·기능을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으로 지닌 '도'가 사용된다.

보조사 '까지'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더함과 극단적인

경우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중급 수준에서부터 사용의 확장이 뚜렷이 보인다. 특히 고급 수준에서는 극단적인 경우의 의미·기능, 즉 '마저'의 뜻으로 '까지'가 자주 사용되었다.

2) '은'

보조사 '은'의 사용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25]와 같다. 아울러 '은'은 구어에서 축약되어 'ㄴ'으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은'의 축약형인 '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표 Ⅲ-25] 보조사 '은'의 사용 양상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대조	은	617	31.30	140	30.11	242	31.47	235	31.89
	ㄴ	28		1		9		18	
주제	은	1088	55.20	293	63.01	419	54.49	376	51.02
	ㄴ	32		1		12		19	
강조	은	266	13.50	32	6.88	108	14.04	126	17.10
	ㄴ	33		0		9		24	

보조사 '은'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우선 다른 보조사에 비해 사용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데에 있다. 또한, 모든 학습 수준에서 모든 의미·기능의 사용이 확인된 조사 중 유일하게 국어사전에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의미·기능이 아닌 의미·기능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 각 조사가 지닌 의미·기능을 살펴보며 확인하였듯이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서는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의미·기능을 첫 번째로 제시된다. 즉, '은'의 경우 한국어 모어 화자가 대조의 의미·기능으로 '은'을 가장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은'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한국어 모어 화자와 달리 국어사전에서 두 번째로 제시되는 주제의 의미·기능으로 '은'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일본어사전에서 '은'에 해당하는 'は(wa)'는 첫 번째로 제시되는 의미·기능이 주제이다. 즉, 한국어와 일본어는 '은'의 의미·기능에 따른 사용 빈도에 차이가 있으며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은'을 사용할 때도 'は(wa)'의 사용 습관, 즉 주제의 의미··기능으로 '은'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은'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모든 학습 수준에서 모든 의미·기능의 사용이 확인되는데 강조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학습 수준에 따른 사용 수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보였다. 특히 초급과 중급 수준 간에서 강조의 의미·기능은 세 배 이상의 차이가 보였다. 강조의 의미·기능은 '은'에 해당하는 'は(wa)'에도 존재하나 중급 수준에서부터 해당 의미·기능이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3) '도'

보조사 '도'의 사용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26]과 같다.

[표 Ⅲ-26] 보조사 '도'의 사용 양상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더함	547	71.04	67	51.91	174	72.20	306	76.88
똑같이 아우름	183	23.77	61	46.56	50	20.75	72	18.09
양보(허용)	2	0.26	1	0.76	1	0.41	0.00	0.00
양보(극단적인 경우)	16	2.08	1	0.76	7	2.90	8	2.01
의외성의 강조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감정의 강조	21	2.73	0.00	0.00	9	3.73	12	3.02

보조사 '도'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모든 학습 수준에서 '도'가 더함의 의미·기능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초급 수준에서는 똑같이 아우름의 의미·기능이 더함의 의미·기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사용되었다는 데에 있다. 똑같이 아우름의 의미·기능은 '도 도'처럼 '도'가 두 번

이상 연속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초급 수준에서 이러한 '도'의 사용이 자주 보였다. 초급 수준에서 똑같이 아우름의 의미·기능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특히 '눈도 코도 (엄마랑 닮았어요.)'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자주 보였다. 반면,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눈이랑 코가 (엄마를 닮았어요.)'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보였다. 이러한 표현 방식의 차이가 학습 수준 간에서 똑같이 아우름의 의미·기능의 사용 수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사 '도'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학습 수준에 따라 양보와 감정의 강조와 관련하여 사용의 확장이 보였다. 초급 수준에서는 더함과 똑같이 아우름의 의미·기능으로만 '도'가 사용된 반면,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양보 중 특히 극단적인 경우와 감정의 강조와 관련된 사용 수가 많아졌다. 감정의 강조는 '아직도'의 '도'처럼 일부 부사에 사용되거나 '한 번도 -지 않았다.'의 '도'처럼 부정문의 체언에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한편, 모든 학습 수준에서 양보 중 허용의 의미·기능의 사용 수가 극단적인 경우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찬밥도 좋으니'를 '참밥이라도 좋으니'처럼 일본어의 경우 허용의 의미·기능은 '도'에 해당하는 'も(mo)'가 아닌 '라도'에 해당하는 'でも(demo)'가 사용되므로 허용의 의미·기능으로 사용되는 '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4) '만'

보조사 '만'의 사용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27]과 같다.

[표 Ⅲ-27] 보조사 '만'의 사용 양상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한정	66	91.67	7	100.00	23	95.83	36	87.80
강조	0	0.00	0	0.00	0	0.00	0	0.00
기대의 마지막 선	1	1.39	0	0.00	1	4.17	0	0.00

정도에 달함	0	0.00	0	0.00	0	0.00	0	0.00
조건	5	6.94	0	0.00	0	0.00	5	12.20

보조사 ‘만’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만’이 특정 의미·기능에 매우 치우친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데에 있다. ‘만’의 다양한 의미·기능 중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의미·기능은 한정이다. 한정은 ‘만’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이며 ‘만’의 전체 사용의 91.67%를 차지한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다양한 의미·기능 중 한정의 의미·기능으로 ‘만’을 전적으로 사용한다.

보조사 ‘만’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고급 수준에서 조건의 의미·기능으로 ‘만’이 사용되고 중급 수준에서 기대의 마지막 선의 의미·기능으로 ‘만’이 사용되는 경우가 한 차례 보였을 뿐, 한정의 의미·기능을 제외하고 강조나 정도에 달함을 비롯한 그 외의 의미·기능으로 ‘만’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앞서 ‘만’과 이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와의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듯이 특히 기대의 마지막 선이나 조건의 의미·기능은 일본어도 ‘만’에 해당하는 ‘だけ(dake)’ 혹은 해당 조사에 ‘으로’에 해당하는 ‘で(de)’가 결합된 ‘だけで(dakede)’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강조와 정도에 달함의 의미·기능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혀 다른 조사나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해당 의미·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

5) ‘마다’

보조사 ‘마다’의 사용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28]과 같다.

[표 Ⅲ-28] 보조사 ‘마다’의 사용 양상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낱낱이 모두	5	55.56	2	100.00	1	100.00	2	33.33
한 번씩	4	44.44	0	0.00	0	0.00	4	66.67

‘마다’의 사용에 있어 가장 큰 특성은 모든 학습 수준에서 한 번이라도 사용이 확인된 보조사 중 가장 사용 수가 적다는 데에 있다. 또한, 초급과 중급 수준에서는 둘 중 하나의 의미·기능으로만 사용된 반면, 고급 수준에서는 두 가지 의미·기능으로 사용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마다’는 의미·기능과 상관없이 일본어 ‘ごとに’, 즉 접미사 ‘ごと(goto)’와 ‘에’에 해당하는 ‘に’가 결합한 형태에 완전히 대응하므로 의미·기능에 따른 사용 양상에 대한 일본어의 영향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 수준에 따라 의미·기능에 따른 차이가 보인 이유는 다른 부분에 있다. 이는 ‘마다’의 의미·기능의 특성상 한국 체류 기간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고급 수준에 속하는 모든 연구 참여자의 평균 한국 체류 기간이 60개월 이상이나 되다 보니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일들이 많아지며 ‘마다’의 한 번씩의 의미·기능을 사용하는 기회가 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이나’

보조사 ‘이나’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29]와 같다.

[표 Ⅲ-29] 보조사 ‘이나’의 사용 양상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최소한의 선택	10	66.67	0	0.00	8	100.00	2	28.57
빈정거림	0	0.00	0	0.00	0	0.00	0	0.00
최선의 자격	0	0.00	0	0.00	0	0.00	0	0.00
놀람	2	13.33	0	0.00	0	0.00	2	28.57
수량을 어림잡음	0	0.00	0	0.00	0	0.00	0	0.00
어느 정도는 됨	0	0.00	0	0.00	0	0.00	0	0.00
별로 관심이 없음(인용)	0	0.00	0	0.00	0	0.00	0	0.00
상관없음	3	20.00	0	0.00	0	0.00	3	42.86
비교	0	0.00	0	0.00	0	0.00	0	0.00

보조사 ‘이나’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초급 수준에서 한 번도 사용이 확인되지 않고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도 일부 의미·기능의 사용에 한정되고 사용 수도 매우 적다는 데에 있다.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중 보조사 ‘이나’가 제시된 교재는 5종 중 2종의 교재에 불과하고 제시가 확인되는 교재에서도 ‘이나’의 다양한 의미·기능 중 최소한의 선택과 수량을 어림잡음의 두 가지 의미·기능만 제시된다. 따라서 초급 수준에서는 한 번도 사용을 확인할 수 없고 중급 수준에서는 최소한의 선택의 의미·기능에 대해 사용이 확인되었다. 반면, 고급 수준에서는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도 제시되지 않는 놀람이나 상관없음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사용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조사 ‘이나’가 지닌 다양한 의미·기능에 비해 사용 수가 극단적으로 적고 일부 의미·기능에 한정된 사용 양상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보조사 ‘이나’는 일본어의 합성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조사나 표현과 대응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같은 형태를 지닌 조사인 접속조사 ‘이나’의 존재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접속조사 ‘이나’는 보조사 ‘이나’와 달리 접속조사 중에서도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사이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나’를 접속조사로서만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보조사 ‘이나’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초급과 중급 수준 간에서는 최소한의 선택의 의미·기능, 중급과 고급 수준 간에서는 놀람과 상관없음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사용의 확장이 보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보조사 ‘이나’는 일본어와 매우 복잡한 대응 양상을 보이는데 그중 놀람과 상관없음의 의미·기능은 ‘도’에 해당하는 일본어 단일 조사인 ‘も(mo)’에 대응되므로 그나마 사용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3.3. 접속조사

1) ‘과’, ‘이랑’, ‘하고’

접속조사 ‘과’, ‘이랑’, ‘하고’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줌을 나타내는 의미·기능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 수준별 사용 양상만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 수준별 사용 수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30]과 같다.

[표 Ⅲ-30] 접속조사 ‘과’, ‘이랑’, ‘하고’의 사용 양상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같은 자격으로 이어줌	과	10	2	3	5
	이랑	122	16	46	60
	하고	26	25	0	1

접속조사 ‘과’, ‘이랑’, ‘하고’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부사격조사 ‘과’, ‘이랑’, ‘하고’와 마찬가지로 ‘과’의 구어체로서 ‘이랑’과 ‘하고’가 있는데 초급 수준에서는 ‘이랑’과 ‘하고’가 골고루 사용되는 반면,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이랑’만 사용되었다는 데에 있다.

접속조사 ‘과’, ‘이랑’, ‘하고’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이랑’의 사용 수가 122회로 가장 많았고 ‘하고’의 사용 수인 26회의 네 배 이상이나 된다.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이랑’의 사용 수가 매우 많으므로 두 집단의 사용 수가 총 사용 수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초급 수준에서 ‘이랑’에 비해 ‘하고’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앞서 부사격조사 ‘이랑’과 ‘하고’의 관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의 ‘이랑’과 ‘하고’의 제시 여부와 크게 관련이 있다.

2) ‘이나’

접속조사 ‘이나’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줌을 나타내며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기능 하나만 존재하므로 학습 수준별 사용

양상만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 수준별 사용 수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Ⅲ-31]과 같다.

[표 Ⅲ-31] 접속조사 '이나'의 학습 수준별 사용 수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같은 자격으로 이어줌 (하나만 선택)	226	77	90	59

접속조사 '이나'의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모든 학습 수준에서 접속조사 중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데에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나'는 다른 접속조사와 달리 '하나만 선택됨'의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적으로 제약이 없는 다른 접속조사보다 '이나'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모어인 일본어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 중 접속조사 '이나'가 제시된 교재를 보면 '이나'를 국어사전에는 없는 '예시(例示)'의 의미·기능으로 제시하고 또한, 일본어 대역으로 'とか(toka)'를 제시하고 있다.[66] 호라사와·오쿠무라(洞澤·奥村, 2015:2-3)에 따르면 'とか(toka)'는 일본에서 젊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즉 구어에서 자주 사용하고 '일부 예시(一部例示)'를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으로 지닌 조사이다. 일부 예시는 여러 개 중 두 개 이상을 나란히 제시하는 의미·기능이다. 예를 들어, 'ケーキとか和菓子とか甘いものが好きです。(케이크나 화과자와 같은 단 것을 좋아합니다.)'처럼 사용된다. 즉, 이는 말하는 이가 단 것을 좋아하는데 그중 케이크와 화과자를 예시로 든 문장이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이와 같은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므로 접속조사 '이나'의 사용 수가 다른 접속조사에 비해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접속조사 '이나'의 학습 수준별 사용 수를 살펴보면 중급 수준에서 사용 수가 가장 많았다. 거의 대부분의 조사가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66)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접속조사 '이나'를 국어사전에는 없는 '예시(例示)'의 의미·기능으로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류 분석에서 논의한다.

따라 사용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이는 가운데 접속조사 ‘이나’는 중급과 고급 수준 간에서 사용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예외적인 조사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급 수준에서 접속조사 ‘이나’와 함께 ‘이나’와 유사한 의미·기능을 지닌 격조사 ‘든지(든)’, ‘라든가’, ‘라든지’를 중급에 비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조사의 사용 수는 중급과 고급 수준 사이에서 ‘이나’의 사용 수 차이만큼 확인되었다.

4. 일본인 학습자의 조사 사용의 특성

4.1. 교재에서 조사 제시 빈도에 따른 사용

첫째, 교재에서 조사 제시 빈도에 따른 사용이다. 이는 교재에서 제시되는 빈도가 높은 조사나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사용함을 의미하며 특히 초급 수준에서 잘 보이는 특성이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양상을 조사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를 종합하면 특히 초급과 중급 수준 사이에서 조사 항목별 사용 수나 의미·기능별 사용 수에 큰 차이가 보였다. 이는 유사통사적으로 볼 때 초급 수준에서 중급 수준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사 사용에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먼저 조사 항목별 사용 수와 관련하여 목적격조사 ‘을’의 축약형 ‘ㄹ’, 서술격조사 ‘이다’, 부사격조사과 접속조사의 ‘하고’, 보조사 ‘은’의 축약형 ‘ㄴ’과 보조사 ‘이나’에 큰 차이가 보였다. ‘ㄹ’과 ‘이나’는 초급 수준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가 중급 수준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확인된 조사이다. ‘이다’와 ‘ㄴ’은 초급 수준에서 사용 수가 매우 적었다가 중급 수준에서 사용 수가 급격히 증가한 조사이다. 반면, ‘하고’는 앞의 조사들과 달리 초급 수준에서 빈번히 사용되었다가 중급 수준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은 조사이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중 초급 학습자는 중급과 고급 학습자에 비해 ‘하고’를 빈번히 사용하는 반면, ‘ㄹ’, ‘이다’, ‘ㄴ’, 보조사 ‘이나’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의미·기능에 따른 사용 수와 관련하여 부사격조사 ‘으로’의

의미·기능 중 움직임의 방향과 원인에 큰 차이가 보였다. 해당 의미·기능은 초급 수준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가 중급 수준에서 사용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중 초급 학습자는 '으로'의 의미·기능 중 움직임의 방향과 원인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조사 항목별 사용 수와 의미·기능별 사용 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초급 학습자의 조사 사용의 특성을 밝혔으나 특이한 점이 두 가지 있다. 먼저 하나는 '하고'와 같은 의미·기능을 지닌 '이랑'은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사용 수가 많아졌는데 '하고'는 초급 학습자의 사용 수가 가장 많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주격조사 '이'와 의존명사 '것'의 결합형인 '게'는 초급 수준에서도 사용이 확인되었는데 '게'와 마찬가지로 구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ㄹ'과 'ㄴ'은 사용되지 않는 점이다.

이와 같은 초급 학습자의 일관되지 못한 조사 사용의 특성은 교재에서 해당 조사나 의미·기능을 제시하는 빈도와 크게 관련이 있다. 앞서 Ⅱ장에서 일본에서 출판된 5종의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되는 조사 항목이나 의미·기능을 살펴보았는데 제시 빈도와 사용 양상이 거의 일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고'는 중급과 고급 학습자보다 초급 학습자가 자주 사용하는 조사이다. 즉, 초급 교재에서 '하고'의 제시 빈도가 높았으므로 초급 학습자가 자주 사용하였다. 실제로 5종 중 4종의 초급 교재에서 '하고'의 제시가 확인된다. 참고로 '하고'와 같은 의미·기능을 지니지만 '하고'보다 사용 수가 저조한 '이랑'은 5종 중 불과 1종의 초급 교재에서만 제시가 확인된다. 반면, 'ㄹ', '이다', 'ㄴ', 보조사 '이나'는 초급 학습자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조사이다. 'ㄹ'과 'ㄴ'은 5종 중 각각 2종, 1종의 교재에서 제시가 확인된다. 참고로 초급 학습자에게도 사용이 확인된 '게'는 5종 중 3종의 교재에서 제시가 확인된다. '이다'는 모든 초급 교재에서 '입니다'나 '이에요(예요)'의 형태로 제시되지만 '이다'의 축약형과 '이다'의 관형형인 '인' 활용형에 대한 제시는 중급 교재에서만 확인된다. 보조사 '이나'는 초급 교재에서 아예 제시되지 않는다. 한편, '으로'의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기능은 5종 중 1종의 초급 교재에서 제시가 확인되고 원인의 의미·기능은 아예 제시되지 않는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교재에서 배운 조사는 잘 사용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초급 수준에서 어떤 조사나 의미·기능을 제시하느냐가 학습자의 조사 사용 경향에 크게 적용됨을 의미한다. 구어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학습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조사나 의미·기능은 초급 수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2. 유사한 의미·기능을 지닌 조사 간의 편중된 사용

둘째, 유사한 의미·기능을 자닌 조사 간의 편중된 사용이다. 앞서 교재에서 제시하는 빈도가 조사나 조사가 지닌 의미·기능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러한 특성은 초급 학습자에게 잘 나타난 반면, 중급과 고급 학습자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즉, 중급과 고급 학습자는 초급 학습자에 비해 교재 제시 빈도의 영향을 벗어나 조사의 다양한 형태나 의미·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급과 고급 학습자에게도 각 조사가 지닌 다양한 의미·기능 중 일부 의미·기능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양상이 보였다. 특히 유사한 의미·기능을 지닌 두 가지 격조사가 존재할 때 해당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어느 한쪽의 조사에 사용이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거나 어느 한쪽의 조사만 사용된 경우가 보였다. 다시 말하자면, 각 격조사가 지닌 기본적이자 대표적인 의미·기능은 잘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각 격조사가 지닌 기본적인 의미·기능에서 확장된 부수적인 의미·기능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격조사 중 특히 유사한 의미·기능을 다수 지닌 부사격조사 ‘으로’와 ‘에’에서 잘 보였다. ‘으로’와 ‘에의 유사한 의미·기능 간의 사용 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Ⅲ-32]와 같다.

[표 Ⅲ-32] 유사한 의미·기능 간에서 ‘으로’와 ‘에’의 사용 수 비교

으로		에	
의미·기능	사용 수	의미·기능	사용 수
움직임의 방향	70 (중급: 28, 고급:42)	진행 방향	**265** (중급: 165, 고급:100)
수단·도구	**41** (중급: 22, 고급:19)	수단·방법	1 (중급: 0, 고급:1)
원인	21 (중급: 9, 고급:11)	원인	**78** (중급: 34, 고급:44)
지위·신분·자격	**29** (중급: 5, 고급:24)	맡아보는 자리·노릇	0

부사격조사 ‘으로’와 ‘에’는 방향, 수단, 원인, 자격과의 네 가지 유사한 의미·기능을 공유한다. 먼저 방향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사용 수를 비교하면 ‘에’의 사용 수는 265회인 반면, ‘으로’의 사용 수는 70회이며 ‘에’의 사용 수가 ‘으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에’를 방향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기본적이자 대표적인 조사로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용 양상의 배경에는 교재 제시 빈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인 일본어 조사와의 유사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사를 학습할 수 있도록 방향의 의미·기능으로 ‘에’만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급과 고급 학습자는 한국 체류를 통해 ‘으로’의 방향의 의미·기능을 알게 된 경우도 많을 것이며 방향의 의미·기능을 나타낼 때 상대적으로 익숙한 ‘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즉, ‘서울에 가다’와 ‘서울로 오다’처럼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 상황에서 ‘서울에 가다’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편중된 사용 양상은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실제로 방향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으로’의 학습 수준별 사용 수를 살펴보면 중급 수준 28회, 고급 수준 42회이며 고급 수준이 중급 수준에 비해 사용 수가 많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단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사용 수를 비교하면 '으로'의 사용 수는 41회인 반면, '에'의 사용 수는 1회이며 '으로'의 사용 수가 '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으로'를 수단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기본적이자 대표적인 조사로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수단의 의미·기능의 경우 방향의 의미·기능보다 어느 한쪽에 사용 수가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단·방법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는 고급 수준에서 1회의 사용만 확인되었으며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용 양상의 배경에는 교재 제시 빈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는 '으로'를 꼭 수단·도구의 의미·기능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반면, '에'는 주로 처소, 시간, 진행 방향의 세 가지 의미·기능으로 제시되므로 중급과 고급 학습자는 한국 체류를 통해 수단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를 알게 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수단의 의미·기능을 나타낼 때 '으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즉, '물로 씻다'와 '물에 씻다'처럼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 상황에서 꼭 '물로 씻다'처럼 표현함을 의미한다. 물론 수단의 의미·기능은 방향의 의미·기능보다 '으로'와 '에' 간의 교체가 자유롭지 않아 '으로'의 사용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단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가 1회만 사용된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수단의 의미·기능은 방향의 의미·기능처럼 편중된 사용 양상이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에 따라 의식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원인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사용 수를 비교하면 '에'의 사용 수는 78회인 반면, '으로'의 사용 수는 21회이며 '에'의 시용 수가 '으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원인의 의미·기능의 경우 방향의 의미·기능과 유사한 사용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 양상의 배경에는 방향이나 수단의 의미·기능과 마찬가지로 교재 제시 빈도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보면 원인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의 제시는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교재에 해당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으로'의 제시가 확인된다. 교재에서

배울 수 없었는데 해당 의미·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일본인 학습자의 모어인 일본어에 존재하는 '에'에 해당하는 'に(ni)'의 긍정적인 전이에 따른 사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수단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거의 모두가 원인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때문'과 함께 '때문에'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일본어 조사 'に(ni)'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때문'에 해당하는 'ため(tame)'에 'に(ni)'가 함께 사용되어 'ために(tameni)'의 형태로 사용되므로 원인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익숙하다. 즉, '감기 때문에'와 '감기로 (인해)'처럼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 상황에서 '감기 때문에'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연구가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을 연구 대상으로 하므로 구어에서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때문에'의 사용 수가 많아 원인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의 사용 수에도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격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사용 수를 비교하면 '으로'의 사용 수는 29회인 반면, '에'의 사용 수는 0회이며 '으로'만 전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으로'를 자격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유일한 조사로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격의 의미·기능의 경우 원인의 의미·기능만큼 어느 한쪽에 사용 수가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 양상의 배경에는 교재 제시 빈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는 초급에서부터 '으로'가 자격의 의미·기능으로 제시되는 반면, '에'는 주로 처소, 시간, 진행 방향의 세 가지 의미·기능으로 제시되므로 '에'가 해당 의미·기능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수단의 의미·기능의 경우와 유사한데 수단의 의미·기능의 경우와의 차이점은 '에'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 'に(ni)'에 자격의 의미·기능이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교재를 통해 학습하지 못하여도 모어인 일본어에 존재하는 '에'에 해당하는 'に(ni)'의 긍정적인 전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조사로서 '으로'가 전적으로 사용된 것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한국어에서 '으로'가 자격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유일한 조사인 것과 같은 인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유사한 형태와 의미·기능을 가진 격조사 '으로서'의 존재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즉, '장학생으로 뽑혔다'와 '장학생에 뽑혔다'처럼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 상황에서 '장학생으로 뽑혔다'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부사격조사 '으로'와 '에'가 공유하는 네 가지 의미·기능에 대해 각각 사용 수를 비교하였다. 네 가지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으로'와 '에'가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 교체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각 의미·기능에 대한 사용 수를 단순히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여도 '으로'와 '에'는 의미·기능에 따라 상용 수에 명백한 차이가 보였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으로'와 '에'가 공유하는 네 가지 의미·기능 중 수단과 자격에 대해서는 '으로'를 사용하고 방향과 원인에 대해서는 '에'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세가와·이수경(2002:263)에서 주장하였듯이 '으로'와 '에'가 서로 완전히 교체되는 것은 아니나 의미·기능에 따라 교체 가능한 경우가 많다면 조사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학습 초기 단계에 각 조사의 대표적인 의미·기능만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중급과 고급 학습자의 조사 사용의 양상을 살펴보면 초급 학습자에 비해 조사의 다양한 형태나 의미·기능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전히 각 조사를 해당 조사가 지닌 대표적인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보인다. 결국 대부분의 유사한 의미·기능을 지닌 조사 간의 편중된 사용을 개선하려고 하면 '으로'와 '에'처럼 중복되는 의미·기능에 대한 의식적인 교수·학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논의는 '으로'와 '에'가 공유하는 네 가지 의미·기능을 넘어 목적격조사 '을'의 이동하고자 하는 장소의 의미·기능과 부사격조사 '에'의 진행 방향의 의미·기능, 목적격조사 '을'의 행동의 간접적인 대상의 의미·기능과 부사격조사 '에게'의 행동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기능에도 해당된다.[67]

---

67) '에'와 '을'의 유사한 의미·기능 간의 사용 수를 살펴보면 '에'는 사용 수가 222회인 반면, '을'은 사용 수가 18회에 불과하다. 즉, '시장에 가다'와 '시장을 가다'처럼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 상황에서 '시장에 가다'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4.3. 모어에서 습득된 언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용

셋째, 모어에서 습득된 언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용이다. 이는 모든 학습 수준의 학습자에게 해당되는 특성이다. 모어인 일본어 조사와 이에 해당하는 한국어 조사가 공유하는 의미·기능에 대해서는 잘 사용할 수 있으나 보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어 조사에 존재하는 고유의 의미·기능에 대해서는 잘 사용하지 못한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보조사 '이', '을', '도', '만', '이나'에 해당 경향이 잘 보였다. 먼저 보조사 '이'와 '을'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조사 '이'와 '을'은 강조의 의미·기능을 나타낸다. 일본어에는 '이'에 해당하는 'が(ga)'와 '을'에 해당하는 'を(o)'가 각각 존재하나 이들 조사에는 격조사의 의미·기능만 존재한다. 따라서 '방이 깨끗하지가 않다.'의 '가'나 '시장에를 가다'의 '를'처럼 일본어에는 'が(ga)'나 'を(o)'를 다른 조사나 어미 등 뒤에 결합하여 강조의 의미·기능을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의식적인 교수·학습을 통해 보조사 '이'나 '을'을 학습하지 못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보조사 '이'와 '을'을 각각 주격조사와 목적격조사로서만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의식적인 교수·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보조사 '이'와 '을'의 용법 중 일본어에서는 주격조사 'が(ga)'로 간주하되 한국어에서는 보조사 '이'로 분류되는 '-ㄹ 수가 있다'의 '가' 정도만 나타낼 수 있다. 실제로 보조사 '이'는 앞의 경우에 사용이 확인된 반면, 보조사 '을'은 한 번도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보조사 '만'이다. '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의미·기능은 한정인데 해당 의미·기능은 '만'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 'だけ(dake)'에도 그대로 존재하므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잘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일부 의미·기능의 경우 보조사 '이'와 '을'처럼 어미 뒤에 결합되는 등 일본어에 없는 조사의 결합 형태가 보이거나 다른 조사에 대응된다.

한편, '에게'와 '을'의 유사한 의미·기능 간의 사용 수를 살펴보면 '에게'는 사용 수가 73회인 반면, '을'은 사용 수는 6회에 불과하다. 즉, '이 시계는 동생에게 주다'와 '이 시계는 동생을 주다'처럼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 시계는 동생에게 주다.'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정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만'을 제외하고 좀처럼 사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강조의 의미·기능의 경우 '그를 만나야만 하다.'처럼 연결어미 '-어/아야'에 결합된다. 한편, 정도에 달함의 의미·기능의 경우 '형이 동생만 못하다.'의 '만'처럼 나타내는데 일본어에서는 'だけ(dake)'가 아니라 '만큼'이나 '정도'의 뜻을 지닌 조사 'くらい(kurai)'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 '이나'이다. '이나'는 초급 수준에 속하는 조사 중 일본어와의 의미·기능에 따른 대응 양상이 가장 복잡한 조사이다. 일부 의미·기능의 경우 대응되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표현으로 대체조차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량을 어림잡음의 의미·기능의 경우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 '열 살이나 되었겠다.'처럼 나타내는데 일본어로 '조금(만)', 즉 'ちょっとばかり(chottobakari)'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다. 한편, 최선의 자격과 비교의 의미·기능의 경우 아예 표현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최선의 자격·조건의 의미·기능은 '사월이나 되니까 따뜻하다.'처럼 나타낸다. 즉, 이는 사월이 날씨가 따뜻해지는 최선의 조건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본어에는 해당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조사나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주격조사 '이'로 대신 표현할 수밖에 없다. 또한, 비교의 의미·기능은 '엎지른 물이나 진배없는 일이다.'처럼 나타낼 수 있다. 즉, 이는 어떤 일이 엎지른 물과 비교하여 다를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본어에는 해당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조사나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사격조사 '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조사와 해당 조사가 지닌 의미·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급과 고급 학습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사 간의 존재하는 유사한 의미·기능에 대한 내용과 함께 모어인 일본어 지식으로부터 유추하기 어려운 한국어 조사 고유의 의미·기능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의미·기능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된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국어 조사의 유창한 구사가 가능할 것이다.

Ⅳ. 구어에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양상

앞서 Ⅲ장에서 구어에서 한국어 조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의 특성을 밝혔다. Ⅳ장에서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서 한국어 조사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절에서는 오류 양상 분석에 필요한 조사 오류 자료를 구어 자료에서 추출하기 위해 오류 판정 방법과 기준을 포함한 자료 추출 방법과 이를 통해 도출된 자료의 규모에 대해 기술한다. 2절에서는 구어에서의 조사 오류 양상을 각 조사 유형별과 각 조사 항목별 오류 수와 전체 조사 오류 대비 해당 조사의 오류 비율, 즉 오류 내 비율,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즉 오류율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3절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라 각 조사 항목별 오류 양상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조사 오류상의 특성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3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특히 오류의 유형과 원인 측면에서 조사 오류상의 특성을 정리한 다음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와의 비교를 통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조사 오류의 특성을 밝힌다.

1. 자료의 추출 방법과 규모

1.1. 구어에서 오류 판정 방법과 기준

문어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에 있어 정상적인 사용과 오류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문어에서는 학습자의 조사 사용에 비문법적인 요소가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면 일괄적으로 오류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구어에서 조사 사용에 있어 정상적인 사용과 오류를 구분하는 것은 문어에서의 구분만큼 단순하지 않다. 문어에서 조사 사용에 나타난 비문법적인 요소가 구어에서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석주 외(2004)에서는 조사 오류와 관련된 비문법적인 요소를 형태, 대치, 생략, 첨가, 환언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눈 바 있는데 구어에서 비문법적인 요소가 허용되는 경우는 주로 생략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구어에서는 조사의 생략이 자주 일어나고 구어의 유형에 따라 조사를 생략하는 편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즉, 구어에서 조사 사용에 있어 정상적인 사용과 오류의 구분은 문어처럼 비문법적인 요소의 존재가 꼭 오류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다. 즉, 구어에서는 문어와 다른 방법에 따라 오류를 추출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김민재·오기노(2018:14)는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에 있어 정상적인 사용과 오류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구어의 특성인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문어에서는 어색하더라도 구어에서는 수용될 수 있는 정도, 즉 수용의 척도를 의미하는데 구어에서는 특히 조사의 생략을 어디까지 정상적인 생략으로 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수용의 척도는 우선 구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양방향 격식체 일반 구어'의 특성을 지닌 구어 자료가 사용된다. 해당 구어 자료는 일상대화에서 수집된 자료와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으나 격식성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는 격식성의 여부가 조사 사용에서의 생략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즉, 일상대화에서 수집된 자료에서는 조사의 생략이 전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에서는 말하는 이의 격식성에 따라 조사의 생략이 수용되지 못하고 생략 오류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말할 것 없이 한국어 모어 화자 개개인의 조사 생략에 대한 수용의 척도도 관련되므로 특히 조사의 생략에 대한 오류 여부 판정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표준적인 수용 척도에 따라 조사의 생략에 대해 오류 여부를 판정하는 것도 중요하나 조사의 생략과 관련된

오류에 대해서는 격식성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류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특히 조사의 생략에 대한 오류 판정을 한국어교육 전문가 2명에게 요청하기로 하였다. 2명의 한국어교육 전문가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에 익숙한 한국인 모어 화자 중에서 선정하였다. 2명의 전문가는 한국어교육학 관련 박사학위가 있으며 교육 경력이 8년 이상이고 일본어에 능통한 연구자이자 교육자이다.

오류 추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문법적 요소에 따라 형태, 대치, 생략, 첨가, 환언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오류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오류 여부가 명백한 형태를 제외하고 오류 판정에 합의가 별도 필요해 보이는 대치 및 첨가의 일부 오류와 모든 생략 오류와 관련된 1차 오류 목록을 작성하여 2명의 한국어교육 전문가에게 오류 여부 판정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명의 한국어교육 전문가가 오류 여부 판정을 내린 결과를 취합하여 1차 오류 목록 중 2명의 전문가 모두가 오류로 판정한 것을 최종적으로 오류로 삼기로 하였다.

1.2. 오류 자료의 규모

이 연구에서는 구어 자료로서 총 56,664어절을 수집하였으며 그중 조사가 포함된 총 9,838어절을 대상으로 구어에서의 오류 추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조사 오류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조사 오류 자료로서 총 528어절을 마련하였으며 학습 수준별로 초급 학습자 238어절, 중급 학습자 150어절, 고급 학습자 140어절로 구성되었다.

2. 조사 항목별 오류 수와 오류 내 비율 및 오류율

2.1. 유형별 오류 수와 오류율

조사 유형별 오류 수와 오류율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1], [표 Ⅳ-2], [표 Ⅳ-3]과 같다.[68]

[표 Ⅳ-1] 격조사 오류 수 및 오류율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사용 수	6312	1441	2259	2612
오류 수	361	167	91	105
오류율(%)	5.72	11.59	4.03	4.02

[표 Ⅳ-2] 보조사 오류 수 및 오류율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사용 수	3142	658	1168	1316
오류 수	118	46	42	30
오류율(%)	3.76	6.99	3.60	2.28

[표 Ⅳ-3] 접속조사 오류 수 및 오류율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사용 수	384	120	139	125
오류 수	45	23	17	5
오류율(%)	11.72	19.17	12.23	4.00

먼저 조사 유형별로 오류 수와 오류율을 살펴보면 오류 수는 격조사 361회, 보조사 118회, 접속조사 45회이며 사용 수에 따라 오류 수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오류율은 사용 수와 다른 양상이 보였다. 오류율은 격조사 5.72%, 보조사 3.76%, 접속조사 11.72%로

68) 오류율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오류율 = (해당 조사 오류 수 / 해당 조사 사용 수) * 100

접속조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격조사, 보조사의 순을 이었다. 즉, 이 결과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구어에서 조사 유형 중 접속조사를 가장 잘 사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관련 연구는 격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접속조사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던 가운데 이 연구를 통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가장 어려운 조사 유형이 접속조사임을 밝힐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유형별로 학습 수준에 따른 오류 수와 오류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격조사의 오류 수와 오류율을 학습 수준별로 살펴보면 오류 수는 학습 수준과 관련이 없어 보이나 오류율은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개선되었다. 그중 초급과 중급 수준 사이에서 오류율이 크게 개선되었다. 초급 수준은 11.59%인 반면, 중급 수준은 4.03%로 7% 이상 개선되었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는 오류 수와 오류율의 측면에서 볼 때 중급 수준에서 오류가 현저히 개선되는 특성을 지닌다. 한편,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오류율은 거의 유사하다. 고급 수준은 오류율이 4.02%이며 중급 수준과의 오류율 차이는 경우 0.01%에 불과하였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격조사 오류는 중급 수준에서 크게 개선된 이후에 고급 수준이 되어도 오류가 유사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지닌다.

둘째, 보조사의 오류 수와 오류율을 학습 수준별로 살펴보면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오류 수와 함께 오류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보조사는 격조사에 비해 학습 수준 간의 오류율 개선이 뚜렷하다. 다만, 오류율의 큰 개선은 격조사와 마찬가지로 초급과 중급 수준 사이에서 잘 보였다. 학습 수준별 오류율은 초급 수준 6.99%, 중급 수준 3.60%, 고급 수준 2.28%로 초급과 중급 수준 간에서는 오류율이 3% 이상 개선된 반면, 중급과 고급 수준 간에서는 1% 수준의 개선에 그쳤다. 즉, 일본인 학습자의 보조사 오류는 격조사 오류보다 오류율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보조사 오류는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개선되나 개선 폭이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줄어드는 특성을 지닌다.

셋째, 접속조사의 오류 수와 오류율을 학습 수준별로 살펴보면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오류 수와 오류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각 학습 수준 사이에서, 즉 초급과 중급 수준 간 및 중급과 고급 수준 간에서 오류 수와 오류율의 개선이 조사 유형 중 가장 뚜렷이 보였다. 특히 접속조사는 각 학습 수준 사이에서 오류율이 8% 이상 개선되었다. 접속조사가 학습 수준이 올라갈 때마다 오류율이 크게 개선된 이유는 격조사나 보조사에 비해 항목 수가 적은데다가 하나의 의미·기능만 존재하므로 사용할수록 자연스럽게 정확한 사용이 가능해지는 조사이기 때문이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접속조사 오류는 격조사나 보조사에 비해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오류의 개선이 기대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처럼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각 조사 유형별 오류 수와 오류율의 모두가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사용 양상 때와 마찬가지로 각 조사 유형별로 학습 수준에 따른 오류 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과 터키(Turkey)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용 양상 때와 달리 조사 유형을 불문하고 학습 수준에 따른 오류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69] 즉, 총 오류 수는 학습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보였으나 각 학습 수준 내에서 개별 학습자의 오류 수를 근거로 하는 통계적 분석에서는 명백한 차이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조사 오류는 같은 학습 수준 내에서도 개별 학습자에 따라 오류 수에 차이가 비교적 컸음을 의미한다. 결국 조사 오류는 조사 사용에 비해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학습 수준별로 조사를 유사하게 사용하나 오류는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69) 격조사의 경우 초급과 중급 수준 간에서 유의확률이 0.072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0.05$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가장 근접한 값을 보였다.

2.2. 항목별 오류 수와 오류 내 비율 및 오류율

1) 격조사

격조사 항목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와 오류 내 비율 및 오류율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4], [표 Ⅳ-5], [표 Ⅳ-6], [그림 Ⅳ-1]과 같다.[70]

[표 Ⅳ-4] 격조사 항목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이(주)	182/2206	이(주)	102/610	이(주)	35/817	이(주)	45/779
2	에	61/1122	에	16/251	에	24/448	에	21/423
3	을	38/1232	을	13/266	을	12/375	을	13/597
4	에서	26/454	에서	12/103	으로	6/82	으로	7/126
5	으로	15/227	에게	5/12	의	4/49	에서	10/204
6	의	14/194	한테	5/13	에서	4/148	의	6/94
7	에게	7/30	의	4/51	이랑	3/84	에게	1/12
8	한테	5/65	한테서	4/6	이다	2/197		
9	이다	4/455	으로	2/19	에게	1/6		
10	한테서	4/6	이다	2/16				
11	이랑	4/183	이랑	1/35				
12	과	1/21	과	1/7				

[표 Ⅳ-5] 격조사 항목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축약형)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게	7/293	게	0/30	게	3/82	게	4/181
2	ㄹ	7/70	ㄹ	0/0	ㄹ	3/24	ㄹ	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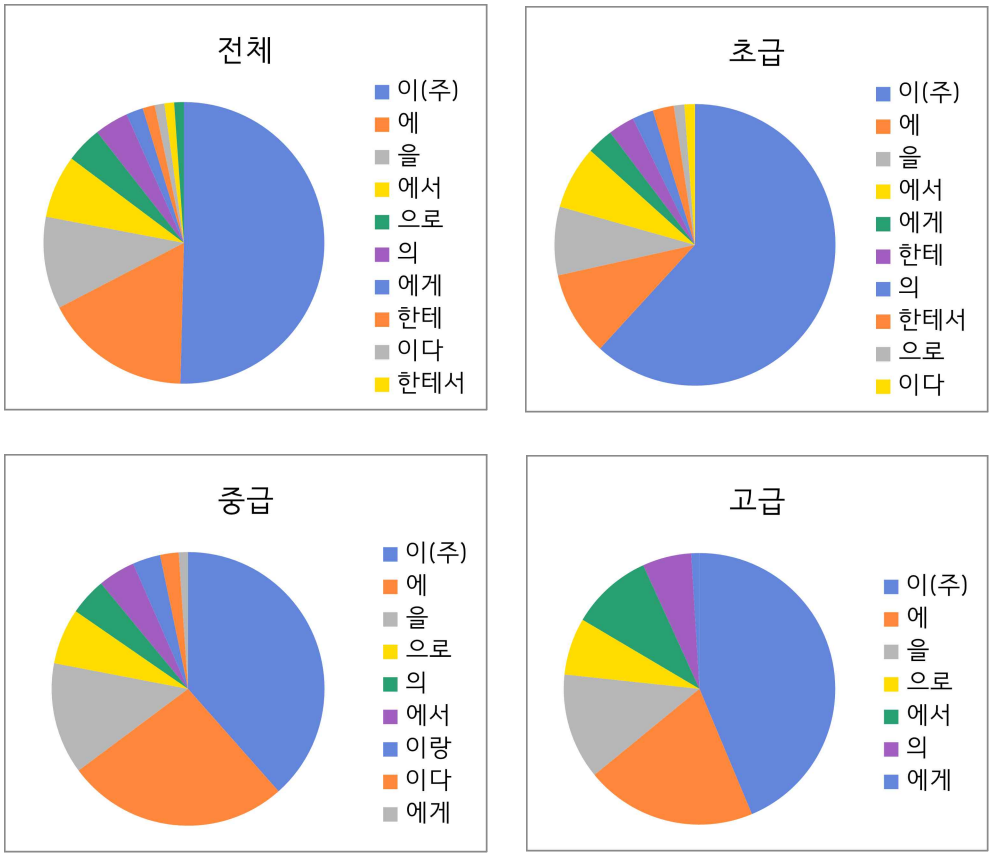
70) 오류 비율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오류 비율 = {해당 조사 오류 수 / 전체 조사 오류 수} * 100

[표 Ⅳ-6] 격조사 항목별 오류 내 비율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이(주)	50.14	이(주)	61.08	이(주)	38.46	이(주)	43.69
2	에	16.90	에	9.58	에	26.37	에	20.39
3	을	10.53	을	7.78	을	13.19	을	12.62
4	에서	7.20	에서	7.19	으로	6.59	으로	6.80
5	으로	4.16	에게	2.99	의	4.40	에서	9.71
6	의	3.88	한테	2.99	에서	4.40	의	5.83
7	에게	1.94	의	2.40	이랑	3.30	에게	0.97
8	한테	1.39	한테서	2.40	이다	2.20		
9	이다	1.11	으로	1.20	에게	1.10		
10	한테서	1.11	이다	1.20				
11	이랑	1.11	이랑	0.60				
12	과	0.28	과	0.60				

[그림 Ⅳ-1] 격조사 항목별 오류 비율



[표 Ⅳ-7] 격조사 항목별 오류율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한테서	66.67	한테서	66.67	에게	16.67	에게	8.33
2	에게	23.33	에게	41.67	의	8.16	의	6.38
3	이(주)	8.25	한테	38.46	으로	7.32	이(주)	5.78
4	한테	7.69	이(주)	16.72	에	5.36	으로	5.56
5	의	7.22	과	14.29	이(주)	4.28	에	4.96
6	으로	6.61	이다	12.50	이랑	3.57	에서	4.90
7	에서	5.73	에서	11.65	을	3.20	을	2.18
8	에	5.44	으로	10.53	에서	2.70		
9	과	4.76	의	7.84	이다	1.02		
10	을	3.08	에	6.37				
11	이랑	2.19	을	4.89				
12	이다	0.88	이랑	2.86				

격조사 항목별 오류 내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한 격조사는 주격조사 '이'이다. 전체 격조사 오류의 50.14%를 차지하며 전체 격조사 오류의 절반 이상이 주격조사 '이'의 오류와 관련이 있다. 그다음으로 부사격조사 '에' 16.90%, 목격적조사 '을' 10.53%, 부사격조사 '에서' 7.20%, '으로' 4.16%, 관형격조사 '의' 3.88%, 부사격조사 '에게' 1.94%, '한테' 1.39%, 서술격조사 '이다' 1.11%, 부사격조사 '한테서' 1.11%, '이랑' 1.11%, 부사격조사 '과' 0.28%의 순이다. 특히 주격조사 '이', 부사격조사 '에', 목적격조사 '을', 부사격조사 '에서'의 4개의 격조사 오류가 전체 격조사 오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습 수준별로 격조사 항목별 오류 내 비율을 살펴보면 학습 수준 간의 뚜렷한 차이가 주격조사 '이', 목적격조사 '을', 부사격조사 '에', '으로', '한테'에서 보였다. 먼저 주격조사 '이'는 초급 수준에 비해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오류 비율이 높지 않다. 이는 사용 양상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초급 수준에서 거의 사용되지 못하였거나 일부 의미·기능에 한하여 사용된 조사가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다양한 조사와 해당 조사가 가진 의미·기능으로 활발하게 사용됨에 따라 오류도 다양하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목적격조사 '을'과 부사격조사 '에'는 주격조사 '이'와 반대로

초급 수준에 비해 중급과 고급 수준의 오류 비율이 높다. 목적격조사 '을'은 학습 수준에 따른 의미·기능의 확장이 거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을'의 사용 수가 많아짐에 따라 오류 수도 함께 자연스럽게 많아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에'는 학습 수준에 따른 의미·기능의 확장이 보였으므로 초급 수준보다 사용 수도 많아지고 '에'를 다양한 의미·기능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부사격조사 '으로'는 '에'와 반대로 초급 수준에서 오류 비율이 매우 낮은데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오류 비율이 높다. 부사격조사 '으로'는 초급 수준에서 일부 의미·기능에 한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사용 수 자체도 적으므로 오류 비율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다양한 의미·기능으로 '으로'가 사용되며 다른 격조사와의 의미·기능의 중복이나 유사성 때문에 초급 수준에 비해 오류를 범하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부사격조사 '한테'는 초급 수준에서만 유일하게 오류가 나타났다. 즉, '한테'와 관련된 오류는 학습 초기 단계에만 나타나며 중급 수준 이후에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정도의 오류이다.

격조사의 항목별 오류율을 살펴보면 오류율은 오류 내 비율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 대비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한 격조사는 부사격조사 '한테서'이다. 다만, '한테서'는 총 사용 수가 6회에 불가하며 초급 수준에서의 오류율이 그대로 전체 오류율에 반영되었으므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격조사 중 '한테서'를 가장 잘 사용하지 못하는 조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모든 학습 수준에 공통적으로 오류가 나타난 조사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에게'가 23.33%로 오류율이 가장 높다. 또한, 앞의 조건에 총 사용 수가 100회 이상인 조사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주격조사 '이'가 8.25%로 오류율이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관형격조사 '의' 7.22%, 부사격조사 '으로' 6.61%, '에서' 5.73%, '에' 5.44%, 목적격조사 '을' 3.08%, 부사격조사 '이랑' 2.19%, 서술격조사 '이다' 0.88%의 순이다.[71] 또한, 학습 수준별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71) 이 결과와 고석주 외(2004:232)에서 제시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율을 비교해 보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보다 전체적으로 오류율이 낮은 편이다. 특히 부사격조사 '에'의 경우 외국인 학습자의 오류율은 10.31%이며 일본인

격조사의 오류율은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낮아졌다. 그러나 그중 부사격조사 '에서'는 초급과 중급 수준 사이에서는 오류율이 낮아진 반면, 중급과 고급 수준 사이에서는 오류율이 높아진 특이한 부분이 보였다. 즉, 고급 수준에서 '에서'와 관련된 오류에는 초급과 중급 수준에 나타나지 않는 고급 수준 특유의 오류나 고급 수준에 많이 나타나는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구어에서의 조사 오류와 관련하여 격조사 항목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게'는 총 293회의 사용이 확인된 가운데 총 7회의 오류가 보였으며 오류율은 2.39%로 나타났다. 이는 주격조사 '이'의 오류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의 형태보다 '게'의 형태를 사용할 때 오류가 덜 나타났다. 학습 수준별로 살펴보아도 모든 학습 수준에서 '게'의 오류율이 주격조사 '이'의 오류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ㄹ'은 총 70회의 사용이 확인된 가운데 총 7회의 오류가 보였으며 오류율은 10.00%로 나타났다. 이는 목적격조사 '을'의 오류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을'의 형태에 비해 'ㄹ'의 형태를 사용할 때 오류가 빈번히 나타났다. 앞서 'ㄹ'의 사용 양상 분석을 통해 'ㄹ'은 주로 '걸'의 형태로 사용됨을 밝혔는데 '을'보다 '걸'의 형태가 오류를 유발하는 형태임을 밝힐 수 있었다. 요컨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주격조사는 '이'에 비해 '게'를 잘 사용하고 목적격조사는 축약형인 'ㄹ'보다 '을'을 잘 사용하는 특성이 보였다.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율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반면, 관형격조사 '의', 부사격조사 '으로', '에게'의 경우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율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비해 다소 높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에 비해 관형격조사 '의', 부사격조사 '으로', '에게'와 관련된 오류가 많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다만, 고석주 외(2004)에서 사용된 자료에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는 수준에서만 논의가 가능하다.

2) 보조사

보조사 항목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와 오류 내 비율 및 오류율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8], [표 Ⅳ-9], [표 Ⅳ-10], [표 Ⅳ-11], [그림 Ⅳ-2]와 같다.

[표 Ⅳ-8] 보조사 항목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은	90/1971	은	33/465	은	35/769	은	22/737
2	도	21/770	도	12/131	도	2/241	도	7/398
3	만	2/72	마다	1/2	만	2/24	이나	1/7
4	부터	1/76			부터	1/31		
5	보다	1/109			보다	1/41		
6	마다	1/9			처럼	1/9		
7	처럼	1/25						
8	이나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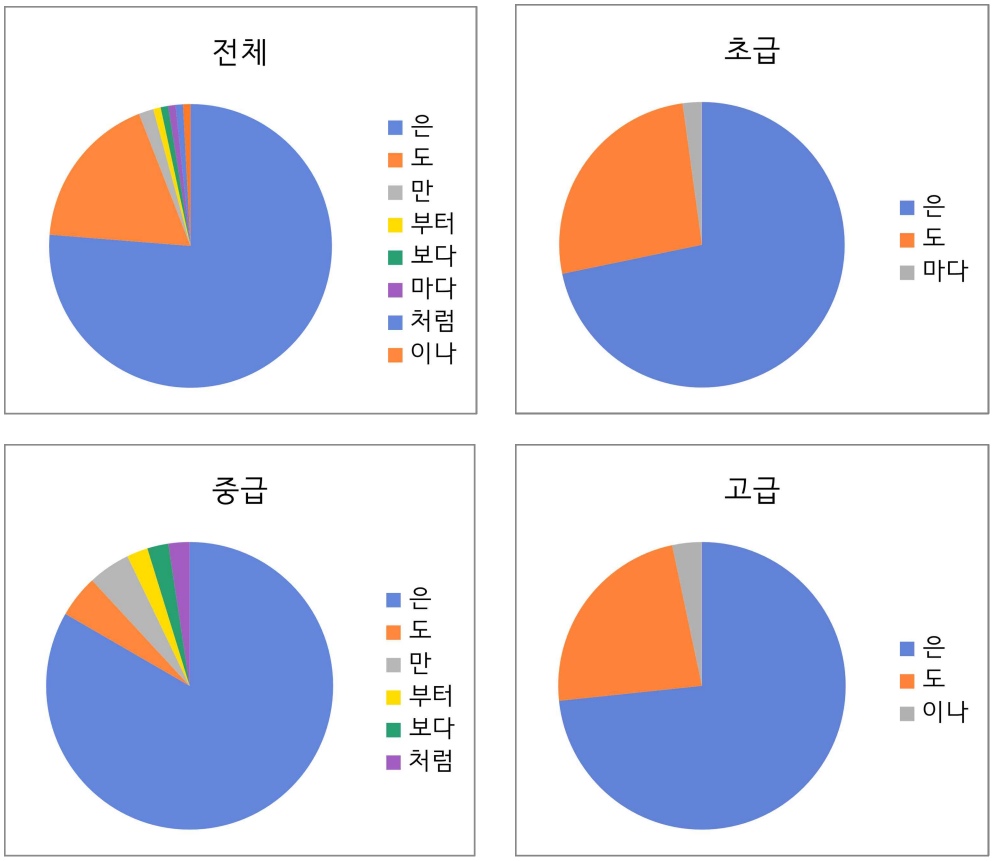
[표 Ⅲ-9] 보조사 항목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축약형)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ㄴ	1/93	ㄴ	0/2	ㄴ	1/30	ㄴ	0/61

[표 Ⅳ-10] 보조사 항목별 오류 내 비율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은	76.27	은	71.74	은	83.33	은	73.33
2	도	17.80	도	26.09	도	4.76	도	23.33
3	만	1.69	마다	2.17	만	4.76	이나	3.33
4	부터	0.85			부터	2.38		
5	보다	0.85			보다	2.38		
6	마다	0.85			처럼	2.38		
7	처럼	0.85						
8	이나	0.85						

[그림 Ⅳ-2] 보조사 항목별 오류 내 비율



[표 Ⅳ-11] 보조사 항목별 오류율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마다	11.11	마다	50.00	처럼	11.11	이나	14.29
2	이나	6.67	도	9.16	만	8.33	은	2.99
3	은	4.57	은	7.10	은	4.55	도	1.76
4	처럼	2.78			부터	3.23		
5	도	2.73			보다	2.44		
6	만	1.32			도	0.83		
7	부터	0.92						
8	보다	0.04						

보조사 항목별 오류 내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한 보조사는 ‘은’이다. 전체 보조사 오류의 76.27%를 차지

하며 전체 보조사 오류의 75% 이상이 ‘은’의 오류와 관련이 있다. 즉, 보조사 오류는 ‘은’의 오류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도’ 17.80%, ‘만’ 1.69%, ‘부터’ 0.85%, ‘보다’ 0.85%, ‘마다’ 0.85%, ‘처럼’ 0.85%, ‘이나’ 0.85%의 순이다. 특히 ‘은’과 ‘도’의 2개의 보조사 오류가 전체 보조사 오류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보조사 항목별 오류 내 비율을 학습 수준별로 살펴보면 보조사는 학습 수준에 따라 오류 양상이 매우 다르므로 학습 수준 간의 오류 내 비율을 비교할 수 있는 조사가 ‘은’과 ‘도’에 한정된다. 먼저 ‘은’은 학습 수준에 따라 오류 비율에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초급과 중급 수준 사이에서는 오류 내 비율이 낮아진 반면, 중급과 고급 수준 사이에서는 높아졌다. 이는 보조사 중 ‘은’ 다음으로 사용 수가 높은 ‘도’의 오류 수와 관련이 있다. 초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은’과 함께 ‘도’의 오류 수가 많이 나타난 반면, 중급 수준에서는 ‘도’의 오류 수가 매우 적게 나타난 결과, 상대적으로 ‘은’의 오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의 보조사 오류는 학습 수준에 따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중급 수준에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오류가 나타났다. 초급 수준에서는 ‘마다’, 고급 수준에서는 ‘이나’, 중급 수준에서는 ‘만’, ‘부터’, ‘보다’, ‘처럼’과 관련된 오류가 각각 학습 수준별로 유일하게 나타났다. 초급 수준에서 ‘마다’와 관련된 오류가 나타난 것은 ‘마다’의 의미·기능과 관련이 있다. ‘마다’는 의미·기능상 사용 빈도가 낮은 조사인 점을 고려하면 초급 수준에서 ‘마다’의 사용에 익숙하지 못하여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중급 수준에서 초급 수준에 비해 다양한 보조사에 많은 오류가 나타난 것은 초급 수준에서 학습한 다양한 보조사를 사용해 보려고 시도한 결과이다. 고급 수준에서 ‘이나’에 오류가 나타난 것은 ‘이나’가 보조사 중 의미·기능이 가장 다양하고 또한, 의미·기능에 따른 일본어와의 대응 양상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보조사의 항목별 오류율을 살펴보면 오류 내 비율과 전혀 다른 양상이 보였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사용 수 대비 오류를 가장 많이 범한 보조사는 ‘마다’이다. 다만, ‘마다’는 총 사용 수가 9회에 불가하며 초급

수준에서의 오류율이 그대로 전체 오류율에 반영되었으므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조사 중 '마다'를 가장 잘 사용하지 못하는 조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모든 학습 수준에 공통적으로 오류가 나타난 조사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은'과 '도'가 해당되며 '은'이 4.57%로 오류율이 가장 높다. 즉, 결과적으로는 오류 내 비율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 외의 보조사의 오류율을 살펴보면 '이나' 6.67%, '처럼' 2.78%, '도' 2.73%, '만' 1.32%, '부터' 0.92%, '보다' 0.04%이다.[72] 거의 모든 보조사의 오류율이 격조사에 비해 매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보조사가 격조사에 비해 형태나 의미·기능이 단순하고 일본어와 의미·기능에 따른 형태적 대응 양상이 1:1로 완전히 대응하는 조사가 많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구어에서 조사 오류와 관련하여 보조사 '은'의 축약형인 'ㄴ'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ㄴ'은 총 93회의 사용이 확인된 가운데 1회의 오류가 보였으며 오류율은 1.0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은'의 오류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은'의 형태보다 'ㄴ'의 형태를 사용할 때 오류가 덜 나타났다. 'ㄴ'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난(나는)', '전(저는)', '건(것은)' 등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즉, 'ㄴ'은 대부분이 1인칭 대명사나 의존명사와 함께 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정해진 사용 형태가 오류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ㄴ'은 '은'처럼 이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다.

3) 접속조사

접속조사 항목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와 오류 내 비율 및 오류율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12], [표 Ⅳ-13], [표 Ⅳ-14], [그림 Ⅳ-3]과 같다.

---

72) 이 결과를 고석주 외(2004:232)에서 지시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율과 비교해 보면 모든 보조사에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율이 외국인 학습자의 오류율보다 낮다.

[표 Ⅳ-12] 접속조사 항목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이나	41/226	이나	20/77	이나	17/90	이나	4/59
2	이랑	4/122	이랑	3/16	이랑	1/46		

[표 Ⅳ-13] 접속조사 항목별 오류 내 비율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이나	91.11	이나	80.00	이나	94.44	이나	100.00
2	이랑	8.89	이랑	20.00	이랑	5.56		

[그림 Ⅳ-3] 접속조사 항목별 오류 수 및 오류 빈도

[표 Ⅳ-14] 접속조사 항목별 오류율

	전체		초급		중급		고급	
1	이나	18.14	이나	25.97	이나	18.89	이나	6.78
2	이랑	3.28	이랑	18.75	이랑	2.17		

접속조사의 항목별 오류 내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한 접속조사는 '이나'이다. 전체 접속조사 오류의 87.23%를 차지하며 전체 접속조사 오류의 85% 이상이 '이나'와 관련된 오류인 셈이다. 즉, 접속조사 오류는 '이나'의 오류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랑' 8.51%의 순이다. 특히 '이나'와 '이랑'의 2개의 접속조사와 관련된 오류가 접속조사 오류의 전체를 차지한다. '이랑'과 '하고'는 모두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사이며 의미·기능도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랑'에만 오류가 보인 것은 '이랑'에 이형태 '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하고'는 이형태가 없는 만큼 형태 오류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낮다. 한편, '이나'는 이형태 '나'가 존재하므로 '이랑'과 마찬가지로 형태 오류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나'와 '이랑'의 오류 내 비율을 보면 '이랑'보다 '이나'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이형태의 존재 외에도 '이나'가 '이랑'보다 의미·기능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이다. 모든 접속조사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의미·기능을 지니며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반면,'이나'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되 두 가지 이상의 중 하나가 선택되어야 하는 의미·기능을 지닌다. 즉, '이나'는 그 외의 접속조사에 비해 사용 제약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랑'보다 오류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더욱 더 높다.

접속조사의 항목별 오류 내 비율을 학습 수준별로 살펴보면 '이랑'은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오류 내 비율이 낮아진 반면, '이나'는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오류 내 비율이 높아진다. 이는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이랑'과 관련된 오류가 개선되는 반면, '이나'와 관련된 오류는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급 수준에서는 실제로 '이나'의 오류 비율이 100.00%, 즉 '이나'와 관련된 오류만 보였다.

접속조사의 항목별 오류율을 살펴보면 오류 내 비율과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초급 수준에서는 '이랑'과 '이나'의 오류율은 각각 18.75%, 25.97%이며 오류가 보인 모든 접속조사의 오류율이 매우 높다. 즉, 이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중 특히 초급 학습자가 구어에서 '이랑'과 '이나'를 잘 사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초급 학습자가 '이랑'과 함께 구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고'는 잘 사용하는 것에서 초급 수준에서는 이형태의 유무가 오류율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며 오류 원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급 수준에서는 '이랑'의 오류율이 2.17%로 초급 수준보다 극적으로 개선된 반면, '이나'의 오류율은 18.89%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이나'의 오류율은 중급 수준을 넘어 고급 수준이 되어야 6.78%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오류율의 개선 양상은 특히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접속조사의 습득 순서를 시사한다. 즉, 각 접속조사의 학습 수준에 따른 오류율의 개선을 근거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하고' → '이랑' → '이나'의 순서로 습득한다. 앞서 사용 양상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관련 연구는 지금까지 격조사와 보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접속조사의 오류나 습득과 관련된 논의는 새롭게 밝혀졌다고 하겠다.

3. 조사 항목별 오류상의 특성

3.1. 격조사

1) 주격조사 '이'

주격조사 '이'와 의존명사 '것'과의 결합형인 '게'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오류율,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15], [표 Ⅳ-16], [표 Ⅳ-17]과 같다.

[표 Ⅳ-15] 주격조사 '이'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주격	이	182/2206	102/610	35/817	45/779
	게	7/293	0/30	3/82	4/181

[표 Ⅳ-16] 주격조사 '이'의 오류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주격	이	8.25	16.72	4.28	5.78
	게	2.39	0.00	3.66	2.21

[표 Ⅳ-17] 주격조사 '이'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29	27	1	1
대치	87	49	17	21
생략	52	14	16	22
첨가	14	12	1	1

사용 수 대비 오류 수와 오류율 측면에서 주격조사 '이'의 오류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초급 수준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오류가 보였고 고급 수준에 비해 중급 수준에서 오류 수와 오류율이 모두 가장 낮았다는 데에 있다. 주격조사 '이'의 총 오류 수는 182회이며 그중 102회가 초급 수준에서 나타났고 고급 수준 45회, 중급 수준 35회의 순이다. 또한, 오류율도 초급 수준에서 16.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급 수준 5.78%, 중급 수준 4.28%의 순이다.

한편,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측면에서 주격조사 '이'의 오류에 있어 가장 큰 특성은 모든 학습 수준에서 대치와 생략 오류가 자주 나타난 반면, 초급 수준에서만 형태와 첨가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는 데에 있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류 사례는 학습자 수준별로 같은 유형의 오류를 여러 개 제시할 경우에는 묶어서 제시하기로 한다.

① 형태 오류 총 29회(초급: 27회, 중급: 1회, 고급: 1회)

형태 오류는 초급 수준에서 잘 보였다. 주격조사 '이'의 형태 오류의 특성은 '이'→'가' 혹은 '가'→'이'처럼 이형태 간에서 잘못된 교체가 양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선행 체언에 받침이 존재할 때 '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가'를 잘못 사용하여 나타난 오류가 전부이었다는 데에 있다.

(1) 고한(교환) <u>유학가(√유학이)</u> [1.0] 음::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이하 생략)(NJE-20)

(1)의 오류가 초급 수준에서 유난히 잘 보이는 이유는 초급 학습자가 구어에서 '이'와 '가'의 교체 사용이 자동적 처리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안용진·이화진(2016:117)은 일본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어와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양상을 분석한 바 있는데 구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이'의 이형태 오류가 문어에서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초급 학습자는 통제적 처리 단계, 즉 충분한 시간을 가진 경우에만 이'와 '가'의 정확한 교체 사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즉각성의 특성을 가진 구어에서는 받침의 유무에 따라 '이'와 '가'의 무의식적인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초급 학습자는 말하면서 받침의 유무에 따라 '이'와 '가'를 순간적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이때 초급 학습자는 주격조사 '이'의 사용에 있어 모어인 일본어의 조사 사용의 습관이 잘 나타난다. 초급 수준에서 이형태 오류가 '이'→'가'의 방향으로만 오류가 나타난 것은 초급 학습자가 구어에서 일본어 조사 'が(ga)'와 매우 유사한 발음을 가진 '가'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② 대치 오류 87회(초급: 49회, 중급: 17회, 고급: 21회)

대치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잘 보인 오류이기는 하나 그중 초급 수준에서 가장 잘 나타난 오류이다. 대치 오류는 '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사용한 오류, '은'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사용한

오류, ‘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사용한 오류가 있다.

첫째, ‘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해당 오류는 학습 수준에 따라 오류의 원인이 서로 다르다.

(2) **탁구가(✓탁구를)** 제일 잘해요.(NJE-28)

(3) 카푸루(커플)?가 너무 싸워서 그: 바=밤에 그런 **얘기가(✓얘기를)** 듣고 있어서(들어서)(NJI-16)

(4) 한국에 오거나 한국에 가거나 한국에 오거나 **친구들이(✓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냥 [1.0] 이와유루(소위) 구사노네(풀뿌리 활동)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해요.(NJA-10)

(2)의 오류는 초급 수준 49회, 중급 수준 1회, 고급 수준 1회 총 51회 나타났으며 초급 수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의 오류는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이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어는 좋고 싫음, 잘하고 못함, 희망 등을 나타낼 때 ‘이’에 해당하는 ‘が(ga)’가 사용되는데 초급 학습자는 대부분 모어의 조사 사용의 습관이 그대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빈번히 나타났다. 한편, (3)과 (4)의 오류는 초급 수준 0회, 중급 수준 8회, 고급 수준 9회 총 17회 나타났으며 (2)의 오류와 달리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잘 나타났다. (3), (4)의 오류는 공통적으로 후행 용언이 타동사일 때 주로 나타났다는 오류의 상황적인 특성만 밝힐 수 있었고 그 원인은 알 수 없었다. 이에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해당 오류를 보인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NJI-16과 NJA-20은 “해당 부분을 다시 보면 오류임은 인지할 수 있으나 그때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하였으며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는 추측에 불과하나 (3), (4)의 오류는 ‘이’의 무의식적인 사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구어에서의 발화에 있어 후행 용언과 상관없이 체언에 ‘이’가 결합하는 습관적인 사용으로 인해 나타난 오류로 생각된다.

둘째, ‘은’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5) 한국에서 응:: 남자는 운동 많이 하는데 **여자가(√여자는)** 많이 운동을 안 해서 [0.1] 그래서 배구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NJI-1)

(6) 쇼유(간장) [1.0] 간장을 사용하는 면은 조(좀) 비슷하고:: 그러나 된장의 **된장이(√된장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중략)(NJA-8)

(5)와 (6)의 오류는 초급 수준 0회, 중급 수준 7회, 고급 수준 9회 총 16회 나타났으며 (3), (4)처럼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자주 나타난 오류이다. (5)와 (6)은 겹문장 구조의 선행문에서 대조의 대상과 함께 대조의 의미·기능으로 '은'의 사용이 확인된다. 또한, 후행문에서도 대조의 대상이 확인되므로 '이'보다 '은'의 사용이 자연스럽다.

셋째, '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사용한 오류가 있다.

(7) 보도국도 많고 음:: 음:: 자연도 많고 맛있는 **가게가(√가게도)** 많고:: [1.0] 너무 살기 좋은 곳입니다.(NJI-6)

(8) 이야기도 잘 못하고 좀 **듣기가(√듣기도)** 잘 못한데(못하는데)(중략)(NJA-15)

(7)과 (8)의 오류는 초급 수준 0회, 중급 수준 3회, 고급 수준 2회 총 5회 나타났으며 (3)~(6)의 오류와 마찬가지로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잘 나타난 오류이다. (7)과 (8)의 오류는 (5)와 (6)의 오류와 마찬가지로 겹문장 구조의 선행문에서 더함이나 똑같이 아우름의 의미 · 기능으로 '도'의 사용이 확인되므로 '이'보다 '도'의 사용이 자연스럽다. 5)~(8)의 오류는 중급과 고급 학습자가 해당 부분과 관련된 각 문법적 지식의 결여에 따라 오류를 범하였다기보다 초급 학습자의 이형태 오류의 원인과 유사하다고 본다. 즉, 중급과 고급 학습자가 '이'와 '가'의 교체 사용에 대해서는 자동적 처리 단계에 도달하였으나 앞에서 사용한 조사나 뒤에서 사용될 후행 용언과의 관계에 따른 적절한 조사 사용에 대해서는 통제적 처리 단계에 그쳤음을 의미한다. 특히 겹문장처럼 하나의 문장 길이가

길어지면 조사 사용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진다.

③ 생략 총 52회(초급: 14회, 중급: 16회, 고급: 22회)

생략 오류는 대치 오류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습 수준에서 자주 나타난 오류이다.

(9) (밖에서) 화장실 가고 싶을 **때(√때가)** 많이 있는데 한국에 화장실이 별로 없어서 일본이 더 화장실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NJE-10)
(10) 한국 사람은 한 일본에 가본 적은 있는 **사람(√사람이)** 많아서(많고) 일본어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이하 생략)(NJE-11)

(11) 슈퍼에 가도 다 양이 많아서 좀 음:: 양이 많아서 음:: 아:: 사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경우가)** 많아서 아 좀 힘들었요.(NJI-7)
(12) 아까도 얘기했는(얘기한) 그:: **받침(√받침이)** 있어서 그리고 모음이 한국어가 더 많아서.(NJI-20)

(13) **일본 사람(√일본 사람이)** 그걸 깨달았을 때 일본 사람들이 너무 무지한 거를 알게 됐어요.(NJA-5)
(14) (일본인들은) 규칙에 갇혀 있는 느낌 감옥에 갇혀 갇혀 있는 **느낌(√느낌이)** 가끔 들었는데(NJA-18)

앞서 언급하였듯이 생략 오류는 오류 여부의 판정이 가장 어려웠다. 한국어교육 전문가는 하나의 문장 길이가 짧거나 '이'가 결합되는 주어가 짧은 경우에는 '이'의 생략을 자연스러운 생략으로 판정한 반면, 관형절과 결합되어 주어가 길어진 경우에는 '이'의 생략을 오류로 판정하였다. 그런데 주어가 짧아도 오류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부터 주어의 길이에 따라 오류 여부가 명확히 판정되는 것도 아니었다. (9)~(14)의 오류 중 (9)~(11), (14)는 주어가 확실히 긴 반면, (12)과 (13)은 주어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과 (13)이 오류로 판정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2)는 주어가 짧은데 뒤에서

‘-어서’ 즉, 이유, 원인의 연결어미가 사용된 경우인데 이처럼 대등접속문에서 ‘이’가 생략되면 오류로 판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10)과 (11)은 주어의 길이가 긴 것도 있으나 (12)와 마찬가지로 대등접속문에서 ‘이’가 생략되었다. (13)은 주어가 짧은데 해당 주어가 종속접속문의 주어이며 종속접속문에서 ‘이’의 생략이 나타나면 오류로 판정되는 경향이 보였다.

(15) 제 대학교는 베트남하고 음 미국하고 아 미국 한국하고 관계 **관계(?관계가)** 있지만 있습니다.(NJE-2)

(16) (한국에서) 한국 **친구(?친구가)** 많이 생겨서 좋습니다.(NJI-17)

(17) (한국에는) 그것보다 잘 해 주는 **사람(?사람이)** 많다고 그리고 되게 좋은 **데(?데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NJA-9)

(15)~(17)은 한국어교육 전문가 사이에도 처음에는 오류 판정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양상을 보였다. 1명의 한국어교육 전문가는 구어체에서는 ‘이’의 생략이 빈번히 일어나므로 자연스러운 생략으로 본 반면, 또 다른 1명의 한국어교육 전문가는 인터뷰가 가진 구어 유형의 특성인 격식성에 주목하여 합쇼체와 함께 ‘이’를 생략하는 것은 지나친 생략, 즉 오류로 보았다. 구본관·고영근(2008:426)에 따르면 합쇼체는 결어법 체계에서 가장 격식이 높은 상대높임법이며 일반적으로 높은 격식성을 동반한 문장일수록 문장 성분의 생략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구어라는 이유로 연구 참여자가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듯이 모든 조사를 생략하면 어색함을 느끼는 한국어 모어 화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잦은 생략이 ‘이’ 앞에 친구, 사람 등 사람과 관련된 명사, 거기 등 지시대명사 ‘데’ 등 의존명사가 오고, 뒤에 ‘있다’, ‘많다’ 등 용언이 올 때 자주 나타난 것으로부터 일상대화에서 나타나는 조사 생략의 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구어에서는 조사가 자주 생략되나 생략은 구어의 유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 준 오류이다.

생략 오류의 경우 ‘이’의 결합형인 ‘게’에도 나타났다.

(18) (특기는) 생각나는 <u>거(√게)</u> 별로 없어서 까 지금은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는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NJI-13)

(19) (일본의 장점에 대해) 저는 그냥 그런 <u>거(√게)</u> 있다고 생각할게요 생각해요.(NJA-2)

(20) 일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그런 이제 IT가 발달돼 있다는 <u>거(√게)</u> 좋고요.(NJA-12)

(18)~(20)은 '게'의 생략 오류이다. '게'의 생략 오류는 '이'의 생략 오류처럼 관형절과의 결합에 따라 주어가 길거나 연결어미 '-어서'가 사용된 대등접속문에서 생략된 경우에 오류로 판정된 경우가 많았다.

④ 첨가 총 14회(초급: 12회, 중급: 1회, 고급: 1회)

첨가 오류는 이형태 오류와 마찬가지로 초급 수준에서 잘 보인 오류이다.

(21) 매운 <u>음식이가(√음식이)</u> 맵지 않으니까(이하 중략)(NJE-21)

(21)의 오류는 초급 수준 12회, 중급 수준 1회, 고급 수준 1회 총 14회 나타났으며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 정상적으로 '이'가 사용된 직후에 '가'가 다시 중복으로 사용되어 나타난 오류이다. 해당 오류는 이형태 오류처럼 특히 초급 학습자가 '이'를 주격조사의 '이'로서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기인한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일본어 주격조사 'が(ga)'와 발음이 유사한 '가'가 '이'에 비해 사용이 익숙하고 특히 구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급 학습자는 즉각성이 요구되는 구어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초급 학습자는 '이'를 주격조사로서 무의식으로 사용해도 '이'를 주격조사로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의 받침을 없애는 접미사의 역할로 사용하고 그 뒤에 '가'를 다시 한 번 사용하게 된다.

2) 목적격조사 ‘을’

목적격조사 ‘을’의 오류 양상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오류 내 비율, 오류율,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18], [표 Ⅳ-19], [표 Ⅳ-20], [표 Ⅳ-21]과 같다.

[표 Ⅳ-18] 목적격조사 ‘을’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	을	32/1155	12/250	11/343	9/562
	ㄹ	7/70	0/0	3/24	4/46
행동의 간접적인 대상		1/6	1/4	0/1	0/1
이동하고자 하는 장소		3/18	0/2	0/5	3/11
행동의 목적		2/33	0/5	1/15	1/13

[표 Ⅳ-19] 목적격조사 ‘을’의 오류 내 비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	84.22	92.31	91.67	84.63
행동의 간접적인 대상	2.63	7.69	0.00	0.00
이동하고자 하는 장소	7.89	0.00	0.00	23.08
행동의 목적	5.26	0.00	8.33	7.69

[표 Ⅳ-20] 목적격조사 ‘을’의 오류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	2.77	4.80	3.21	1.60
행동의 간접적인 대상	16.67	25.00	0.00	0.00
이동하고자 하는 장소	16.67	0.00	0.00	27.27
행동의 목적	6.06	0.00	9.09	7.69

[표 Ⅳ-21] 목적격조사 ‘을’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4	4	0	0
대치	28	9	10	9
생략	6	0	2	4
첨가	0	0	0	0

의미·기능별 측면에서 목적격조사 '을'의 오류에 있어 가장 큰 특성은 전체 사용의 93.46%, 즉 90% 이상이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의 의미·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오류에서도 전체 오류의 84.22%, 즉 80% 이상이 해당 의미·기능에 집중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오류 수와 오류율을 학습 수준별로 살펴보면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오류 수와 오류율이 모두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는 '을'의 오류 중 매우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오류가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오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측면에서 목적격조사 '을'의 오류에 있어 가장 큰 특성은 모든 학습 수준에서 대치 오류가 자주 보인 반면, 초급 수준에서는 형태 오류,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생략 오류가 나타났다는 데에 있다. 또한, 첨가 오류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형태 오류 총 4회(초급: 4회, 중급: 0회, 고급: 0회)

'을'의 형태 오류는 주격조사 '이'의 형태 오류처럼 초급 학습자에게만 많이 나타난 반면, 주격조사 '이'에 비해 오류 수가 많지 않았다. '을'의 형태 오류의 특성은 주격조사 '이'의 형태 오류와 마찬가지로 '을'→'를' 혹은 '를'→'을'처럼 양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선행 체언에 받침이 존재할 때 '을'을 사용해야 하는데 '를'을 잘못 사용하여 나타난 오류가 전부이었다는 데에 있다.

(1) 원래 **케이팝를(✓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하 생략)(NJE-12)

(1)의 오류는 초급 수준에서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총 4회 나타났다. '을'의 형태 오류는 '이'의 형태 오류처럼 자동화 처리, 즉 말하면서 받침의 유무에 따라 '을'과 '를'을 순간적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지 못하여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73] 또한, '을'→'를'의 방향으로만 오류가 나타난 것은 일본어가 가진 음운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하세가와·이수경(2002:264)이 지적하였듯이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형태가 존재하는 조사를 제시할 때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인 일본어의 음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개음절인 형태가 우선 제시된다. 따라서 교재에서 조사 제시 빈도에 따라 조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보인 초급 학습자는 목적격조사의 대표 형태를 '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에 따라 즉각성이 요구되는 구어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를'을 사용하게 된다.

② 대치 오류 28회(초급: 9회, 중급: 10회, 고급: 9회)

대치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 보인 오류인데 학습 수준에 따라 오류의 형태가 다르다. '을'의 대치 오류는 '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을'을 잘못 사용한 오류와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을'을 잘못 사용한 오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을'을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2) 사람하고 만나는 것을 좀 무섭게 생각할 때가 많아서 이런 **<u>것을(√것이)</u>** 좀 힘들었습니다.(NJE-1)
(3) 서로 이해하는 것 이런 **<u>것을(√것이)</u>** 그:: 중요하다고 [1.0] 생각들었습니다.(NJE-18)

(4) 고기를 그:: 아! 구는 거? 구워주는 **<u>거를(√거가)</u>** 너무 좋았어요.(NJI-12)
(5) 특히 쓰기보다 그 **<u>말하기를(√말하기가)</u>** 어려웠어요.(NJI-15)

(6) 1호선 아래쪽 끝에도 가고 이동 **<u>범위를(√범위가)</u>** 좀 넓은 범위인 것 같습니다.(NJA-3)

---

73) 참고로 사후 인터뷰를 통해 NJE-12가 받침 유무에 따라 '을'과 '를'이 교체 사용되는 문법적 지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7) (길거리가) 좀 더 깨끗해지면 좋겠다고 이런 **마음을(√마음이)** 생겼어요.(NJA-9)

(2)~(7)의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보였다. 중급과 고급 수준보다 초급 수준에서 비교적 잘 보였으며 초급 수준 9회, 중급 수준 4회, 고급 수준 5회 총 18회 나타났다. 해당 오류는 '이 좋아하다'를 비롯한 '이'와 관련된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려다가 오히려 오류를 범하게 된 경우이다. '이 좋아하다'와 관련된 설명 기술은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과도한 주의가 다른 오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오류는 특히 후행 용언에 형용사가 올 때 자주 나타났다. 김중섭·이정희(2008:88)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와 '을' 간의 오류의 원인으로서 후행하는 동사류와의 결합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들었는데 '이 좋아하다'와 같은 오류에 한정된 해석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당 오류를 범한 연구 참여자 중 초급 학습자인 NJE-18을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NJE-18은 '중요하다'가 형용사임을 알고 있었다. 즉, 후행 용언의 속성에 대한 이해 부족보다 '이'와 관련된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후행 용언과 상관없이 우선 '을'을 사용하려고 한 결과 오류가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또한, 중급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류도 보였다.

(8) 장래 어차피 한국어를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생각이)** 들어서(이하 생략)(NJI-3)

(9) 한국말 너무 귀엽다 이런 **생각을(√생각이)** 들었기 때문에(이하 생략)(NJI-8)

(8)과 (9)의 오류는 중급 수준에서만 총 4회 나타났는데 '생각이 들다'를 '생각을 들다'로 잘못 표현한 것이다. 이는 김중섭·이정희(2008:88)가 지적한 후행하는 동사류와의 결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유사한 맥락으로 연어적 표현에 따른 조사와 후행 용언의 공기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민재·오기노(2018:19)는 '생각을 하다'와의 혼동으로

인해 나타난 오류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생각을 하다'처럼 '생각'이 '을'과 함께 사용된다는 문법 지식을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이다.

둘째,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을'을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8) **일본을(√일본에)** 대해서 음:: 저는 [2.0] 음:: 거짓말이 아닌데(이하 생략)(NJI-20)

(9) 거기 (축구) **리그를(√리그에)** 가입하고 나서 그런(그걸) 뭐라고 하지요? (NJA-16)

(8)과 (9)의 오류는 초급 0회, 중급 수준 2회, 고급 수준 1회 총 3회 나타났다. 즉,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만 보인 오류이다. (8)과 (9)의 오류는 후행 용언의 속성에 따라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을'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을'을 잘못 사용하였다. 즉, 해당 오류는 '을'과 '에'가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학습자의 잘못된 지식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해당 오류를 범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NJI-20은 "'을 위해서'에는 '을'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표현인 '에 대해서'에도 '을'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NJA-16은 "학교에 가다'를 '학교를 가다'처럼 한국어에는 '에'와 '을'이 모두 사용되는 표현이 많기 때문에 '리그를 가입하다'처럼 '을'이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즉, NJI-20과 NJA-16은 '을'이 다양한 장면에서 사용되거나 교체되어 사용될 수 있다는 문법적 지식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였다고 해석된다.[74]

또한, 고급 수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오류도 보였다.

(10) 저는 **제주도를(√제주도에)** 가고 싶습니다.(NJA-19)

---

74)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전철을 타다', '친구를 만나다'처럼 한국어는 '을'이 사용되는데 일본어는 '에'에 해당하는 'に(ni)'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급과 고급 학습자가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을'을 사용하였다는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10)의 오류는 이동하고자 하는 장소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고급 수준에서만 총 3회 나타났다. ‘학교를 가다’와 ‘학교에 가다’처럼 ‘을’의 이동하고자 하는 장소와 ‘에’의 진행 방향의 의미·기능은 서로 교체해도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으나 (10)의 경우는 ‘에’가 ‘을’에 비해 자연스럽다고 판정되었다. 해당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의 예시를 살펴보면 ‘학교’나 ‘회사’ 등이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부터 이동의 목적이 확실한 경우에 사용할 때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즉, ‘을’이 ‘에’와 교체 사용될 수 있다는 문법 지식을 지나치게 일반화한 것이다.

다음은 (2)~(10)과 관련하여 ‘을’의 축약형인 ‘걸’에 나타난 오류이다. ‘걸’은 대치 오류에만 보였다.

(11) 제가 한국에 살았을 때 어떤 <u>걸(√게)</u> 재미있다(재미있었다) 이런 거는 너무 좋다 이런 얘기는 많이 요즘 해요.(NJI-6)

(12) 한국어도 똑같이 존댓말이 있고 그걸 다 외워야 되는 <u>걸(√게)</u>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NJI-18)

(13) 한국에서 혼자서 사는 산다는 <u>걸(√거에)</u> 좀 되게 자부심 갖고 있어요.(NJA-11)

(11)와 (12)의 오류는 (4)와 (5)의 오류, (13)의 오류는 (8)의 오류와 동일한 이유로 오류가 나타났다. ‘을’과 ‘걸’의 오류는 ‘을’의 오류가 모든 학습 수준에서 골고루 보인 반면, ‘걸’의 오류는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만 보였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③ 생략 총 6회(초급: 0회, 중급: 2회, 고급: 4회)

생략 오류는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만 보였다. ‘을’의 생략은 ‘이’의 생략과 마찬가지로 구어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한국어교육 전문가는 ‘이’보다 ‘을’의 생략의 거의 대부분을 자연스러운 생략으로 판정하였다.

따라서 '을'의 생략 오류가 '이'의 생략 오류에 비해 수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14) 한국에서는 뭔가 아 이 프로젝토 한다 하면 아 먼저 뭔가 좀 한 번 해 보고 네 잘 하 잘 되면 **이거(√이거를)** 계속하는 이런 네 스타일인 것 같아요.(NJI-16)
(15) 많이 서로 입장을 생각하면서 많이 **대화(√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NJI-20)

(16) 학교 프로그램으로 그냥 선발됐고 그렇게 2년 반 유학 시 유학 **생활(√생활을)** 보내려고 했는데(이하 생략)(NJA-2)
(17) 한국에서 제가 **사학과(√사학과를)** 지금 다니는데 그거랑 조금 관련이 있어서(NJA-14)

(14)~(17)의 오류 중 (14)와 (15)는 관형절이나 인용절을 가진 내포문, (16)과 (17)은 '-는데'가 사용된 대등접속문에서 '을'이 생략된 경우이다. 앞서 '이'의 생략 오류가 관형절이 결합된 주어나 '-어서'가 사용된 대등접속문, 종속접속문에서 잘 나타났는데 '을'의 생략 오류도 거의 유사한 경우에 나타났다. 즉, '이'나 '을'의 생략은 일상대화에서의 짧은 문장에서는 자연스럽지만 겹문장 구조를 취하는 긴 문장에서는 부자연스러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18) 여의도에서 한 한꺼번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여기를)** 선택했습니다.(NJA-9)

(18)은 한국어교육 전문가 사이에도 처음에는 오류 판정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양상을 보였다. 1명의 한국어교육 전문가는 구어체에서는 '을'의 생략이 빈번히 일어나므로 자연스러운 생략으로 본 반면, 또 다른 1명의 한국어교육 전문가는 인터뷰가 가진 구어 유형의 특성인 격식성에 주목하여 해당 연구 참여자가 합쇼체와 함께 '을'을 생략하는 것을 오류로 보았다.

3) 관형격조사 '의'

관형격조사 '의'의 오류 양상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오류 내 비율, 오류율,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22], [표 Ⅳ-23], [표 Ⅳ-24], [표 Ⅳ-25]와 같다.

[표 Ⅳ-22] 관형격조사 '의'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행동·작용의 주체	2/25	0/2	0/3	2/20
앞의 체언에 관한 것임	2/46	1/23	1/14	0/9
속성	6/23	3/4	1/7	2/12
동격	1/3	0/1	0/0	1/2
정도·수량의 한정	2/15	0/0	2/3	0/12
다른 조사와의 결합	1/9	0/0	0/0	1/9

[표 Ⅳ-23] 관형격조사 '의'의 오류 내 비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행동·작용의 주체	14.29	0.00	0.00	33.33
앞의 체언에 관한 것임	14.29	25.00	25.00	0.00
속성	42.85	75.00	25.00	33.33
동격	7.14	0.00	0.00	16.67
정도·수량의 한정	14.29	0.00	50.00	0.00
다른 조사와의 결합	7.14	0.00	0.00	16.67

[표 Ⅳ-24] 관형격조사 '의'의 오류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행동·작용의 주체	8.00	0.00	0.00	10.00
앞의 체언에 관한 것임	4.35	4.35	7.14	0.00
속성	26.09	75.00	14.29	16.67
동격	33.33	0.00	0.00	50.00
정도·수량의 한정	13.33	0.00	66.67	0.00
다른 조사와의 결합	11.11	0.00	0.00	11.11

[표 Ⅳ-25] 관형격조사 '의'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0	0	0	0
대치	1	0	0	1
생략	13	4	4	5
첨가	0	0	0	0

관형격조사 '의'는 구어에서 생략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므로 오류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생략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는 소유·소속, 전체와 부분 등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생략은 모두 자연스러운 생략으로 판정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의'와 관련된 오류는 선행연구에서도 거듭 지적하였듯이 거의 모두가 '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의'가 생략된 오류이다.

의미·기능 측면에서 관형격조사 '의'의 오류 특성은 찾을 수 없었다. 속성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가 모든 학습 수준에서 보였을 뿐이며 그 외의 어떠한 공통점도 찾아볼 수 없다. 즉, '의'의 생략 오류는 학습자 간의 개인차가 큰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의미·기능별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사용 양상과 마찬가지로 학습 수준에 따라 전혀 다르다. 초급 수준에서는 행동·작용의 주체 1회, 속성 3회 총 4회의 오류가 나타났고 중급 수준에서는 앞의 체언에 관한 것임과 속성이 각 1회씩, 정도·수량의 한정 2회 총 4회의 오류가 나타났고 고급 수준에서는 행동·작용의 주체와 속성이 각 2회씩, 동격과 다른 조사와의 결합이 각 1회씩 총 6회의 오류가 나타났다. 안경화·양명희(2005:204)는 고급 수준에서 '의'의 오류가 가장 많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크게 차이는 없었으나 고급 수준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편,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분류 측면에서 관형격조사 '의'의 오류에 있어 가장 큰 특성은 무엇보다 생략 오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데에 있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치 총 1회(초급: 0회, 중급: 0회, 고급: 1회)

대치 오류는 고급 수준에서 1회 나타났으며 동격의 의미·기능과 관련이 있다.

(1) 도쿄? [1.0] 사람이 많고 물가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살기는 제 **고향의(√고향인)** 오사카가 편한 것 같아요.(NJA-12)

(1)의 오류는 동격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의'의 동격의 의미·기능은 '각하의 칭호'처럼 두 체언이 의미적으로 동격일 때, 즉 두 체언의 의미가 유사할 때 사용되는데 '고향'과 '오사카'의 경우 서로가 다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가 아니라 '이다'의 관형형인 '인'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생략 총 13회(초급: 4회, 중급: 4회, 고급: 5회)

생략 오류는 '의'와 관련된 오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학습 수준에서 오류가 보였으며 초급 수준 4회, 중급 수준 4회, 고급 수준 5회 총 13회 나타났다.

(2) 음:: [3.0] **한국(√한국의)** 좋은 것은 음:: [5.0].(NJE-15)

(3) 제가 생각하는 일본이랑 **한국(√한국의)** 차이는 음 [2.0] 한국 남자가 너무 친절해요.(NJI-1)

(4) 예전에는 어딘가에서 들은 말 중에 하 [1.0] 일본인은 **백 년(√백년의)** 적이지만(이하 생략)(NJI-12)

(5) 일본 **사람(√사람의)** 생각이 역시 섬나라라는 거고(이하 생략)(NJA-6)

(6) (한국 유학 계기는) **친구랑(√친구랑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NJA-14)

(2)~(6)의 오류는 모두 생략 오류이며 (2)는 속성, 즉 후행 체언이 가진 정보가 선행 체언의 속성임을 나타내는 의미·기능, (3)은 앞의 체언에 관한 것임, 즉 후행 체언이 나타내는 사실이나 상태가 선행 체언에 관한 것임을 나타내는 의미·기능, (4)는 정도·수량의 한정, (5)는 행동·작용의 주체, (6)은 다른 조사와의 결합과 관련이 있다.[75]

4) 서술격조사 '이다'

서술격조사 '이다'의 오류 양상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오류 내 비율, 오류율,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26], [표 Ⅳ-27], [표 Ⅳ-28], [표 Ⅳ-29]와 같다.

[표 Ⅳ-26] 서술격조사 '이다'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지정	1/403	0/9	1/181	0/213
속성	2/47	1/4	1/15	0/28
행동·상태의 양상	1/3	1/2	0/1	0/0

[표 Ⅳ-27] 서술격조사 '이다'의 오류 내 비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지정	25.00	0.00	50.00	0.00
속성	50.00	50.00	50.00	0.00
행동·상태의 양상	25.00	50.00	0.00	0.00

[표 Ⅳ-28] 서술격조사 '이다'의 오류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지정	0.25	0.00	0.55	0.00
속성	0.69	25.0	6.67	0.00
행동·상태의 양상	33.33	50.0	0.00	0.00

75) 1명의 한국어교육 전문가는 (3)과 (5)의 '의'의 생략을 구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략으로 판정하였으나 고영근·구본관(2008:157)의 논의에 따라 '소유주-피소유물'나 그 하위범주에 속하는 관계가 아닌 (3)과 (5)는 생략보다 사용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

[표 Ⅳ-29] 서술격조사 '이다'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0	0	0	0
대치	2	0	2	0
생략	2	2	0	0
첨가	0	0	0	0

의미·기능 측면에서 관형격조사 '의'의 오류 특성은 찾을 수 없었다. 서술격조사 '이다'는 오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고급 수준에서는 한 번도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의미·기능별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초급 수준에서는 속성과 행동·상태의 양상이 각 1회씩 총 2회의 오류가 나타났고 중급 수준에서는 지정과 속성이 각 1회씩 총 2회의 오류가 나타났다. 그런데 초급과 중급 수준 사이에서는 오류 수가 유사하여도 오류율에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속성과 행동·상태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오류율을 살펴보면 초급 수준에서는 25.0%~50.0%의 매우 높은 오류율이 보인 반면, 중급 수준에서는 0.00%~6.67%의 매우 낮은 오류율을 보였다. 이는 '이다'와 관련된 오류가 초급과 중급 수준 사이에서 크게 개선됨을 의미한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중급 수준이 되면 '이다'를 정확히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분류 측면에서도 서술격조사 '이다'의 오류 특성은 오류 수가 많지 않으므로 찾을 수 없었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치 총 1회(초급: 0회, 중급: 2회, 고급: 0회)

대치 오류는 중급 수준에서만 보였으며 총 2회 나타났다.

(1) (모쓰나베가) 맛있고 <u>유명인(√유명한)</u> 것 같아요.(NJI-7)

(2)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를 좀 인식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1.0] 바라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u>적극적인(√적극적으로)</u> 하는 거

같습니다.(NJI-25)

(1)과 (2)의 오류는 각각 지정, 속성의 의미·기능으로 사용되었다. (1)의 오류는 형용사 '유명하다'의 관형형인 '유명한'을 명사 '유명'과 '이다'의 결합하여 '유명이다'를 만든 다음에 이를 관형형인 '유명인'의 형태로 잘못 사용한 것이다. 한편, (2)의 오류는 후행 용언으로 동사인 '하다'가 사용되었으므로 명사 '적극적'에 부사격조사 '으로'를 결합하여 부사로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다'의 관형형인 '인'을 결합하여 '적극적이다'의 관형형인 '적극적인'의 형태로 잘못 사용한 것이다. (1)과 (2)의 오류는 의미·기능은 다르지만 '이다'의 관형형인 '인'을 잘못 사용하였다는 데에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② 생략 총 2회(초급: 2회, 중급: 0회, 고급: 0회)

생략 오류는 초급 수준에서만 보였으며 총 2회 나타났다.

(3) (경주는) 아:: [1.0] 음:: [2.0] 일본의 역사 **역사적(√역사적인)** 곳이하고 다랍니다(다릅니다).(NJE-15)
(4) 그때 뭔가 갈아타는 게 **처음(√처음인)** 버스?를 모르는 아줌마가 가르쳐 주셔서(이하 생략)(NJE-35)

(3)과 (4)의 오류는 각각 속성과 지정의 의미·기능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다'의 관형형인 '인'을 사용하지 못한 결과가 생략 오류로 나타난 것이다. 해당 오류를 보인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NJE-15와 NJE-35는 '인'의 생략 오류를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이다'는 알고 있으나 '이다'의 관형형인 '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도 '인'을 초급 교재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드물며 초급 수준에서 '이다'의 활용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학습하거나 한국에서 체류하며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이다'의 사용을 통해 학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다’와 관련된 오류는 ‘이다’의 관형형인 ‘인’과 크게 관련이 있으며 초급 수준에서는 ‘이다’를 ‘인’으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오류가 나타난 반면, 중급 수준에서는 ‘이다’를 ‘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인’을 정확히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오류가 나타났다. 다만, ‘이다’와 관련된 오류는 오류 빈도가 낮고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월등히 개선되는 특성이 있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다’를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다’는 일본어 조동사 ‘だ(da)’에 해당되며 일본어에서 조사로 분류되지 않으나 이러한 차이는 오류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힐 수 있었다.

5) 부사격조사 ‘으로’

부사격조사 ‘으로’의 오류 양상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오류 내 비율, 오류율,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30], [표 Ⅳ-31], [표 Ⅳ-32], [표 Ⅳ-33]과 같다.

[표 Ⅳ-30] 부사격조사 ‘으로’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움직임의 방향	8/70	0/0	5/28	3/42
변화의 방향	1/4	0/0	0/1	1/3
수단·도구	2/52	1/11	0/22	1/19
일의 방법·방식	2/24	0/1	0/7	2/16
지위·신분·자격	2/31	1/2	1/5	0/24

[표 Ⅳ-31] 부사격조사 ‘으로’의 오류 내 비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움직임의 방향	53.33	0.00	83.33	42.86
변화의 방향	6.68	0.00	0.00	14.28
수단·도구	13.33	50.00	0.00	14.28
일의 방법·방식	13.33	0.00	0.00	28.58
지위·신분·자격	13.33	50.00	16.67	0.00

[표 Ⅳ-32] 부사격조사 '으로'의 오류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움직임의 방향	11.43	0.00	17.86	7.14
변화의 방향	25.00	0.00	0.00	33.33
수단·도구	3.85	9.09	0.00	5.26
일의 방법·방식	8.33	0.00	0.00	12.50
지위·신분·자격	6.45	50.0	20.0	0.00

[표 Ⅳ-33] 부사격조사 '으로'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1	0	1	0
대치	14	2	5	7
생략	0	0	0	0
첨가	0	0	0	0

의미·기능 측면에서 부사격조사 '으로'의 오류에 있어 가장 큰 특성은 중급 수준에서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기능에 오류가 집중되었다가 고급 수준에서 해당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가 줄어들고 그 외에 다양한 의미·기능에 오류가 보였다는 데에 있다. 사용 양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사용은 중급 수준부터 시작된다. 이에 중급 학습자는 해당 의미·기능에 대한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이미 학습한 부사격조사 '에'의 진행 방향의 의미·기능과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오류와 관련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의미·기능별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사용 양상과 마찬가지로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오류 수가 많아지고 다양한 의미·기능에 나타났다. 초급 수준에서는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되는 수단·도구와 지위·신분·자격과 관련하여 각각 1회씩 총 2회의 오류가 나타났다. 중급 수준에서는 지위·신분·자격 1회, 움직임의 방향 5회 총 6회의 오류가 나타났다. 고급 수준에서는 움직임의 방향 3회, 일의 방법·방식 2회, 수단·도구와 변화의 방향이 각 1회씩 총 7회의 오류가 나타났다.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가 다른 의미

·기능과 관련된 오류보다 오류 내 비율과 오류율이 모두 높다. 특히 중급 수준에서는 '으로'와 관련된 모든 오류 중 83.3%가 해당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이다. 또한, 오류율도 17.86%로 사용 수가 비교적 많은 의미·기능 중에서는 가장 높다. 그러나 고급 수준에서는 오류율이 7.14%로 크게 줄어들고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으로'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보아 부사격조사 '에'의 진행 방향의 의미·기능과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분류 측면에서 부사격조사 '으로'의 오류에 있어 가장 큰 특성은 오류가 대치 오류에 집중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또한, 생략과 첨가 오류가 없는 것도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형태 총 4회(초급: 0회, 중급: 1회, 고급: 0회)

형태 오류는 일반적으로 초급 수준에서 잘 보이는 오류인데 '으로'의 형태 오류는 중급 수준에서만 1회 나타났다.

(1) (한국) 대학에 그 **교환학생로(√교환학생으로)** 그 유학할 수 있고 (NJI-2)

(1)의 오류는 '으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로'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으로'의 형태 오류는 주격조사 '이'나 목적격조사 '을'과 달리 초급 수준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으로'는 형태 오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 조사임을 밝힐 수 있었다.

② 대치 총 14회(초급: 2회, 중급: 5회, 고급: 7회)

대치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 나타난 오류인데 특히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많이 나타났다. '으로'의 대치 오류는 '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으로'를 잘못 사용한 오류, '을'을 사용해야 하는데 '으로'를 잘못 사용한

오류,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으로’를 잘못 사용한 오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으로’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고급 수준에서 1회 나타났다. ‘이’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격조사이다.

(2) 자기(제)가 말하는 거 편했는데 지금은 **반대로(√반대가)** 되어버려서 (NJA-2)

(2)는 한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남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한국어를 많이 배우고 나서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쉬워졌다는 뜻이다. (2)의 오류는 후행 용언에 ‘되다’가 사용되었으므로 ‘이 되다’의 형태를 취하기 위해 보격조사 ‘이’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움직임의 방향의 의미·기능으로 ‘으로’가 잘못 사용된 것이다.

둘째, ‘을’을 사용해야 하는데 ‘으로’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초급 수준과 고급 수준에서 보였으며 초급 수준 2회, 고급 수준 2회 총 4회 나타났다.

(3) 자동차로**(√자동차를)** 사용하지 못 여기서에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NJE-1)

(4) **친구로(√친구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런 좋았어요.(NJE-15)

(5) ‘이응’이나 ‘니은’ 그런 걸 발음 **발음으로(√발음을)** 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NJA-12)

(3)~(5)의 오류 중 (3)은 수단·도구, (4)는 지위·신분·자격, (5)는 일의 방법·방식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3)~(5)의 오류는 ‘으로’와 ‘을’ 간의 음운적 유사성에 따라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오류를 보인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NJE-1, NJE-15, NJA-12는 모두 해당 오류를 인지할 수 있었다. NJA-12는 ‘으로’의 잘못된 사용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NJE-1과 NJE-15는 "'를'을 쓰려고 했는데 '를'이 '로'랑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린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으로'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중급 수준 5회, 고급 수준 3회로 총 8회 나타났다.

(6) 요즘에는 **어디로(√어디에)** 갔지? 음:: 안양? 과천?(NJI-2)
(7) **제주도로(√제주도에)** 가면 드라이브하고 싶어요.(NJI-2)

(8) 아! 갔다 왔죠. **일본으로(√일본에)** 갔다 왔습니다.(NJA-2)

(6)~(8)의 오류는 '으로'가 지닌 움직임의 방향과 '에'가 지닌 진행 방향과의 유사한 의미·기능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나타났다. 해당 의미·기능으로 사용되는 '으로'와 '에'는 대부분의 경우 교체 사용이 가능한데 한국어교육 전문가는 '다른 장소 말고 바로 그 장소' 혹은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진 이동' 여부에 따라 오류를 판정하였다. (6)과 (7)의 오류는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보였는데 (6)은 '안양', '과천' 등 본인이 이미 다녀온 장소가 확실한 상황이다. 한편, (7)은 '제주도'라는 행선지에 '드라이브'라는 목적까지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다.[76] (8)의 오류는 후행 용언에 '갔다오다'가 사용되었으므로 후행 용언과의 공기관계에 따라 '에'가 자연스럽다.

6) 부사격조사 '에'

부사격조사 '에'의 오류 양상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오류 내 비율, 오류율,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34], [표 Ⅳ-35], [표 Ⅳ-36], [표 Ⅳ-37]과 같다.

---

76)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교육 전문가는 다음 발화 내용에서 사용된 '으로'를 자연스러운 사용으로 판정하였다. '제주도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자연에 접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제주도로 가면 좀 힐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 Ⅳ-34] 부사격조사 '에'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처소	14/351	0/86	8/165	6/100
시간	8/257	5/56	3/92	0/109
진행 방향	5/222	0/61	3/84	2/77
움직임·작용이 미치는 대상	28/67	11/14	8/19	9/34
조건·환경·상태	4/30	0/5	1/8	3/17
비교의 대상	2/7	0/0	1/2	1/5

[표 Ⅳ-35] 부사격조사 '에'의 오류 내 비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처소	22.95	0.00	33.33	28.57
시간	13.11	31.25	12.50	0.00
진행 방향	8.20	0.00	12.50	9.52
움직임·작용이 미치는 대상	45.90	68.75	33.33	42.86
조건·환경·상태	6.56	0.00	4.17	14.29
비교의 대상	3.28	0.00	4.17	4.76

[표 Ⅳ-36] 부사격조사 '에'의 오류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처소	3.99	0.00	4.85	6.00
시간	3.11	8.93	3.26	0.00
진행 방향	2.25	0.00	3.57	2.60
움직임·작용이 미치는 대상	41.79	78.57	42.11	26.47
조건·환경·상태	13.33	0.00	12.5	17.65
비교의 대상	28.57	0.00	50.0	20.00

[표 Ⅳ-37] 부사격조사 '에'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0	0	0	0
대치	42	10	18	14
생략	14	6	4	4
첨가	5	0	4	1

의미·기능 측면에서 부사격조사 '에'의 오류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모든 학습 수준에서 움직임·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오류 수가 가장 많았고 오류 내 비율 및 오류율이 모두 높았다는 데에 있다. 특히 초급 수준에서 해당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가 '에'의 전체 오류의 68.75%를 차지하며 오류율도 78.57%로 매우 높았는데 고급 수준에서도 전체 오류의 42.86%를 차지하며 오류율도 26.4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에'가 지닌 움직임·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가 학습 수준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오류임을 의미한다.

부사격조사 '에'의 의미·기능별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초급 수준에서는 시간과 움직임·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기능에 모든 오류가 집중된 반면,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그 외에 처소, 진행 방향, 조건·환경·상태, 비교의 대상에도 다양하게 오류가 보였다. 다만, 초급 수준에서 자주 보인 시간과 움직임·작용이 미치는 대상과 관련된 오류는 학습 수준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율을 살펴보면 시간의 의미·기능은 초급 수준 8.93%, 중급 수준 3.26%, 고급 수준 1.83%이며 고급 수준에서는 오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움직임·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기능은 초급 수준 78.57%, 중급 수준 42.11%, 고급 수준 20.59%로 시간의 의미·기능에 비해 오류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는 하나 중급과 고급 수준의 오류율은 초급 수준의 오류율에 비해 확실히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분류 측면에서 부사격조사 '에'의 오류에 있어 큰 특성은 대치 오류가 압도적으로 많이 보였고 학습 수준과 상관없이 대치와 생략 오류가 꾸준히 나타났다는 데에 있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치 총 42회(초급: 10회, 중급: 18회, 고급: 14회)

대치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두드러지게 잘 보였으며 초급 10회,

중급 18회, 고급 14회 총 42회 나타났다. 대치 오류는 '을'을 사용해야 하는데 '에'를 잘못 사용한 오류, '에게'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를 잘못 사용한 오류,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를 잘못 사용한 오류, 그리고 '이'나 '과'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를 잘못 사용한 오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을'을 사용해야 하는데 '에'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1) (저는) **아빠에(√아빠를)** 닮았어요! 아빠. 아빠.(NJE-4)
(2) 일본에 있으면:: 혼자서 **차에(√차를)** 타서(타고) 갈 수 있는데(이하 생략)(NJE-12)

(3) 저는 **아빠에(√아빠를)** 닮은 것 같습니다.(NJI-1)
(4) ○○○랑 다른 좋은 **친구에(√친구를)** 만날 수 있고~ 너무 좋았어요.(NJI-12)
(5) 좀 더:: 말하기 [1.0] 하고 싶어서 (중략) **유학에(√유학을)** 왔어요.(NJI-15)
(6) 일본인 분들은 아무래도 좀 [1.0] **일본에(√일본을)** 안 떠나서 그런 건지(이하 생략)(NJI-25)

(7) 요즘에는 **엄마에(√엄아를)** 많이 닮았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NJA-2)
(8) 사람에 대한 대해 **사람에(√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아직까지 좀 서비스 업인데(중략)(NJA-10)

(1)~(8)의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잘 보였으며 초급 수준 5회, 중급 수준 9회, 고급 수준 7회로 총 21회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움직임·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에'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다만, (5)와 (6)은 진행 방향의 의미·기능으로 '에'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1)~(8) 중 (6)을 제외하면 모두가 모어의 영향에 따른 전형적인 오류이다. 그중 모든 수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류가 동사 '닮다'와 함께 '에'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6)의 경우 일본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을'에 해당하는 'を(o)'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를 사용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에 해당 오류를 범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NJA-25는 “떠나다’가 ‘가다’, ‘오다 등 동사와 함께 ‘에’가 쓰이는 조사인 줄 알았다.’고 응답하였다. 즉, 후행 용언과의 공기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류가 나타난 것이다.

둘째, ‘에게’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9)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외국인에게)** 관심이 많이 있느(있다고) [1.0] 생각해요.(NJE-12)

(10) 많는 **사람에(√사람에게)** 한국어하고 일본어는 너무 비슷한 것 같은데 (이하 생략)(NJE-33)

(11)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서로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NJI-6)

(12) 뭔가 그때 되게 **자기자신에(√자기자신에게)** 진짜 자신이 없어서(이하 생략)(NJA-2)

(9)~(12)의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보였으며 초급 수준 5회, 중급 수준 2회, 고급 수준 2회로 총 10회 나타났다. 모든 오류가 움직임·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오류에서는 학습 수준에 따른 오류의 특성을 각각 볼 수 있었다. 초급 수준에서는 ‘외국인’, ‘사람’처럼 학습자가 유정성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명사와의 결합에 오류가 자주 나타난 반면,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서로’, ‘자기자신’처럼 유정성 여부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명사와의 결합에서만 오류가 나타났다. 이는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유정성 여부가 명백한 명사와의 결합에 있어 ‘에’와 ‘에게’의 교체 사용이 통제적 처리 단계를 넘어 자동적 처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셋째,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13) **대학에(√대학에서)** 그:: 교환학생로 그:: 유학할 수 있고(중략)(NJI-4)

(14) **한국에(√한국에서)** 뭔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NJI-14)

(15) **한국에(√한국에서)**는 (점심을) 좀 얘기하면서 좀 즐기면서 그것도 중요하나 봐요.(NJA-11)

(16) 직원분들이 약간 손님 **앞에(√앞에서)** 그렇게 화내거나 무시를 하거나 그런 거는(이하 생략)(NJA-18)

(13)~(16)의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에'와 '에서'가 활발하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급 수준에서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고 중급 수준과 고급 수준에서만 보였다. 특히 중급 수준에서 잘 보였으며 중급 수준 6회, 고급 수준 2회로 총 8회 나타났다. 해당 오류는 처소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것이며 부사격조사 '에'와 '에서'가 공유하는 처소의 의미·기능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어났다. 일반적으로 처소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에'는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반면, '에서'는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13)~(16)의 오류를 살펴보면 후행 용언에 각각 '유학하다', '(일을) 하다', '얘기하다', '화내다'나 '(무시를) 하다'가 사용되었므로 '에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이다. 즉,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후행 용언과 상관없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에 '에'가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오류는 처소의 의미·기능으로 '에'와 '에서'를 학습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급 수준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결과는 이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초급 수준의 처소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에'의 사용 사례를 하나 하나씩 살펴보았더니 '에'의 사용에 대한 규칙성을 찾을 수 있었다. 초급 수준에서는 중급과 고급 수준에 비해 처소의 의미·기능으로 '에'가 사용될 때 후행 용언이 대체로 고정된 경향을 보였다. 즉, 이는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 명사와의 강한 공기관계가 보인 반면, 초급 수준에서는 '있다', '없다', '살다' 등 후행 용언과의 강한 공기관계가 보였다. 따라서 초급 수준에서는 '에 있다', '에 없다', '에 살다'와 같은 고정된 표현에만 '에'가 사용된 결과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초급 수준은 구어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중급과 고급 수준보다 구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쓰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각성이 요구되는 구어에서는 이미 말한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나 초급 수준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본어로 먼저 생각한 다음에 한국어로 말하는 특성상 말하는 속도가 비교적 느리므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비교적 쉽게 수정할 수 있다. 다음은 초급 수준의 연구 참여자에게 보인 발화 중의 '에'와 '에서'의 수정 사례이다.

- **한국에 [1.0] 한국에서** 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유학을 갔어요.(NJE-22)
- **길에서 아 길에** 쓰레기가 많은 게 뭔가 냄새가 많이 나서 뭔가 안 좋았어요.(NJE-22)

초급 수준에서는 그 외의 연구 참여자에게도 이와 유사한 수정 사례가 종종 보였으며 발화 중에 처소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와 '에서'가 서로 수정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이'나 '과'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17) 규칙을 많이 딱딱하게 지키는 거 어:: **한국에(√한국과)** 비슷 [1.0] 그:: 비교할 때(이하 생략)(NJI-17)

(18) **집에(√집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집에서 만나 만나고(이하 생략)(NJA-12)

(19) 일단 9호선이 있어가지고::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인천공항과)** 가깝고(이하 생략)(NJA-15)

(17)~(19)의 오류는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보였으며 중급 수준 1회, 고급 수준 3회 총 4회 나타났다. (17)의 오류는 비교, (18)과 (19)는 처소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이며 그중 (18)과 (19)는 모어의 영향에 따른 전형적인 오류이다. (17)의 오류는 후행 동사와의 공기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동사 '비교하다'에는 부사격조사 '과'가 사용되어야 한다. '비하다'가 '에'를 취하므로 '비하다'와 '비교하다'를 동일시한 경우로 보인다.

② 생략 총 14회(초급: 6회, 중급: 4회, 고급: 4회)

생략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많이 보였으나 학습 수준에 따라 오류가 나타난 의미·기능에 차이가 있다.

(20) **처음은(√처음에는)** (한국에) 일주일 동안 왔는데(이하 생략)(NJE-12)
(21) 한국은 어:: **이번(√이번에)** 한국에 오는 것은 처음이라서(이하 생략)(NJE-27)
(22) 제가 여기 온 **후(√후에)** (한일관계가) 도 더 나쁘 나빠요.(NJE-31)

(23) **옛날(√옛날에)** 그 대학교에서는 그:: [1.0] 댄스동아리 들어가서 제가 가 가르쳐 주고 이랬어요.(NJI-11)

(20)~(23)의 오류는 초급 수준에서 다수 보였으며 초급 수준 5회, 중급 수준 2회로 총 7회 나타났다. 해당 오류는 모두 시간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이자 모어의 영향에 따른 전형적인 오류이다. 일본어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시간 표현에 시간의 '에'를 사용하지 않는 문법적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나타난 오류이다.

또한, 생략 오류는 다른 의미·기능에도 나타났다.

(24) 지금은 (축구를) 그만했고 이제 **공부만(√공부에만)** 집중하려고요.(NJE-5)

(25) 제가 **보기는(√보기에는)** 한국 대통령은 뭔가 일본 하면(이하 생략)(NJA-6)

(24)와 (25)의 오류는 초급 수준 1회, 고급 수준 2회로 총 3회 나타났다. (24)의 오류는 움직임·작용이 미치는 대상, (25)의 오류는 조건·환경·상태와 관련이 있다. (24)의 오류는 동사 '집중하다'와 그 대상을 함께 나타낼 때 '에'가 꼭 사용되어야 하는데 생략된 것이며 (25)도 '보기에는'의 형태로 관용적으로 사용되므로 '에'가 꼭 사용되어야 하는데 생략된

것이다.

(26) <u>가게(√가게에)</u> 화장실이 없는 가게가 많아서(이하 생략)(NJI-17)

(27) <u>거기(√거기에)</u> 실제로 가보고 싶다 해서 한국에 가 봤는데(이하 생략)(NJA-1)

(26)과 (27)의 오류는 중급과 고급 수준에 보였으며 중급 수준 2회, 고급 수준 2회로 총 4회 나타났다. 해당 오류는 처소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다수 나타났다. 한국어교육 전문가는 '에'의 다양한 의미·기능 중 진행 방향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에'의 생략 오류는 거의 자연스러운 생략으로 판정한 바 있다. 즉, 생략에 있어 처소의 의미·기능은 진행 방향보다 한국어 모어 화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③ 첨가 총 5회(초급: 0회, 중급: 4회, 고급: 1회)

첨가 오류는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보였다.

(28) (한국에) 오기 <u>전에까지는(√전까지는)</u> 한국 사람이 조금 차가운 이미지 있었는데(이하 생략)(NJI-8)

(29) 그때는 <u>처음에(√처음)</u> 간 해외여행이라서 너무 재미있었고(이하 생략)(NJI-13)

(30) '짜', '따', '싸' 이런 거? [1.0] 응응 <u>습득하기에(√습득하기)</u> 좀 어려워했습니다.(NJA-19)

(28)과 (29)의 오류는 중급 수준에서만 잘 보였으며 총 4회 나타났다. 해당 오류는 모두 시간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에'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8)은 '까지' 앞에 '에'가 중복 사용되었고 (29)은 '에'의 유무에 따른 의미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일어났다. 한편, (30)의 오류는 고급 수준에서

만 보였으며 조건·환경·상태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의미·기능과 관련된 생략 오류인 (25)와 정반대인 오류이다. ‘하기에’는 주로 구어에서 ‘그렇게 때문에’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해당 오류를 범한 연구 참여자는 ‘-기 (어렵다)’와 ‘-기에’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오류를 범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NJA-19는 “-기 (어렵다)’를 강조하면 ‘-기에 (어렵다)’가 되는 줄 알았다.‘고 응답하였다.

7)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는 의미·기능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에게’와 ‘한테’의 오류 양상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오류 내 비율, 오류율,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38], [표 Ⅳ-39] [표 Ⅳ-40], [표 Ⅳ-41]과 같다.

[표 Ⅳ-38]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제한된 범위	에게	1/3	0/0	0/1	1/2
	한테	0/11	0/0	0/4	0/7
행동이 미치는 대상	에게	5/22	5/11	0/3	0/8
	한테	5/51	5/13	0/18	0/20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	에게	1/5	0/1	1/2	0/2
	한테	0/3	0/0	0/1	0/2

[표 Ⅳ-39]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의 오류 내 비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제한된 범위	에게	14.29	0.00	0.00	100.00
	한테	0.00	0.00	0.00	0.00
행동이 미치는 대상	에게	71.42	100.00	0.00	0.00
	한테	100.00	100.00	0.00	0.00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	에게	14.29	0.00	100.00	0.00
	한테	0.00	0.00	0.00	0.00

[표 Ⅳ-40]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의 오류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제한된 범위	에게	33.33	0.00	0.00	50.00
	한테	0.00	0.00	0.00	0.00
행동이 미치는 대상	에게	22.73	45.45	0.00	0.00
	한테	9.80	38.46	0.00	0.00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	에게	20.00	0.00	50.00	0.00
	한테	0.00	0.00	0.00	0.00

[표 Ⅳ-41]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0	0	0	0
대치	6	6	0	0
생략	6	4	1	1
첨가	0	0	0	0

의미·기능 측면에서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의 오류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에게'와 '한테' 모두가 행동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기능에 오류가 집중되어 있고 초급 수준에서만 잘 나타났다는 데에 있다.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의 의미·기능별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초급 수준에서는 행동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오류가 나타난 반면,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해당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가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초급 수준에서는 '에게'와 '한테'의 행동이 미치는 대상과 관련하여 각각 5회씩 총 10회의 오류가 나타났으며 오류율도 각각 45.45%, 38.46%로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급 수준에서는 '에게'의 제한된 범위, 고급 수준에서는 '에게'의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오류가 각각 1회씩 나타났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분류 측면에서 부사격조사 '에게'와 '한테'의 오류에 있어 가장 큰 특성은 대치와 생략 오류에 집중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치 오류 총 6회(초급: 6회, 중급: 0회, 고급: 0회)

대치 오류는 '을'을 사용해야 하는데 '에게' 혹은 '한테'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초급 수준에서만 보였으며 총 8회 나타났다.

(1) 저는 **아번님에게(√아번님을)** 닮았다고 생각했는데(이하 생략)(NJE-6)
(2)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버지에게(√아버지를)** 닮았다 네.(NJE-16)
(3) 성격은 그:: 조금 아버지도 그리고 **엄마한테도(√엄마도)** 좀 할아버지 하고 좀 닮아서(이하 생략)(NJE-18)

(1)~(3)의 오류는 모두가 행동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앞서 부사격조사 '에'의 오류 중 행동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을'을 사용해야 하는데 '에'를 잘못 사용한 오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1)~(3)의 오류는 같은 맥락에서 나타난 오류이다. 다만, 행동이 미치는 대상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1)~(3)의 오류와 '에'의 오류의 차이는 해당 오류가 나타난 학습 수준에 있다. '에 닮다'와 같은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보인 반면, (1)~(3)처럼 '에게(한테) 닮다'와 같은 오류는 초급 수준에서만 보였다. 이 결과로부터 '닮다'와 관련된 조사 오류는 '에게(한테)'가 '에'보다 먼저 개선됨을 밝힐 수 있었다.

② 생략 총 6회(초급: 4회, 중급: 1회, 고급: 1회)

생략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보였다.

(4)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일관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렇 **일본인들도(√일본인들한테도)** **한국인들도(√한국인들한테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NJE-25)

(5) **친구들은(√친구들에게는)** 음:: 어머니?랑 비슷하고 아 닮았다는 말을 소리를 많이 들어요.(NJI-19)

(6) 항상 예외적인 것들은 **저만(√저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환경에서 산다는 게(이하 생략)(NJA-11)

(4)~(6)의 오류는 해당 의미·기능이 각각 다르며 (4)는 행동이 미치는 대상, (5)는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 (6)은 제한된 범위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4)~(6)의 오류를 범한 각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모두 오류를 인지할 수 있었으며 NJE-25와 NJI-19는 '말하면서 처음에 말하려고 했던 내용과 다르게 말하게 돼서 헷갈린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즉, 이는 구어의 특성인 즉각성에 따른 것이며 특히 구어에 나타나는 오류이다.

8) 부사격조사 '한테서'

부사격조사 '한테서'는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의 의미·기능 하나만 존재한다. 이에 오류 양상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및 오류율,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42], [표 Ⅳ-43], [표 Ⅳ-44]와 같다.

[표 Ⅳ-42] 부사격조사 '한테서'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	4/6	4/6	0/0	0/0

[표 Ⅳ-43] 주격조사 '한테서'의 오류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	66.67	66.67	0/0	0/0

[표 Ⅳ-44] 주격조사 '한테서'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분류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0	0	0	0
대치	4	4	0	0
생략	0	0	0	0
첨가	0	0	0	0

부사격조사 '한테서'의 오류에 있어 가장 큰 특성은 초급 수준의 한 명의 연구 참여자에 의해 모든 오류가 나타났으며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분류 측면에서는 대치 오류만 나타났다는 데에 있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치 오류 총 4회(초급: 4회, 중급: 0회, 고급: 0회)

(1) 아 성격은 아버지한테서도(**✓아버지하고도**) 그리고 엄마한테서도(**✓엄마하고도**) 닮았어요.(NJE-11)

(1)의 오류는 앞서 부사격조사 '한테'의 오류 중 (3)과 같은 맥락에서 나타난 오류이며 모어의 영향에 따른 전형적인 오류이다. 다만, (1)의 오류를 범한 연구 참여자는 원래 모어의 영향에 따라 '한테 닮다'처럼 표현하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테서'를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해당 연구 참여자는 오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되 '한테'와 '한테서'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이에 해당 오류를 범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NJE-11은 "'한테'와 '한테서'의 차이는 알고 있는데 잘못 사용했다."고 응답하였다. 즉, '한테'와 '한테서'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이 아니라 즉각성이 요구되는 구어 특유의 오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9) 부사격조사 '에서'

부사격조사 '에서'의 오류 양상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및 오류 내

비율, 오류율,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45], [표 Ⅳ-46], [표 Ⅳ-47], [표 Ⅳ-48]과 같다.

[표 Ⅳ-45] 부사격조사 '에서'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처소	26/426	13/92	5/140	8/194

[표 Ⅳ-46] 부사격조사 '에서'의 오류 내 비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처소	100.00	100.00	100.00	100.00

[표 Ⅳ-47] 부사격조사 '에서'의 오류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처소	6.10	14.13	3.57	4.12

[표 Ⅳ-48] 부사격조사 '에서'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0	0	0	0
대치	19	9	4	6
생략	5	2	1	2
첨가	2	2	0	0

의미·기능 측면에서 부사격조사 '에서'의 오류에 있어 가장 큰 특성은 처소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만 나타났고 오류 수나 오류율이 중급 수준보다 고급 수준이 높았다는 데에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사격조사 '에'에도 처소의 의미·기능이 존재하는데 해당 의미·기능과 관련된 '에'의 오류는 중급과 고급 수준 사이에서 개선이 보인 반면, '에서'의 오류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의 오류율을 살펴보면 중급 수준은 3.57%인 반면, 고급 수준은 4.12%이며 고급 수준이 중급보다 오류율이 높았다. 또한, '에'는 초급 수준에서 한 번도 오류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에서'는 초급 수준에서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에'와 '에서'를 처소의 의미·기능을 공유하되 초급 수준에서는 '에서'가

처소의 의미·기능을 가진 조사로서 인지하여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에 '에서'를 우선 사용한 결과, '에서'에만 오류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반면,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에'와 '에서'를 모두 처소의 의미·기능을 지닌 조사로 잘 인지하고 있으므로 '에'와 '에서' 모두에 오류가 골고루 보였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처소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에서'가 '에'보다 습득하기 어려운 조사임을 밝힐 수 있었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분류 측면에서 부사격조사 '에서'의 오류에 있어 가장 큰 특성은 대치 오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데에 있다. 또한, 다른 격조사에서 잘 보이지 않는 첨가 오류가 나타난 것도 특정적이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치 총 19회(초급: 9회, 중급: 4회, 고급: 6회)

대치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가장 잘 보였다. 대치 오류는 '으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서'를 잘못 사용한 오류와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서'를 잘못 사용한 오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으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서'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1) 뭔가 꾸미는 말이 많으니까 그게 약간 **일본어에서(√일본어로)** 느낌은 알겠는데(이하 생략)(NJA-6)

(1)의 오류는 고급 수준에서 1회 나타났다. (1)은 '일본어 내에서의'의 뜻으로 처소의 의미·기능으로 '에서'가 사용되었다. (1)는 움직임의 방향 수단·도구의 의미·기능을 지닌 '으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에'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서'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2) 어:: 이런 문화를 [1.0] 문화가 **일본에서(√일본에)** 없어서 다:: 제 제가 어:: 재밌었어요.(NJE-23)

(3) **한국에서도(√한국에도)** 좋은 거 많이 있어요.(NJE-24)

(4) 저의 남자친구는 방 **<u>안에서(√안에)</u>** 너무 엄청~ 큰 태국기? 붙이거나 (이하 생략)(NJI-19)

(5) **<u>일본에서는(√일본에는)</u>** 매운 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NJI-25)

(6) 제 고향에서 친구 **<u>중에서(√중에)</u>** 제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거 모르는 친구 없어요.(NJA-9)

(7) 한국 **<u>쪽에서(√쪽에)</u>** 좀 문제가 있=있는 거 아닐까? [1.0] 라고 생각을 고요(이하 생략)(NJA-10)

(2)~(7)의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보였으며 초급 수준 9회, 중급 수준 2회, 고급 수준 5회로 총 12회 나타났다. 해당 오류는 앞서 부사격 조사 '에'의 대치 오류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듯이 '에서'와 '에'가 공유하는 처소의 의미·기능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일어났다. 초급 수준과 고급 수준에서는 해당 오류가 많은 반면, 중급 수준에서는 '에서'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를 사용한 오류가 많았다. 이 결과는 초급 수준과 고급 수준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에서'의 공기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이유는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 있다. 초급 수준에서는 우선 처소의 의미·기능으로 '에서'를 학습하고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에서'의 공기관계가 일찍부터 형성된다. 그런데 초급 수준에서 (2)와 (3)과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면 중급 수준에서는 해당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에 '에'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에'의 공기관계가 새로 형성된다. 그런데 중급 수준에서 처소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에'의 오류를 범하게 되면 고급 수준에서는 다시 해당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에 '에서'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오류의 경험과 이를 예방하는 학습의 순환 때문에 학습 수준에 따라 오류 양상에 차이가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중급 수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후행 용언에 '가다'가 올 때 유일하게 오류가 나타났다.

(8) **시장에서(✓시장에)** 밥? 밥 전 먹으러 갔어요.(NJI-8)
(9) 일본어 공부하는 친구를 그 그 교류회 같은 **곳에서(✓곳에)** 감 가면서 찾았습니다.(NJI-21)

(8), (9)의 오류는 중급 수준에서 2회 나타났다. 중급 수준에서는 일부에 한해 후행 용언에 '가다'가 올 때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에서'의 공기관계가 부분적으로 형성된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생략 총 5회(초급: 2회, 중급: 1회, 고급: 2회)

생략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보였다.

(10) 약은 먹고 싶은데 **여기는(✓여기서는)** 어떻게 사면 되는지 잘 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NJE-12)

(11) 요즘은 많이 없지만 **화장실(✓화장실에서)**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것.(NJI-3)

(12) 토요일 (축구) 리그랑 일요일 (축구) 리그 토요일 **리그는(✓리그에서는)** (잘한다고) 그렇게 느낀 건 없었는데(이하 생략)(NJA-16)

(10), (11), (12)의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 보였으며 초급 수준 2회, 중급 수준 1회, 고급 수준 2회 총 5회 나타났다. (10), (11), (12)의 오류는 각 해당 오류를 보인 연구 참여자가 주격조사 '이'나 목적격조사 '을'처럼 '에서'도 구어에서 생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생략하였거나 구어의 특성인 즉각성에 따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간에 바뀌어서 문장의 호응관계가 어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오류를 범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NJI-3은 전자의 이유, NJE-12와 NJA-16은 후자의 이유로 생략하였음을 밝혔다. 앞서 처소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도 생략 오류가 많이 보였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처소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조사 사용에서는 생략하지 않도록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③ 첨가 총 2회(초급: 2회, 중급: 0회, 고급: 0회)

첨가 오류는 초급 수준에서만 보였으며 2회 나타났다.

(11) 그:: 자동차로 사용하지 못 [2.0] **여기서에서(√여기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좀 불편해요.(NJE-5)

(11)의 오류는 '에서'의 축약형인 '서'와 지시대명사 '여기'가 결합된 '여기서'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뒤에 다시 한 번 '에서'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이는 초급 수준에서 일부 연구 참여자가 '여기서'의 '서'가 '에서'의 축약형인지를 모른 채 사용한 것에 기인한다. 이에 해당 오류를 범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NJE-5가 '서'가 '에서'의 축약형임을 모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 부사격조사 '과'와 '이랑'

부사격조사 '과'와 '이랑'은 의미·기능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오류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부사격조사 '과'와 '이랑'의 오류 양상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오류 내 비율, 오류율,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49], [표 Ⅳ-50], [표 Ⅳ-51], [표 Ⅳ-52]와 같다.

[표 Ⅳ-49] 부사격조사 '과'와 '이랑'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함께 하거나 상대로 하는 대상	이랑	3/90	0/22	3/38	0/30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	과	1/11	1/6	0/3	0/2
	이랑	1/93	1/13	0/46	0/34

[표 Ⅳ-50] 부사격조사 '과'와 '이랑'의 오류 비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함께 하거나 상대로 하는 대상	이랑	75.00	0.00	100.00	0.00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	과	100.00	100.00	0.00	0.00
	이랑	25.00	0.00	0.00	0.00

[표 Ⅳ-51] 부사격조사 '과'와 '이랑'의 오류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함께 하거나 상대로 하는 대상	이랑	3.33	0.00	7.89	0.00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	과	9.09	16.67	0.00	0.00
	이랑	1.08	0.00	0.00	0.00

[표 Ⅳ-52] 부사격조사 '과'와 '이랑'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3	1	2	0
대치	2	1	1	0
생략	0	0	0	0
첨가	0	0	0	0

의미·기능 측면에서 부사격조사 '과'와 '이랑'의 특성은 거의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찾을 수 없었다. 부사격조사 '과'와 '이랑'의 의미·기능별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초급 수준에서는 비교·기준의 대상과 관련된 '과'의 오류 1회,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과 관련된 '이랑'의 오류 1회 총 2회 나타났고 중급 수준에서는 함께 하거나 상대로 하는 대상과 관련된 '이랑'의 오류가 총 3회 나타났다.

한편,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분류 측면에서 부사격조사 '과'와 '이랑'의 오류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은 형태와 대치 오류에 집중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음과 같다.

① 형태 총 3회(초급: 1회, 중급: 2회, 고급: 0회)

형태 오류는 초급과 중급 수준에서 보였으며 초급 수준 1회, 중급 수준 2회 총 3회 나타났다.

(1) 예줄(예절)가 좀 **일본토(√일본과)** 다른 점이가 아:: 좀 나쁜 점이다 [1.0] 라고 생각해요.(NJE-11)

(2) 일본에 사면(살면) 절대 만나지 못한 **사람들랑(√사람들이랑)** 만나는 거는 진짜 좋아 좋아 좋은 겄다(것 같다)고 생각해요.(NJI-13)

(1)의 오류는 비교의 기준이 되는 대상과 관련된 것이며 '과'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 'と(to)'를 잘못 사용하여 나타났다.[77] 일반적으로 형태 오류는 이형태 오류로 나타나는데 '과'는 특이하게도 이형태를 가진 다른 조사와 달리 이형태 오류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이랑'은 이형태 오류가 나타났다. (2)의 오류는 함께 하거나 상대로 하는 대상과 관련된 것이며 '이랑'을 사용해야 하는데 '랑'을 사용한 것이다.

② 대치 총 2회(초급: 1회, 중급: 1회, 고급: 0회)

대치 오류는 초급과 중급 수준에서 보였으며 초급 수준 1회, 중급 수준 1회로 총 2회 나타났다.

(3) 홍대 갔어요. ○○대학교 **친구랑(√친구를)** 만나러 갔어요.(NJE-30)

(4)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랑(√친구들에게)** 한국 과자를 음 주고 싶어서 그래서 천안에 아 천안 마트에 가서 과자를 샀어요.(NJI-17)

(3)의 오류는 함께 하거나 상대로 하는 대상과 관련된 것이며 '을'을

77) (1)의 경우 연구 참여자가 '이랑'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를 수정할 때 '과'로 수정하였다.

사용해야 하는데 '이랑'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78] (4)의 오류는 구어의 특성인 즉각성에 따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중간에 바뀌어서 문장의 호응관계가 어색해진 것이다.

3.2. 보조사

1) '은'

보조사 '은'의 오류 양상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오류 내 비율, 오류율,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53], [표 Ⅳ-54], [표 Ⅳ-55], [표 Ⅳ-56]과 같다.

[표 Ⅳ-53] 보조사 '은'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대조	은	43/617	16/140	16/242	11/235
	ㄴ	0/28	0/1	0/9	0/18
주제	은	38/1088	18/293	16/419	4/376
	ㄴ	1/32	0/1	1/12	0/19
강조	은	9/266	1/32	0/108	8/126
	ㄴ	0/33	0/0	0/9	0/24

[표 Ⅳ-54] 보조사 '은'의 오류 내 비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대조	47.78	45.71	50.00	47.83
주제	42.22	51.43	50.00	17.39
강조	10.00	2.86	0.00	34.78

78) NJE-30을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와 다른 학교에서 교환 유학 중인 친구를 만나러 홍대에 갔다는 내용임을 확인하였다.

[표 Ⅳ-55] 보조사 '은'의 오류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대조	6.97	11.43	6.61	4.68
주제	3.49	6.14	4.82	1.06
강조	3.38	3.13	0.00	6.35

[표 Ⅳ-56] 보조사 '은'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5	1	4	0
대치	36	17	11	8
생략	38	17	13	8
첨가	11	0	4	7

의미·기능 측면에서 보조사 '은'의 오류에 있어 가장 큰 특성은 주제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가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오류가 확실히 개선된 반면, 대조나 강조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는 개선 폭이 느슨하거나 고급 수준에서 오히려 많아졌다는 데에 있다.

보조사 '은'의 의미·기능별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사용 양상과 다르게 나타났다. 사용 양상에서는 주제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사용 수가 가장 많았던 반면, 오류 양상에서는 대조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 수가 가장 많았고 오류율도 다른 의미·기능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은'의 의미·기능 중 대조의 의미·기능을 가장 잘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주제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은'은 선행연구를 통해 일본어가 '우체국은 어디예요?'처럼 신정보에도 '은'이 사용되므로 이와 관련된 오류가 학습 수준과 상관없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런데 주제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는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 수준별로 대조와 주제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은'의 오류율을 살펴보면 대조의 의미·기능은 초급과 중급 수준 사이에서 크게 개선되었다가 중급과 고급 수준 사이에서 느슨한 개선 폭을 보인 반면, 주제의 의미·기능은 각 학습 수준 사이에서 확실히 개선되는

양상이 확인되며 고급 수준에서는 오류율이 1.06%까지 줄어들었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주제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은'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대조의 의미·기능과 함께 강조의 의미·기능도 잘 사용하지 못한다. 강조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가 고급 수준에서 가장 많이 보였고 오류율도 가장 높다.

한편,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분류 측면에서 보조사 '은'의 오류에 있어 가장 큰 특성은 네 가지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가 골고루 보였고 그중 대치와 생략 오류에 집중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형태 오류 총 5회(초급: 1회, 중급: 4회, 고급: 0회)

'은'의 형태 오류는 격조사와 달리 중급 수준에 잘 보였으며 초급 수준 1회, 중급 수준 4회로 총 5회 나타났다. '은'의 형태 오류의 특성은 '은'→'는' 혹은 '는'→'은'처럼 양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선행 체언에 받침이 존재할 때 '은'을 사용해야 하는데 '는'을 잘못 사용하여 나타난 오류가 전부이었다는 데에 있다. 이는 주격조사 '이'와 목적격조사 '을' 등 많은 격조사에서도 보인 특성이다.

(1) 아:: 어려운 **<u>점는(√점은)</u>** 음:: [2.0] 아 좀 음:: 그런 일본어에 없슨 천음(발음)이나(이하 생략)(NJE-29)

(2) 한국은 컴퓨터나 **<u>휴대폰는(√휴대폰은)</u>** 너무 맞 아! 저:: 잠시만요.(NJI-4)

(3) 제가 제일 좋아하는 **<u>음식는(√음식은)</u>**? 에 딸기예요.(NJI-25)

(1)~(3)의 오류는 격조사의 형태 오류처럼 자동화 처리가 되지 못하여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은'→'는'의 방향으로만 오류가 나타난 것도 일본어가 가진 음운적인 특성에 따라 교재에서 개음절 형태

인 ‘는’이 우선 제시되는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은’의 형태 오류는 격조사와 유사점이 많다. 지금까지 조사 형태 오류의 특성을 종합하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ㄴ’, ‘ㅁ’, ‘ㄱ’(‘는’과의 결합에 따라 ‘ㅇ’)’ 등 비음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서 개음절 형태를 잘못 사용하는 오류가 자주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② 대치 총 36회(초급: 17회, 중급: 11회, 고급: 8회)

대치 오류는 ‘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은’을 잘못 사용한 오류와 ‘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을’을 잘못 사용한 오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은’을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4) 나는 요리를 전부 [1.0] 전부 먹을 수 없는 **<u>것은(√것이)</u>** 음:: 많이 있습니다.(NJE-3)
(5) 나쁜 것은 어:: (일본) **<u>사람들은(√사람들이)</u>** 정말 [1.0] 말하고 싶은 것을 안 말하는 거에 있어요.(NJE-8)
(6) 저는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싫은 **<u>것은(√것이)</u>** 특히 없어요.(NJE-9)

(7) 한국 요리는 음:: 전반적으로 매운데 일본 요리는 매운 **<u>거는(√거가)</u>** 별로 없는 것 같아요.(NJI-2)
(8) 전 라면보다 우동나 모쓰나베(곱창전골) 이런 **<u>거는(√거가)</u>** 더 맛있는 것 같아요.(NJI-23)

(9) (집주인) 아줌마는 그럼 집 **<u>자체는(√자체가)</u>** 오래되기도 했고 요즘 비가 많이 왔으니까(왔는데) 그런 그런 상태에(상태인데도) 좀 약간 [1.0] 나중에 고치겠다(구쳐주겠다)? [1.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이하 생략)(NJA-5)

(4)~(9)의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보였는데 특히 초급과 중급 수준에서 비교적 잘 보였다. 초급 수준 14회, 중급 수준 8회, 고급 수준 3회로 총 25회 나타났다. (4)~(9)는 모두 문장 앞부분에서 주제의 ‘은’이

사용되었으므로 그 뒤에서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주어를 나타내는 주격조사 '이'가 사용되어야 자연스럽다. 그런데 (4)~(9)에서는 주격조사 '이' 대신 '은'이 다시 사용되었으며 앞부분에서 사용된 주제의 '은'과 함께 한 문장에서 '은'이 연달아 두 번 사용되었다. 이러한 경우, 뒷부분에서 사용된 '은'은 주제의 '은'이 아니라 대조의 '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대조의 '은'의 용례를 살펴보면 대조의 '은'은 주제의 '은'과 달리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 구조로 제시되었다. 즉, 한국어는 대조의 '은'을 사용하려고 하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처럼 대조의 대상과 대조의 '은'이 두 번씩 나타나는 문장 구조가 형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구 참여자들의 대조의 '은'과 관련하여 오류로 판단된 문장들을 살펴보면 대조의 대상과 대조의 '은'이 한 번씩 나타난 경우가 전부이다. 즉, 한국어는 대조의 '은'을 사용할 때 대조의 대상과 대조의 '은'이 두 번씩 나타나는 문장 구조이어야 자연스럽다. 또한, 고영근·구본관(2008:161)에서도 대조의 대상이 없는 경우 대조의 의미·기능이 잘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때 '은'의 의미·기능을 소극적인 배제로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은'의 사용이 일반적이지 아니므로 한국인 모어 화자가 특히 비교의 대상이 없는데도 '은'이 두 번 연달아 나타나는 경우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어는 한국어에 비해 홑문장 구조로도 대조나 강조의 '은'이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일본어는 'この橋は、小型車は渡ることができる。(이 다리는 소형차는 건널 수 있다.)'와 같은 문장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자주 보인다. 이 문장에서는 '소형차'에 대한 언급만 찾을 수 있으나 이 문장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이 다리는 (대형차는 건널 수 없지만) 소형차는 건널 수 있다'이다. 모리타(森田, 2007:163-164)는 '은'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 'は(wa)'에 '대비 강조의 주제(對比强調の主題)'의 의미·기능이 존재함을 밝혔는데 이는 대비, 즉 대조를 강조한 주제의 의미·기능에 분류된다. 즉, 일본어는 주제의 'は(wa)'가 두 번 연달아 사

용되는 경우가 흔하며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은'이 연달아 두 번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수용의 척도가 한국어 모어 화자에 비해 느슨한 결과 이러한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급 수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오류도 보였다.

(10) 제가 한국어를 공부 [1.0] 시작한 이유는 한국에 유학 오기 전에 **저는(✓제가)** 호구 호주에 유학 갔다왔을 때(이하 생략)(NJI-25)

(10)의 오류는 (4)~(9)와 달리 종속접속문에서 '은'을 사용한 경우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종속접속문에서는 '은'을 사용할 수 없고 꼭 주격조사 '이'를 사용해야 한다. (10)의 오류가 한 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나타났고 해당 연구 참여자에게서도 한 번만 보인 것으로 즉각성이 요구되는 구어 특유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해당 오류를 범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NJI-25는 "저는 문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일본어로 말했다면 '는'이 아니라 '가'를 사용했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은'을 잘못 사용하여 나타난 오류이다.

(11) 제가 음:: 중국어를 할 수 있어서 음:: 다른 다른 [1.0] **중국어는(✓중국어를)** 음:: 영어보다 음::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지(많지) 않아서(이하 생략)(NJE-31)

(12) 개인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음 흉내? 모노마네(흉내)? **흉내는(✓흉내를)** 좋아해서(이하 생략)(NJI-4)

(13) 그거는 저는 좀 **이해는(✓이해를)** 못하는 점이 많지만 역사 쪽으로 보면 이쪽이나 이쪽(저쪽)이나 그런 거잖아요.(NJA-2)

(14) 만약에 친구 집에 갔는데 걔가 **점심은(✓점심을)** 먹고 집에 가라 했으면은~ 일본에서는 그게 다테마에(체면치레)일 수도 있잖아요.(NJA-13)

(15)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좋은 점이나 뭐 [1.0] 많이 소개하거나 일본어

조금 간단한 **단어들은(✓단어들을)** 알려드리거나 그런 거는 했었어요. (NJA-18)

(11)~(15)의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보였는데 고급 수준에서 비교적 많이 보였다. 초급 수준 3회, 중급 수준 3회, 고급 수준 5회 총 11회 나타났다. (11)~(15)의 오류는 (4)~(9)와 같은 맥락에서 일어났다. 한국어는 '은'보다 '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이다.

③ 생략 총 38회(초급: 17회, 중급: 13회, 고급: 8회)

생략 오류는 의미·기능에 따라 주제의 '은'과 관련된 오류와 대조의 '은'과 관련된 오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주제의 '은'과 관련된 오류이다.

(16)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청국장은)** 건강하고 또 뭔가 고소하고 그런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왜 좋아하는지 [2.0] 너무 맛있어서 좋아합니다.(NJE-21)

(17) 그런데 안 못하는 거는(안 좋은 거는) 공기나 도로가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제가 살아서 **생각하는 거(✓생각나는 거는)** 이런 것 같 이런 거 같습니다.(NJI-21)

(18) 아! 일본은 너무 보수적이죠. 보수적인 게 좀 나쁜 점? 음:: **저(✓저는)** 별로 좋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NJA-7)

(16)~(18)의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보였으며 초급 수준 4회, 중급 수준 3회, 고급 수준 3회로 총 10회 나타났다. 해당 오류는 각 문장에서 상대높임법 중 가장 격식이 높은 합쇼체를 사용하고 조사의 생략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주제의 '은'만 생략이 일어난 경우이다. 이러한 오류는 주격조사 '이'나 목적격조사 '을'에도 나타났듯이 격식성을 지닌 구어 유형에서 조사를 지나치게 생략하는 것이나 문장 중 어느 하나의

조사만 생략하는 것은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둘째, 대조의 '은'과 관련된 오류이다.

(19) 기숙사가 너무 깨끗해서 깨끗해 보여서 왔는데 **지금(√지금은)** 자취하고 있어요.(NJE-4)

(20) **문법적으로(√문법적으로는)** 괜찮지만 그냥 그:: 말하려고 할 때는 좀 힘들게 생각합니다.(NJE-5)

(21) (좋은 거는) 에:: 버스가 천천히 가는 것. **나쁜 거(√나쁜 거는)** 교통비가 비싸 비싸는 것.(NJE-6)

(22) 일본인은 1인당 씩 먹는 음식을 중심으로 하고 근데 **한국인(√한국인은)** 다 같이 먹는 음:: 식문화 그런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NJI-1)

(23) 한국인은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편이라고 느꼈어요. **일본인(√일본인은)** 말을 돌려서 말하잖아요.(NJI-2)

(24) 처음에 왔을 때는 약간 문화 차이도 많이 있었고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었는데 **지금(√지금은)** 뭔가 음:: 그런 문화도 많이 이해하고(이하 생략)(NJI-10)

(25) 택배가 한국은 밤 열한 열두 시에 시키면 새벽 네 시에 와요. **일본에서(√일본에서는)** 택배를 빠른 걸 시켜도 하루는 걸려요 네.(NJA-1)

(26) 집에 배치되어 있는 **화장실(√화장실은)** 괜찮긴 한데 밖에 나갔을 때 그:: 그:: 식당에서 식당이나 그 다른 데에서 다른 데에 있는 **화장실(√화장실은)** 좀 더러운 인상들을 받았습니다 저도.(NJA-15)

(19)~(26)의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보였으나 특히 초급과 중급 수준에서 잘 보였다. 초급 수준 13회, 중급 수준 10회, 고급 수준 5회 총 28회 나타났다. 해당 오류는 앞뒤 두 문장 혹은 하나의 문장 안에 대조의 대상이 두 번 나타나 앞뒤 내용을 대조하는 의도가 분명하지만 주로 뒷부분에서 대조의 '은'을 생략한 경우이다. 다만, 해당 오류를 보인 연구 참여자의 대조의 '은'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사용된 대조의

‘은’도 다수 보였다. 따라서 대조의 ‘은’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기보다는 즉각성이 요구되는 구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에 집중하느라 앞서 말한 내용이나 조사 사용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초급과 중급 수준에서 해당 오류가 유난히 많이 보인 것은 학습 수준이 낮을수록 구어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가 많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오류를 범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중급과 고급 수준의 연구 참여자는 오류를 인지할 수 있었던 반면, 초급 수준의 연구 참여자는 오류를 인지할 수 없었다. NJE-4는 ‘구어여서 조사를 쓰고 안 쓰고는 자유인 줄 알았다.’고 응답하였다. 즉, 초급 수준에서는 (16)~(18)의 오류와 마찬가지로 격식성을 지닌 구어 유형에서 무분별하게 조사를 생략하였으므로 오류가 나타났다.

한편, 중급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오류도 보였다.

(27) 제가 **저한테(√저한테는)** 음:: (생선을)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초밥이 좋아해요.(NJI-11)

(27)의 오류는 중급 수준에서만 2회 나타났다. 해당 오류는 대조의 ‘은’을 생략한 오류이다. 앞서 (27)은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초밥이 생선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임을 뜻한다. 즉, 생선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부사격조사 ‘한테’ 뒤에 대조의 ‘은’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④ 첨가 총 11회(초급: 0회, 중급: 4회, 고급: 7회)

첨가 오류는 중급과 고급에서만 보였으며 부사나 부사어에 ‘은’을 잘못 사용하였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28) **요즘은(√요즘)** 생긴 친구가 어:: 한국에 [1.0] 아:: 워킹홀리데이나 유학 이런 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하는데(이하 생략)

(NJI-2)

(29) 제가 선생님이나 친구이랑 대화할 때 많이 선생님이나 그:: 친구가 **저한테는(✓저한테)** 많이 (한국어) 잘했다(잘해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이하 생략)(NJI-24)

(28), (29)의 오류는 중급 수준에서 각 2회 나타났다. (28)은 주제의 '은', (29)는 대조의 '은'을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중급 수준에서는 의미·기능과 상관없이 부사 혹은 부사어에 습관적으로 '은'을 사용하여 오류가 나타났다. 이는 해당 연구 참여자가 평상시 '요즘'이나 '저한테'를 사용할 때 '은'을 꼭 사용하는 습관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해당 연구 참여자는 '요즘'과 '요즘은'을 같은 의미로 간주하는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해당 오류를 범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NJI-2는 "'요즘'과 '요즘은'의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항상 '요즘은'처럼 사용하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즉, 연구 참여자에 따라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에 처소의 '에' 혹은 '에서'와 공기관계가 형성되어 후행 용언과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고정된 사용이 보인 것처럼 '은'에도 같은 양상이 보인다.

(30) 아르바이트는 그냥 [1.0] 번역 같은 업무도 하고 그랬는데 **주로는(✓주로)** 기록학이랑 기록학이랑 연관이 있는 그냥 문서 정리라든가 그런 업무를 많이 했어요.(NJA-1)

(31)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사실은(✓사실)** 많이 있는데(이하 생략)(NJA-18)

(32) **일단은(✓일단)** 한국에 오고 나서는 느낀 느껴진 게(이하 생략)(NJA-20)

(30)~(32)의 오류는 고급 수준에서 7회 나타났으며 모두 강조의 '은'을 잘못 사용하여 나타난 오류이다. 고급 학습자는 '주로', '사실', '일단' 등의 부사에 강조의 '은'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보였는데 그중 (30)~(32)는 (28)과 (29)처럼 부사에 습관적으로 '은'을 사용하여 오류가 나타났다. 결국 고급 수준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도 '은'의 유무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거나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아 크게 신경

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오류를 범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NJA-18은 “이 상황에서는 ‘사실’을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입버릇처럼 ‘사실은’을 사용하는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NJA-20은 “제 친구가 ‘일단은’처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처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은’의 첨가 오류는 부사나 부사어에 ‘은’이 함께 사용될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이를 단순화하여 부사나 부사어에 꼭 ‘은’을 함께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연구 참여자에게서 보이는 오류임을 밝힐 수 있었다.

2) ‘도’

보조사 ‘도’의 오류 양상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오류 내 비율, 오류율,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57], [표 Ⅳ-58], [표 Ⅳ-59], [표 Ⅳ-60]과 같다.

[표 Ⅳ-57] 보조사 ‘도’의 의미·기능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더함	14/547	6/67	2/174	6/306
똑같이 아우름	6/183	5/61	0/50	1/72
감정의 강조	1/21	0/0	0/9	1/12

[표 Ⅳ-58] 보조사 ‘도’의 의미·기능별 오류 비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더함	66.67	54.55	100.00	75.00
똑같이 아우름	28.57	45.45	0.00	12.50
감정의 강조	4.76	0.00	0.00	12.50

[표 Ⅳ-59] 보조사 '도'의 의미·기능별 오류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더함	2.56	8.96	1.15	1.96
똑같이 아우름	3.28	8.20	0.00	1.39
감정의 강조	4.76	0.00	0.00	8.33

[표 Ⅳ-60] 보조사 '도'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0	0	0	0
대치	10	6	1	3
생략	11	5	1	5
첨가	0	0	0	0

의미·기능 측면에서 보조사 '도'의 오류에 있어 가장 큰 특성은 중급 수준에서 '도'의 모든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 수나 오류율이 낮았다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 격조사나 보조사 '은'의 오류 양상을 통해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오류 수나 오류율이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거듭 확인하였다. 그런데 '도'에는 학습 수준별 오류 수나 오류율에 규칙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도'와 관련된 오류는 개인차가 큰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즉, 각 학습 수준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 중 '도'의 사용에 오류가 나타나는 참여자와 나타나지 않는 참여자가 확실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보조사 '도'의 의미·기능별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도'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가 매우 적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도'를 잘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급 수준에서는 중급과 고급 수준에 비해 오류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충분한 사용 수가 확인되는 더함과 똑같이 아우름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오류율이 0.00~1.96%인 반면, 초급 수준에서는 오류율이 8.20~8.96%로 큰 차이가 보였다.

한편,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분류 측면에서 '도'의 오류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은 모든 오류가 대치와 생략 오류에 집중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첨가 오류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치 총 10회(초급: 6회, 중급: 1회, 고급: 3회)

대치 오류는 더함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 바스 버스 타면 아줌마가 아 음:: '아가씨 어디서 왔어요?'라고 **몇 번도(√번이나)** 물 물어(물었어요.).(NJE-11)

(1)의 오류는 초급 수준에서 1회 나타났다. 해당 오류는 놀람의 '이나'를 사용해야 하는데 더함의 '도'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이며 일본어는 '도'에 해당하는 'も(mo)'에 놀람의 의미·기능이 존재하므로 해당 연구 참여자는 '도'를 사용한 것이다.

(2) 상임(쌍비읍) 같은 발음이 좀 어려워서 잘 못하겠었어요. **저도(√저는)** 지금도 못해요.(NJE-9)
(3) '아 좀 한국 사람 한국 사람스런 이런 **느낌도(√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네.(NJE-32)

(4) 너무 개인 생활에 들어오는 게 조금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뭐지? **지금도(√지금은)** 괜찮은데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아직까지 익숙치 못하는 면도 있어요.(NJI-1)

(5) 유튜브로 한국 노래 어떤 게 있을까 싶었는데 그때 찾았던 게 2009년이었던 **그때도(√그때가)**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NJA-5)

(2)~(5)의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보였으며 초급 수준 5회, 중급 수준 1회, 고급 수준 3회로 총 9회 나타났다. 해당 오류는 모두 더함의 의미·기능으로 '도'가 사용되었는데 그 직전의 문장이나 앞부분에 더함의 의미·기능을 사용할 만한 대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사용되었다. (2), (3), (5)는 문맥상 해당 연구 참여자가 말로 표현하지 않았으나 머릿속에서 더함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말하였으므로 이러한 오류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는 그 직전의 문장에서 쌍비읍 발음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때 본인 외에 주변에 쌍비읍 발음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고려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해당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NJE-9는 "기억이 잘 안 나서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쌍비읍 발음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추가로 NJE-32와 NJA-5에게도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응답하지 못하였다. 반면, (4)는 NJE-1가 "앞에서 '지금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수로 말한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즉, 즉각성이 요구되는 구어 특유의 오류로 볼 수 있다.

② 생략 총 11회(초급: 5회, 중급: 1회, 고급: 5회)

생략 오류는 학습 수준에 따라 관련된 의미·기능이 다르다. 초급 수준에서는 똑같이 아우름,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더함, 고급 수준에서는 강조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가 보였다.

(6) 음:: 아마 저는 [2.0]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아:: **일본을 대해서(√대해서도)** 음:: **한국에 대해서(√대해서도)** 좋은 것만 배우 가르쳐요.(NJE-29)

(7) 성격은 [2.0] 그:: 조금 아버지한테서도 그리고 [1.0] 엄마한테도 한테서도 좀 **할아버지하고(√할아버지하고도)** 좀 닮아서 [1.0] 좀 들어요 들어요.(NJE-31)

(6)과 (7)의 오류는 초급 수준에서만 보였으며 5회 나타났다. 똑같이 아우름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6)처럼 '도'가 모두 생략된 경우가 있고 (7)처럼 뒷부분에 '도'가 생략된 경우가 있다.

(8) 일본도 아 **한국(√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이 더 처음에 만난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하고(이하 생략)(NJI-14)

(9) 일본 사람들은 주문 주택을 그니까 선택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뭐지? 아파트 같은 데를 선택하시는 **분들(√분들도)** 되게 많겠지만 (이하 생략)(NJA-11)

(10)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옷가게도 있고 밥 먹는 **데(√데도)** 있고 카페도 있고.(NJA-14)

(8)~(10)의 오류는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보였으며 중급 수준 1회, 고급 수준 4회 총 5회 나타났다. 더함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6), (7)과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도'가 생략된 경우가 많았다. 즉, (6)~(10)은 대조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은'의 오류 중 (19)~(26)처럼 즉각성이 요구되는 구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에 집중하느라 앞서 말한 내용이나 조사 사용과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1) 지금 약간 천천히 말하면 할 수 있는데 [1.0] 까 빠르게 말하면 **아직(√아직도)** 안 되는 것 같아요.(NJA-17)

(11)의 오류는 고급 수준에서만 보였으며 1회 나타났다. 해당 오류는 부사 '아직'과 함께 '도'가 사용된 것으로 강조의 의미·기능과 관련하여 나타난 것이다. (11)은 문맥상 원래 고급 수준이면 한국어 모어 화자의 빠른 말도 당연히 알아들어야 하는데 본인은 고급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도'가 있는 것이 더욱 더 자연스럽다.

3) '만'

보조사 '만'의 오류 양상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오류 내 비율, 오류율,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61], [표 Ⅳ-62], [표 Ⅳ-63], [표 Ⅳ-64]와 같다.

[표 Ⅳ-61] 보조사 '만'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한정	2/66	0/7	2/23	0/36

[표 Ⅳ-62] 보조사 '만'의 오류 비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한정	100.0	0.00	100.0	0.00

[표 Ⅳ-63] 보조사 '만'의 오류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한정	3.03	0.00	8.70	0.00

[표 Ⅳ-64] 보조사 '만'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0	0	0	0
대치	1	0	1	0
생략	0	0	0	0
첨가	1	0	1	0

보조사 '만'의 오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오류의 특성을 찾을 수 없었다. '만'의 오류는 중급 수준에서만 한정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가 2회 나타났다. '만'의 오류를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분류하면 대치 1회, 첨가 1회로 나타났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치 총 1회(초급: 0회, 중급: 1회, 고급: 0회)

(1) 티비 보면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음 뭔가 보고 있을 때 조금 하는 **거만(√거뿐)**이에요.(NJI-19)

(1)의 오류는 ‘만’과 ‘뿐’의 쓰임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나타났다. 해당 연구 참여자는 ‘만’이 ‘뿐’처럼 ‘뿐이다’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거나 ‘뿐’ 자체를 모르므로 ‘뿐’ 대신 ‘만’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오류를 범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NJI-19는 “‘만’과 ‘뿐’ 모두 알고 있는데 ‘만’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고 응답하였다. 즉, ‘만’과 ‘뿐’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난 오류임을 밝힐 수 있었다.

② 첨가 총 1회(초급: 0회, 중급: 1회, 고급: 0회)

(2) 그 유학 유학으로 가면은 음 그 말하기랑 듣기가 **<u>좀만(√좀)</u>**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서 가게 됐습니다.(NJI-16)

(2)는 말하기와 듣기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 유학을 가기로 하였다는 뜻이다. (2)의 오류는 유학을 하러 가게 되면 말하기와 듣기의 실력이 대폭 향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학을 하러 가기 전부터 실력 향상을 ‘만’을 사용하여 한정하면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오류가 나타난 배경에는 해당 연구 참여자에게 평소에 ‘좀만(조금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마다’

보조사 ‘마다’의 오류 양상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오류 내 비율, 오류율,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65], [표 Ⅳ-66], [표 Ⅳ-67], [표 Ⅳ-68]과 같다.

[표 Ⅳ-65] 보조사 ‘마다’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낱낱이 모두	1/5	1/2	0/1	0/2

[표 Ⅳ-66] 보조사 '마다'의 오류 내 비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낱낱이 모두	100.00	100.00	0.00	0.00

[표 Ⅳ-67] 보조사 '마다'의 오류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낱낱이 모두	20.00	50.00	0.00	0.00

[표 Ⅳ-68] 보조사 '마다'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0	0	0	0
대치	1	1	0	0
생략	0	0	0	0
첨가	0	0	0	0

보조사 '마다'는 오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오류의 특성을 찾을 수 없었다. 초급 수준에서 낱낱이 모두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가 1회 나타났다. '마다'의 오류를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분류하면 대치가 1회 나타났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치 총 1회(초급: 1회, 중급: 0회, 고급: 0회)

(1) 아 처음은 일주일 동안 왔는데(와 있었는데) 그때는 아 콘무르(건물)나 사람 보고 아 일본 **사람마다(√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NJE-33)

(1)의 오류는 '과'를 사용해야 하는데 '마다'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마다’는 초급 수준의 조사로 분류되나 평상시에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 조사이므로 특히 초급 수준에서는 사용 빈도가 낮은 조사가 지닌 의미·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1)처럼 오류가 나타난다.

5) ‘이나’

보조사 ‘이나’의 오류 양상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오류 내 비율, 오류율,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69], [표 Ⅳ-70], [표 Ⅳ-71], [표 Ⅳ-72]와 같다.

[표 Ⅳ-69] 보조사 ‘이나’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놀람	1/2	0.00	0.00	1/2

[표 Ⅳ-70] 보조사 ‘이나’의 오류 내 비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놀람	1/100.00	0.00	0.00	1/100.00

[표 Ⅳ-71] 보조사 ‘이나’의 오류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놀람	50.00	0.00	0.00	50.00

[표 Ⅳ-72] 보조사 ‘이나’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0	0	0	0
대치	1	0	0	1
생략	0	0	0	0
첨가	0	0	0	0

보조사 ‘이나’는 오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오류의 특성을 찾을

수 없었다. 고급 수준에서 놀람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가 1회 나타났다. '이나'의 오류를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분류하면 대치가 1회 나타났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치 총 1회(초급: 0회, 중급: 0회, 고급: 1회)

(1) 요즘은 (공기가) 꽤 안 좋습니다. **<u>많이나(√많이도)</u>** 더러워졌죠.(NJA-10)

(1)의 오류는 부사 '많이'에 놀람의 '이나'를 잘못 결합하여 나타났다. 해당 연구 참여자는 최근에 들어 한국의 대기질 오염이 매우 심각해졌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많이나'처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는 강조의 '도'를 사용하여 '많이도'처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해당 오류는 특정 부사 혹은 부사어와 특정 조사와의 공기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오류를 보인 해당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NJA-10은 "많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너무'가 있고 '너무'는 '너무나'처럼 강조할수 있으니까 '많이'도 '많이나'처럼 강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고 응답하였다.

3.3. 접속조사

1) '이랑'

접속조사 '이랑'은 같은 자격으로 이어줌의 의미·기능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 수준별 오류 양상만 살펴보고자 한다. 보조사 '이랑'의 오류 양상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오류율,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73], [표 Ⅳ-74], [표 Ⅳ-75]와 같다.

[표 Ⅳ-73] 접속조사 '이랑'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같은 자격으로 이어줌	4/122	3/16	1/46	0/6

[표 Ⅳ-74] 접속조사 '이랑'의 오류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같은 자격으로 이어줌	3.28	18.75	2.17	0.00

[표 Ⅳ-75] 접속조사 '이랑'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4	3	1	0
대치	0	0	0	0
생략	0	0	0	0
첨가	0	0	0	0

접속조사 '이랑'의 오류에 있어 가장 큰 특성은 초급 수준에서 높은 오류율을 보였으나 초급과 중급 수준 간에서 오류율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데에 있다.

접속조사 '이랑'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오류 수와 오류율이 줄어드는 양상이 보였다. 오류율은 초급 수준 18.75%, 중급 수준 2.17%, 고급 수준 0.00%로 초급 수준에서 매우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가 학습 수준이 올라갈수록 오류가 크게 개선되고 고급 수준에서는 오류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초급과 중급 수준 간의 오류율의 차이는 16.58%로 15% 이상 차이가 났다.

한편,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분류 측면에서 접속조사 '이랑'의 오류에 있어 큰 특성은 형태 오류만 나타났다는 데에 있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형태 총 4회(초급: 3회, 중급: 1회, 고급: 0회)

형태 오류는 초급과 중급 수준에서 보였으며 초급 3회, 중급 1회로 총 4회 나타났다.

(1) 예줄? 예줄(예절)가 좀 **일본토(√일본이랑)** 다른 점이가 아:: 좀 나쁜 점이다 [2.0] 라고 생각해요.(NJE-3)
(2) **니은토(√니은이랑)** 마루(이응).(NJE-21)
(3) **'ㄴ'랑(√'ㄴ'이랑)** 'ㅇ' 발음이가 비슷하지=해서 어려웠어요.(NJE-34)

(1)~(3)의 오류는 (1)과 (2)는 '이랑'의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 'と(to)'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부사격조사 '이랑'에도 해당 오류가 보였는데 '이랑'은 일본어 조사와의 음운적인 유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보인다. 해당 오류를 보인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NJE-3과 NJE-21는 단순 실수라고 응답하였으며 자세한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79] 한편, (3)의 오류는 이형태 오류에 해당되는데 '이랑'→'랑'의 방향으로만 나타났다. 다만, 1회만 나타났으므로 이형태 오류가 다른 조사들처럼 양방향으로 나타나는지 혹은 한 쪽 방향으로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2) '이나'

접속조사 '이나'는 같은 자격으로 이어줌(하나를 선택)의 의미·기능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 수준별 오류 양상만 살펴보고자 한다. 보조사 '이나'의 오류 양상을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오류율,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 [표 Ⅳ-76], [표 Ⅳ-77], [표 Ⅳ-78]과 같다.

79) 확실한 근거는 없으나 한국어에는 일본어 조사 'と(to)'와 음운적으로 유사성을 지닌 '도'가 존대하므로 한국어로 말할 때 실수로 일본어 조사 'と(to)'를 사용하여도 이질감이 덜 느껴질 수 있다고 본다.

[표 Ⅳ-76] 접속조사 '이나'의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같은 자격으로 이어줌	41/226	20/77	17/90	4/59

[표 Ⅳ-77] 접속조사 '이나'의 오류율

의미·기능	전체	초급	중급	고급
같은 자격으로 이어줌	18.14	25.97	18.89	6.78

[표 Ⅳ-78] 접속조사 '이나'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32	20	12	0
대치	9	0	5	4
생략	0	0	0	0
첨가	0	0	0	0

접속조사 '이랑'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오류 수와 오류율이 줄어드는 양상이 보였다. 그런데 학습 수준별 오류율을 살펴보면 초급 수준 25.97%, 중급 수준 18.89%, 고급 수준 6.78%로 초급과 중급 수준 사이에서보다 중급과 고급 수준 사이에서 오류율이 크게 개선되었다. 즉, 이 결과는 접속조사 '이나'가 의미·기능적으로 단순하지만 오류가 개선되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조사임을 의미한다.

한편,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분류 측면에서 접속조사 '이나'의 오류에 있어 가장 큰 특성은 학습 수준에 따라 오류 유형이 달라진다는 데에 있다. 초급과 중급 수준에서는 형태 오류에 집중되어 있다가 중급 수준에서는 형태와 대치 오류가 모두 보이고 고급 수준에서는 대치 오류에 집중되어 있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형태 총 32회(초급: 20회, 중급: 12회, 고급: 0회)

형태 오류는 접속조사 '이나'의 전제 오류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초급과 중급 수준에서 잘 보였으며 초급 수준 20회, 중급 수준 12회 총 32회 나타났다. '이나'의 형태 오류는 다른 조사와 달리 '이나'→'나' 혹은 '나'→'이나' 양방향으로 모두 나타났다.

(1) 제가 **피아노이나(√피아노나)** **기타이나(√기타나)** 그런 할 수 있어요.(NJE-5)
(2) 음:: 정부에서는 **정부이나(√정부나)** 뉴스에서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는데(이하 생략)(NJE-12)
(3) **테니스이나(√테니스나)** 야구, 탁구 어 이렇게 많이 했어요.(NJE-14)
(4) **한국문화이나(√한국문화나)** 이런 거를 관심이 생겼어요.(NJE-19)
(5) **화장품나(√화장품이나)** 쇼핑? 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이하 생략)(NJE-21)

(6) 전 라면보다 **우동나(√우동이나)** 모쓰나베(곱창전골) 이런 거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NJI-23)
(7) 아 '니은'**나('니은'이나)** 그:: '이응'? 하이(네) 아 네 어렵습니다.(NJI-1)
(8) 한국 요리는 **양념나(√양념이나)** 그런 그:: 좀 많이 뭐 들어가서 힘드는 것 같아요.(NJI-7)
(9) **된장나(√된장이나)** 야채나 마:: 아 비슷한 비슷하고? 생각했는데요(이하 생략)(NJI-25)

(1)~(9)의 오류는 초급 수준과 중급 수준에서 다수 보였는데 '이나'의 이형태 오류가 초급 수준에서는 양방향으로 나타난 반면, 중급 수준에서는 '나'→'이나'의 방향으로만 나타났다. 또한, 초급 수준의 오류의 방향을 살펴보면 '이나'→'나'와 '나'→'이나'의 오류의 수가 각각 14회, 6회이며 '이나'→'나'의 오류가 '나'→'이나'의 오류에 비해 그 수가 두 배 많았다. 즉, 초급 수준에서는 '이나', 중급 수준에서는 '나'를 '이나'의 대표 형태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급 수준에서 이형태 오류가

나타날 때 ‘이나’가 결합되는 체언에 ‘ㄴ’, ‘ㅁ’, ‘ㅇ’ 등 비음 받침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랑’보다 ‘이나’에 오류가 압도적으로 보이는 이유로서 ‘이나’와 ‘이랑’의 음운적인 특성에 따른 요인도 생각된다. ‘이랑’과 ‘이나’에는 각각 이형태 ‘랑’, ‘나’가 존재하는데 선행 명사에 받침이 없을 때 사용하는 형태인데 ‘나’의 경우 자음이 ‘ㄴ이며, ‘랑’의 자음 ‘ㄹ’에 비해 받침이 존재할 때도 발음하기 쉽다. 특히 맞춤법에 받침 ‘ㄱ’, ‘ㅂ’, ‘ㅁ’, ‘ㅇ’ 뒤에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교체되는 비음화 규칙이 있는 것처럼 음운적인 특성상 받침 뒤에 ‘ㄹ’보다 ‘ㄴ’이 발음하기 쉬운 경우가 있다.

② 대치 총 9회(초급: 0회, 중급: 5회, 고급: 4회)

대치 오류는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잘 보였다. 대치 오류는 ‘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나’를 잘못 사용한 오류와 ‘이랑’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나’를 잘못 사용한 오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나’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10) 전화해서 예약받을 때 아:: 이름도 잘 듣지 못하고 아:: 그리고 뭔가 [1.0] 언제 [1.0] 언제나 **전화번호나(√전화번호를)** 듣기 할 때 너무 빨라서 숫자도 메모도 못하고 이름도 메모도 못해서 좀 너무 힘들었어요.(NJI-5)

(11) 그리고 좋은 점은 아! 그래도 그 **지갑이나(√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역에 맡기거나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NJI-21)

(12) 네 네 독도구(가) 아닌데 그:: **방사농도나(√방사농도를)** 친구가 마:: 항상 물어보거든요.(NJA-12)

(13)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좋은 **점이나(√점을)** 뭐 많이 소개하거나 일본어 조금 간단한 단어들은 알려드리거나 그런 거는 했었어요.(NJA-14)

(10)~(13)의 오류는 중급 수준 4회, 고급 수준 3회로 총 7회 나타났다. 중급과 고급 수준의 오류 특성 중 하나는 둘 이상의 사물을 나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나'를 사용한 것이다. 접속조사 '이나'는 둘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조사이다. 그런데 (10)~(13)은 '이나' 뒤에 나열하는 또 다른 하나의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나'의 쓰임은 해당 연구 참여자가 '이나'를 접속조사가 아니라 '이랑'에 해당하는 'と(to)'와 '이나'에 해당하는 'か(ka)'를 결합한 일본어 조사 'とか(toka)'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인 '예시', 즉 '모든 사물을 나열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 나열'하는 의미·기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이나'를 제시할 때 '이나'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 'や(ya)'나 'とか(toka)'를 예시의 의미·기능으로 제시되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오류는 구어에 나타난 오류로서 일본어 구어의 영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쓰지(辻, 1999:19-22)는 일본에서는 90년대 이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とか(toka)'가 해당 조사가 가진 예시 등의 의미·기능과 상관없이 의사소통에서 대인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화용적 기능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澁谷に行って、映畵見ない?(시부야에 가서 영화 볼래?)'를 '澁谷とか行って、映畵とか見ない?'처럼 'とか(toka)'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러한 일본어의 구어적 특성도 해당 오류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이랑'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나'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14) 왜냐면은 까 **남편이나(√남편이랑)** 시어 **시댁이나(√시댁이랑)** 딱 이렇게 하면은 저 가족처럼 같이 지내니까 까 일본인 한국인 이런 거 없이 사는데(이하 생략)(NJI-3)

(15) 음 사실은 제 어머니가 한국인이라서 필요할 것 같았는데 음 하나 기회가 사실은 **할머니나(√할머니랑)** **어머니나(√어머니랑)** 말할 줄 아세요.(NJA-10)

(14)와 (15)의 오류는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보였으며 중급 수준 1회, 고급 수준 1회로 총 2회 나타났다. 중급 수준과 고급 수준의 오류 특성

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을 나열하고 그것이 선택적인 것이 아닌데도 '이랑'이 아니라 '이나'를 사용한 것이다. (14)와 (15)에서는 '남편 혹은 시댁', '할머니 혹은 어머니'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며 '이랑'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처럼 일부 연구 참여자는 '이나'와 '이랑'을 동일한 의미·기능을 지닌 조사로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일본인 학습자의 조사 오류의 특성

4.1. 오류 유형

앞서 조사 항목별로 형태, 대치, 생략, 첨가의 네 가지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를 분류하여 오류의 유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각 조사 항목의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분류 결과를 모두 모두 합하여 조사 유형별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의 유형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조사 유형별로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유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Ⅳ-79], [표 Ⅳ-80], [표 Ⅳ-81], [표 Ⅳ-82]와 같다.

[표 Ⅳ-79]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유형(전체)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78	56	21	1
대치	266	114	78	74
생략	147	54	42	51
첨가	33	14	10	9

[표 Ⅳ-80]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유형(격조사)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37	32	4	1
대치	205	90	57	58
생략	98	32	28	38
첨가	21	14	5	2

[표 Ⅳ-81]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유형(보조사)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5	1	4	0
대치	52	24	16	12
생략	49	22	14	13
첨가	12	0	5	7

[표 Ⅳ-82]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른 오류 유형(접속조사)

비문법적인 요소	전체	초급	중급	고급
형태	36	23	13	0
대치	9	0	5	4
생략	0	0	0	0
첨가	0	0	0	0

먼저 조사 유형별로 오류 유형적 특성을 살펴보기 앞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전체의 오류 유형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총 524회의 오류를 범하였으며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대치가 266회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생략 147회, 형태 78회, 첨가 33회의 순이다. 고석주 외(2004:230)는 문어에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유형을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분류한 바 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난 오류 유형이 대치이며 그다음으로 생략, 첨가 형태의 순이다. 즉, 이 결과로부터 구어에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의 유형적 특성은 형태 오류의 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용진·이화진(2016:117)는 문어와 구어에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의 조사 오류 양상 비교를 통해 구어에서 주격조사 '이'의 이형태 오류가 유난히 많음을 밝혔다. 즉각성이 요구되는 구어에서는 이형태 간의 순간적인 조사 교체 사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모어에 조사가 존재하다고 하여도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도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습 수준별로 형태 오류의 수를 살펴보면 초급 수준에서 형태 오류가 56회로 유난히 많이 보였는데 학습 수준이 낮을수록 이형태 간의 순간적인 조사 교체 사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형태

오류는 점차 개선되며 고급 수준에서는 구어임에도 불구하고 형태 오류가 1회만 나타난 데에 그쳤다. 즉, 이는 형태 오류는 이형태 간의 조사 교체 사용에 익숙해지기만 하면 개선되는 오류임을 의미한다. 반면, 학습 수준이 올라가도 오류 수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인 것이 생략 오류이다. 생략 오류는 모어나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도 있겠으나 구어의 특성 중 격식성, 즉각성, 상황 의존성 등에 따라 조사를 적절하게 생략하지 못한 결과 나타난 오류도 포함되어 있다. 구어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조사 생략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생략 오류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조사 유형별로 오류 유형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격조사이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격조사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대치가 205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생략 98회, 형태 37회, 첨가 21회의 순이다. 즉, 격조사의 오류 유형적 특성은 압도적으로 대치 오류가 많았다는 데에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격조사는 각 격조사가 지닌 의미·기능에 따라 다양한 일본어 조사에 대응되므로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조사 유형이다. 또한, 격조사는 유사한 의미·기능을 가진 조사가 다수 존재하므로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도 많이 나타난다. 격조사는 생략 오류도 다른 조사 유형보다 많이 나타난다. 이는 격조사가 특히 주격조사 '이', 목적격조사 '을', 관형격조사 '의' 등을 중심으로 구어에서 생략이 자주 일어나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

둘째, 보조사이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보조사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대치가 52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생략 49회, 첨가 12회, 형태 5회의 순이다. 즉, 보조사의 오류 유형적 특성은 대치와 생략 오류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보였고 형태 오류가 다른 조사 유형보다 매우 적었다는 데에 있다. 보조사는 대치와 생략 오류의 수가 유사한데 이는 다시 말하자면 대치 오류가 적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격조사는 각 격조사가 지닌 의미·기능이 많은 관계로 모어와 목표어의 영향에 따라 대치 오류의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반면, 보조사는 각 보조사와 일본어 조사가 의미·기능적으로 일대일로 대응되는 경우가 많고 고유의

의미·기능을 지니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근본적으로 격조사보다 오류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형태 오류가 다른 조사 유형보다 매우 적게 나타난 것은 보조사 중 이형태가 존재하는 조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보조사 중 이형태가 존재하는 조사는 '은', '이나' 정도이다.

셋째, 접속조사이다. 비문법적인 요소에 따라 접속조사의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형태가 36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대치 9회의 순이다. 즉, 접속조사의 오류 유형적 특성은 형태 오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데에 있다. 결국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전체에서 형태 오류가 많이 나타난 것은 접속조사의 형태 오류 수에 따른 영향 때문이다. 접속조사는 '과', '이랑', '이나' 등 거의 모두가 이형태가 존재하므로 형태 오류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는 달리 말하면 접속조사는 형태 오류에만 조심하면 오류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접속조사의 또 하나의 오류 유형적 특성은 생략과 첨가 오류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또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접속조사와 동일한 형태로 지닌 부사격조사 '과', '이랑', '하고'와 보조사 '이나'에도 생략이나 첨가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혜영·김영주(2013:353)는 구어에서 미얀마인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조사 오류 중 하나로 부사격조사 '과'와 '이랑'의 생략 오류를 제시하였다. 미얀마인의 모어인 미얀마어에는 일본어처럼 조사가 존재하는 언어이다. 따라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접속조사와 관련하여 생략과 첨가 오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모어의 조사 존재 여부가 아니라 한국어와 일본어의 구어에서 접속조사의 쓰임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4.2. 오류 원인

앞서 조사 항목별로 오류 양상을 살펴보면서 각 조사 항목에 나타난 오류 유형별로 그 원인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조사 오류의 원인을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구어 특성에 따른 오류의 세 가지로 집약하여 원인별 조사 오류의 특성을 밝히고

자 한다.

1) 문법 규칙의 단순화에 따른 오류

첫째, 문법 규칙의 단순화이다. 한국어 학습자는 목표어인 한국어가 지닌 다양한 문법 규칙을 알아야 조사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는 조사의 수가 많고 조사에 따라 해당 조사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문법 규칙이 서로 다르므로 한국어 학습자는 각 조사에 존재하는 문법 규칙을 일일이 습득해야만 한다. 한국어 학습자 중에는 해당 문법 규칙을 일일이 학습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학습자는 각 조사가 지닌 복잡한 문법 규칙을 단순화하여 조사를 사용한 결과 나타난 오류가 다수 보였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가 해당 문법 규칙의 습득 여부가 의사소통 문제와 직결되지 않을 경우나 해당 문법 규칙이 복잡하여 복잡한 문법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도 오류율의 개선이 크게 기대하지 못할 경우에 자주 나타난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이러한 특성이 조사 오류에 잘 보였다. 먼저 접속조사 '이나'의 형태 오류이다. 접속조사 '이나'의 형태 오류 양상을 보면 '이나'를 사용해야 하는데 '나'를 잘못 사용한 오류, 즉 '이나→나'가 '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나'를 잘못 사용한 오류, 즉 '나→이나'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 결과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중 대부분의 학습자가 접속조사 '이나'의 두 가지 형태인 '이나'와 '나' 중 '나'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형태와 관련된 문법 규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어에서 의사소통에 있어 조사 사용의 형태적인 정확성보다 의미·기능적인 정확성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이러한 전략적인 사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나 일본'를 '한국나 일본'처럼 접속조사 '이나'를 잘못 사용하다고 하여도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

다음으로 처소 부사격조사 '에'와 '에서'의 대치 오류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처소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와 '에서'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후행 용언의 유형에 따라 '에' 혹은 '에서'가 선택적으로 결합된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모어인 일본어로는 후행 용언의 유형에 따라 '에' 혹은 '에서'가 자연스럽게 선택되나 목표어인 한국어로는 뒤따라올 후행 용언의 유형에 맞게 '에' 혹은 '에서'를 순간적으로 정확히 사용하기 쉽지 않다. 이에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선행 체언의 유형에 따라 '에' 혹은 '에서'의 사용을 고정하여 사용하는 문법 규칙의 단순화가 보였다. 초급 수준에는 '한국', '일본' '여기' 등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혹은 지시대명사에 '에서'를 꼭 사용하여 오류가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학습 수준 차원보다 학습자 개인 차원에서 '한국', '일본' 등 외에도 '곳', '중', '뒤' 등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에 '에서'를 꼭 사용하여 오류가 나타난 경우가 보였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에'의 생략 오류이다. 노다 외(野田, 2001:60-61)는 조사의 생략은 모어 화자에게도 개개인에 따라 자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모어 화자는 외국인 학습자의 조사 생략에 민감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우 외국인 학습자가 복잡한 문법 규칙을 단순화하여 습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부사격조사 시간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에 뚜렷하게 보였다. '에'는 다양한 의미·기능이 존재하는데 그중 시간의 '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모든 명사와 꼭 결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은 명사는 어떤 경우에도 '에'와 결합되지 되는 일이 없으나 '옛날', '요즘'과 명사는 '옛날', '요즘'처럼 '에' 없이 사용하기도 하고 '옛날에', '요즘에'처럼 '에'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처음'처럼 '에'와의 결합 여부에 따라 의미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에' 없이 '처음'의 형태로 사용되면 '난생처음'의 의미를 나타내고 '에'와 결합된 '처음에'의 형태로 사용되면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맨 앞'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시간을 나타내는 '에'의 결합 여부와 관련된 문법 규칙이 매우 복잡하므로 해당 문법 규칙을 단순화하였다. 또한, 학습 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을 보였다. 초급 수준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의 유형과 상관없이 '에'를 생략하였다. 이로 인해 초급 수준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에'와

관련된 생략 오류가 다른 학습 수준보다 많이 나타났다.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면 많은 교재에 시간을 나타내는 '에'를 학습할 때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은 명사에 '에'가 결합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다. 초급 수준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중에는 '에'가 결합되지 않는 조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에'가 결합되어야 하는 경우보다 '에'가 선택적으로 결합되거나 '에' 없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여 시간을 나타내는 '에'를 꼭 생략하는 문법 규칙의 단순화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2) 모어 습관의 부정적 전이에 따른 오류

둘째, 모어에서 조사 사용 습관의 부정적인 전이이다.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는 그 자체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의 특성이다. 여기서는 그 원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였거나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견된 오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은'과 관련된 오류이다. 지금까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은'과 관련된 오류는 주제의 의미·기능과 관련된 오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특히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주어 자리에 주격조사 '이' 대신에 '은'을 지나차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임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지나치게 '은'은 일반적인 주제의 의미·기능이 아니라 '은' 해당하는 일본어 'は'에 존재하는 대비 강조의 주제, 즉 대조를 강조한 주제의 의미·기능임을 밝힐 수 있었다. 한국어는 대조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은'이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겹문장 구조에서 사용되므로 대조의 대상이 없는 홑문장 구조에서 사용되는 '은'에는 대조의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인 모어 화자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러한 대조를 강조한 주제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은'의 사용을 부자연스럽게 느끼게 된 것이다.

둘째, 접속조사 '이나'와 관련된 오류이다. 특히 접속조사 '이나'의 오류

중 '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나'를 잘못 사용한 오류이다. 접속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중·고급 학습자는 유독 '이나'를 사용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을 이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나'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나 듣기할 때 어려워요.'처럼 사용한다. 이러한 '이나'의 쓰임은 '이나'를 접속조사가 아니라 '이랑'에 해당하는 'と(to)'와 '이나'에 해당하는 'か(ka)'를 결합한 일본어 조사 'とか(toka)'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인 일부 예시, 즉 나열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모두를 나열하지 않고 그중 일부만 나열하는 의미·기능으로 사용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이 배경에는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이나'에 해당하는 일본어 조사로서 'や(ya)'나 'とか(toka)'를 예시의 의미·기능으로 제시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에 대한 논의는 격조사나 일부 보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접속조사 오류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접속조사 '이나'의 이러한 오류는 이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3) 구어 특성에 따른 오류

이 연구는 구어에서 나타난 조사 오류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구어에서의 조사 오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생략 오류에는 문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구어 특성과 관련된 원인에 기반한 오류가 다수 보였다. 여기서는 특히 구어 특성 중 즉각성과 상황 의존성과 관련된 오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즉각성과 관련된 오류이다. 이 연구는 구어 조사 오류의 범위를 통제적 처리 단계를 넘어 자동적 처리에 단계까지로 넓혔다. 즉, 무의식 상태에서 조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완전한 습득으로 보고 문어에서 일부 실수로 구분된 것까지 오류로 간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히 구어처럼 순간적으로 정확한 조사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문어에서 오류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데에 오류가 나타난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

자는 해당 오류가 대조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은'과 똑같이 아우름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도'에 잘 나타났다. 대조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은'과 똑같이 아우름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도'의 공통점은 하나의 문장에 '는 는' 혹은 '도 도'처럼 같은 조사가 두 번 연달아 나타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는 앞부분에서는 해당 조사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사용한 반면, 뒷부분에서는 생략한 경우가 많았다. 모어인 일본어에서는 이러한 오류가 나타나지 않겠으나 목표어인 한국어에서는 일본인 학습자가 특히 즉각성이 요구되는 구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에 집중하므로 본인이 앞부분에서 사용한 조사와의 일관된 조사 사용이 어렵다.

둘째, 상황 의존성과 관련된 오류이다. 여기서의 상황 의존성은 특정 구어 유형에서 조사의 생략 빈도와 문장의 격식성이 일치하지 못한 경우에 나타났다. 해당 오류는 주격조사 '이', 목적격조사 '을'에 잘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구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인터뷰를 선택한 결과, 구어 유형으로 '양방향 격식체 일반 구어'의 특성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흔히 구어체 구어로 생각되는 일상대화와 달리 격식성의 특성이 있다는 데에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즉, 인터뷰에서는 아무리 구어에서 조사가 자주 생략된다고 하여도 연구 참여자가 격식성에 맞게 조사를 적절하게 생략할 필요가 있다. 일상대화는 대개 반말로 이루어지므로 인터뷰보다 조사에 생략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인터뷰에서는 일상대화처럼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를 생략하게 되면 문장의 격식성과 상반되어 무분별한 조사의 생략이 부자연스러워진다.

4.3. 일본인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오류

지금까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의 특성을 오류의 유형과 원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다른 언어권의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와의 비교를 통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조사 오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일본인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오류라고 하면 당연히 모어인 일본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이다. 이 연구에서 많이 나타난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를 모든 학습 수준에서 동일한 오류 유형과 형태로 20회 이상의 출현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주격조사 '이'의 형태 및 대치 오류, 목적격조사 '을'의 대치 오류, 부사격조사 '에'의 대치 오류, 보조사 '은'의 대치 오류이다.

주격조사 '이'의 형태 오류는 '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가'를 잘못 사용한 것이며 대치 오류는 목적격조사 '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목적격조사 '을'의 대치 오류는 주격조사 '이'의 대치 오류와 정반대인 오류이며 '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을'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부사격조사 '에'의 대치 오류는 '을'를 사용해야 하는데 '에'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보조사 '은'의 대치 오류는 '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은'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조영보(2021)는 일본어권, 영어권, 중국어권의 조사 오류 양상을 비교하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오류로 주격조사 '이'의 형태 및 대치 오류, 목적격조사 '을'의 대치 오류를 제시한 바 있으며 해당 오류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오류임은 분명하다. 이 연구에서는 그 외에 격조사 중에서는 부사격조사 '에'의 오류가 많이 보였으나 조영보(2021)에서는 보격조사 '이'의 대치 오류, 즉 '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부사격조사 '에'를 잘못 사용한 오류를 제시하였다. 또한, 격조사를 중심으로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으므로 '은'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음으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오류 중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만 나타나는 오류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밝힌 일본인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오류와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다른 언어권의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를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주격조사 '이'의 형태 오류이다. 해당 오류는 미얀마인 학습자에게도 볼 수 있었다. 지혜영·김영주(2013)는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서 조사 오류를 살펴보았는데 주격조사 '이'의 형태 오류가 많이 나타났음을 밝혔다. 그리고 해당 오류는 '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가'를 잘못 사용한

것이 전부이었다. 즉,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주격조사 '이'의 형태 오류는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와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인 일본어와 미얀마어에는 개음절이 많고 조사가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특히 개음절이 많은 특성이 '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가'를 잘못 사용하는 오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둘째, 주격조사 '이'의 대치 오류이다. 해당 오류는 거의 모든 언어권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다. 탄다(Thandar, 2017), 첸진(CHEN JIN, 2021), 응웬 티(NGUYEN THI, 2022)는 각각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언어권의 조사 오류에서 주격조사 '이'의 대치 오류, 즉 목적격조사 '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사용한 오류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중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인 중국어와 베트남어는 조사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이므로 해당 오류는 모어에서 조사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셋째, 목적격조사 '을'의 대치 오류이다. 해당 오류는 주격조사 '이'의 대치 오류와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언어권의 학습자에게 볼 수 있었다. 넷째, 부사격조사 '에'의 대치 오류이다. 해당 오류는 다른 언어권의 한국어 학습자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모어 조사 사용 특히 동사 '닮다'에 '에'를 잘못 사용하여 '~에 닮다'처럼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오류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보조사 '은'의 대치 오류이다. 해당 오류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볼 수 있었다.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가 주제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은'을 사용한 다음에 일본어의 영향으로 대조를 강조한 주제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은'을 사용하여 오류가 나타났다. 반면, 응웬 티(NGUYEN THI, 2022:119)에 따르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는 주제와 평언, 즉 '~는 ~이 ~이다.'의 구조에서 주격조사 '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은'을 사용하는 오류가 보였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요컨대,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나고 그중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만 나타나는 오류는 부사격조사 ‘에’의 대치 오류임을 밝힐 수 있었다. 충분한 오류 수가 확보되지 않은 오류 중에는 그 외에도 보조사 ‘이나’를 사용해야 하는데 ‘도’를 잘못 사용한 보조사 ‘도’의 대치 오류나 목격격조사 ‘을’을 사용해야 하는데 접속조사 ‘이나’를 잘못 사용한 접속조사 ‘이나’의 대치 오류도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에게만 나타나는 오류인 가능성이 높다.

Ⅴ. 결 론

1. 요약

이 연구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양상을 사용과 오류의 두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특성을 밝히고, 일본의 한국어교육에서 조사 교수·학습 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내용을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먼저 이 연구의 연구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특히 그간 조사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과 관련된 연구의 부재와 일본의 한국어교육에서의 구어에 대한 수요에 따른 교수·학습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였다. 그다음에 선행연구를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관련 연구,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관련 연구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 사용과 관련하여 ① 격조사 외의 다양한 조사의 사용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 ② 학습 수준에 따른 조사 사용에 대한 유사통사적인 교수·학습 자료, ③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에 대한 실용적인 교수·학습 자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연구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초급 수준의 조사 26개를 의미·기능에 따라 다시 분류한 총 35개의 조사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여 총 80명(초급 35명, 중급 25명, 고급 20명)의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 56,664어절(초급 18,819어절, 중급 18,684어절, 고급 19,161어절)의 구어 자료를 마련하였다.

Ⅱ장에서는 한국어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적인 논의를 마련하였다. 먼저 1절에서 구어에서의 한국어 조사 사용의

특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국어 구어의 특성과 유형, 한국어 조사의 분류 체계와 구어에서 사용되는 조사 항목과 형태를 각각 살펴보았다. 그다음으로 2절에서는 한국어 조사 오류의 특성을 분명히 하였다. 구어에서의 오류 특성에 따라 통제적 처리 단계를 넘어 자동적 처리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를 오류 범위로 설정하고 목표어와 모어의 영향에 따라 예측이 가능한 조사 오류의 유형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일본에서의 한국어 조사 교육 현황을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통해 분석하여 조사 교수·학습 내용의 실제를 밝히고 교재에서 제시 빈도의 영향에 따른 오류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현재 일본에서 많이 사용되는 교재마다 조사 항목의 제시나 설명에 차이가 큰 가운데 전체적으로 조사 오류와 관련된 설명은 풍부하게 기술되는 반면,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랑'이나 생략 및 축약형의 제시는 충분하지 않음을 밝힐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1절에서는 조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Ⅰ장 3절에 기술한 연구 대상 및 방법 중 구어 자료의 수집 방법과 수집된 구어 자료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였다. 특히 구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인터뷰를 선택한 이유,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의 주제와 선정 이유, 인터뷰의 구어 유형적 특성과 이에 따른 구어 자료의 특성(양방향 격식체 일반: 사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2절에서는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 양상을 조사 유형과 조사 항목에 따라 사용 수 및 사용 비율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조사 유형에 따른 사용 수는 격조사와 보조사는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고 접속조사는 학습 수준과 상관없이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사용 비율은 학습 수준과 상관없이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65:30:5의 비율로 사용됨을 밝혔다. 조사 항목에 따른 사용 수는 격조사 중 주격조사 '이', 보조사 중 '은', 접속조사 중 '이나'가 가장 많았다. 또한, 격조사는 주격조사 '이'의 사용 내 비율은 35%에 불과하였으나 목적격조사 '을'과 부사격조사 '에'를 포함하면 70%를 넘었다. 보조사도 '은'에 '도'를 포함하면 사용 내 비율이 약 90%를 넘어섰으며 격조사와

보조사는 일부의 조사 항목이 조사 사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기능을 지닌 조사를 중심으로 각 조사 항목의 의미·기능별 사용 양상과 사용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모든 조사 항목에서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해당 조사가 지닌 다양한 의미·기능을 사용하는 양상이 보인 반면, 목적격조사 '을', 서술격조사 '이다', 부사격조사 '에서', 보조사 '만'은 90% 이상이 학습 수준과 상관없이 해당 조사가 지닌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만으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사용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교재에서 조사 제시 빈도에 따른 사용이다. 특히 초급 학습자가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접속조사로서 '이랑'이 아니라 '하고'를 사용하고 목적격조사 '을'의 축약형인 'ㄹ'이나 보조사 '은'의 축약형인 'ㄴ'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는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해당 조사가 제시된 빈도가 크게 관련이 있었다. 또한, 서술격조사 '이다'나 보조사 '이나'의 사용 수가 매우 적은 것도 '이다'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제시나 보조사 '이나' 자체에 대한 제시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밝혔다. 둘째, 유사한 의미·기능을 지닌 조사 사이의 편중된 사용이다. 특히 중급과 고급 학습자가 부사격조사 '으로'와 '에'에 존재하는 유사한 의미·기능 간에서 잘 보였다. '으로'는 수단과 자격의 의미·기능으로 잘 사용되는 반면, '에'는 진행 방향과 원인의 의미·기능으로 잘 사용됨을 밝혔다. 셋째, 모어에서 습득된 언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사 사용이다. 보조사 '이', '을', '만', '이나'의 전체 혹은 일부 의미·기능의 사용에 있어 모어인 일본어의 조사 사용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일본어에 존재하지 않는 고유의 의미·기능을 잘 사용하지 못하였다.

Ⅳ장에서는 구어에서의 조사 오류 양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1절에서는 조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조사 사용이 포함된 9,838어절의 구어 자료에서 오류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구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생략에 대한 오류 판정 여부를 한국어교육 전문가에 요청하여 오류 판정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마련된 오류 자료의

규모는 총 528어절(초급 238어절, 중급 150어절, 고급 140어절)이다. 2절에서는 구어에서의 조사 오류 양상을 조사 유형과 조사 항목에 따라 사용 수 대비 오류 수, 오류 내 비율, 오류율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조사 유형별 오류 내 비율은 모든 조사 유형에서 일부 조사가 전체 조사 오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특성이 보였다. 격조사는 주격조사 '이'의 오류 내 비율이 50.14%이며 부사격조사 '에', 목적격조사 '을', 부사격조사 '에서'의 오류 내 비율을 합하면 4개의 격조사 오류가 전체 격조사 오류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보조사는 '은'이 오류 비율이 76.27%이며 '도'와 함께 2개의 보조사 오류가 전체 보조사 오류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접속조사는 '이나'의 오류 비율이 91.11%이며 '이랑'과 함께 2개의 접속조사로 전체 접속조사 오류의 100%를 차지하였다. 조사 항목별 오류율은 격조사 중 주격조사 '이', 보조사 중 '은', 접속조사 중 '이나'의 오류율이 각각 8.25%, 4.57%, 18.14%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구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사와 관련하여 주격조사 '이'와 결합형 '게', 목적격조사 '을'과 축약형 'ㄹ', 보조사 '은'과 축약형 'ㄴ'과의 오류율을 비교하면 '게'와 'ㄴ'은 '이'와 '은'보다 오류율이 낮았다. 반면, 'ㄹ'은 대개 '걸'의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을'에 비해 오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3절에서는 각 조사의 의미·기능과 비문법적인 요소, 즉 형태, 대치, 생략, 첨가에 따라 오류 양상을 살펴보고 오류상의 특성을 밝혔다. 형태 오류는 초급 수준에서 주로 잘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형태 오류는 이형태 오류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형태 간에서 양방향으로 오류가 보인 반면, 주격조사 '이'처럼 이형태 '가'가 일본어 조사와 음운적 유사성을 지닌 경우 '이'를 사용해야 하는데 '가'를 잘못 사용하는 오류가 일방향으로 보였다. 대치 오류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많이 나타난 오류이다. 주로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는 초급 수준에서 많이 나타났고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는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 나타났다. 특히 주격조사 '이', 목적격조사 '을', 부사격조사 '에' 등은 후행 용언과의 공기관계를 고려하지 못하여 잘못 사용한 오류가 많이 보였다. 생략 오류는 구어에서 조사 오류 양상을 분석한 만큼 모든 학습 수준에서 잘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구어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생략으로 간주되었으나 지금 말하는 내용에 집중하는 바람에 특히 대조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은'이나 똑같이 아우름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도'와 관련하여 두 번 연달아 사용해야 할 때 뒷부분에서 생략하는 경우가 자주 보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가장 높은 격식체인 합쇼체로 말하는데 격식성과 상반되게 지나치게 조사를 생략하여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보였다. 4절에서는 3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인 학습자의 조사 오류상의 특성을 분명히 하였다. 첫째, 문법 규칙의 단순화에 따른 오류이다. 해당 오류는 접속조사 '이나'의 형태 오류, 처소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와 '에서'의 대치 오류, 시간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의 대치 오류에 잘 나타났다. 둘째, 모어 습관의 부정적인 전이에 따른 오류이다. 해당 오류는 보조사 '은'의 대치 오류와 접속조사 '이나'의 대치 오류에 잘 나타났다. 접속조사 '이나'의 대치 오류는 이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진 오류이다. 셋째, 구어의 특성에 따른 오류이다. 해당 오류는 구어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즉각성과 관련된 오류이다. 해당 오류는 대조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은'과 똑같이 아우름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도'의 생략 오류에서 잘 보였다. 또 다른 하나는 상황 의존성과 관련된 오류이다. 해당 오류는 주격조사 '이'와 목적격조사 '을'의 생략 오류에서 잘 보였다.

Ⅴ장에서는 1절에서 먼저 지금까지 내용을 장별로 요약 제시하고 2절에서는 한국어교육적 시사점과 의의를 밝힌 다음에 마지막으로 3절에서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2. 한국어교육적 시사점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밝혀진 조사의 사용이나 오류 양상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수준별로 교수·학습 내용의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인 학습자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면서 학습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오류가 보인 반면, 초급 수준부터

고급 수준까지 꾸준히 나타나는 오류가 보였다. 대부분의 경우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가 전자에 속하고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나 구어의 특성에 따른 오류가 후자에 속한다. 이러한 오류의 특성은 오류 예방을 위한 한국어 조사 교수·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초급 수준에서는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중급과 고급 수준에서는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나 구어 특성에 따른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에 비중을 두어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중 첫째, 대조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보조사 '은'의 대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주제의 의미·기능과 함께 대조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은'의 사용과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어에서 대조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은'이 겹문장 구조로 비교 대상이 존재할 때 사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간단한 기술이라도 추가되면 좋을 것이다. 둘째, 시간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와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시간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에'가 결합되지 않는 명사에 대한 언급만 찾을 수 있는데 '처음'이나 '이번'과 같은 명사 뒤에 '에'를 생략하는 오류가 자주 보였으므로 '에'와의 결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나 '에'가 꼭 결합되어야 자연스러운 경우에 대한 간단한 기술이라도 추가되면 좋을 것이다. 셋째, 접속조사 '이나'와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나'가 예시의 의미·기능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데 그중 하나가 선택되는 의미·기능임을 명시하고 '이나'를 사용한 뒤에 꼭 이어줄 명사가 있어야 한다는 간단한 기술이라도 추가되면 좋을 것이다.

중급과 고급 학습자의 경우 목표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 중 주격조사 '이'와 목적격조사 '을'의 대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후행 용언과의 공기관계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주격조사 '이'와 목적격조사 '을'의 대치 오류의 경우 모어의 영향에 따른 오류도 있으나 후행 용언과의 공기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오류도 많이 보였다. 중급 학습자의 경우 '생각을 하다'처럼 '생각'에는 목적격

조사 '을'이 꼭 사용된다는 잘못된 문법 지식에 따라 '생각이 들다'를 '생각을 들다'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처럼 같은 체언이라도 후행 용언에 따라 조사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와 관련된 간단한 기술이라도 추가되면 좋을 것이다.

한편, 고급 학습자의 경우 구어의 특성에 따른 오류 중 주격조사 '이'와 목적격조사 '을'의 생략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특히 격식성에 따른 조사 생략 빈도와 관련된 교수·학습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고급 학습자는 모든 학습 수준에서 구어에 가장 익숙한 만큼 구어의 특성과 관련된 조사 오류가 다른 학습 수준보다 약 두 배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오류가 일상대화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조사 생략의 습관이 격식성을 지닌 인터뷰에서의 대화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결과로 나타났다. 격식성의 정도에 따라 조사를 생략하는 빈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간단한 기술이라도 추가되면 좋을 것이다.

3. 의의와 한계

이 연구의 기존의 조사 사용 및 오류 관련 연구와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연구 범위를 초급 수준의 조사 전체로 넓히고 둘째, 구어에서의 조사 사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셋째, 연구에 사용된 구어 자료를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데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의 한계는 첫째, 자료의 규모이다. 이 연구는 이정희·미키(2015:245)를 통해 지금까지의 일본인 학습자 대상의 오류 관련 연구에 활용된 언어 자료의 평균 규모가 37,778어절임을 확인하여 이와 유사한 혹은 이보다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앞서 언급하였듯이 총 56,664어절 중 조사가 사용된 9,838어절의 구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이는 평균 규모를 웃도는 규모로 개인 연구로서는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 양상이나 오류 양상을 분석해 보면 초급 수준의 조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보조사를

중심으로 사용 수가 매우 적은 조사가 많이 나타났다. 물론 조사가 가진 의미·기능에 따라 사용 빈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자료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사용 빈도가 낮은 조사도 사용 수가 현재보다는 증가하지 않을까 싶다. 둘째, 자료 수집의 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질문에 따라 연구 참여자가 응답하는 인터뷰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먼저 인터뷰가 구어체 구어에 속하는 완전한 구어를 수집하는 데에 적적한 방법이기는 하나 격식성을 동반한 관계로 조사 설계상의 오류로 조사 생략 빈도와 격식성의 불일치에 따른 오류가 다수 나타났기 때문에 오류 수와 오류 빈도 및 오류율에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구어체 구어인데도 격식성을 동반하지 않을 때, 즉 일상대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오류 수와 오류 빈도 및 오류율을 도출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향후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양상과 관련된 연구는 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규모나 자료 수집 방법 측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사전·교재 및 연구 보고서

김중섭 외(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이희자·이종희(2010),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国際フォーラム(2005), 日本の大学における韓国朝鮮語教育 – 大学等と高等学校の現状と課題 –, 財団法人国際フォーラム.

金京子(2016), 改訂版 パランセ韓国語 中級, 朝日出版社.

金京子·喜多恵美子(2013), 改訂版 パランセ韓国語 初級, 朝日出版社.

金順玉·阪堂千津子(2014), 最新チャレンジ！韓国語, 白水社.

金順玉·阪堂千津子·崔栄美(2017), ちょこっとチャレンジ！韓国語 改訂版, 白水社.

李潤玉·酒勾康裕·須賀井義教·睦宗均·山田恭子(2012), 韓国語の世界へ 入門編 ～コツコツ学び·カジュアルに話そう～, 朝日出版社.

李潤玉·酒勾康裕·須賀井義教·睦宗均·山田恭子(2013), 韓国語の世界へ 初中級編 ～コツコツ学び·カジュアルに話そう～, 朝日出版社.

木内明(2013), 基礎から学ぶ韓国語講座 初級 改訂版, 国書刊行会.

木内明(2020), 基礎から学ぶ韓国語講座 中級 改訂版, 国書刊行会.

長谷川由紀子 他(2021), 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実情調査最終報告書(日本語版), 朝鮮語教育学会 韓国語教育実情調査分科会.

長谷川由紀子(2012), コミュニケ―ション韓国語 聞いて話そうⅠ, 白帝社.

長谷川由紀子·張ユンヒャン(2016), コミュニケ―ション韓国語 聞いて話そうⅡ, 白帝社.

2. 논저

고석주·김미옥·김재열·서상규·정희정·한송화(2004),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와 오류 분석, 한국문화사.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고지마 다이키(2008), 일본어 조사 ‘まで’와 한국어 조사 ‘까지’의 복합형태 대조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2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159-191.

구라시마 레이코(2011), 일본어 'の'와의 대조를 통한 한국어 '의'의 생략 양상 연구 준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정애(2001),「니」무조사 현상에 대한 연구 - 한국어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 일본어교육, 19, 한국일본어교육학회, 113-125.

권정애(2002),「ヲ」무조사 현상에 대한 연구 - 한국어와의 대조를 중심으로 -, 일본어교육, 21, 한국일본어교육학회, 65-86.

김민재·오기노 신사쿠(2018), 일본인 학습자의 구어에 나타난 한국어 인용 표현 사용 양상 연구, 언어와 문화, 14-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32.

김선효(2007),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격조사 의의 사용 실태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어교육, 18-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53-74.

김선효(2009), 일본어 모어 화자의 정도부사의 사용과 오류 양상, 한국어교육, 2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2.

김슬교(2017), 한국어 의존형용사 범주 설정에 대한 연구: '이다'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노문.

김원미(2017), 일본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쓰기 교육 실러버스 추출에 대하여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7,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한국어학당.

김인현(1993), 韓日兩語における助詞の對照研究 - 「 の 」と 「 의 」の用法と機能を中心に -, 일본어교육, 9-1, 한국일본어교육학회, 137-153.

김인현(1996), 韓日兩語의 助詞의 對照研究 - 省略表現을 中心으로 -, 일본어문학, 2, 한국일본어문학회, 5-28.

김중섭·이정희(2008),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주격조사 오류 연구, 이중언어학, 36, 이중언어학회, 69-91.

나카무라 미카(2006), 일본어 격조사 'に'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교육방안 'に'의 '에' 이외의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어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윤진(2012), 한일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문법학습의 과제와 코퍼스의 활용 가능성, 국어교육연구, 3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15-341.

노대규(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무라카미 마미(2014),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사 생략 대조 연구 '는'과 'は'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민현식(2014), 개화기 국어 문체 연구, 국어국문학, 111, 국어국문학회, 37-61.
박봉상(1998), 格助詞 「に」 「で」 の韓國語との對照研究, 일본어교육, 15, 한국일본어교육학회, 389-411.
박진완(2015), 일본내 한국어전공의 교육과정의 비교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60-372.
벌럴러(2017),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베키 가나에(2016),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인'과 '의'의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낙수(2013), [이다]의 품사와 그 활용형에 대한 소고, 문법 교육, 19, 국문법교육학회, 181-202.
손주한(2011), 한국어 '를'과 일본어 'を'의 대조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찬양(2020),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연구 -접속조사와 보조사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57, 한말연구학회, 165-183.
안경화(2004), 日本語圈 한국어 학습자의 言語間 轉移 誤謬 연구, 어문연구, 3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71-492.
안경화·양명희(2005),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의의 교수 방안, 이중언어학, 29, 이중언어학회, 195-233.
안용준·이화진(2016),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양상 분석 - 구어와 문어의 오류 차이를 중심으로 -, 문법교육, 27, 한국문법교육학회, 87-121.
양명희(2004), 일본어권 고급 학습자의 오류, 한국어 의미학, 15, 한국어의미학회, 329-352.
오고시 나오키(2015), 일본 대학의 한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과정,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25-330.
오고시 나오키(2016), 일본 대학에 있어서의 한국어 교육의 변화 -교과서의 문법 항목의 변화에 주목하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03-311.
오기노 신사쿠(2015), 일본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최근 동향 분석, 한국어교육, 2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55-194.
오기노 신사쿠(2017), 일본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조사 사용 및 오류 양상 연구, 언어와 문화, 13-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17-140.

오기노 신사쿠(2019), 일본의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3-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99-143.
오기노 신사쿠(2021), 일본인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교육용 조사 목록 연구, 언어와 문화, 17-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57-83.
오기노 신사쿠(2023), 일본의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조사 항목의 변화 연구, 국어교육, 5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51-277.
오대환(2007), 일본에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문법 교육, 6, 한국문법교육학회, 140-164.
오재혁 외(2014), 20세기 초 구어 연구를 위한 음성 자료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70, 민족어문학회, 225-228.
요시모토 하지메(2012), 일본의 한국어 교육 및 규범성 문제, 새국어교육, 92, 한국국어교육학회, 393-418.
이소영(1996), 현대 국어의 구어 문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수경(1996),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한국어 학습자의 오용의 경향에 관하여, - 특히 '조사, 접속어미, 보조용언, 시제와 상'을 중심으로 -, 한국어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87-108.
이수미(2016),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부사격 조사 사용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경(1999),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에 나타난 오류 분석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희·미키 다카시(2015),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 오류 연구 동향 분석, 어문논집, 75, 민족어문학회, 233-267.
이지연(2012),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분석 - 시마네현립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 이중언어학, 49, 이중언어학회, 299-319.
장채린·강현화(2013), 한국어 교육용 문법 항목 선정 및 복잡도 산정 -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 한국문법교육학회 제19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한국문법교육학회, 107-125.
정보영(2004), 구어 이야기 담화에서 한국어 중급 학습자의 조사 '은/는', '이/가' 사용 -일본어권, 영어권,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시원(2015),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에'와 '에서' 의미 기능 습득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규헌(2021), 3, 4차 일본 한류 현상의 특수성 고찰, 일본문화연구, 77, 동아시아일본학회, 299-314.
조선경(1997), 한국어 조사 {의}와 일본어 조사 {の}의 대조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측면에서 {의}의 생략과 실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영보(2021),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격조사 오류 연구 일본어권 학습자의 일본어 간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지현숙(2006), 한국어 구어 문법과 평가Ⅰ, 하우.
지혜영, 김영주(2013),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 나타난 격조사 오류 연구, 국어교육, 3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41-367.
天野あけみ(2015), 日本語の助詞「まで」と韓國語の助詞「까지(kkaji)」の對照研究, 日本研究, 16, 부산대학교 일본연구소, 129-156.
최경화(2014),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결합 습득 연구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선숙(2014),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분석, -조사「을/를」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69, 한국일본어교육학회, 151-166.
하세가와 유키코·이수경(2002), 한일 한국어 교재의 문법 실러버스 비교 분석 -일본 학습자를 지도하는 관점에서-, 한국어교육, 1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47-278.
한규안(2009), 日本語_助辭「も」와 韓國語 助辭「도」의 對照 研究, 일어일문학, 43, 대한일어일문학회, 19-41.
한규안(2010), 日本語 助辭「でも」와 韓國語 助辭「라도」의 對照研究, 일어일문학, 46, 대한일어일문학회, 101-127.
한송화(2016), 한국어 학습자의 보조사 '은/는'의 사용 양상과 오류 연구 -언어권과 숙달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70, 한국문학언어학회, 111-151.
홍사만(1982), 한국어의 특수조사와 일본어의 부조사와의 대조연구(3), 언어과학연구, 2, 언어과학회, 115-133.
CHEN JING(2021), 말뭉치를 활용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NGUYEN THI QUYNH ANH(2022),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격조사 오류

연구 '이가', '을를', '에', '에서'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Thandar Linn(2017), 미얀마인 한국어 학습자 오류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Corder, S. P.(1973), *Introducing Applied Linguistics*, Penguin.

Corder, S. P.(1974), *Idiosyncratic Dialects and Error Analysis,* New Frontier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Stockwell, R. & Bowen, J. & Martin, J.(1965), *The grammatical structures of English and Italia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ass, S. M. & Selinker, L.(1994),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 Introductory Cours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박의재·이정원 역(1999), 제2언어 습득론, 한신문화사.

孔恵英(2015), 日本人韓国語学習者の作文に見られる誤用分析：「-아서/어서」と「-고」を中心として, 日本語教育論集, 24, 姫路独協大学大学院言語教育研究科日本語教育領域, 9-16.

権英秀(2018), 韓国語の統語的アプローチ - 作文法において, 新潟大学言語文化研究, 22, 新潟大学, 11-23.

権英秀(2020), 韓国語教育における日本語の文法について - 国語ではない外国語の観点から, 言語の普遍性と個別性, 11, 新潟大学大学院現代社会文化研究科「言語の普遍性と個別性」プロジェクト, 15-31.

金世朗(2015), 韓国語の成分副詞の語順教育における問題点について: 韓国語教育の立場から, 新潟国際情報大学国際学部紀要, 7, 新潟国際情報大学国際学部, 65-71.

金世朗(2016), 韓国語の副詞'잘[tʃal]'の語順について, 言語の普遍性と個別性, 7, 新潟大学大学院現代社会文化研究科「言語の普遍性と個別性」プロジェクト, 35-48.

金智英(2018), 日本語母語話者における「은는(eunneun)」と「이가(iga)」の習得文法的根拠に基づいた体系的な学習のために, 立命館高等教育研究, 18, 立命館大学教育開発推進機構, 79-92.

金河守他(2016), 韓国語学科における韓国語基礎科目教育の運営: 現状と改善策, 目白大学高等教育研究, 22, 目白大学教育研究所, 35-43.

金亨俊(2008), 日本の大学における韓国語: 韓国語教育の現状および必要性について,

富士大学紀要, 40-2, 富士大学, 47-52.
洞澤伸·奥村佳奈(2015), 若者言葉「とか」の強調用法について, 岐阜大学地域科学部研究報告, 37, 岐阜大学地域科学部, 1-17.
梁正善(2013), 韓国語の時間表現を教育するために, 長崎外大論叢17, 長崎外国語大学, 105-128.
鈴木陽二(2014) 専修語の理想的な授業を目指して: 専修韓国·朝鮮語クラスの現状を踏まえて, 外国語教育: 理論と実践, 40, 天理大学言語教育研究センター, 49-59.
李秀炅(2019), 日本における公的な韓国朝鮮語検定・評価試験の概要及び初級文法教育の現状 -国際通用韓国語標準教育過程を基準に, 言語教育研究センター研究年報, 22, 言語教育センター, 93-117.
朴珍希(2017), 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に関する研究: 大学の韓国語学習調査にみる現状と課題, 岡山県立大学教育研究紀要, 1, 岡山県立大学, 21-31.
森田良行(2007), 助詞·助動詞の辞典, 東京堂出版.
辻大介(1999), 若者語と対人関係 - 大学生調査の結果から -, 東京大学社会情報研究所紀要, 57, 17-42.
野間秀樹·中島仁(2007), 日本における韓国語教育の歴史: 野間秀樹(編), 韓国語教育論講座 第1巻, くろしお出版, 69-93.
野田尚史·追田久美子·渋谷勝巳·小林典子(2001), 日本語学習者の文法習得, 大修館書店.
永原歩(2017), 韓国語の接続語尾「-고ko」と「-아서aseo어서eoseo」の誤用と習得, 東京女子大学紀要論集, 67-2, 東京女子大学論集編集委員会, 159-183.
永原歩(2018), 韓国語の初級文法シラバスについて -よりよい授業のために, 東京女子大学紀要論集, 68-2, 東京女子大学, 187-201.
永原歩·尹亭仁(2011), 日本における韓国語のテキストについて, 言語教育, 34, 神奈川大学言語教育センター, 95-133.
苅宿紀子(2014),「無助詞」研究の現状と課題, 学術研究(人文科学・社会科学編), 62, 早稲田大学教育·総合科学学術院, 147-162.
呉先珠(2011), 韓国語語尾-다니の研究: 主に韓国語教育の観点から, 韓国言語文化研究, 19, 九州大学韓国言語文化研究会, 7ー14.
呉先珠(2015), 韓国語伝聞表現の文法範疇: 外国語としての韓国語伝聞表現教育の観点から, 韓国語言語文化研究, 21, 九州大学韓国言語文化研究会, 45-61.
印省熙(2016), 韓国語上級クラスの二つの作文資料による誤用分析の試み, 理論と実践,

11, 朝鮮語教育学会, 4-24.
秦秀美(2015), 韓国語教育の視点から見た'-을 게요'の運用に関する一考察, 関西大学外国語教育フォーラム, 14, 関西大学外国語教育研究機構, 1-13.

[부록] 연구 참여자 모집문 및 동의서

IRB No. 2203/001-012 유효기간: 2023년 03월 13일

研究参加者募集文

研究参加者募集
(博士の学位請求論文関連韓国語調査に対するアンケート調査及びインタビュー)

下記のとおり研究参加者を募集します。
研究参加へご協力いただける方は、ご連絡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参加対象
日本人韓国語学習者であり、以下の1~3まで条件を満たす者
1. 現在韓国に留学中、もしくは過去に韓国留学経験のある者
2. 韓国語能力試験(TOPIK)資格を所持した者
3. 20, 30代の大学(院)生である者

参加内容
韓国語助詞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及び韓国語のインタビュー

参加場所と日時及び所要時間
研究参加者の希望の場所と日時に参加可能で、
アンケート調査とインタビューの計約1時間の所要

謝礼
スターバックスで使用できる5,000ウォン相当のコーヒークーポン

お問い合わせ
010-8607-4639(ソウル大学大学院国語教育科韓国語教育専攻博士課程　荻野晋作)

Ver 1.1(2022.03.14.)

IRB No. 2203/001-012 유효기간: 2023년 03월 13일

研究参加者用説明文(日本人学習者用)

研究課題名 ： 日本人学習者を対象とする韓国語助詞の位階化の研究
研究責任者名 ： 荻野晋作(ソウル大学大学院国語教育科韓国語教育専攻博士課程)

本研究は、**日本人学習者を対象とする韓国語助詞の位階化**についての研究です。あなたは、日本人学習者であるために本研究への参加要請を受けました。本研究を行うソウル大学所属の研究員である荻野晋作(010-8607-4639)があなたに本研究について説明を行います。本研究は、自発的に参加意思を表明した場合に限り行い、あなたは研究への参加を決断するにあたり、本研究がなぜ行われるのか、そして研究内容が何に関係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理解することが大切です。次の内容をよく読んだ後、研究への参加意思を表明してください。必要であれば、家族や友達と話し合うこともできます。もし質問があれば、担当の研究員がどんなことにも詳しく説明します。

1. 本研究はなぜ行われますか。

本研究の目的は、日本人学習者の韓国語助詞の使用頻度や難易度を分析することで、日本人学習者に必要な韓国語助詞をリストアップし、それらを適切な学習レベルで示すことです。

2. どのくらいの人が参加しますか。

日本人学習者のうち、現在韓国に留学中、もしくは過去に留学経験があり、なおかつ韓国語能力試験の資格を持つ20，30代の大学(院)生75名が参加する予定です。

3. もし研究に参加することになったら、どのように行われますか。

もしあなたが研究への参加意思を表明してくれたら、次のとおりに行われます。
あなたは、まず始めに50分程度(所要時間は個人差により多少異なる)の韓国語助詞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に回答します。そして、アンケート調査が終わり次第、10分程度の韓国語による自己紹介、韓国語と韓国生活、韓日関係についてのインタビューを行います。
すべての過程は、あなたの都合の良い時間と場所で行います。

4. 研究への参加機関はどのくらいですか。

約1時間かかります。

5. 参加の途中でやめてもいいですか。

はい、もちろんです。あなたは、いつでも不利益を被ることなく参加の途中にやめることができます。もしあなたが研究への参加をやめたかったら、担当研究員や研究責任者に直ちに言ってください。やめることになったら、これまで収集した資料は直ちに廃棄されます。

Ver 1.1(2022.03.14.)

6. 副作用や危険的な要素はありませんんか。

インタビューの際に韓国での生活の中で経験した残念な出来事について具体的に聞くことがあります。当時の状況を説明してもらう過程で不快さを感じることがあるかも知れませんが、話したくなければ、いつでも話すのをやめても構いません。

7. 本研究に参加した場合、参加者に利益はありますか。

あなたが本研究に参加するにあたり、直接的な利益はありません。しかし、あなたが提供する情報は、今後韓国語を学ぼうとする日本人学習者の韓国語助詞の使用への正しい理解を増進させるために役立ちます。

8. 本研究に参加しないことによる不利益はありますか。

あなたは、本研究に参加しない自由があります。また、あなたが本研究に参加しなかったとしても不利益を被ることは一切ありません。

9. 研究の課程で取得したすべての個人情報の機密は保証されますか。

個人情報管理責任者はソウル大学の荻野晋作(010-8607-4639)です。本研究で収集する個人情報は、韓国語能力試験の級数、韓国語学習時間、韓国滞在時間、アンケート用紙の内容、面談(インタビュー)時の録音ファイルとこれを転写した転写記録になります。これらの個人情報は、研究責任者であるソウル大学の荻野晋作と指導教授である師範大学の具本寛教授によるアクセスが許容され、荻野晋作の現勤務地である南ソウル大学の個人研究室(13号館410-1号室)において保管します。同意書は、関連法令に基づき3年間保管後、廃棄する予定であり、研究資料は、ソウル大学の研究倫理指針に基づき可能な限り永久的に保管する予定です。私どもは本研究を通じて取得したすべての個人情報の機密を保障するために最善を尽くすつもりです。本研究で取得した個人情報を学会誌や学会において公開する際、あなたの氏名及びその他一切の個人情報は使用しません。しかし、法に基づく要求がある場合は、あなたの個人情報を提供することもあります。また、モニター要員、点検要員、生命倫理委員会は、研究参加者の個人情報に対する機密保障を侵害せず、関連規定において定める範囲内において本研究の実施手続きと資料の信頼性を検証するために研究結果を直接閲覧することができます。あなたがこの同意書に署名することは、これらの事項についてあらかじめ了承しており、これを許容するという同意と見なされます。

個人識別情報収集項目: 録音ファイル
個人識別情報収集目的: 転写記録紙の作成
廃棄時期: 転写記録紙の作成後すぐ

10. 本研究に参加すると、謝礼が支給されますか。

あなたが研究に参加した場合、感謝の意を込めて5,000ウォン相当のスターバックスで使用できるドリンククーポンを支給します。

11. 研究についての問い合わせはどうすればいいですか。

本研究について質問があったり、研究参加の途中でトラブルが発生した場合は、下記の研究担当者に連絡してください。

氏名: 荻野晋作　　電話番号: 010-8607-4639

もし、研究参加者としてあなたの権利について質問があれば、下記のソウル大学声明倫理委員会まで連絡してください。

ソウル大学声明倫理委員会(SNUIRB)
電話番号: 02-880-5153　メールアドレス: irb@snu.ac.kr

IRB No. 2203/001-012 유효기간: 2023년 03월 13일

同意書 (研究参加者保管用)

研究課題名 ： 日本人学習者を対象とする韓国語助詞の位階化の研究
研究責任者名 ： 荻野晋作(ソウル大学大学院国語教育科韓国語教育専攻博士課程)

1. 私は、本説明文を読み、担当研究員とこれについて話し合いました。
2. 私は、危険と利益に関する内容を聞き、私の質問に満足する回答を得ました。
3. 私は、本研究に参加するにあたり、自発的に同意します。
4. 私は、本研究で取得する私に関する情報を現行の法律と生命倫理委員会規定が許容する範囲内で研究者が収集し、処理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5. 私は、担当研究者や委任を受けた代理人が研究を行ったり、その結果を管理をする場合と法律が規定する国家機関及びソウル大学生命倫理委員会が実態調査を行う場合は、機密として維持される私自身の個人情報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6. 私は、いつでも本研究の参加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この決定が私に一切の不利益がないことを承知しています。
7. 私の署名は、本同意書を受け取ったことを意味し、私と同意を受けた研究員の署名が含まれた同意書を保管します。
8. 私は、本研究において録音が行われることに同意します。

同意する□ 同意しない□

研究参加者氏名	署名	日付(年/月/日)
同意を受けた研究員氏名	署名	日付(年/月/日)

Ver 1.1(2022.03.14.)

IRB No. 2203/001-012 유효기간: 2023년 03월 13일

同意書 (研究者保管用)

研究課題名 ： 日本人学習者を対象とする韓国語助詞の位階化の研究
研究責任者名 ： 荻野晋作(ソウル大学大学院国語教育科韓国語教育専攻博士課程)

1. 私は、本説明文を読み、担当研究員とこれについて話し合いました。
2. 私は、危険と利益に関する内容を聞き、私の質問に満足する回答を得ました。
3. 私は、本研究に参加するにあたり、自発的に同意します。
4. 私は、本研究で取得する私に関する情報を現行の法律と生命倫理委員会規定が許容する範囲内で研究者が収集し、処理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5. 私は、担当研究者や委任を受けた代理人が研究を行ったり、その結果を管理をする場合と法律が規定する国家機関及びソウル大学生命倫理委員会が実態調査を行う場合は、機密として維持される私自身の個人情報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6. 私は、いつでも本研究の参加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この決定が私に一切の不利益がないことを承知しています。
7. 私の署名は、本同意書を受け取ったことを意味し、私と同意を受けた研究員の署名が含まれた同意書を保管します。
8. 私は、本研究において録音が行われることに同意します。

同意する□ 同意しない□

研究参加者氏名	署名	日付(年/月/日)
同意を受けた研究員氏名	署名	日付(年/月/日)

Ver 1.1(2022.03.14.)

<Abstract>

A Study on Aspects of Postpositional Particle's use in Spoken Korean by Native Japanese Learners

OGINO, Shinsaku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aspects of postpositional particle's use in spoken Korean by native Japanese learners, to reveal each characteristic, and to provide base data necessary to rebuilding post position particles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in Japanese Korean education. This thesis is divided in five chapter, and each substance is as in the following.

Chapter I first argued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is thesis. The need for teaching and learning has been clarified in response to the lack of research related to the use of postpositional particle's use in spoken Korean and the demand for learning spoken Korean in Japan. The advanced researches were divided into three areas: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apan, postpositional particle's use by Japanese Korean learners(included errors analysis), and errors analysis of Korean learner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thesis, there

need three typpes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for the use of various postpositional particle other than case-marking postpositional particle, for the use of postpositional particle according to the learning levels, and practical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for the use of postpositional particle in spoken language. In this thesis, a total of 35 surveys that re-classified 26 beginner-level's postpositional particle according to meaning and function were set as the scope of the study, and a total of 56,664 phrases(initial 18,819 words, intermediate 18,684 words, advanced 19,161 words) were prepared through interviews with a total of 80 research participants.

Chapter II discussed to analyze the pattern of postpositional particle use in Korean spoken language. First,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Korean spoken language,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Korean spoken language, and the postpositional particle items and forms used in spoken language were examined, respectively. Next, in Section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ostpositional particle error were clarified.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error in spoken language, the error range was set until the automatic processing stage was reached beyond the controlled processing stage, and the types of predictable investigative errors were identified according to the effects of target words and mor. Finally, in Section 3,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postpositional particle education in Japan was analyzed through Korean textbooks published in Japan to reveal the reality of the postpositional particle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s and to lay the basis for errors due to the influence of the frequency of presentation in the textbooks. In addition, while there are large differences in the presentation or explanation of postpositional particle items for each textbook currently used in Japan, the explanation related to postpositional particle errors is richly described, but the

presentation of “이랑” or abbreviations and abbreviations mainly used in spoken language is not sufficient.

Chapter III analyzed the patterns of postpositional particle use in spoken language. First, Section 1 described in detail the method of collecting spoken language data and the nature of the collected spoken language data among the research subjects and methods described in Chapter I Section 3 before examining the usage pattern of the postpositional particle. In particular, the reason for choosing an interview as a method of collecting spoken materials, the subject and selection of questions used in the interview, the type of spoken language of the interview, and the characteristics of spoken materials (bidirectional formality general: private content). In Section 2, the pattern of postpositional particle use in spoken language was examined in terms of the number of uses and the ratio of use according to the type of postpositional particle and postpositional particle items. The number of use by postpositional particle type increases as the learning level increases, and the access postpositional particle shows a similar pattern regardless of the learning level, while the use rate is 65:30:5 regardless of the learning level. The number of uses according to the postpositional particle items was the highest among the case studies, with “이” among the case studies, “은” during the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nd “이나” during the access investigation.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the use of the subject case investigation “이” was only 35%, but it exceeded 70% when the objective case investigation “을” and the sub-fire investigation “에” were included. If “도” was included in “은” in the auxiliary postpositional particle, the proportion in use exceeded about 90%, and some of the postpositional particle items accounted for almost the majority of the investigation use. Subsequently, Section 3 examined

the usage patterns and usage characteristics of each postpositional particle item by meaning and function, focusing on postpositional particles with two or more meanings and functions. In all postpositional particle items, as the level of learning increased, various meanings and functions of the postpositional particle were used, while more than 90% of the objective postpositional particle "에서", descriptive postpositional particle "이다", sub-fire postpositional particle "만" were used only with the most basic meanings and functions of the postpositional particle regardless of the level of learning. Finally, in Section 4,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Korean learners' postpositional particle and use were examined. First, it is us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postpositional particle presentation in textbooks. In particular, the frequency of the postpositional particle presented in Korean textbooks published in Japan was largely related to the fact that beginner learners used "하고" rather than "이랑" and, "ㄴ" and "ㄹ", which is an abbreviation of "ㄴ" and "ㄹ".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at the reason why the number of use of descriptive classification "이다" or supplementary "이나" was very small was because there was not enough presentation of various uses of "이다" or presentation of supplementary "이나" itself. Second, it is a biased use between postpositional particles with similar meanings and functions. In particular, intermediate and advanced learners were well seen between the similar meanings and functions present in the sub-shooting postpositional particle "으로" and "에". It was revealed that "으로" is well used as the meaning and function of means and qualifications, while"에" is well used as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direction and cause of progress. Third, it is the use of research that cannot escape the language habits acquired from the mother language. In the

use of all or some meanings and functions of “이”, “을”, “만”, and “이나”, unique meanings and functions that do not exist in Japanese were not well used because they could not escape the habit of using the parent Japanese.

Chapter IV analyzed the patterns of postpositional particle errors in spoken language. First, in Section 1, before examining the usage pattern of the postpositional particle, we discussed how to extract errors from spoken data of 9,838 words including the use of the postpositional particle. In particular, the reliability of error judgment was increased by ask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experts to determine whether errors were judged for omissions that often appear in spoken languages. The size of error data prepared through this is a total of 528 words (238 beginner words, 150 intermediate words, and 140 advanced words). In Section 2, the postpositional particle error pattern in spoken language was examined in terms of the number of errors to the number of uses, the ratio within errors, and the error rate depending on the type of postpositional particle and the postpositional particle item. The ratio within errors by postpositional particle type showed that some postpositional particles accounted for a high proportion of the total postpositional particle errors in all postpositional particle types. In the case of the case study, the proportion of errors in the subject postpositional particle “이” was 50.14%, and four case studies accounted for more than 80% of the total case study errors, including the proportion of errors in the side shooting postpositional particle “에”, the purpose shooting postpositional particle “을” and the side shooting postpositional particle “에” In the auxiliary investigation, the ratio of errors in “은” was 76.27% and two auxiliary investigation errors along with “Do“ accounted for more than 90% of the total auxiliary investigation

errors. In the connection postpositional particle, the error ratio of "이나" was 91.11%, and two connection postpositional particles along with "이랑" accounted for 100% of the total connection postpositional particle errors. The error rates for each postpositional particle item were the highest at 8.25%, 4.57%, and 18.14%, respectively, in the subject postpositional particle "이", in the supplementary postpositional particle "은", and "이나" in the access postpositional particle. In addition, when comparing the error rates of the subjective postpositional particle "이" and the combined type "게", the objective postpositional particle "을" and the abbreviated "ㄹ", the complementary postpositional particle "은" and the abbreviated "ㄴ", the error rates of "게" and "ㄴ" were lower than "이" and "은". On the other hand, "ㄹ" was usually used in the form of "걸", but the error rate was very high compared to "을". Section 3 examines the meaning and function of each postpositional particle and the error pattern according to the non-grammar elements, that is, the form, replacement, omission, and addition, and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rror. Morphological errors were mainly shown well at the beginner level. In general, morphological errors appear in the form of heteromorphic errors, and errors were seen in both directions between them, while if the morphological "가" had a phonological similarity to the Japanese postpositional particle, "이" should be used, but the error of misusing "가" appeared in one direction. Replacement errors are errors that appear a lot at all learning levels. Mainly, errors caused by the influence of the more appeared at the beginner level, and errors caused by the influence of the target word appeared at the intermediate and advanced levels. In particular, there were many errors in the use of the subjective investigation "이", the objective investigation "을", and the sub-shooting investigation "ㄹ에, because

they did not consider the air relationship with the following words. Omitted errors were well shown at all learning levels as they analyzed postpositional particle error patterns in spoken language. In most cases, it was considered a natural omission due to the nature of spoken language, but it was often omitted at the back when it was necessary to use it twice in a row, especially in relation to "은" representing the meaning and function of contrast or "도" representing the same meaning and function. In addition, research participants speak in the highest formality, Hapsho, but contrary to formality, errors were often seen due to excessive omission of investigation. In Section 4,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learners' postpositional particle errors were clarified based on the discussion in Section 3. First, it is an error due to the simplification of grammar rules. The error was well shown in the form error of the connection postpositional particle "이나", the replacement error of "에" and "에서" representing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place, and the replacement error of "에" representing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ime. Second, it is an error caused by the negative transition of more habits. The error was well shown in the replacement error of the auxiliary investigation "은" and the replacement error of the access investigation "이나". The replacement error of the access postpositional particle "이나" is the first error revealed through this thesis. Third, it is an erro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poken language. The error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spoken language. One is the fallacy related to immediacy. The error was well seen in the omission error of "도" representing the meaning and function of contrast, just like "은" representing the meaning and function of Aureum.

keywords : Native Japanese Learners, postpositional particle's use in spoken Korean, postpositional particle's in spoken Korean, Error analysis of postpositional particle, Characteristics of postpositional particle's use, Characteristics of postpositional particle's error

Student Number : 2013-30800